조선로동당력사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선로동당력사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조선로동당력사》를 내면서

조선로동당의 력사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성과들을 종합정리하여 조선로동당의 정사, 《조선로동당력사》를 편찬출판한다.

《조선로동당력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로동계급의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자랑찬 로정이 체계화되여있으며 당의 건설과 혁명령도의 전과정이 집약되여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차 례

머 리 말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탄생을 세상에 선포한 때로부터 근 반세기, 항일혁명투쟁시기 그 력사적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60여년의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위력하고 존엄있는 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며 영광스러운 항일의 혁명전통을 이어받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해나가는 로동계급의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일심단결되여있는 강철의 대오이며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를 구성성분으로 하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가 되여있는 대중적당이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전투적참모부로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고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를 이어 확신성있게 전진해나가는 전도양양한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온갖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당의 통일단결,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면서 민족해방투쟁으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단계의 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여왔다. 그리고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왔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이바지하여왔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주체사상의 발생발전과 그 구현과정, 주체의 혁명적당 발전의 합법칙적과정,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을 위한 혁명과 건설의 전반적과정과 그 과정에서 이룩된 불멸의 혁명업적, 풍부한 투쟁경험을 담고있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혁명하는 사람들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에게 혁명승리의 끝바른 길을 밝혀주는 귀중한 혁명의 교과서이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를 깊이 학습함으로써 참다운 혁명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믿음직하게 준비될수 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주체의 혁명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제 1 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혁명위업 개척. 새형의 혁명적당 창건방침의 확립
(1926—1931.12)

제 1 절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운동의 발생.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제한성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운동은 로동계급이 투쟁무대에 적극 나서고있던 1920년대초에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우리 나라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발전의 합법칙적인 요구로, 당시 매우 첨예화되고있던 사회계급적모순의 필연적산물로 발생하였다.

19세기말～20세기초 세계자본주의는 제국주의단계에로 넘어갔으며 제국주의의 식민지체계는 지구상의 넓은 지역을 포괄하게 되였다. 아세아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식민지로 되였으며 수억만 인민대중이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받게 되였다. 이에 따라 이 나라들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격화되고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이 강화되였다. 아세아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피압박인민들의 치렬한 투쟁전선으로 되였으며 조선인민의 투쟁은 이 전선의 중요한 고리를 이루었다.

뒤늦게까지 봉건국가로 남아있던 우리 나라는 19세기 후반기부터 구미자본주의나라들과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

외래침략세력에 대한 태도에서 인민대중과 봉건지배층은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인민대중은 외래침략세력을 반대하여 시종일

관 비타협적으로 투쟁한 반면에 부패무능한 봉건지배층은 외래침략세력에 굴복하는데로 나아갔으며 인민대중의 반침략투쟁을 억압하기까지 하였다. 봉건지배층의 매국배족행위에 의하여 1910년에 우리 나라는 일제의 완전한 독점적식민지로 되고말았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굴함없이 반일투쟁을 계속 벌리면서 조국의 광복과 민족재생의 길을 열렬히 모색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의 암담한 사회경제적형편과 심각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 해방의 길을 찾는 인민대중의 강력한 혁명적지향은 우리 나라에서 반제혁명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이 힘있게 벌어질수 있는 중요조건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독점적식민지였던 조선은 세계에서 류례가 드문 야만적학정과 략탈로 말미암아 극도의 정치적무권리와 경제적파산과 문화적암흑상태에 처하여있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권, 261~262폐지)

일제강점자들은 조선에서 《총독부》를 설치하고 모든 정치적권력을 독차지하였으며 가장 포악한 공포정책을 실시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의 극히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모조리 빼앗았으며 우리 나라를 저들의 군대와 헌병, 경찰과 감옥으로 뒤덮인 인간생지옥으로 만들었다.

일제강점자들은 무제한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강도적략탈정책을 실시하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 경제의 명맥을 틀어쥐고 그것을 일본경제의 부속물로 만들었다. 전체 공업의 90%이상이 일제의 손아귀에 들어갔으며 생산되는 제품들은 주로 일본공업을 위한 원료 및 반제품들이였다. 생산력의 지리적배치도 일제의 식민지략탈과 군사적목적에 전적으로 복종되였다. 1910년에 공포한 《회사령》을 비롯하여 일제가 실시한 민족공업에 대한 여러가지 억압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 민족자본의 장성은 극도로 억제당하였으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수공업마저 여지없이 파산되였다.

일제는 농촌에서 토지와 농산물을 마구 략탈하는 횡포한 정책

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수탈에 편리하도록 봉건적토지소유관계와 소작제를 남겨두고 이에 자본주의적착취를 결합시켰다. 놈들은 1910년대에 실시한 이른바 《토지조사사업》과 그밖의 여러가지 강압적방법을 적용하여 많은 토지를 략탈하고 해마다 우리 나라 벼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빼앗아갔다.

일제강점자들은 야만적인 우민화정책과 민족문화말살정책을 실시하였다.

일제는 우리 인민의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저들의 식민지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민족교육을 혹독하게 억제하고 우수한 민족문화와 미풍량속을 여지없이 짓밟았으며 우리의 말과 글까지도 없애버리려고 날뛰였다.

일제의 강점으로 하여 조선사회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심히 억제되고 봉건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식민지반봉건사회로 전락되였으며 이에 따라 민족적 및 계급적 대립관계가 복잡하게 엉키여지게 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인민의 가장 흉악한 민족적원쑤인 동시에 계급적원쑤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모든 불행을 들씌우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본인이였다.

일제는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리용할 목적으로 지주를 보호하고 예속자본가와 친일관료배들을 길러냈다.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관료배들은 일제와 결탁하여 조선인민을 억압착취하는 반동세력으로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원쑤인 동시에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조선인민의 민족적원쑤였다.

일제와 그 앞잡이들의 압박과 착취를 가장 혹심하게 받은 계급은 로동계급과 근로농민이였다.

로동계급은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2중3중의 착취와 압박을 받았다.

그들은 매일 12～18시간까지의 로동을 강요당한 반면에 일본인로동자들의 절반 또는 3분의 1도 못되는 기아임금을 받았다. 로동강도는 말할수 없이 높았으며 로동자들의 일거일동은 그 어느때나 엄격한 감시속에 있었다. 로동보호시설이란 거의 없었다. 이러한

나쁜 조건에서조차 일할 자리가 제대로 차례지지 못하였으며 실업자는 날을 따라 늘어만 갔다.

당시 우리 나라 로동자들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하였고 인격적으로 참을수 없는 천대와 모욕을 받았다. 그들은 초보적인 인권마저 짓밟히고 생존을 위한 투쟁의 권리조차 법적으로 금지당하였다.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이러한 비참한 처지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착취제도에 대한 그들의 강한 반항심을 불러일으켰다. 로동계급은 처음부터 반일투쟁에 용감히 나섰으며 점차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등장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던 농민들의 처지도 비참하였다.

일제침략자들과 지주들의 가혹한 식민지적,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착취로 말미암아 조선농민들은 여지없이 파산몰락되였다. 농민들은 수확의 절반이상, 지어는 90%에 이르는 소작료와 가렴잡세 및 고리대적착취로 인하여 항시적인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농민들이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땅을 등지고 도시와 해외로 류랑의 길을 떠났다.

농민들은 점차 일제와 지주를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에 떨쳐나섰다.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은 일제침략자들에게 배움의 권리와 과학문화활동의 자유를 빼앗기고 심한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그들은 강한 반제혁명의식을 가지고있었으며 반일민족해방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민족자본가들도 일제침략자들과 예속자본가들에게 억압당하였으며 늘 파산의 위협을 면치 못하였다. 그렇기때문에 그들도 불철저하게나마 반제의식을 가지고있었으며 민족적독립을 념원하였다.

이렇듯 극소수의 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친일관료배들을 내놓고서는 모든 계급, 계층들이 일제를 반대하는 립장에 서있었다. 그가운데서도 반일투쟁의 결정적력량을 이룬것은 로동계급을 선두로 하는 피착취근로대중이였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에서 반일민족해방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며 공산주의운동이 빨리 발전할수 있는 사회계급적지반을 이루었다.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은 한동안 민족주의의 영향밑에 진행되였다. 그러나 부르죠아민족주의는 그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인민의 절실한 요구와 혁명적지향을 제대로 반영할수 없었으며 대중의 혁명적잠재력을 충분히 발동시킬수 없었다.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그 발전행정에서 새로운 혁명적기치를 요구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로씨야에서 사회주의10월혁명이 일어났으며 그 영향밑에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에서 공산주의운동은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밑에 1920년대초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525페지)

1919년 3월 1일 우리 나라에서 전인민적인 반일봉기가 일어났다.

온 나라에서 치렬하게 벌어진 3.1인민봉기는 조선인민의 애국적투지와 혁명적기개를 시위하고 일제강점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이와 함께 3.1인민봉기는 부르죠아민족주의운동의 제한성과 약점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일제에게 청원하는 방법으로 또는 다른 제국주의렬강의 《도움》으로 독립을 달성할것을 바라던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의 상층부는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이 피의 항쟁에 일떠서자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을뿐아니라 일제에게 투항하고 대중의 혁명적진출을 막으려고까지 하였다.

3.1인민봉기의 실패는 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으며 부르죠아민족주의에 의하여서는 민족적해방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3.1인민봉기후 민족주의세력안에서는 심한 분해작용이 일어났

다. 민족주의세력상층부의 대부분은 일제에 순종하는 민족개량주의로 굴러떨어졌으며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국내외에 흩어져서 독립운동을 계속하였으나 그 력량은 점점 약화되여갔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로동계급이 점차 투쟁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여러곳에 맑스-레닌주의소조들이 조직되여 활동하게 되였다.

소조들은 독서회, 연구회, 그밖에 여러가지 형태로 조직되였다. 소규모적인 비밀소조들이 각 지방에서 활동하였으며 합법적간판을 들고 나온 《사상단체》들도 있었다.

소조들은 맑스-레닌주의를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공산당선언》,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서의 제국주의》를 비롯한 맑스-레닌주의고전들과 그리고 맑스-레닌주의해설서들이 전파되였다. 합법적출판물들인 《신생활》, 《조선지광》 등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사상들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로동자, 농민, 청년들의 대중단체들도 조직되여 활동하였다. 1920년 4월에 서울에서 우리 나라 최초의 대중적로동단체인 《조선로동공제회》가 조직되였으며 그후 로동자, 농민, 청년들의 각종 대중단체들이 나왔다.

로동자들의 파업투쟁과 농민들의 집단적소작쟁의를 비롯한 대중적투쟁도 빨리 확대되였다.

1921년 9월의 부산부두로동자들의 총파업, 1923년 8월 평양의 여러 양말공장 로동자들의 동맹파업을 비롯하여 비교적 규모가 큰 파업투쟁들만 하여도 1920년—1925년에 330여건이 일어났고 여기에 약 2만 7,000명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농민들의 대중적소작쟁의는 약 570건이 일어나고 이에 근 3만명이 참가하였다. 학생들의 동맹휴학과 독서회 사건들도 련이어 일어났다.

1925년 4월에는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였다. 조선공산당의 창건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그러나 이 당은 옳은 궤도우에서 강화발전하지 못하였으며 대중에 대한 혁명적지도를 정확히 보장하지 못하였다.

우리 나라의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심중한 결함과 약점, 많은 제

한 성들을 가지고있었으며 이로 하여 실패를 거듭하고 우여곡절을 겪게 되였다.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모든 심중한 약점과 제한성들은 주로 종파분자들의 해독적책동과 관련되여있었다.

당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대렬은 주로 맑스-레닌주의가 전파되고 로동운동이 급속히 앙양되는 시대적추세에 따라 공산주의운동에 나선 행세식맑스주의자들, 소부르조아인테리들로 이루어져있었으며 그들은 사상리론수준이 낮았고 로동계급적립장에 확고히 서있지 못하였다.

이들에 의하여 공산주의운동에서 종파주의가 심하게 나타났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결함과 약점들이 산생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의 모든 쓰라린 실패와 희생은 그 어느 하나도 종파주의자들의 죄행과 관련되지 않은것이 없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87페지)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심중한 약점과 제한성은 우선 공산주의대렬이 통일되지 못하고 종파주의에 의하여 산산이 분렬된데 있었다.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은 화요파, 서울파, 상해파, 북풍회파, 엠엘파, 서상파와 같은 여러 파로 갈라져 서로 대립되여 《령도권》쟁탈을 위한 파벌싸움만을 벌렸다. 이 종파들은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종파분자들의 가장 큰 죄행은 일단 조직되였던 공산당을 분렬파괴한데 있었다.

원래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창건될 때 종파적대립이 극복된 기초우에서가 아니라 서울파를 제껴놓고 화요파를 중심으로 북풍회파, 상해파들사이의 일시적흥정이 성립되여 형식적인 결합이 이루어졌던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곧 파쟁이 다시 격화되였다. 당에 망라된 파벌들과 당밖에 남아있던 서울파와의 대립이 첨예화된 동시에 당내에서도 화요파, 북풍회파, 상해파 사이의 대립과 파쟁이 그칠새가 없었다. 파쟁은 1926년에 서울파의 일부와 다른 군소파벌들이 결탁되여 엠엘파가 생기고 1927년말에 서울파의 일부와 상해파

의 일부가 종파적으로 결탁된 서상파가 형성됨에 따라 더욱 심해졌다. 이와 같이 하여 당시 공산당은 한시도 자기 대렬의 통일을 이룰수 없었다.

일제는 종파분자들의 파벌싸움과 분렬책동을 리용하여 공산당을 쉽게 파괴할수 있었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공산당검거사건들을 일으켰다.

한편으로는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고 다른편으로는 종파분자들의 파벌싸움, 분렬책동이 날로 우심해지는 조건에서 조선공산당은 조직된 력량으로 더는 존재할수 없게 되였으며 결국 1928년에 해산되고말았다. 당이 해산된 다음에도 당재건문제를 둘러싸고 파쟁이 계속 격화되였다.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심중한 약점과 제한성은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대중단체들과 대중운동에 대한 지도를 바로하지 못한데 있었다.

공산당은 로동자, 농민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결과 공장, 기업소와 농촌들에 세포를 가지고있지 못한 상층조직으로 남아있었으며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맺지 못하였다.

종파분자들은 각각 로동단체, 농민단체, 청년단체들을 자기 파의 영향밑에 넣기 위한 싸움을 벌리였다. 그 결과 대중단체내부에서 또는 대중단체들 호상간에 심한 대립이 조성되게 되였으며 대중단체들이 제대로 강화발전될수 없었다. 1927년초에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일시적련합으로 《신간회》가 나왔으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대립, 종파분자들의 파쟁, 특히 민족개량주의의 침식으로 말미암아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해산되고말았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대중투쟁에 대한 태도에서도 종파적립장이 앞에 나섰다. 그리하여 어떤 종파는 투쟁을 조직하고 다른 종파는 그것을 방해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났다. 1926년에 일어난 6.10만세시위투쟁에서도 화요파는 저들의 종파적견지에서 독선적으로 조직사업을 하고 서울파는 이에 대립하여 방해공작을 하였기때문에 청년학생들과 인민대중은 용감히 나섰으나 그 투쟁이 제대로

전개될수 없었으며 서울의 일부 거리들에서 국부적인 투쟁으로 일어났다가 끝 일제에게 진압당하고말았다.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심중한 약점과 제한성은 또한 종파분자들에 의하여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조장된데 있었다.

원래 공산주의자는 자기의 신념에 따라 공산주의운동을 벌리며 자기 나라 근로대중에 의거하여 그 운동을 발전시켜나가는 견결한 혁명가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은 혹심한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어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려고만 하였다. 종파분자들은 자기 파만 《정통파》라고 내세우고 다른 파들을 배척하면서 저마다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러 다니는 추태를 부렸으며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구체적현실을 떠나서 기성견해와 남의 경험만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였다.

종파분자들의 이러한 해독적책동으로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옳은 발전의 길을 걷지 못하고 심한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게 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공산주의의 간판을 든 행세군들, 종파분자들에 의하여 롱락되게 되고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였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종파주의의 해독성이 어떠한 지경에까지 이르는가, 공산주의대렬이 통일되지 못하고 대중속에 들어가지 못하며 자주적립장을 지키지 못할 때 혁명에서 어떠한 후과가 빚어지는가 하는것을 매우 심각한 교훈으로 남기였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이 종파분자들의 롱락물로 되고 혼란상태에 빠지게 된것은 결국 혁명을 옳바로 이끌어나갈 탁월한 령도자가 없었기때문이였다. 오직 탁월한 령도자, 혁명의 위대한 수령만이 옳은 지도사상을 내놓고 공산주의대렬을 통일시킬수 있었으며 혼란된 사태를 수습하고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확고한 자주적립장에서 옳은 궤도우에 올려세울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의 출현, 바로 이것이 조선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발전의 가장 절박한 요구였으며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절절한

념원이였다.

제 2 절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과 새세대 공산주의자들의 육성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심에 따라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12년 4월 15일 평양시 만경대(당시의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에서 탄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정은 증조할아버님으로부터 할아버님, 할머님, 아버님, 어머님, 삼촌, 동생 그리고 외할아버님과 외삼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외래침략세력을 반대하며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몸바쳐 싸운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 싸우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였으며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혁명활동의 첫 시기부터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독립을 성취하여야 한다는 민족자주의 립장에 튼튼히 서시여 모든 반일세력, 애국력량을 단합시키기 위하여 활동하시였으며 권세자들의 착취와 억압을 견결히 반대하시면서 무산대중이 혁명투쟁에 나서도록 하기 위하여 힘쓰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고 지도하시였다. 특히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10월혁명을 계기로 공산주의사상을 연구하시였으며 민족주의영향밑에 진행되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을 전환시키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께서는 한평생을 조선

혁명의 승리와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였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다. 녀사께서는 모진 가난과 일제경찰의 끊임없는 박해속에서도 있는 힘과 정성을 다하여 김형직선생님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헌신적으로 도우시였다.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녀사께서는 자제분들을 탁월한 혁명가로 키우시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모님으로부터 확고한 자주정신과 열렬한 애국주의사상, 선진적인 혁명사상과 강의한 혁명적투지를 이어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식민지조선의 근로인민대중이 당하는 피눈물나는 민족적, 계급적 억압과 착취를 몸소 체험하시는 과정에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시였으며 사회정치활동의 무대에 나서시는 첫 시기부터 새로운 공산주의운동의 길을 걷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은 1926년 여름 화전현에 있는 화성의숙에 입학하시면서부터 시작되였다. 화성의숙은 민족주의자들이 독립군간부들을 키워낼 목적으로 세운 정치군사학교였다. 당시 화성의숙에는 남만과 국내의 여러곳에서 반일운동에 뜻을 두고 이곳으로 찾아온 진보적청년들이 많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화성의숙에서의 낡아빠진 민족주의적교육내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대하시면서 공산주의서적들을 깊이 연구하시였다. 그리고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리들을 우리나라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주적으로 혁명운동을 벌려나가야만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수 있다는 확고한 립장을 세우시고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성의숙안의 선진적인 청년학생들에게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을 해설선전하시고 그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육성하신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로써 1926년 10월 17일 화전에서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

《ㅌ. ㄷ》)을 결성하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조직이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자기 강령에서 당면과업으로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할것을 내세웠으며 최종목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할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동맹원들이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보급하며 광범한 군중속에 조직을 빨리 늘여나갈데 대한 과업을 내세웠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새형의 혁명적당건설의 출발점으로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ㅌ. ㄷ〉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다.》

《〈ㅌ. ㄷ〉의 결성은 우리 나라에서 종전의 당과 구별되는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으로 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2~3페지)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조와 결별하고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전진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정확한 투쟁목표와 전략전술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으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ㅌ. ㄷ》의 강령은 우리 당의 강령의 기초로 되였고 《ㅌ. ㄷ》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의 기본원칙으로 되였으며 《ㅌ. ㄷ》가 키워내기 시작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당창건의 골간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후 그것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동맹원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동맹조직을 튼튼히 꾸리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그리고 최창걸, 김원우, 계영춘, 백신한, 리제우, 강병선을 비롯한 타도제국주의동맹원들을 여러 지역에 파견하시였다. 그리하여 타도제국주의동맹은 날을 따라 그 대오를 늘이고 활동범위를 넓혀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활동을 확대강화하며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을 줄기차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원대한 구상밑에 당시 조선사람들의 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의 중심지의 하나였던 길림으로 혁명활동무대를 옮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림에 가시기에 앞서 무송에 들리시여 1926년 12월 15일에 우리 나라에서의 첫 공산주의적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무으시였으며 12월 26일에는 강반석어머님의 혁명활동을 도우시여 우리 나라의 첫 혁명적녀성대중조직인 반일부녀회를 결성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27년 1월부터 길림육문중학교에 적을 두시고 적극적인 혁명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ㅌ. ㄷ〉의 성원들을 발동하시여 길림시의 여러 학교들에 비밀독서조들을 조직하시고 선진적혁명사상을 보급하는 사업을 벌리시였다. 이와 함께 새로 자라나는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청년학생들을 〈ㅌ. ㄷ〉를 비롯한 각종 혁명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힘쓰시였다.

〈ㅌ. ㄷ〉조직은 급속히 확대되여 시안의 여러 학교들과 중부만주의 여러 지역에 뿌리박게 되였다. 그리고 1927년 4월 합법적조직인 조선인길림소년회가 결성되고 이해 5월에는 민족주의자들의 영향밑에 있던 조선인류학생들의 친목단체였던 조선인려길학우회가 혁명적학생대중조직인 조선인류길학우회로 개편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시여 1927년 8월에 길림에서 〈ㅌ. ㄷ〉를 대중적비합법조직인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시였다. 반제청년동맹은 〈ㅌ. ㄷ〉의 강령을 그대로 동맹의

강령으로 내세웠다.

혁명조직들에 빨리 확대되고 혁명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기 시작한 새로운 환경은 모든 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전위적인 조직을 내올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이러한 요구를 통찰하시고 1927년 8월 28일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로써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결성은 《ㅌ. ㄷ》로부터 시작된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투쟁을 더욱 전진시키며 청년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단순한 청년조직이 아니였다. 그것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 새 세대들이 등장하고있던 당시의 조건에서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해나갈 사명을 지니고 광범한 반일대중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비합법적혁명전위조직이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 결성됨으로써 당조직이 없었던 당시의 조건에서도 혁명조직전반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고 새 세대 공산주의대오를 육성하며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분렬책동을 극복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공청이 결성된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전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1927년 12월에는 무송에서 대중적인 반일청년조직인 백산청년동맹이 조직되였으며 1928년 3월에는 신안툰에서 혁명적농민조직인 농민동맹이, 1928년 8월에는 길림에서 혁명적인 로동자조직인 반일로동조합이 결성되였다.

혁명조직들은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면서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였다. 여러곳에서 야학들이 조직운영되였으며 혁명적출판물들도 수많이 발간되고 보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28년 1월 무송에서 창간하신 신문 《새날》은 청소년들과 근로대중을 교양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문예활동을 통한 대중교양사업도 다양하게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청년들, 광범한 근로대중 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시는 한편 그들을 일제와 반동군벌을 반대하는 실천투쟁에로 조직동원하시였다.

이 시기 대중투쟁은 낮은 형태의 투쟁, 작은 규모의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높은 형태의 투쟁, 대규모적투쟁에로 발전시키며 청년학생들과 군중을 실천투쟁속에서 끊임없이 각성시키고 단련시키면서 투쟁의 혁명성과 계급성, 조직성을 강화해나가는 방향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28년 여름 일제와 결탁한 반동군벌당국과 반동교원들의 탄압책동을 반대하는 육문중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투쟁을 승리에로 조직지도하시였으며 1928년 10월—11월에는 일제의 침략적인 길회선철도부설책동을 반대하며 일본상품을 배척하는 보다 큰 투쟁에로 길림시와 그밖의 여러 도시의 청년학생들,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시였다. 그리고 1929년에는 일제의 부추김밑에 반쏘적인 《중동철도사건》을 일으킨 중국반동군벌을 반대하며 사회주의쏘련을 옹호하는 투쟁에로 청년학생들과 군중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실천투쟁속에서 청년학생들과 군중이 혁명적으로 빨리 각성되여갔으며 그들은 조직적으로 굳게 단결하여 싸울 때 혁명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이 투쟁들을 통하여 공산주의핵심들, 새 세대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 믿음직하게 자라났으며 사상의지적으로, 실천적으로 더욱 단련되여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길, 자주적길을 개척하시는 과정은 곧 새 세대의 공산주의대오를 육성해나가시는 과정인 동시에 민족개량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를 극복하고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단합시켜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닦아나가시는 과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활동의 초기부터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과의 원칙적인 투쟁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28년 여름 종파분자들이 청년운동의 《령도권》을 쥐기 위해 《주중청총》을 결성하려고 하였을 때 반제청년

동맹원인 《려신청년회》일군들을 파견하시여 그들의 책동을 파탄시키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1929년 가을에는 민족주의자들이 청년운동을 분렬시킬 목적으로 조작한 《남만청총》대회에 백산청년동맹대표의 자격으로 몸소 참가하시여 《국민부》우두머리들의 죄행을 폭로하시고 그 영향밑에 있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림에 모여든 엠엘파, 화요파, 서상파 등 각종 종파계렬의 이른바 《지도적》인물들을 몸소 만나시여 그들의 파쟁행위에 심대한 타격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서는 고루한 민족주의와 종파주의가 점차 극복되게 되고 반일력량의 통일과 단결이 이룩되여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눈부신 혁명활동에 대한 소식은 순식간에 널리 퍼지여 투쟁의 참다운 길을 모색하던 뜻있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의 이목이 수령님께로 쏠리게 되였다. 그리하여 국내외의 도처에서 혁명적청년들과 애국자들이 길림에 모여들었으며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돌아가 각지에서 활동하게 되였다.

우리 혁명의 려명기인 이 력사적시기에 차광수, 김혁, 최창걸을 비롯한 조선청년공산주의자들과 혁명조직성원들은 실지투쟁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의 사상리론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인품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을 조국과 민족을 구원해주실 진정한 령도자로, 전민족의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으로, 조선혁명의 승리를 가져다주실 참다운 향도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게 되였다.

혁명의 탁월한 지도자를 맞이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조선인민을 캄캄한 어둠속에서 해방의 새벽길로 이끄는 새별이 되여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수령님의 존함을 한별동지 또는 한일자와 별성자를 써서 김일성(金一星)동지로 부르게 되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조선혁명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던 격동적인 나날에 온 민족의 념원을 담아 수령님의 존함을 민

족의 태양이 되여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날일자와 이룰성자로 된 김일성(金日成)동지로 모셔 불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민족수난의 시기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혁명의 새 길, 주체혁명위업의 초행길을 성과적으로 개척하여나갔다.

이 과정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새 세대의 공산주의대렬이 급속히 확대강화되여 점차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주도적력량으로 나서게 되였다.

제 3 절
혁명의 지도사상, 주체사상 창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정확한 지도사상을 확립하는것이 절실히 요구되였다.

정확한 지도사상에 기초하여서만 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을 옳게 세울수 있으며 인민대중을 그 어떤 편향도 없이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혁명의 지도사상이 참다운 생활력을 나타내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고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이 일찍부터 시작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그것이 옳은 방향에서 발전하지 못한것은 정확한 지도사상과 전략전술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던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었다.

조선혁명의 정확한 지도사상을 확립할데 대한 력사적과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던 시기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투쟁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

어나고있었다. 세계무대에서는 처음으로 승리한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의 해방투쟁이 급격히 앙양되였다. 특히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방나라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이 급속히 확대되여갔다. 이와 같이 하여 혁명운동이 세계적범위에서 폭넓고 다양하게 발전하는 새 시대가 다가왔다.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매개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혁명운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발전의 특수성과 혁명의 복잡성, 간고성으로 하여 이 문제가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되였으며 인민들자신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의 앞길을 개척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주체사상은 바로 이러한 실천적요구에 기초하여 창시되였다.

주체사상은 기성의 혁명리론들에 대한 창조적인 연구와 독자적인 혁명실천경험에 기초하여 특히 고루한 민족주의자들 및 행세식맑스주의자들과의 날카로운 사상투쟁속에서 창시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조선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내에서 파벌투쟁이 심하고 또 상층부의 사람들이 인민대중과 리탈되여있었던 이 두가지 현상을 보고 혁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자극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것 또 자기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여야 하며 자기자신이 투쟁을 잘하면 남에게서 승인을 받고 안받는것이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였습니다.

우에서 말한 두가지 측면이 나의 혁명사상발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며 따라서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야 한다는것, 누가 승인을 하든말든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추진시켜나간다면 다른 나라들로부터 자연히 동정도 받고 인정도 받고 도움도 받을수 있다는것을 강조하게 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체사상의 출발점이라

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7권, 423~424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민족주의자들과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가장 심중한 두가지의 본질적결함을 예리하게 꿰뚫어보시였다.

그 하나는 공산주의운동, 민족해방투쟁을 한다고 하는 그들이 대중을 떠나 상층부의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앉아 말공부만 하고 실지 혁명운동에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에는 힘을 쓰지 않고있는것이였다. 그들은 대중과 리탈하여 저들끼리 권력다툼을 벌리며 실지 혁명투쟁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궤변들을 가지고 《리론》싸움만 하였다.

민족주의운동상층부의 일부 사람들은 일제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할데 대하여 강조할 대신 《교육과 산업의 진흥에 의한 국력배양운동》이 《독립목적달성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였으며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사회계급관계는 보지 않고 개별적인 기존명제들에만 매여달려 프로레타리아혁명을 해야 한다느니, 부르죠아혁명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공리공담만을 늘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루한 민족주의자들 및 행세식맑스주의자들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통하여 또는 청년학생들속에서의 연구토론, 강연 그리고 출판물발간사업을 통하여 이러한 현상들을 날날이 폭로비판하시였으며 상층부의 몇몇 사람들이 인민대중과 떨어져서 빈말공부만 일삼는것으로써는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을 실질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없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이와 함께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일떠서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은 인민대중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였으며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투쟁을 벌리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며 따라서 혁명을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한다는 혁명의 원리를 밝히시고 실천에 구현해나가시였다. 바로 이것이 주체사상의 출발점의 하나로 되였다.

민족주의자들과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다른 하나의

근본결함은 파벌싸움과 사대주의경향이 매우 심한것이였다.

당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안에는 파쟁과 사대주의가 심하게 나타나 혁명의 앞길을 가로막고있었다. 지난날 나라를 망하게 한 사대주의와 파벌싸움의 악습을 답습한 민족주의자들과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여 독립을 이룩해보려고 망상하였다. 당시 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하던 사람들은 제가끔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국제당에 승인을 받으려 다녔으며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구체적현실을 떠나서 기성리론과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심하게 작용하다나니 혁명의 앞길을 제대로 열어나갈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후과로부터 심각한 교훈을 찾으시고 민족주의자들,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의 파벌싸움과 사대주의경향을 엄하게 비판하시면서 외세에 의존하며 남의 승인이나 받으려는 행동은 조선민족의 수치라고 신랄히 규탄하시였다. 그리고 혁명운동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하는것이라는것, 자기의 문제는 자신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또 자기가 투쟁을 잘하게 되면 남들도 자연히 인정하게 된다는것을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추진시켜나가야 한다는 혁명의 원리를 새롭게 밝히시였으며 이것이 주체사상의 다른 하나의 출발점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의 실천에 적용하는데 머무르지 않으시고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혁명리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는 행정에서 새 시대와 조선혁명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새로운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다시말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

계 있다는 사상이다.

주체사상의 창시는 참으로 조선혁명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위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옳바른 지도사상이 없이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던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제한성과 약점이 전면적으로 극복되게 되였으며 주체사상에 의하여 향도되는 조선혁명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였다.

주체사상이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줌으로써 조선혁명은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간고한 투쟁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헤쳐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남들이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혁명의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주체사상의 창시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 발전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사변이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세계의 수억만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힘차게 벌릴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받아안게 되였다.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인류력사에는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혁명의 새 시대, 주체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제 4 절
카륜회의,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 제시. 자주적인 당창건방침

1920년대말—1930년대초 조성된 내외정세는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과학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이 시기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적인 공황기에 처하여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를 겪게 되였으며 이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 정책을 강화하였다.

일제는 만주에 대한 침공을 공개적으로 준비하였다. 전쟁준비에 피눈이 된 일제는 《후방의 안전》을 위하여 조선인민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조선인민의 처지는 점점 더 어렵게 되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인민대중의 반항심은 날로 높아졌으며 그들은 보다 적극적인 투쟁에 나섰다. 1929년 1월부터 장기적으로 전개된 원산부두로동자들의 총파업과 1930년 5월 신흥탄광 로동자들의 파업과 폭동, 1929년 룡천군 불이농장 농민들의 투쟁과 1930년 단천농민들의 투쟁 그리고 1929년 11월부터 반년이상 계속된 광주의 학생들과 전국각지 학생들의 동맹휴학 및 시위투쟁을 비롯하여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도처에서 세차게 벌어졌으며 이 투쟁들은 대중적폭력투쟁의 형태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한편으로는 일제의 탄압이 극심해지고 다른편으로는 이에 항거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이 격렬해지고있던 첨예한 시기에 말로만 혁명을 떠들던 《공산주의자》들과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일제에게 투항하여 혁명의 배신자로, 추악한 시정배로 굴러떨어졌다. 그런가 하면 일부 종파분자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야욕과 종파적목적에서 출발하여 인민들을 무모한 폭동에로 내몰아 헛된 피를 흘리게 하고있었다.

1930년에 동만에서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이 좌경적모험주의로선에 맹종맹동하여 무모한 5.30폭동을 일으켜 수많은 혁명조직들이 파괴당하게 하였으며 혁명앞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있었다.

조성된 정세는 조선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적극화된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에 의거하여 혁명을 새로운 발전에로 이끄는가 그렇지 않으면 일제의 반동공세에 못이겨 혁명을 침체에 빠뜨리는가 하는 기로에 놓이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발전의 길로 이끌기 위한 혁명적진로를 밝히시기에 힘쓰시였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시면서 험난한 혁명의 길을 헤쳐나가고계시였으며 1929년 가을에는 반동경찰에 체포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림감옥에서 옥중생활을 하시면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으시였으며 옥중의 동지들과 길림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의 혁명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계속하시는 한편 조선혁명을 힘차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노력을 기울이시였다.

1930년 5월초에 출옥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체없이 혁명활동을 더욱 정력적으로 벌려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 6월 30일—7월 2일에 걸쳐 카륜에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회의에는 중부 및 남부 만주와 길동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서 온 많은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으며 여기에서 조선혁명이 나아갈 옳바른 길을 밝힌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혁명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태도를 밝히시면서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혁명투쟁을 자신의 힘으로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진행하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태도를 가져야만 옳은 로선과 방침을 세울수 있고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을 성과적으로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면한 조선혁명의 성격과 기본임무에 대하여 명확히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독립을 달성하는것과 함께 봉건적제관계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조선혁명의 기본임무로부터 출발하여 현단계에서의 조선혁명의 성격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7～8페지)

당시 조선사회는 일제의 강점하에 있는 식민지반봉건사회였다.

이로부터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의 독립을 달성하며 봉건적제관계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것이 조선혁명의 기본임무로 나섰으며 조선혁명의 성격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래의 부르죠아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개념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혁명의 성격을 독창적으로 밝히시면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정식화하시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부르죠아제도를 수립하는 부르죠아혁명이나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는 사회주의혁명과 구별되는 자체의 독특한 내용을 가진 혁명, 다시말하여 인민적인 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새형의 민주주의혁명이였다.

이 혁명에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과 량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들까지 포함한 광범한 반제력량이 참가할수 있으며 혁명의 대상은 일본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를 타도한후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인민의 정권을 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며 계속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여야 하며 나아가서 세계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전술적문제들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내놓으시였다.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데서는 여러가지 투쟁 형태와 방법이 적용되여야 하였으며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주되는 투쟁형태를 확정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무장투쟁만이 강도 일제침략세력을 타승할수 있는 주되는 투쟁형태로 될수 있다는것을 천명하시였다.

일반적으로 무장한 반혁명은 무장한 혁명으로만 때려부실수 있다. 발톱까지 무장한 침략세력이나 반동계급은 스스로 물러서지 않

는다. 바로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의 력사적경험은 민족적독립을 결코 남이 가져다줄수 없으며 평화적방법으로는 절대로 일제를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달성할수 없다는것을 잘 보여주었다.

특히 1920년대말～1930년대초에 이르러 일제의 폭압이 전례없이 강화된 반면에 이에 항거하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폭력적투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던 정세하에서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유일한 길은 대중의 폭력적진출을 조직화하여 무장투쟁으로 넘어가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하여서는 그 준비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당면하게는 청년공산주의자들로써 혁명적무장조직인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벌릴수 있는 여러가지 경험들을 축적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내놓으시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은 모든 반일력량을 최대한으로 묶어세우기 위한 력량편성의 전략적로선이였다.

혁명은 원래 인민대중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인것만큼 광범한 인민들이 참가하지 않고서는 승리할수 없다. 더우기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타승하려면 극소수의 친일반동세력을 내놓고는 전민족을 하나로 묶어세우는것이 절실히 요구되였으며 이로부터 반일민족통일전선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 농민은 물론 량심적인 민족자본가, 종교인에 이르기까지 반일적인 사상을 가진 모든 세력을 반일의 기치밑에 굳게 결속시킬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혁명적당창건방침을 내놓으시였다.

당을 창건하는 문제는 공산주의운동에서 선차적문제이며 혁명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근본문제이다.

혁명의 참모부인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여야 옳은 로선과 전략전술을 세우고 광범한 군중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조

직동원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25년에 창건되였던 공산당의 해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건전한 토대우에서 새형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자주적으로 당을 창건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혁명적당을 창건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10페지)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원래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적요구이다. 공산주의운동은 매개 나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 담당자, 주인은 곧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자신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는것도 어디까지나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주인이 되여 자신의 힘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자주적으로 당을 창건하는것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요구에도 부합되는것이였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이 세계적범위에서 폭넓고 다양하게 벌어짐에 따라 매개 나라 혁명은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옳바로 전진시켜나갈수 없게 되였다. 혁명을 자주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우선 당을 창건하는 사업부터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진행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종래에는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공산주의소조들을 묶어세우거나 사회민주주의정당으로부터 혁명파가 분리되여나오는 방법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는것이 일반적현상으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는 이러한 길을 걸을수 없었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자처하던 사람들가운데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으며 이들에 의거하여서는 참다운 혁

명적당을 창건할수 없었다.

혁명적당을 창건하려면 참신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야 하였으며 공산주의대오안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실현하고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먼저 건전한 토대우에 기층당조직들을 내오고 확대강화하여 조직생활과 실천투쟁속에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며 공산주의대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과 순결성을 보장하고 당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쌓아나가는것만이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유일하게 옳은 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창건준비사업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당창건준비사업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우수한 공산주의자들을 훌륭히 키워낼수 있으며 당을 투쟁력이 강한 전투적부대로 건설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당창건방침은 우리 나라의 현실적요구와 시대적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정당한 방침이였으며 가장 혁명적이며 자주적인 당을 창건할수 있는 과학적인 길을 밝혀준 지도적지침이였다.

참으로 카륜회의는 주체사상의 창시와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의 탄생을 선포하고 로동계급의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자주적방침을 확립한 력사적회의였다.

카륜회의를 계기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은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은 가장 옳바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제 5 절

주체형의 첫 당조직의 결성. 기층 당조직의 확대강화

카륜회의후 주체적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무엇보다도 혁명적당조직들, 기층당조직들을 내오기 위한 사업이 급속히 진행되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적당조직들을 내와야만 카륜회의방침에 따라 당창건준비사업을 옳게 추진시켜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층당조직들을 내오는 사업을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데서 전위적, 모체적 역할을 할수 있는 첫 당조직을 결성하는데 선차적주의를 돌리시였다.

준비된 핵심들로 이러한 첫 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 전위적 역할을 부단히 높여나감으로써만 그것을 모체로 하여 기층당조직들을 성과적으로 조직확대해나갈수 있고 당조직들의 사상적일치성과 행동상 통일도 원만히 보장해나갈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실현해나갈수 있었다.

당시 혁명적당조직들을 내올수 있는 준비도 갖추어져있었다.

혁명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이 창시되고 새 세대의 공산주의핵심이 수많이 자라났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이 의식화, 조직화되여 당조직을 내올수 있는 대중적지반도 닦아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1930년 7월 3일 카륜에서 첫 당조직을 결성하는 회의가 소집되였다.

회의에는 카륜회의에 참가하였던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들중에서 선발된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들의 입당을 보증하시였으며 첫 당조직의 결성을 엄숙히 선포하시였다. 차광수, 김혁, 최창걸, 계영춘, 김원우, 최효일과 김리갑, 김형권, 박근원, 리제우 등이 첫 당조직의 성원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당조직결성에 즈음하여》라는 력사적연설에서 첫 당조직결성의 필연성과 의의, 그 성격과 사

명, 투쟁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첫 당조직의 결성은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것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첫 당조직이였으며 우리당의 시원으로 되는 영광스러운 당조직이였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5～6페지)

첫 당조직의 결성은 우리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조직의 첫 출현을 알리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이 첫 당조직은 앞으로 창건될 주체형의 혁명적당, 우리 당의 시원으로 되는 당조직, 다시말하여 우리 당의 태아였고 씨앗이였으며 당기층조직들을 조직확대함에 있어서 모체적의의를 가지는 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첫 당조직성원들은 그후 당조직건설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첫 당조직이 결성됨으로써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당창건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전개될수 있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혁명적당조직의 지도밑에 벌어지는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첫 당조직성원들앞에는 당창건방침에 기초하여 광범한 지역에, 당면하게는 항일무장투쟁의 중요거점으로 될 지대들에 기층당조직들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통일적지도체계를 세워 해당 지역내의 혁명조직들과 대중운동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하며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쌓아나가야 할 과업이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첫 당조직을 결성하신후 그것을 모체로 하여 당조직들을 급속히 확대해나가시였다. 기층당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북부조선일대와 만주의 여러 지역에 첫당조직성원들을 비롯한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파견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 9월말에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온성지구에 나오시여 이곳에 파견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활동과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기층당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사업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1930년 10월 1일 온성군 두루봉에서 당조직이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조직을 결성하는 회의에서 국내에 당조직을 결성하는것이 가지는 의의를 분석하시고 국내혁명조직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보장하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높은 단계에로 확대발전시키는데서 국내당조직들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온성군 두루봉에서 당조직이 결성된후 북부국경일대에 당조직들이 빨리 확대되였다.

만주의 여러 지역에 파견된 첫당조직성원들도 해당 지역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당조직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으며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에 망라되여 혁명실천속에서 단련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 세대들로 당조직들을 결성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 나라 북부일대와 동만일대, 그밖의 여러 지방들에 기층당조직들이 수많이 나오게 되였다.

기층당조직들이 넓은 지역에 확대됨에 따라 그것들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지도체계를 확립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 10월 연길현 조양천에서 당 및 공청간부들과 하신 담화와 1931년 봄에 돈화에서 진행된 강습에서 당조직지도사업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과 지하사업원칙을 지킬데 대한 문제, 각급 당조직들을 내오며 적구에서 당조직들사이의 련계를 단선으로 할데 대한 문제 등 조직지도체계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기초하여 기층당조직들과 각급 당조직들을 내오는 사업과 그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였으며 이 과정에 현당위원회로부터 당세포에 이르는 당조직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서가게 되였다.

이와 같이 첫 당조직결성후 당조직건설사업이 힘있게 전개되였으며 이에 따라 혁명운동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면서 반일민족해방운동을 힘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제 6 절
조선혁명군의 조직. 항일무장투쟁준비사업의 적극적추진

카륜회의이후 항일무장투쟁준비사업이 적극 추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카륜회의방침에 따라 항일무장투쟁준비를 위한 첫 사업으로서 1930년 7월 6일 고유수에서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였다. 조선혁명군의 첫 대오에는 차광수, 김혁, 최창걸, 김형권, 최효일, 김원우, 리제우, 백신한, 공영, 박진영, 계영춘, 김리갑, 현균 등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이 망라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군을 결성하는 모임에서 《조선혁명군의 사명과 기본임무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조선혁명군은 민족적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첫 무장조직이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정치 및 반군사 조직이였다.

조선혁명군의 사명과 기본임무는 적극적인 정치군사활동으로 무장투쟁의 핵심적골간을 키우며 무장투쟁에 필요한 무기를 마련하고 군사적경험을 축적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굳게 묶어세워 조직적인 항일무장투쟁을 벌리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데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군결성후 그 대오를 부단히 확대하면서 대원들의 정치사상적 및 군사적 자질을 빨리 높이도록 하시였으며 특히 모든 면에서 실천적경험을 쌓도록 하시였다.

조선혁명군은 여러 무장소조로 편성되여 국내와 중부만주를 비롯한 넓은 지역에 파견되였으며 군사정치활동을 맹렬히 벌리였다.

1930년 여름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형권동지를 책임자로 하는 조선혁명군의 한 무장소조는 국내에 진출하여 풍산군 파발리에 있는 내중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고 악질적인 일본인순사부장놈을 처단하였으며 인민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벌린 다음 리원, 북청, 홍원 일대에서 활동을 벌리였다. 이 소조는 가는곳마다

에서 대중정치사업을 전개하고 대덕산 광제사부근전투, 절부암부근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를 진행하여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었다. 소조는 리원군 문앙리와 대덕리의 수림속에 《한별은 조선에 지도자 받들자 한별》, 《노예의 철쇄를 부시자》, 《반일 반일 또 반일》, 《독립조선 만세 1930》 등 혁명적구호들을 써놓음으로써 국내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뭉치여 반일항전에 적극 나서도록 하였다.

조선혁명군의 다른 소조들은 함흥, 원산, 평양, 서울, 신의주, 의주 등 우리 나라의 여러 지역과 중부만주와 남만, 동만, 북만, 내몽고 일대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면서 무장투쟁준비를 적극 추진시켜나갔다.

무장투쟁의 준비에서 선차적으로 나선 문제는 무장투쟁의 핵심골간을 육성하는 사업이였다.

조선혁명군은 실천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당, 공청, 반제청년동맹 조직성원들을 자기 대오에 받아들이고 그들을 정치군사적지휘능력을 소유한 공산주의자들로 키웠다. 그리고 고유수의 삼광학교에서는 정치와 군사를 겸비한 지휘원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였으며 고유수와 오가자에서는 조선혁명군 성원들과 각 지방의 우수한 청년들에 대한 단기군정강습들을 조직하였다.

조선혁명군은 적들로부터 무기를 빼앗기도 하고 그밖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무장을 마련하면서 군사활동을 강화하였다. 조선혁명군은 밀정과 주구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 일제침략군대 및 반동경찰과의 전투들을 과감히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 많은 군사적경험을 쌓게 되였다.

조선혁명군은 군사활동을 적극 벌리는 한편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쌓는데 힘을 넣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닦기 위하여 각종 혁명조직들, 대중단체들을 내오고 학교들을 설치하여 대중교양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조선혁명군 대원들을 이 사업에 적극 참가시키시였다.

농촌을 혁명화하는것은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카륜, 고유수, 오가자 일대의 농촌들에 나가시여 광범한 농민들을 각성시켜 혁명조직들에 묶어세우시고 수많은 혁명적학교들을 운영하도록 하시면서 농촌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중을 교양하기 위하여 교과서 《농민독본》을 몸소 집필하시고 《볼쉐위크》, 《농우》 등 혁명적출판물들을 수많이 발간하게 하시였으며 친히 창조하신 고전적명작들인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혁명연극 《지주와 머슴군》, 《성황당》 등을 여러 곳에서 공연하고 혁명가요들을 널리 보급하도록 하시였다.

혁명조직성원들과 혁명군중을 일제와 지주들을 반대하는 투쟁, 마을을 보위하는투쟁, 비밀련락과 조선혁명군에 대한 원호사업을 비롯한 실천투쟁속에서 단련시키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광활한 지역에서 농촌혁명화가 적극 추진된 결과 광범한 농민들이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게 되였으며 무장투쟁을 벌릴수 있는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축성되여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당과의 긴밀한 련계를 취하시면서 혁명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할빈, 오가자 등지에서 국제당의 일군들, 련락원을 접견하시고 그들에게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들과 특히 새로운 혁명적당창건방침에 대하여 해설해주시였다. 그리하여 국제당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들과 자주적인 당건설방침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1931년부터는 항일무장투쟁준비에서 중심이 두만강연안으로 옮겨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12월 오가자에서 진행된 조선혁명군지휘성원 및 혁명조직책임자회의에서 카륜회의후 반년동안의 사업을 총화하시고 무장투쟁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적극 추진시키며 특히 두만강연안일대를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전략적기지로 전변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두만강연안의 동만일대는 우리 나라와 직접 잇닿아있을뿐아니라 주민구성에서 조선사람들이 절대적비중을 차지하고있었고 주민들의 계급구성도 좋은 지대였다. 이 일대는 적들의 식민지통치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험준한 산악과 울창한 밀림이 많아 무장투쟁을 벌리는데 매우 유리한 지대였다. 이 지대는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수많은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을 파견하시여 공산주의대오의 결속사업과 대중혁명화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신곳이였다.

오가자회의를 계기로 두만강연안일대를 항일무장투쟁의 전략적기지로 꾸리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전개되였다.

1931년 봄에 두만강연안지대에로 활동의 중심지를 옮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시와 농촌들에 우수한 공작원들을 파견하시는 한편 몸소 연길, 왕청, 화룡, 안도현의 여러 지역과 국내 종성, 온성 지구에 나오시여 무장투쟁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조직지도하시였다.

이 시기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준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혁명력량을 충분히 준비하는것이였다. 이 문제는 1930년에 종파사대주의자들이 일으킨 좌경모험주의적인 5.30폭동과 8.1폭동으로 말미암아 혁명력량이 큰 손실을 입었던 사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1년 5월 종성군 풍곡면 풍계동 공수덕에서 정치공작원 및 지하혁명조직책임자회의를 소집하시고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혁명력량준비를 충분히 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좌경모험주의적책동의 후과를 철저히 청산하고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혁명력량을 충분히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혁명력량준비를 충분히 하자》, 단행본, 3페지)

혁명력량을 준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장력량을 꾸리는것이며 이를 위하여 조선혁명군 대오와 반군사조직을 확대강화하고 무장을

튼튼히 갖추어야 하였다.

혁명력량준비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단합시키는것이였다. 그러자면 혁명적지도핵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광범한 군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조직적으로 결속시켜야 하였다. 그리고 대중을 투쟁속에서 단련시키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두만강연안 산악지대들에 무장대오가 의거할 활동거점을 꾸릴데 대한 과업도 제시하시였다.

공수덕회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혁명력량을 튼튼히 준비하는데서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회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1년 5월 명월구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좌경적모험주의로선을 배격하고 혁명적조직로선을 관철하자》라는 력사적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벌리기 위한 혁명력량을 충분히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조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의 기본군중을 튼튼히 결속하고 그 주위에 각계각층 반일력량을 굳게 단결시켜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단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혁명적조직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매개 지방들에서 혁명적지도핵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자립적역할을 높이며 파괴된 대중단체들을 복구정비하고 광범한 대중을 교양결속하여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축성하며 대중을 투쟁속에서 단련하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섰다. 그리고 일제침략자들의 민족리간책동을 폭로하고 조중인민들사이의 전투적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적조직로선과 그 관철을 위한 방침은 종파사대주의자들과 좌경기회주의자들의 모험주의적로선에 결정적타격을 주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혁명력량편성의 기본원칙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었다.

공수덕회의와 명월구회의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온성지구 당조직을 비롯한 국내의 당조직들과 두만강연안의 당

조직들이 확대강화되고 광범한 인민들을 반일의 기치밑에 결속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이 힘차게 전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안도현일대를 혁명화하는 사업을 밀고나가시는 한편 국내의 종성지구와 연길현일대를 오가시면서 해당 지방의 당 및 혁명 조직들로 하여금 자기 대렬을 확대강화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을 각종 대중단체들에 더 많이 묶어세우도록 지도하시였다. 결과 각급 당조직들과 혁명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이 높아지고 대중을 조직화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

온성, 종성 지구를 비롯한 국내 여러 지구와 안도, 연길, 화룡, 왕청, 훈춘현 일대에서 당조직들은 계급적각오가 높고 투쟁의욕이 강하며 실천투쟁을 통하여 검열되고 단련된 사람들, 특히 로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여 당대렬을 끊임없이 늘여나갔다. 또한 공청대렬을 급속히 확대하고 대중단체들을 통하여 단련되고 의지가 강한 용감한 청장년들, 소년들로 반군사조직인 적위대와 소년선봉대를 조직하여 그들을 무장투쟁의 핵심으로 키워나갔다. 그리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광범한 군중을 계몽각성시키고 그들이 각성되는데 따라 농민협회, 반제동맹, 혁명호제회, 아동단을 비롯한 여러 반일 대중단체에 묶어세워 혁명조직들을 확대하여나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각급 당조직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두만강연안일대의 넓은 지역들에서 5.30폭동과 8.1폭동의 해독적후과가 가셔지고 혁명력량이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으며 이 지대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전략적기지로 전변되여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조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된 성과들을 튼튼히 다지시면서 당 및 혁명조직들과 혁명군중을 실천투쟁속에서 더욱 단련시키고 혁명정세를 한층 더 성숙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중투쟁에로 그들을 조직동원하시였다.

각지의 당조직들과 혁명조직들은 농민들의 소작료를 낮추기 위한 투쟁과 로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대우개선을 위한 투쟁 그리고

일제의 민족리간책동과 만주침략을 반대하는 투쟁 등 경제투쟁으로부터 정치투쟁에 이르기까지의 대중투쟁을 폭넓게 벌려나갔다.

1931년 9월부터 12월에 걸쳐 동만의 전반적지역에서 대규모적인 추수투쟁이 벌어졌다. 동만의 10여만의 농민들이 참가한 추수투쟁은 소작료를 낮출것을 요구하는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제와 악질지주들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폭력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추수투쟁을 통하여 당조직들은 더욱 단련되고 강화되였으며 이 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의 핵심력량이 급속히 자라나고 광범한 반일대중이 결속되여 무장투쟁을 위한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이루어져갔다.

1920년대 후반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을 새로운 길, 주체의 길로 이끌어나가심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이 개척되게 되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조직하시였으며 조선혁명의 지도사상,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한 혁명로선들과 당창건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그리고 주체형의 첫 당조직을 내오시고 그것을 모체로 하여 당조직건설사업을 벌려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키우신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대오가 급속히 자라나 혁명의 주도적세력으로 등장하였으며 수령님의 령도밑에 그들은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혁명의 길을 걸어나갔다.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결속되였으며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주체적 혁명로선, 자주적인 당창건방침에 기초하여 혁명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당조직, 공청조직들과 대중단체들을 급속히 확대강화하고 혁명적무장조직들을 강화발전시키면서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단계, 무장투쟁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나갔다.

제 2 장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무장투쟁단계에로의 발전.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 결성. 공산주의대렬의 조직사상적 통일을 위한 투쟁

(1931.12—1936. 2)

제 1 절
명월구회의. 반일인민유격대창건

1930년대에 들어서서 내외정세는 매우 복잡하여졌다.

1929년부터 시작된 파국적인 세계경제공황으로 말미암아 제국주의의 모순이 더욱 격화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전쟁준비에 광분하면서 나라를 파쑈화하는 길로 나아갔다.

제국주의의 반동적진출에 대항하여 세계의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의 혁명적진출도 강화되였다.

이 시기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은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 특히 반제반파쑈투쟁전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1931년 9월 일제는 드디여 《만주사변》을 도발하고 전만주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대륙침략의 길에 들어서면서 《후방의 안전》을 위하여 조선인민에 대한 반동공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였으며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일제는 간도를 비롯한 만주의 조선인거주지역들에서도 폭압만

행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으며 마을들을 습격하고 불지르고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마구 학살하였다.

이러한 정세에서 항일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벌리지 않고서는 조선혁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었으며 민족해방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나갈수 없었다.

당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수 있는 제반 조건과 가능성도 충분히 갖추어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무장투쟁준비사업이 적극 추진된 결과 항일무장투쟁을 벌릴수 있는 믿음직한 핵심적골간들이 꾸려지고 정치군사적경험이 축적되였으며 대중적지반도 닦아졌다. 그리고 무장대오가 의거할 활동거점, 중심지대들도 마련되였다.

다른 한편 일제의 만주침공에 따라 만주에서 국민당통치가 와해되고 일제의 통치기구는 아직 서지 못하여 무정부상태가 조성된 반면에 대중적반일투쟁이 급격히 강화되고있던 실정은 항일무장투쟁을 개시하는데 절호의 기회를 지어주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시기에 안도, 연길, 돈화 등지에서 소집하신 여러 회의들과 특히 1931년 10월에 함경북도 종성군 광명촌에서 소집하신 정치공작원들과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의 회의에서 무장투쟁준비를 결정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1931년 12월에는 연길현 명월구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가 소집되였다. 회의에는 안도, 연길, 왕청, 화룡, 훈춘을 비롯한 두만강연안 각지의 당 및 공청 간부들과 길림, 돈화, 녕안 등지에서 온 혁명조직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전민족을 반일무장투쟁에 총동원할것을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광명촌회의에서 제시하신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여야 합니다.

유격전은 자체의 력량을 보존하면서도 적에게 커다란 정치군사적타격을 줄수 있고 적은 력량을 가지고도 능히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을 소멸할수 있는 무장투쟁방법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31페지)

유격전은 적이 강점하고있는 지대에서 일정한 무력이 대중과 긴밀한 련계를 맺고 자유자재로 유동하면서 적을 끊임없이 소멸하는 무장투쟁의 한 형식이다.

종래 유격전은 정규전의 보조적수단으로 또는 혁명전쟁에서 하나의 부차적인 투쟁형태로 인정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기성견해에 구애되지 않으시고 유격전을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의 기본형식으로, 주되는 투쟁형태로 내세우시였다.

유격전에서는 무장부대들이 행동방향과 활동지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에 의거하여 전투를 하기때문에 민활한 기동과 신축성있는 전술로써 언제나 주도권을 장악할수 있으며 따라서 적은 력량을 가지고도 능히 우세한 적을 타승할수 있다. 또한 무장부대들이 인민들과 긴밀한 련계를 맺고 싸우기때문에 대오를 끊임없이 늘일수 있으며 대중의 적극적인 지원속에서 전투활동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전의 이러한 특성과 우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강대한 제국주의침략세력을 상대로 하는 식민지민족해방운동에서 유격전이 위력한 주되는 투쟁형태로 될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시였다.

민족해방전쟁의 기본형식으로서의 유격전에 관한 이 리론은 무장투쟁에 관한 새로운 리론으로서 혁명전쟁, 특히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독창적인 리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는데서 나서는 중요과업들을 명확히 밝히시였다.

유격전을 전개하는데서 우선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간고한 투쟁의 시련속에서 단련된 우수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직하고 혁명적실천속에서 검열된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을 받아들여 그 대오를 부단히 확대하며 이와 함께 무장을 갖추는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리고 반일인민유격대창건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처음에 소규모의 유격대를 지방마다 조직하고 그것을 강화하여 점차 대부대의 혁명무력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유격전을 전개하는데서 또한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유격근거지를 창설하는것이였다.

공고한 유격근거지가 있어야 강대한 적의 포위속에서도 무장대오를 부단히 확대강화하면서 장기간의 유격전을 전개할수 있으며 적들의 무차별적인 학살만행으로부터 혁명군중을 보호할수 있었다. 특히 유격전이 아무런 국가적후방도 외부의 원조도 없이 진행되게 되는 조건에서 자체의 공고한 군사적근거지, 후방기지가 절실히 요구되였다. 그뿐아니라 무장투쟁을 진행하면서 당창건준비사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혁명운동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도 혁명의 책원지로서의 유격근거지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근거지의 형태와 그 창설방법에 이르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밝히시면서 군중적토대와 자연지리적조건이 좋은 두만강연안일대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유격전을 전개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닦는것이였다.

유격전은 본질상 인민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전제로 하는 인민전쟁이였다. 유격전의 목적은 결국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으로부터 인민대중을 해방하는데 있었으며 이 목적은 오직 인민대중의 적극

적인 참가밑에서만 달성할수 있었다. 그러므로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닦는것은 유격전자체의 본성적요구로 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조중인민의 광범한 반일통일전선을 실현할데 대한 과업과 당조직사업과 공청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들도 제시하시였다.

1931년 12월명월구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는데서 결정적계기를 열어놓은 회의로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 무장투쟁단계에 들어서게 한 력사적회의였다.

광명촌회의와 명월구회의에서 천명된 전략전술적방침은 곧 실천에 옮겨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차광수, 김일룡, 김정룡, 리청산, 김철(김금철), 박훈, 리광, 오중화, 오중성, 김중권, 김일환, 오빈, 김해산 등 수많은 지도핵심들을 안도, 왕청, 연길, 훈춘, 화룡, 녕안, 길림, 돈화, 화전을 비롯한 만주의 넓은 지역에 파견하시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는 사업이 급속히 추진되였다. 무장대오의 핵심골간이 마련되고 반군사조직들이 확대강화되였으며 안도현을 비롯하여 동만각지에 유격대소조들이 조직되였다.

무장을 갖추기 위한 투쟁도 줄기차게 벌어졌다. 무장을 갖추기 위한 투쟁은 참으로 간고하였다. 한자루의 총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혁명군 성원들과 혁명조직성원들, 혁명군중은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적의 무기를 빼앗는 투쟁에 참가하였다.

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투쟁은 일제의 폭압과 함께 중국인반일부대들의 적대적행위를 극복하는 어려운 과정을 동반하였다.

당시 반일부대들은 항일구국의 기치를 들고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그 상층이 자산계급의 출신들로 이루어진 민족주의군대로서 일제와의 투쟁에서 불철저하고 심히 동요하고있었다. 더우기 그들은 일제의 반공선전과 민족리간책동에 넘어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사람들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2년 4월 안도현 소사하에서 혁명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반일인민유격대창건사업을 다그치며

중국인반일부대와의 련합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시는 한편 모든 위험을 무릅쓰시고 안도에 있는 반일부대사령과 담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당한 주장과 사리정연한 론리로써 공산주의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에 사로잡혀있는 완고한 반일부대사령을 설복하시여 마침내 반일공동투쟁에 나서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어 중국인반일부대와의 련합전선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반일부대안에 별동대와 반일병사위원회를 내오는 조치를 취하시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고 항일무장투쟁을 힘있게 벌릴수 있는 대중적지반도 더욱더 튼튼히 축성되여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진행하신 푸르허마을의 혁명화과정을 통하여 농촌혁명화의 시범이 창조되였으며 두만강연안일대의 수많은 농촌지구들이 혁명화되여갔다.

인민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으며 특히 1932년 봄 동만에서 진행된 춘황투쟁을 통하여 대중의 혁명적기세가 더욱 높아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모든 성과들에 기초하여 1932년 4월 25일 안도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창건식에서 《반일인민유격대창건에 즈음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성격과 사명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일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써 조직되였으며 진정으로 인민의 리익을 보호하는 혁명적인 무장력입니다.

인민유격대의 목적과 사명은 조선에서 일제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조선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달성하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권, 52페지)

반일인민유격대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군대였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 조직되고 인민들과 혈연적련계를 맺고있는 진정한 인민적무장력으로서 당면하게는 일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진정한 인민정권을 세우며 나아가서 모든 계급적 압박과 착취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무력이였다.

반일인민유격대는 무장을 들고 일제와 싸우는 전투대오인 동시에 인민대중을 교양하며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정치적군대였다.

반일인민유격대는 또한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는 전투적구호를 들고 조선혁명뿐아니라 세계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국제주의적군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항일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하여 반일인민유격대의 힘을 키우고 유격구창설사업을 적극 추진시킬데 대한 과업과 중국인민들과의 반일통일전선을 형성하며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할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였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됨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주류로서의 무장투쟁을 직접 담당하고 이끌어나갈 원동력이 마련되였으며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은 우리 인민에게 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그들을 반일투쟁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서게 하였으며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과 당창건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두만강연안의 왕청, 연길, 화룡, 훈춘 지구들에서 반일인민유격대들이 편성되였다. 그리고 남만과 북만에서도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무장대오를 결성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싸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2년 5월 안도현 소사하에서 반일인민유격대 지휘성원, 당 및 공청지도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반일인민유격대를 더욱 확대강화하며 유격근거지창설사업을 힘있게 전개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주력부대를 남만지방으로 진출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2년 6월에 반일인민유격대의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남만으로 진출하시였다.

남만진출의 목적은 유격대를 실지 투쟁속에서 단련시키고 확대강화하며 광범한 인민들에게 혁명적영향을 주어 그들을 항일혁명투쟁에 적극 불러일으키는 한편 그곳 독립군들과 련계를 맺으려는데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솔하신 반일인민유격대는 통화에 이르러 량세봉이 지휘하는 독립군과의 사업을 진행하고 뒤이어 통화, 류하, 해룡, 몽강 일대의 넓은 지역을 유동하면서 정치군사활동을 진행한 다음 1932년 8월하순 안도현 량강구로 돌아왔다.

당시 두만강연안일대에서는 유격대오가 확대되고 넓은 지역에 유격구들이 창설되고있었다. 그러나 항일무장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반사업과 관련하여 풀어야 할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있었으며 그릇된 편향들도 나타나 적지 않은 후과를 미치고있었다. 일부 혁명조직들에서 지도적지위를 차지하고있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저들의 직위를 악용하여 유격부대들에 대한 《령도권》을 쥐려고 책동하였으며 유격구안에서 좌경적인 시책들을 실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각 지구 유격부대들과 유격구들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며 반일부대와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오를 이끄시고 돈화, 액목, 녕안 지방을 거쳐 1932년 가을에 전반적혁명운동에 대한 령도를 실현하는데서 유리한 지대였던 국내와 가까운 왕청지구에 이르시였으며 1933년 2월에는 소왕청-마촌에 혁명의 사령부를 정하시였다.

왕청지구에 사령부가 정해짐으로써 반일인민유격대를 강화하며 유격근거지들을 튼튼히 꾸리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제 2 절
두만강연안유격근거지창설. 인민혁명정부수립. 당조직들과 대중단체들의 확대강화

항일무장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하며 그에 의거하여 당조직들과 대중단체들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유격근거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은 1931년 12월명월구회의직후부터 전개되였으며 특히 1932년 5월 소사하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우선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격근거지는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와 투쟁이 벌어지는 환경과 조건 그리고 무장력량의 준비정도에 따라 각이한 형태를 취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에서는 해방지구형태의 근거지인 유격구역을 창설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34～35페지)

해방지구형태의 근거지, 유격구란 유격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구역 즉 적들의 통치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구역을 말하였다. 이러한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여야만 청소한 혁명무력과 혁명군중을 보위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반일민족해방투쟁을 힘차게 발전시켜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 및 공청 지도핵심성원들을 각지에 파견하시여 유격구창설사업을 힘있게 진척시키는 한편 자신께서 직접 소사하유격구창설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시였다. 그리하여 1932년 5월말에 안도현 소사하에서 유격구가 먼저 꾸려지게 되였으며 이를 계기로 유격구창설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였다.

1932년 여름부터 1933년초까지의 기간에 안도현의 다진강, 왕청현의 소왕청, 가야허, 요영구, 연길현의 왕우구, 해란구, 석인구, 삼도만, 위자구, 화룡현의 어랑촌, 우복동, 훈춘현의 연통라자, 리수구, 대황구를 비롯한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수많은 유격구들이 꾸려졌으며 그 이후시기에도 안도현의 처창즈, 내도산, 왕청현의 다홍왜, 진창, 연길현의 신선동 등지에 새로 유격구들이 창설되였다. 유격구, 해방지구들에는 수많은 혁명군중이 집결되였으며 여기에는 당 및 공청 조직과 여러 혁명조직들, 혁명정권기관들 그리고 적위대, 소년선봉대 등 반군사조직들이 조직되여 활동하였다.

유격구주변에는 반유격구들이 창설되였다.

반유격구란 형식상 적들이 통치하고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유격대가 장악하고 지도하는 혁명화된 지역을 말하였다. 반유격구를 많이 만들어야 유격구를 더욱 확대공고화하고 유격대의 활동을 강화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치공작원들을 유격구주변지역들에 파견하시여 혁명조직들을 내오고 대중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우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적통치기관의 말단단위들을 장악하고 유격대와 혁명조직의 활동을 적극 안받침하도록 하시였다. 그 결과 유격구주변의 넓은 지역에 반유격구가 창설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유격구를 꾸릴수 없는 적통치지역들에는 유격대의 소부대, 소조들이 의거할수 있는 유격활동거점들을 설치하도록 하시였다. 이 유격활동거점들은 주로 지하혁명조직들과 비밀련락장소들로 이루어졌다.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유격구, 반유격구, 유격활동거점들이 창설됨으로써 조선혁명의 책원지, 반일인민유격대의 군사전략적 기지, 후방기지가 튼튼히 마련되고 그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유격근거지창설후 그것을 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유격구를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정권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정권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유격구역안에서 낡은 사회경제관계와 통치질서를 청산하고 혁명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는 사업을 옳게 진행할수 있었으며 유격구가 무장투쟁의 전략적기지, 조선혁명의 책원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었다. 그리고 유격구인민들에게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주며 그들로 하여금 무장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할수 있었다.

그런데 좌경기회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유격구창설초기 일부 지역들에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쏘베트》정부를 내왔으며 일체 사적소유를 폐지하고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실시하려고 하였다. 이자들의 책동은 유격구인민들속에 커다란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3년 2월하순 왕청현 마촌에서 소집하신 당 및 공청 지도핵심성원들의 회의를 비롯하여 여러차례의 당, 공청 및 혁명 조직일군들의 모임에서 《쏘베트》로선의 좌경적본질을 폭로비판하시고 이미 카륜회의에서 천명하신 인민정권건설로선을 구체화한 주체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천명하시였으며 인민혁명정부수립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인민혁명정부로선은 혁명의 기본문제인 주권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밝힌 독창적인 로선이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혁명에서는 쏘베트정권을 세워야 한다는것이 하나의 공인된 견해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혁명발전의 조건이 달라지고 특히 식민지민족해방운동에서 반제민족통일전선문제가 전면에 나섬에 따라 정권문제도 이에 맞게 새롭게 해결되여야 하였다.

인민혁명정부로선은 바로 이러한 요구를 빛나게 해결한 정권건설로선으로서 국가주권에 관한 리론발전에서 탁월한 기여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혁명정부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지

도성원들을 위한 강습을 조직하시고 그들을 각지에 파견하시는 한편 몸소 여러 유격구들에 나가시여 인민혁명정부를 세우는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3년 3월 가야허유격구 사수평에서 진행된 왕청제5구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는 집회를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집회에서 하신 력사적연설 《인민혁명정부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에서 인민혁명정부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권이라는것을 밝히시고 모든 유격구들에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며 그것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방도들과 인민혁명정부가 실시하여야 할 제반 시책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치시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구인민혁명정부대표들이 선출되고 왕청제5구인민혁명정부의 수립이 엄숙히 선포되였다.

왕청제5구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된데 이어 다른 유격구들에서도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였다. 모든 유격구들에 구인민혁명정부와 촌정부가 나왔으며 그것을 내올수 없는 지역들에는 정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농민위원회가 조직되였다. 그리하여 1933년 여름에 이르러서는 두만강연안의 거의 모든 유격구들에 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되였다.

인민혁명정부는 유격구에서 제반 민주주의적개혁들을 실시하였다.

인민혁명정부는 일제와 친일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으며 8시간 로동제와 최저임금제를 선포하고 가렴잡세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남녀평등권과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였다.

유격구에는 새로운 사회경제관계와 혁명적질서가 확립되였다. 그리하여 유격구는 지난날 모진 고역과 천대 속에서 허덕이던 우리 인민이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인민의 새 세상으로 전변되였다. 또한 유격구는 항일무장투쟁의 믿음직한 군사전략적기지, 강력한 후방기지로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전반적조선혁명의 책원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고 유격근거지가 창설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당조직과 대중단체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벌어졌다.

먼저 반일인민유격대안에 각급 당조직들을 내오고 통일적인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였다.

반일인민유격대창건 초기에는 소대에는 당분조, 중대들에 당세포가 조직되였으며 1933년에 이르러 유격대오가 급속히 장성하는데 따라 대대당위원회, 련대당위원회가 조직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이 개시되고 반일인민유격대안에 당조직들이 결성됨에 따라 종전에는 지역적단위로만 벌어지던 당조직건설사업이 유격대를 단위로 하여서도 폭넓게 벌어지게 되였으며 이에 따라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축성사업이 항일유격대를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게 되였다.

유격구들에서는 당원심사사업과 재등록사업을 철저히 진행하는 한편 검열된 혁명조직성원들을 당조직에 새로 받아들여 모든 마을들에 당조직들을 내오도록 하였다.

적통치구역의 당조직들도 새로운 환경에 맞게 다시 정비되고 강화되였다. 현당위원회밑에 적통치구역당사업을 전문적으로 맡아 지도하는 기구가 설치되여 적통치구역당조직들에 대한 정상적인 지도가 보장되게 되였다.

국내에서도 당조직건설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3년 8월 함경북도 새별군에서 정치공작원들과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을 위한 강습을 조직하시여 국내 당조직건설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4년 2월 함경북도 온성군 미포면 풍인동에서 소집하신 국내 당조직 및 혁명조직 대표들의 회의에서 온성지구를 비롯한 국내의 중요지역들에 거점들을 꾸리고 당조직을 확대하며 기층당조직들이 많이 나온 지역들에는 지구당위원회와 같은 지역적지도기관들을 내오고 그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당대렬의 순결성과 사상의지적단합을 보장

하며 반일대중조직들을 광범히 조직하고 그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현하며 각급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온성지구당위원회를 결성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하여 1934년 2월에 온성일대의 여러 기층당조직을 지도하는 당지도기관으로서 온성지구당위원회가 결성되였으며 이에 따라 온성지구는 물론 국내깊이에로 당조직을 급속히 확대하여나갈수 있는 믿음직한 조직적거점이 마련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북부조선일대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 수많은 기층당조직들이 나오고 그에 대한 정연한 당조직지도체계가 세워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조직들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지도하시면서 특히 혁명대오의 통일단결과 순결성을 보장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과 순결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종파주의를 극복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대원들과 당 및 혁명 조직성원들을 반종파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기 위하여 1933년 5월에 고전적로작 《**종파주의를 청산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자**》를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종파주의의 사상적근원과 종파분자들의 죄행, 수법들을 폭로하시면서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유격대원들, 공청원들, 혁명조직성원들이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도록 하며 광범한 혁명군중을 반종파투쟁에 적극 동원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이 투쟁을 혁명대오를 강화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며 반종파투쟁에서 좌우경적편향을 경계하고 그것을 혁명의 리익에 맞게 원칙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종파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은 단기간에 끝낼수 없는 심각한 투쟁인것만큼 근기있고 완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시 반종파투쟁은 많은 복잡성을 띠고있었다. 그것은 일부 종파분자들이 아직 당조직들과 여러 혁명조직들의 지도적자리를 차지하고있었으며 또한 여러가지 초혁명적언사로써 자기들의 정체를 가리우고있었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 당조직과 공청조직의 모든 성원들은 온갖 곤난을 이겨내면서 반종파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당조직들은 반종파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 큰 주의를 돌리였다. 그 결과 당원들의 조직관념이 높아지고 조직규률이 강화되였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유격대원들, 인민들에 대한 정치사상사업도 강화하였다.

유격구안에 군정강습소들이 설치되여 유격대 지휘관들과 대원들의 정치리론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였다. 그리고 《전투보》, 《민중보》, 《반제전선》, 《대중신문》, 《농민투쟁》, 《청년투쟁》과 같은 신문, 잡지들을 비롯하여 각계각층 군중의 특성과 지식수준에 맞는 혁명적출판물들이 수많이 발간되였다. 혁명적출판물들은 유격구들뿐아니라 반유격구와 적통치구역에까지 널리 배포되였다.

혁명적문예활동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사상예술성이 높고 전투적이며 대중적인 혁명가요들과 연극을 비롯한 각종 문예작품들이 인민들의 계급의식과 혁명적열의를 높이고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당조직들의 반종파투쟁과 조직사상사업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대오의 사상의지적, 조직적 통일과 단결이 급속히 강화되여갔다.

대중단체들을 확대강화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각지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은 공청을 비롯하여 로동조합, 농민협회, 부녀회, 아동단 등 계급, 계층별 대중단체들을 넓은 지역에 조직확대하여나갔다. 그리고 반제동맹, 반일회와 같은 통일전선적

대중조직을 내오고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결속하기 위한 사업을 힘차게 벌려나갔다. 한편 국내에 광범히 조직되여있던 로조, 농조들에 대한 혁명적영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시키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중단체들을 확대강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면서 대중지도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3년 3월 왕청에서 진행된 공청일군회의에서 《공청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공청사업에서 나타난 좌우경적편향을 극복하고 공청조직을 확대하며 광범한 청년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특히 공청일군들이 혁명적군중관점을 바로세우고 광범한 대중의 힘에 의거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을 지니며 군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인민적인 사업태도를 가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대와 유격구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대중을 이끌면서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리고 격식과 틀이 없이 창조적으로 실속있게 해나가는 혁명적사업방법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혁명조직성원들과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중지도사업에서 몸소 보여주신 군중공작방법을 따라배워 로동자, 농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대중과의 사업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반일군중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우며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닦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갔다.

제 3 절
왕재산회의.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투쟁. 인민대중의 반일투쟁의 강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일인민유격대는 무장투쟁의 초시기부터 그 불길을 국내에로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

항일무장투쟁의 근본목적은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으로부터 민족적해방을 달성하고 조국을 광복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그 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는것은 이 근본목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였다.

그리고 유격대가 급속히 강화되고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유격구, 반유격구가 창설됨에 따라 무장투쟁의 불길을 국내에로 확대할수 있는 제반 조건들도 조성되여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3년 3월 유격대의 한 부대를 거느리시고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국내 온성지구에 진출하시였으며 왕재산에 오르시여 온성지구지하혁명조직 책임자 및 정치공작원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된후 한해동안의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를 분석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유격대가 국내에로 진출함으로써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아름다운 우리 조국을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을 강요하고있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만회할수 없는 정치군사적타격을 줄수 있으며 국내인민들에게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영

향을 강하게 주고 그들이 반일성전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며 나아가서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을 종국적으로 청산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원쑤들의 책동이 악랄하고 정세가 아무리 어려워도 항일무장투쟁을 반드시 국내에로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6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구체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의 넓은 지역에 반유격구를 더 많이 창설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국내에 반유격구를 더 많이 창설하고 공고화하는것은 항일무장투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정치군사적거점과 후방기지를 마련하는데서 매우 중요하였다.

당시 온성지방을 비롯한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는 주민구성으로 보나 자연지리적조건으로 보나 반유격구를 꾸리는데 가장 적합한곳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유격구를 창설하기 위하여서는 유격대가 두만강연안일대에서 전투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국내지하혁명조직들이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고 혁명화하여야 하며 비밀련락장소를 비롯한 여러가지 활동거점들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결속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결속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의 특성에 맞는 각양한 명칭을 가진 합법적 및 비합법적 혁명조직들을 많이 내오고 광범한 반일군중을 묶어세우며 그들의 특성과 의식수준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으로 교양하는것이 필요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켜나가는것과 함께 이에 대중투쟁을 배합하며 국내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유격대와 유격구인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릴데 대하여서도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끝으로 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직사상적준

비를 실속있게 갖추어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왕재산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고 전반적 조선혁명을 앙양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왕재산회의가 있은 다음에도 1933년 3월에 새별군 류다섬에, 5월에는 종성군 신흥촌에 나오시여 혁명조직책임자들과 정치공작원들의 회의를 여시고 왕재산회의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북부조선일대의 여러곳에 반유격구를 꾸리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여 온성, 종성, 회령, 새별, 은덕, 선봉, 무산을 비롯한 넓은 지역에 반유격구가 형성되게 되였다.

반일인민유격대 부대들의 국내진출도 더욱 적극화되였다.

유격부대들은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에 끊임없이 진출하여 적들의 병영, 경찰관주재소, 면사무소, 도선장, 세관들과 악질적인 경찰 및 일제주구들을 습격소탕하는 전투활동을 맹렬히 벌렸다. 1935년 1월 한달동안 온성군에서만 하여도 유격대의 소조들은 남산리습격전투, 미포면 월파동습격전투, 유포면 세선동습격전투, 미포면 미산동습격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을 벌리고 인민들속에서 힘있는 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국내의 여러곳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은 인민들을 의식화, 조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북부조선일대와 청진, 신흥, 원산, 서울, 남포 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조직적거점을 두고 활동한 정치공작원들과 당조직들은 인민들에게 주체적혁명로선을 깊이 해설해주고 유격구에서 발간한 여러가지 혁명적출판물을 배포하였다. 그리고 반일혁명후원회, 반제동맹, 농민상조회, 부녀회, 아동단을 비롯한 비합법적 및 합법적 단체들을 내오고 여기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워나갔다.

항일무장투쟁이 급속히 확대되여 그 혁명적영향이 강화되고 인민들을 의식화,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인민대중의 반일투쟁이 급격히 발전하였다.

무엇보다도 반일인민유격대와 유격구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강화되였다.

일제의 탄압책동이 극심하였던 어려운 조건에서도 온성, 회령, 새별, 청진, 무산, 함흥을 비롯한 여러 지방의 로동자, 농민들과 각계각층의 인민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지지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모임들을 광범히 진행하였다.

1934년 5월 반일혁명후원회가 조직한 함경북도 회령군 운두산에서의 군중모임에는 계림탄광 로동자들과 무산광산 로동자들, 회령, 유선, 종성 일대의 농민들, 청진일대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모임에서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흠모와 충성의 정을 표시하면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해 몸바쳐 싸울 결의들을 다지였다.

로동자들의 파업과 혁명적인민들의 시위투쟁 그리고 혁명조직들이 살포한 삐라와 격문, 각종 혁명적출판물들에서도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이 표시되였다.

온성지구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온성농민상조회 조직성원들은 1934년말부터 1935년에 이르는 사이에 10여폭의 지성어린 붉은 축기를 만들어 유격구에 보냄으로써 영용하게 싸우고있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적극 지지성원하고 그들에 대한 전투적뉴대의 뜨거운 마음을 표시하였다.

무장투쟁에 대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지원은 유격대원들, 유격구인민들의 혁명적기세를 북돋아주는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인민대중자신이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설 정치사상적준비를 튼튼히 갖추어나가게 하였다.

인민들은 유격대들의 군사활동을 실지행동으로 도와나섰다.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애국청년들이 반일인민유격대에 참가하려고 유격구에로 찾아왔다.

애국적인민들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적정을 탐지하여 유격대에 알려주었으며 길안내와 숙식조건을 보장하고 위급한 정황이 조성되였을 때는 그들을 안전한곳에 이동하도록 도와주었다.

혁명적인민들은 반일인민유격대와 유격구에 대한 물질적원호사

업을 광범히 벌리였다.

인민들은 유격대들의 군사정치활동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들을 군중적운동으로 확보하여 보내주었다. 1933년 함경북도 토막동광산과 계림탄광 로동자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백키로그람의 폭약을 구하여 유격대에 보냈으며 1934년 10월 온성일대의 인민들은 100여필의 말에 실은 수많은 군수물자와 생활필수품을 유격구에 보냈다. 이러한 원호사업에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들은 물론 애국적 종교인들과 상공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군중이 참가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영향밑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각종 반일반전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다.

일제가 줄여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1931년부터 1935년사이에 900여건의 파업이 일어나고 7만여명의 로동자들이 이에 참가하였다. 이것은 그전 10년간에 있은 파업들을 합친것보다 훨씬 더 많은것이였다.

이 시기 로동자들의 투쟁에서 특징적인것은 일제가 운영하는 큰 규모의 공장, 기업소들, 특히 중공업부문의 로동자들의 투쟁이 세차게 일어난것이였다. 광산로동자들이 각지에서 련이어 파업을 일으켰으며 제철, 제련소 로동자들이 파업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934년 10월 흥남제련소의 600여명의 로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킨데 이어 1935년 3월에 겸이포제철소의 1,700여명 로동자들이, 이해 7월에는 남포제련소의 1,200여명 로동자들이 파업투쟁을 진행하였다. 또한 로동자들은 일제가 대륙침략전쟁준비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시키고있던 선봉항확장공사와 라진축항공사 그리고 두만강연선을 통과하는 철도부설공사를 지연파탄시키기 위하여 파업과 태업, 파괴 투쟁을 적극 벌렸다. 이 모든 투쟁들은 경제투쟁의 테두리를 훨씬 벗어나서 정치투쟁의 성격을 뚜렷이 나타내였다.

농민들의 투쟁도 강화되였다. 일제가 줄여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1931년—1935년에 350여건의 대중적소작쟁의가 일어나고 근 1만 8,000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이 시기 농민들의 투쟁에서 특징적인것은 일제기관 또는 일본

인이 운영하는 농장들에서 련속 대중적소작쟁의가 일어나고 농민들의 폭력적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진것이였다. 농민들은 악질지주들에 대하여 대중적징벌을 가하였고 경찰에 검거된 동지들을 탈환하기 위한 투쟁을 벌렸으며 일제의 통치기관과 략탈기관을 습격하기도 하였다.

청년학생들속에서도 반일적인 동맹휴학사건, 독서회사건, 삐라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을 짓부시고 민족문화를 지키기 위한 애국적 지식인과 문화인 등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도 계속 벌어졌다.

이와 같이 항일무장투쟁이 조직전개된 이후 그 혁명적영향밑에 인민대중의 반일투쟁은 급속히 앙양되였다.

제 4 절
유격구보위를 위한 투쟁. 중국인민들과의 반일공동전선의 강화

유격구, 해방지구 창설후 그 보위를 위한 치렬한 투쟁이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구보위를 위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격구역에서는 유격대를 정치군사적으로 장성발전시킬뿐아니라 적위대, 소년선봉대 등 반군사조직들을 확대강화하고 전체 인민들을 무장시켜 유격근거지를 보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36페지)

반일인민유격대는 상비적인 무장력으로서 유격구보위의 핵심력량이였던것만큼 무엇보다도 유격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여야 유격구를 튼튼히 지켜내고 무장투쟁을 힘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군사조직들과 혁명조직들을 통하여 육성단련된 핵심들, 여러가지 실천투쟁을 통하여 검열되고 단련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각지에서 유격대에 입대할것을 탄원하여 찾아온 열혈청년들을 받아들여 유격대오를 급속히 확대하면서 유격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도록 하시였다.

유격대를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는 사업에도 큰 힘이 돌려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3년 4월과 11월에 각각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유격대동작》과 《유격대상식》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유격전의 원칙과 유격 전술, 전법들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은 유격부대들의 군사활동에서 기본교범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유격대의 무장장비와 후방물자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도록 하시였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짧은 기간에 불패의 혁명력량으로, 유격구보위의 핵심력량으로 자라났다.

유격구의 전체 인민들을 무장시키고 유격구를 요새화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되였다.

유격근거지—해방지구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유격구의 전체 인민을 무장시켜야 하였다.

유격구에서는 반일자위대, 소년선봉대, 청년의용군과 같은 여러가지 반군사조직들에 남녀 청장년들과 소년들이 널리 망라되였으며 그들의 군사훈련이 강화되였다.

유격구를 요새화하기 위하여 도처에 전호와 사격호 및 교통호들이 설치되고 자연지형을 리용하여 적의 공격에 대처한 여러가지 방위축성물들이 수많이 구축되였으며 비상동원체계와 대피대책, 전인민적감시경계체계가 수립되였다.

유격구는 짧은 시일안에 전인민적방위체계를 갖춘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으며 그것은 유격구역에 대한 적들의 《토벌》공세를 짓부시는데서 참으로 커다란 위력을 나타내였다.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유격구가 창설되자 일제는 유격구를 《동양평화의 암》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미쳐날뛰였다.

1933년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조선강점군 간도파견대와 독립수비대, 헌병, 경찰, 위만군경을 비롯한 방대한 병력으로 유격구에 대한 《토벌》을 감행하였다.

유격구들에서는 매일과 같이 치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1933년 4월 적들은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는 소왕청유격구에 1,500여명의 대병력을 집중하여 공격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휘밑에 치렬한 소왕청방어전투가 벌어졌다. 반일인민유격대와 유격구인민들은 불사신이 되여 싸움으로써 400여명의 적을 소멸하는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다. 연길, 훈춘, 화룡 일대의 방위자들도 유격구를 성과적으로 지켜냈다.

적의 《토벌》공세를 격파한 반일인민유격대는 군사활동규모를 확대하면서 도처에서 습격전과 매복전, 성시공격전투를 련이어 벌려 적의 유생력량을 끊임없이 소멸약화시키고 전투기술기재에 커다란 손실을 주었다.

일제침략군은 《춘기토벌》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하여보려고 1933년—1934년 겨울에 또다시 유격근거지에 대한 대규모적인 《토벌》작전을 감행하였다. 소왕청유격구역에만도 놈들은 5,000여명의 《정예》병력과 비행기, 대포까지 들이밀었으며 연길, 화룡, 훈춘 지구의 유격구역들에도 수많은 병력을 내몰았다.

유격구들마다에서 또다시 치렬한 전투들이 벌어졌다.

유격구방위전투는 그 가렬성에 있어서 류례를 보기 드문것이였으며 방위자들 한사람한사람이 무비의 용맹을 떨치면서 싸운 영웅적항전이였다. 불과 한개 분대의 인원으로 수백명의 적을 물리치는 위훈이 세워졌으며 로인들과 부녀자들이 작탄과 돌무지로 현대적무장을 갖춘 적정규군부대의 진공을 가로막는 기적이 이루어졌다.

수십일간 계속된 피어린 공방전에서 유격구방위자들은 승리를 거듭하였으며 적들에게 심대한 손실을 주었다. 그러나 놈들은 력량상 우세를 믿고 계속 병력을 증강하면서 장기전을 기도하였다.

적들의 이 흉악한 기도를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의

배후를 타격하여 전투의 국면을 전환시킬 대담한 작전을 펼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소왕청유격구를 방위하던 유격대의 한 부대를 거느리시고 량수천자일대에 진출하시여 적후에서 교란작전을 벌리시였으며 놈들의 《토벌》거점의 하나인 왕청시가에 대한 기습작전을 조직지휘하시였다.

저들의 본거지가 불의의 타격을 받게 되자 적들속에서는 일대 소동이 일어났으며 공포에 싸인 놈들은 유격구《토벌》에 내몰았던 병력을 황급히 철수시키고말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지휘와 령활한 적배후교란작전에 의하여 적들의 《동기토벌》공세는 여지없이 격파되였으며 근 90일간에 걸친 유격구방위전투는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항일무장투쟁이 날로 확대발전하고 반일인민유격대력량이 급격히 장성강화됨에 따라 무장대오의 군사조직체계를 새롭게 개편하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4년 3월 왕청현 마촌에서 진행된 반일인민유격대 군사정치간부회의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력사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됨에 따라 각 현의 유격부대들이 하나의 통일적인 조직체계에 소속되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사단과 련대, 중대, 소대, 분대들의 체계로 편성되였다. 당조직들도 이에 상응하게 체계적으로 조직되여 자체의 독자적인 조직지도체계를 갖출수 있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편성됨으로써 통일적인 군사적지휘와 당적지도가 확고히 보장될수 있게 되였으며 유격활동을 보다 성과적으로 벌릴수 있게 되였다.

1933년—1934년 겨울의 《토벌》에서 여지없이 패배한 적들은 저들의 참패를 만회하여보려고 또다시 유격구역주변에 방대한 병력을 집중하고 이른바 《위공》작전을 획책하였다. 《위공》작전이란 유격구역을 포위하고 한걸음한걸음 점령해들어가는 《보보점령의 보루전술》과 집단부락, 《보갑제도》에 의한 정치, 경제적 봉쇄를 내용으로 하는 악랄한 《토벌》작전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의 《위공》작전을 물리칠수 있도록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유격구의 중요지역들에 배치하시는 한편 적들의 무력배치에서 나타난 약점들을 리용하여 놈들의 군사거점들과 집단부락들을 타격하는 진공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이 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은 1934년 춘기공세를 벌림으로써 적의 《위공》작전을 첫걸음부터 격파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왕청현 라자구전투와 대홍구전투, 조묘태전투를 조직지휘하시는 한편 다른 부대들을 안도현에 파견하시여 대전자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을 벌리게 하심으로써 적들을 되게 족치시였다. 그리고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를 거느리시고 1934년 가을부터 1935년초에 이르는 기간에는 북만원정을 단행하시여 《위공》작전에 피눈이 된 적들의 배후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시였다. 그리하여 일제의 《위공》작전은 최종적으로 격파분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면서 조중인민의 반일통일전선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조중인민의 반일통일전선을 이룩하는데서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그들이 지도하는 무장력과 공동투쟁을 진행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이 돌려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부터 중국공산주의자들과 반일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하는 반일유격부대들로 항일련합군을 편성하도록 하시였으며 중국공산주의자들의 간절한 요청을 받으시고 몸소 키우신 우수한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군사간부들을 남북만의 여러 무장부대들에 파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몸소 이끄시고 녕안을 비롯한 북만일대에 진출하시여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심으로써 조중인민의 반일공동전선을 더욱 강화하시였다.

조중인민의 반일공동투쟁에서 중국인민족주의군대인 반일부대들과의 련합전선을 강화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일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항일유격대와 보조를 같이하던

반일부대의 상층들이 1933년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악랄한 민족리간책동과 배타주의자들,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의 후과로 하여 또다시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게 되였으며 지어는 별동대공작을 하던 유격대원들을 학살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3년 5월 왕청에서 혁명조직책임자들과 유격대지휘간부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반일부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들과의 련합전선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3년 6월에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라자구에 자리잡고있는 반일부대사령과 회담하시여 그들의 그릇된 립장을 깨우쳐주시고 반일련합전선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담판후 반일부대와의 련계를 보장하기 위한 상설기관으로서 반일부대련합판사처를 내오고 그 활동을 강화하게 하시였다.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위하여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이 파견되였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철주동지께서는 안도현, 연길현 일대에서 정력적인 활동을 벌려 반일부대들을 반일련합전선에 나서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실제적인 공동투쟁을 통하여 반일련합전선을 공고히 하실 목적으로 반일부대들을 인입하여 1933년 9월 동녕현성전투를 조직지휘하시였다.

동녕현성전투의 승리는 반일련합전선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증하였으며 반일부대들과의 련합전선을 공고히 하는데서 전환의 국면을 열어놓았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동녕현성전투가 있은후에도 반일부대들을 적극 인입하여 대규모적인 전투들을 벌림으로써 반일련합전선을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계속 구국군총사령이였던 왕덕림을 비롯한 반일부대 지휘관들과도 밀접한 련계를 가지시고 그들이 반일련합전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유격구보위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경험, 중국인민들과의 반일통일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성과에 토대하여 항일무장투쟁을 가일층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제 5 절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결성.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당적령도의 강화

항일무장투쟁과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이 급속히 강화발전되고 당조직건설사업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이 모든 투쟁을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할수 있는 당지도기관을 내오며 당조직구조를 보다 완비하는것이 절실히 요구되였다.

첫 당조직이 결성된 이후 국내와 동만의 여러곳에는 기층당조직이 급속히 확대되고 지구당위원회, 현당, 구당 위원회, 당세포, 당분조로 이루어지는 지방당조직체계가 서고 이와 병행하여 련대당위원회, 중대당세포, 소대당분조로 이루어진 유격대당조직체계가 세워졌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반적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할수 있는 지도기관을 내오는것이 당조직건설사업발전의 필수적요구로 나섰다.

이와 함께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반일민족해방투쟁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조건에서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도 통일적지도기관을 내오는것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 모든 요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편성하시면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훌륭히 해결되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편성된후 곧 당조직개편사업이 실시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1934년 5월 31일 다홍왜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당대표대회가 소집되였다. 여기에는 각 사단과 독립련대 그리고 여러 지역의 당조직들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결성이 선포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위치와 사명 그리고 각급 당조직들

앞에 나서는 당면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부대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지방당조직들을 모두 장악지도하며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하는 통일적당지도기관, 최고령도기관이였다.

당시 조선혁명이 무장투쟁을 주류로 하여 벌어지고있고 당조직건설사업도 무장대오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고있던 실정에서 이러한 통일적당지도기관, 최고령도기관을 무장대오안에 두며 그 명칭도 당이 아직 창설되지 않은 조건에서 무장대오의 당지도기관명칭으로 하는것은 전적으로 타당한것이였다. 이것은 유격전쟁을 주류로 하여 반일혁명투쟁이 전개되고있던 조건에서 혁명의 사령부가 군대안에 위치하고있었으며 한 지역에 고착되지 않고 끊임없이 유동하면서 전반적혁명운동에 대한 령도를 보장해야 하였던 실정도 정확히 반영한것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운동 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나옴으로써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조직지도체계가 서게 되였으며 보다 조직화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과 당조직건설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6～7페지)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통일적인 당조직지도체계가 세워지고 모든 당조직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일수 있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결성됨에 따라 비록 당창건은 아직 선포되지 않았으나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지도와 혁명에 대한 당적령도가 보장될수 있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주체적혁명력량이 더욱 조직화되게 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과 당조직건설사업, 전반적조선혁명운동을 더욱 힘차게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갔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군정간부회의, 당 및 공청간부회의의 형식으로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 회의를 정상적으로 소집하여 모든 로선, 정책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당조직과 인민혁명군부대들, 혁명조직들을 조직동원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무장투쟁발전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조성된 정세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옳바른 방침을 제시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갔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각 부대들과 당조직들, 혁명조직들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에 힘썼으며 특히 당대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큰 주의를 돌리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리론, 로선, 정책으로 인민혁명군대원들과 당조직, 혁명조직성원들을 무장시키고 그 관철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1934년말—1935년초에 연길현 삼도만 능지영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군사간부와 정치공작원, 유격구 당간부들을 위한 강습을 비롯하여 각종 집중강습을 수시로 조직하고 그들의 정치사상적수준과 실무적능력을 높여나갔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반일투쟁에 대한 지도도 강화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국내외의 넓은 지역으로 당조직을 급속히 확대하면서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직결속하도록 하였으며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는 대중투쟁방침을 세우고 지방의 구체적실정에 적응한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결성되고 항일무장투쟁을 비롯한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가 강화됨에 따라 류례없이 복잡하고 간고한 조건에서도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성과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었다.

제 6 절
다홍왜 및 요영구 회의, 조선혁명의 주체적 립장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 조선인민 혁명군의 광활한 지대에로의 진출

항일무장투쟁은 조선혁명의 주체적립장을 고수하기 위한 견결한 투쟁속에서 강화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혁명투쟁이 간고하고 복잡하여질수록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들었으며 우리 혁명의 주체적립장을 훼손시키려는 그 어떠한 경향에 대해서도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투쟁하였다.

이에 있어서 좌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 의연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좌경기회주의자들의 분렬주의적, 배타주의적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은 특히 반《민생단》투쟁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벌어졌다.

일제는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서 세차게 타오르는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을 꺼보려고 유격구에 대한 군사적공세와 경제적봉쇄를 강화하는 한편 저들의 앞잡이들을 잠입시켜 혁명대렬을 안으로부터 허물어보려고 간교하게 책동하였다.

일제는 1932년 2월에 민족개량주의자들과 혁명의 변절자들을 그러모아 반혁명적간첩주구단체인 《민생단》을 조작하였다. 《민생단》은 일제강점밑에서의 《조선인에 의한 간도자치》라는 구호를 내걸고 조선인민의 항일혁명투쟁을 막으며 조중인민을 리간시키고 대립시키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혁명적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민생단》의 정체는 곧 드러나고 대중으로부터 강력한 배격을 받게 되였다. 이렇게 되자 일제는 《민생단》을 해체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후 일제는 비밀리에 새로운 간첩주구단체인 《간도협조회》를 만드는 한편 마치도 혁명대렬안에 《민생단》조직이 많이 잠입한듯이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사이에 호상 불신과 반목을 조성하

기 위한 갖가지 음흉한 술책을 꾸미였다.

정치적으로 암둔한 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조중인민을 리간시키며 혁명대렬을 안으로부터 허물려는 일제와 그 추구들의 간교한 술책에 넘어가 반《민생단》투쟁을 극좌적으로 끌고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배타주의자들과 종파주의자들은 반〈민생단〉투쟁을 극좌적으로 벌리면서 공산주의자들과 적앞해분자들을 혼동하여 많은 애국자들을 박해함으로써 우리 혁명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적지 않은 반일대중을 혁명에서 리탈하게 하고 조중인민들간의 단결에 큰 지장을 주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114페지)

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운 민족해방의 과업을 《민생단》이 들고나왔던 일제강점밑에서의 《조선인에 의한 간도자치》라는 반동적인 구호와 같은것이라고 하면서 민족해방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을 정면으로 반대하였으며 조선사람들을 덮어놓고 의심하고 배척하면서 함부로 《민생단》감투를 씌워 비렬한 방법으로 중상모해하고 지어 살해까지 하였다.

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대렬과 혁명 앞에는 커다란 위험이 닥쳐왔다.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은 반《민생단》투쟁이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배타주의자들과 그 추종분자들이 직권을 악용하여 함부로 루명을 씌우고 박해하는 실정에서 그 누구도 감히 이 험악한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에 선뜻 나서지 못하였다.

조선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이 심각한 문제는 오직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 백절불굴의 혁명적의지, 그 누구도 감히 허물수 없는 높은 권위를 지니고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해결하실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민생단》투쟁에서 좌경적편향이 나타났던 초기부터 이를 반대하여 원칙적인 투쟁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단호

히 물리치시면서 억울하게 《민생단》의 루명을 쓰고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주시였다.

그러나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해독적책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4년 가을 일부 부대를 친솔하시고 북만원정을 떠나신 사이에 더욱 로골화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혁명분자》, 《적의 주구》라는 애매한 루명을 쓰고 살해되였으며 유격근거지는 또다시 심한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만원정에서 돌아오시자 간고한 원정의 길에서 쇠약해진 몸도 돌보지 않으시고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해독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결정적투쟁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5년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된 다홍왜회의에서 반《민생단》투쟁과 관련하여 벌어진 좌경배타주의적책동에 대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자주적권리이다》**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조선사람들을 함부로 《민생단》분자로 모해하는 배타주의자들의 책동을 신랄히 폭로비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동만에 있는 조선혁명가들의 80~90%가 《민생단》이거나 그 혐의자라고 떠벌인 좌경배타주의자들의 황당한 주장을 론박하시면서 반《민생단》투쟁을 협애한 배타주의적목적과 불순한 종파적야욕을 달성하는데 리용하려는 이자들의 죄행을 준렬히 단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부문제에 대한 편협한 배타주의적견해에 대하여서도 강하게 규탄하시고 간부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에서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능력을 위주로 하여 선발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에 대한 주체적립장을 철저히 옹호하여 견결히 투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승리, 조선민족해방위업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고 대신할수도 없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의 자주적권리이며 신성한 의무입니다.》(《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자주적권리이다》, 단행본, 18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운 민족해방의 구호와 《민생단》의 반동적구호를 같은것으로 보고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여나선 배타주의자들의 죄상을 까밝히시면서 국제당이 내놓은 1국1당제원칙을 내걸고 조선혁명수행을 방해하는 그들의 부당한 견해를 날카롭게 비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제당이 내놓은 1국1당제원칙은 공산주의자들 호상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분렬을 막기 위한것이지 결코 다른 나라에 가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위하여 투쟁할수 없다는것을 규정한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지금까지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피흘려 싸워왔으며 앞으로도 이 길을 꿋꿋이 걸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다홍왜회의에서 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원칙적인 투쟁과 사리정연한 론리앞에서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후 1935년 3월하순에 진행된 요영구회의에서 다시금 반《민생단》투쟁에서의 좌경적오유를 폭로비판하시고 그것을 극복청산하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민생단》투쟁에서의 좌경적오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벌리신 투쟁은 본질상 좌경기회주의자들의 배타주의와 종파분자들의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였다. 이 투쟁에 의하여 조선혁명의 주체적립장이 고수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이 보존될수 있었으며 조선혁명은 엄중한 위기로부터 구원될수 있었다.

이 준엄한 투쟁을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더욱더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님께서 밝혀주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민생단》투쟁에서의 좌경적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적들의 암해책동을 짓부시며 혁명대오안에서의 기회주의자들, 종파분자들의 분렬책동을 극복하는 정확한 투쟁원칙, 다시말하여 적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되 그것을 어디까지나 혁명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광범한 군중을 혁명의 편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방향에서 진행하는 원칙을 확고히 세우시였다. 이것은 앞으로 적들의 암해책동을 짓부시고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쟁취하기 위한 사업에서 귀중한 지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영구회의에서 유격구를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이미 이룩한 고귀한 성과와 경험들에 기초하여 혁명투쟁을 가일층 확대발전시켜야 할 절박한 임무가 나서고있습니다. 이 임무는 우리들로 하여금 제한된 지역의 유격구를 떠나 보다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하여 대규모적인 유격전을 조직전개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108페지)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하는것은 항일무장투쟁발전의 합법칙적요구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유격구에 의거하여 4~5년동안 피어린 투쟁을 벌리면서 빨리 장성강화되였으며 정치군사적으로 단련되고 귀중한 경험들을 쌓았다. 가렬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공산주의핵심들이 수많이 육성되였으며 종파주의와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강화되였다. 무장투쟁과 당창건을 위한 대중적지반도 튼튼히 꾸려지고 중국인민들과의 반일공동전선도 성과적으로 실현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해방지구에만 머물러있을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산하고 국내와 남만, 북만 등 보다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하여 더욱 진공적으로 활동하여야 하였다. 그래

야만 무장투쟁을 확대하여 적에게 보다 큰 정치군사적타격을 줄수 있었으며 당창건사업과 통일전선사업도 더욱 폭넓고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하는것은 당시 조성된 정세의 요구이기도 하였다.

당시 일제는 수만의 정예무력을 동원하여 유격구를 겹겹이 포위하고 날마다 《토벌》작전을 감행하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과 인민대중의 련계를 끊어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이러한 정세에서 고정된 유격구를 보위하는데만 몰두한다면 적과의 싸움에서 피동에 빠질수 있었으며 다년간에 걸쳐 육성된 혁명력량을 보존하기조차 어렵게 될것이였다. 고정된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역에 진출하여 진공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려야 혁명투쟁을 주동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구사수》를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군사모험주의적견해를 비판하시면서 그것은 혁명에 큰 손실을 줄수 있다는것을 상세히 일깨워주시였다.

유격구를 해산하고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은 당시의 주객관적조건들에 비추어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민의 반일혁명투쟁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유일하게 정확한 방침이였다.

요영구회의후 유격구를 해산하는 사업이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구해산에 앞서 모든 유격구역들에서 군민련합대회를 열고 유격구해산을 위한 사상동원사업을 진행하게 하시였으며 1935년 4월 몸소 요영구군민련합대회에 참석하시여 유격구해산의 목적과 의의를 해설해주시고 그들의 차후활동방향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유격구의 군중가운데서 청년의용군, 반일자위대를 비롯한 반군사조직들과 그밖의 혁명조직들에서 교양되고 단련된 청장년들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오에 편입되였다. 다른 혁명군중은 적통치구역에 가서 혁명사업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일부 부대를 북부조선

일대에로, 다른 일부 부대는 남만일대에로 진출시키신 다음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1935년 6월하순 북만원정의 길을 떠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솔밑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북만원정에 앞서 1935년 6월중순 로흑산일대에서 인민들에 대한 학살과 략탈을 일삼던 가장 악질적인 《정안군》을 소멸하는 전투를 진행하였다. 로흑산전투의 승리는 장성강화된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널리 시위하였으며 넓은 지역에로 진출하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전투사기를 끝없이 높여주었다.

로흑산전투후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높고 험한 로야령을 넘어 북만에 이르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북만의 넓은 지역을 유동하면서 녕안현 산동툰전투, 액목현 청구자전투, 판지부근 류채구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을 진행하여 적들에게 련속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주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군사활동과 함께 정치사업을 적극 벌려 광범한 군중에게 혁명적영향을 주었으며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우수한 지휘관들과 대원들을 북만에서 활동하고있는 유격부대들에 파견하시여 그 부대들을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릴수 있게 도와주시였다.

이 시기 북부조선일대에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와 두만강연안일대와 남만방향으로 진출한 부대들도 도처에서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려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광활한 지대에로의 진출은 부대들의 전투력을 강화할수 있게 하였으며 인민대중속에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었다.

1930년대 전반기는 항일무장투쟁발전의 첫 단계로서 이 시기에 유격구—해방지구에 의거하여 항일유격대력량이 급속히 강화되였으며 무장투쟁을 비롯한 모든 혁명투쟁을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제반 조건들이 닦아졌다.

갓 창건된 항일유격대는 치렬한 전투속에서 장성하여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결성되여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조직지도체계가 서고 무장투쟁과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가 실현되게 되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각종 대중조직들을 급속히 확대하고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게 되였다.

이 시기 항일유격대와 유격구를 《소탕》하려던 일제의 발광적인 집중공격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 조선혁명을 엄중한 위기에 빠뜨린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혁명의 주체적립장을 고수하며 공산주의대오의 통일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 등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투쟁들이 진행되였다. 이 투쟁과정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군중이 굳게 뭉치게 되고 주체적혁명력량이 더욱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1930년대 전반기의 투쟁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들은 앞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되였다.

제 3 장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반일민족 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 올리기 위한 투쟁. 전국적범위에서 당창건준비사업의 적극적추진

(1936. 2—1940. 8)

제 1 절
남호두회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방침

1930년대중엽에 이르러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끄는것이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로 제기되였다.

지난 수년간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주도적력량으로 하는 주체적혁명력량이 튼튼히 꾸려진 조건에서 이에 의거하여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가일층 발전시키는것이 절박한 요구로 나섰다.

당시 안팎의 정세도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롭게 발전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국제무대에서는 파시즘세력과 반파시즘세력간에 첨예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었으며 이 투쟁속에서 국제파시즘은 세계인민들로부터 점점 고립되고 반파쑈민주력량과 민족해방력량은 날을 따라 장성강화되고있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자국내에서 군사파쑈체제를 강화하면서 중

국관내에 대한 침략준비에 한층더 열을 올리고있었으며 조선을 대륙침략의 《공고한 후방》으로,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인민에 대한 폭압과 략탈을 강화하는 동시에 《황국신민화》정책을 강압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인민의 반일기운이 더욱 고조되여갔다.

조성된 정세는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무장투쟁을 비롯한 모든 혁명투쟁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1936년 2월말부터 3월초에 걸쳐 녕안현 남호두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요영구회의후 국제당에 파견되였던 일군들도 참가하였다.

국제당에 파견되였던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견지하고있는 조선혁명에 대한 주체적립장과 주체적로선들 그리고 반《민생단》투쟁의 좌경적오유에 대한 원칙적립장에 대하여 국제당이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한데 대하여 통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우리 인민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가일층 발전시키는것이라고 강조하시고 여기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에로 진출시키며 투쟁무대를 점차 국내에로 확대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단계에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하여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에로 진출시키며 우리의 투쟁무대를 점차 국내에로 확대해나가야 합니

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112～113폐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투쟁무대를 국경지대로 옮기고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여야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고있던 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의 희망과 혁명승리의 신심을 안겨줄수 있고 국내인민들의 반일투쟁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수 있었다. 무장투쟁의 무대를 국경지대와 국내에로 옮기는것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당창건준비사업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서도 중요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국경지대, 특히 국내에로 투쟁무대를 옮길데 대한 방침은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철하기 위한것으로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로 하여금 자기의 근본사명을 보다 원만히 수행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진공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국경지대와 국내에 진출하여 반일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하여 국경일대에 새로운 유격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과업을 내놓으시였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경일대는 유격근거지를 창설하는데 좋은 군중적지반과 자연지리적조건을 갖추고있었으며 장차 백무고원, 개마고원, 랑림산줄기로 뻗어나가면서 근거지를 국내종심깊이에로 넓히고 전국적판도에서 무장투쟁을 확대하는데 매우 유리한 지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대산림지대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의거하여 활동할수 있는 밀영망을 형성하고 그 주변 인민들을 조직화하여 반유격구형태의 유격근거지를 꾸릴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이러한 반유격구형태의 유격근거지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한 지역에 고착되지 않고 유동작전을 벌리면서 유격투쟁을 넓은 지역에로 확대해나가는데 아주 적합한 유격근거지형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경일대와 국내에서 무장투쟁을 성과적으로 조직전개하기 위하여서는 무장대오를 확대강화하며 특히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중요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국경지대로 진출하는 조건에서도 항일련합군의 이름으로 중국공산주의자들과 항일무장투쟁을 공동으로 벌려나갈데 대하여서도 토의되였다.

당시 국제당에서는 만주에서 활동하는 조중항일무장부대를 조선인부대와 중국인부대로 갈라 편성하고 활동할데 대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그때의 형편에서 조선인부대와 중국인부대를 갈라 편성한다면 조중인민의 항일무장투쟁발전에 다같이 손실을 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실태를 깊이 통찰하시고 조선인부대들이 항일련합군의 이름으로 중국인부대들과 항일무장투쟁을 공동으로 계속 전개하는 방침을 견지하도록 하시였다.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를 내올데 대하여 밝히시고 그것은 전민족을 조국광복전선에 한결같이 조직동원하는 대중적인 혁명조직으로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모든 청년들을 반일조국광복전선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청년들만 받아들이던 공청을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광범한 애국청년들을 망라시킬수 있는 대중적인 청년조직으로서 조선반일청년동맹을 조직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상설적인 포괄적통일전선조직을 내올데 대한 방침은 통일전선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이 운동을 더욱 조직화, 체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침이였다.

다음으로 회의에서 제시된 중요한 과업은 당창건준비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적극 추진시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창건준비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강력히 전개하여 정세가 조성되면 제때에 당을 창건할수 있도록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축성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123페지)

당창건준비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적극 추진시키는것은 이미부터 전개되여온 당조직건설사업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였으며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일대 앙양을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였다.

당창건준비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강력히 전개하여야 당창건의 조직적기초와 사상적기초,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쌓고 정세가 조성되면 제때에 당을 창건할수 있으며 당면하게는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창건준비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과 각 지역, 특히는 국내의 넓은 지역에 당조직을 확대하고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로부터 지방당조직들에 이르기까지 통일적인 조직지도체계를 세우며 당장성사업을 적극 벌려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또한 종파주의,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주체적혁명로선에 기초하여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을 강화함으로써 당창건의 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닦으며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을 광범히 결속하여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이 모든 방침들은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당창건방침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방침들이였다.

이렇듯 남호두회의에서는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기 위한 방침들이 전면적으로 제시되였다.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혁명의 주체적로선을 더욱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것, 모든 투쟁을 국내깊이 확대하고 조선 공산주의운동과 혁명운동을 새로운 일대 앙양에로 이끄는것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에 관통되고있는 근본사상이며 남호두회의의 기본정신이였다.

참으로 남호두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조선혁명의 발전에서 커다란 전환을 가져오게 한 력사적인 회의였으

며 당조직건설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힘있게 벌려 정세가 조성되면 제때에 당창건을 선포할수 있는 모든 준비를 튼튼히 갖추어나가는 데서 리정표로 된 중요한 회의였다.

제 2 절
조 국 광 복 회 창 건

남호두회의후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국경지대를 향하여 진군하였다. 이 진군과정에 남호두회의 방침들을 관철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3월 미혼진에서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재편성하며 새 사단을 내오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회의후 새 사단 편성사업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안산지구에서 아직도 《민생단》혐의를 받고 전투대오에서 떨어져있던 한 150명의 대원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반《민생단》투쟁에서의 좌경배타주의적책동의 후과를 종국적으로 청산하시였으며 그들모두를 새로 편성되는 사단에 받아들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으로서 조국광복회를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창건준비위원회를 조직하시고 정치공작원들을 각지에 파견하시였으며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도 작성하시였다.

1936년 5월 무송현 동강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가 소집되였다. 회의에는 각지 독립운동자대표들이 초빙되였다.

동강회의에서는 상설적인 민족통일전선조직으로서의 조국광복회창건문제가 중요하게 토의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올리자》라

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조국광복회창건문제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진행하는데서 지켜야할 원칙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반적조선혁명의 새로운 앙양을 가져오기 위한 문제들을 밝히시였다.

동강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에 기초하여 상설적이며 포괄적인 민족통일전선조직으로서의 조국광복회를 결성할것을 결정하였으며 그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채택하였다. 또한 조국광복회 기관지로서 《3.1월간》을 발간할것을 결정하였다.

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의 창건이 선포되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추대되시였다.

조국광복회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포괄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였다. 민족통일전선조직으로서의 조국광복회의 특징은 정당, 사회단체들의 련합전선의 형태가 아니라 자체의 독자적인 조직지도체계를 가진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이며 강력한 지하혁명조직이였다는데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기본과업들을 전면적으로 규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는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진정한 조선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문제,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싸울 혁명군대를 조직할데 대한 문제, 산업국유화와 토지개혁, 8시간로동제, 남녀평등권,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비롯하여 제반 민주주의적시책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들을 규정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9권, 144페지)

조국광복회강령은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과업으로서 광범한 반일통일전선을 실현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전복하고 진정한 조선인민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과업과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진정하게 싸울수 있는 혁명군대를 조직할데 대한 과업을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남녀평등권을 비롯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해외조선공민

들의 민족적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과업들도 규정하였다.

조국광복회강령은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과업으로서 토지개혁과 중요산업의 국유화의 기본요구를 제기하고 8시간로동제와 민주주의적로동보호제를 비롯하여 근로대중의 생활처지를 개선할데 대한 과업과 민족적 공, 농, 상업을 발전시켜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내세웠다.

강령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일제식민지통치제도와 봉건잔재를 숙청하며 민주주의적 민족교육과 민족문화를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들도 규정하였다.

강령은 조선민족을 평등하게 대하며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선의와 중립을 표시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유지할데 대한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을 밝혔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대렬을 하나의 투쟁목표밑에 결속시키고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여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주체적인 혁명강령이였다. 강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로동계급의 기본요구와 각계각층 인민들의 리해관계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민족해방의 과업과 민주주의적사회변혁의 과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독창적인 혁명강령이였으며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의 진정한 혁명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힌 위대한 고전적문헌이였다.

《조국광복회규약》은 본조항 8개 장 14개 조와 부칙 3개 조로 구성되였으며 여기에는 통일전선조직체의 명칭과 가입대상, 투쟁목적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회원의 자격과 입회방법, 조직원칙과 형식, 각급 조직들의 활동규범, 회원의 임무와 권리, 조직규률, 특수회원의 자격 및 공작임무들이 규정되였다.

조국광복회규약은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유일한 조직 원칙과 규범에 의하여 최대한으로 결속하고 그들을 반일투쟁에 통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은 조국광복회의 창립을 내외에 널리 알리고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이르는곳마다에서 조국광복회조직을 결성하며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기치밑에 전민족이 단합하여 조국의

광복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호소한 력사적인 문헌이였다.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36년 5월 5일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혁명의 군중적지반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습니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 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국적범위에서 빨리 발전하게 되였으며 모든 반제력량을 나라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4권, 332페지)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통일전선로선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항일무장투쟁, 당창건준비사업을 가일층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일대 전환적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범위에서 더욱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더욱 굳게 결속하고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전면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항일무장투쟁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밀접히 결합시켜 모든 반일력량을 항일혁명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되였으며 조국광복회의 조직망을 거점으로 하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축성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더욱 활발히 벌릴수 있게 되였다. 특히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내세워야 할 강령적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우리 당창건을 위한 투쟁에서 당의 강령을 준비하는 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국광복회의 창건과 그 활동을 통하여 국제로동계급에게 전민족의 애국력량을 조직적으로 결속하여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는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었으며 국제적인 반파쑈투쟁전선을 확대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제 3 절
백두산근거지의 창설과 국내깊이에로의 비밀근거지들의 확대. 보천보전투

동강회의후 백두산일대의 국경지대에 새로운 유격근거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백두산일대에 새로운 유격근거지를 창설하는것은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혁명운동을 국내깊이에로 확대하고 전반적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기 위한 전략적기지, 책원지를 마련하는 중대한 사업이였다.

새 유격근거지 창설사업은 일제군경들과의 치렬한 전투를 동반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국경지대로 진출하면서 1936년 6월—8월사이에 로령전투, 시난차전투, 서강전투와 무송현성진공전투를 진행하여 무송현일대의 적들을 제압하였으며 9월에는 압록강연안에서 대덕수전투, 소덕수전투, 반절구전투, 20도구전투들을 련속 벌려 장백현일대의 적들의 중요거점들을 타격하고 근거지창설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놓았다.

이에 기초하여 백두산대산림속에 밀영망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 창설되는 유격근거지에서 밀영망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명백히 밝히시고 그것을 부대들의 휴식과 훈련, 작전보장에 유리하고 주민지대와 련계를 가질수 있으며 전반적혁명운동에 대한 령도를 실현해나가는데 편리한곳들에 꾸리도록 하시였다.

밀영망건설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 사업할 밀영지, 다시말해서 전반적혁명운동에 대한 령도의 중심거점으로 될 밀영지를 잘 꾸리는것이였다.

민족해방을 위한 유격전쟁에서 혁명의 사령부가 위치할 령도의

중심거점을 잘 꾸리는것은 사령부의 안전과 전반적혁명운동에 대한 수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문제였다. 더우기 그것은 일제의 폭압과 《토벌》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된 반면에 전국적범위에서 혁명운동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야 할 요구가 전면에 제기된 당시에 있어서 조선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강회의 직후에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 성원들의 회의에서 령도의 중심거점을 잘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그것을 적들의 공세가 아무리 강화되는 조건에서도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수 있고 전반적조선혁명을 령도하기에 적합한곳인 소백수골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의 백두산심산지구에 꾸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김주현, 리동학, 김해산을 비롯한 군사정치일군들에게 령도의 중심거점으로 될 밀영지를 꾸릴데 대한 임무를 주어 백두산지구에 파견하시였으며 1936년 9월하순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 성원들을 친솔하시고 백두산지구에 나오시여 현지에서 밀영지건설을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때 소백수골에서 주력부대 성원들의 회의를 여시고 백두산의 깊은 수림지대에 극비의 밀영지를 잘 꾸려 그것이 적들에게 절대로 로출되지 않고 전반적혁명운동에 대한 통일적령도를 믿음직하게 보장하는 혁명의 기본전략적기지, 령도의 중심거점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으며 이 밀영지에 자리잡은 사령부밀영을 비롯하여 그 주변에 배치할 매개 밀영들의 위치와 규모, 사명과 역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짧은 기간에 소백수골안에 사령부밀영인 백두산밀영이 꾸려지고 사자봉일대에는 비서처와 출판소밀영, 곰산일대에는 국내 공산주의자들과 정치공작원들과의 련계를 취하는 밀영들이 꾸려졌다. 그리고 소연지봉일대에 후방병원밀영과 재봉소, 무기수리소 밀영이, 무두봉, 선오산 일대를 비롯한 여러곳에 각이한 사명을 지닌 밀영들이 건설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밀영들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1호밀영, 2호밀영, 3호밀영 등으로 부르게 하시였으며 1호밀영은 일부 제한된 성원들만이 밀영을 리용하고 밀영에 대한 련락도 김주현을 비롯하여 밀영건설에 참가하였던 대원들이 담당수행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백두산지구의 국내일대에는 조선혁명에 대한 령도의 중심거점인 비밀근거지가 꾸려지게 되였다.

백두산지구비밀근거지의 창설은 전국각지에서 벌어지는 모든 혁명운동에 대한 통일적령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수 있는 강력한 전략적기지를 마련한 거대한 력사적사변으로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령도의 중심거점을 꾸리는 한편 곰의골, 홍두산, 되골령, 횡산 지구를 비롯한 백두산의 넓은 산림지대에 각이한 형식의 밀영지들을 건설하였다.

이 밀영지들은 혁명의 사령부가 있던 백두산밀영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게 전개되였으며 부대들의 군사정치활동과 백두산지구의 지하혁명조직들과의 련계에 유리한곳들에 설치되였다. 밀영지들에는 지휘소, 병실, 무기수리소, 피복수리소, 병원, 출판소, 련락소 등의 각이한 사명을 지닌 밀영들이 있었다. 이 밀영지들은 국경일대와 국내깊이에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을 확대하기 위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작전기지, 활동기지, 후방기지로, 백두산지구의 주민지대를 혁명화하고 장악통제하는 믿음직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수행하였다.

여러곳에 밀영지들이 건설됨으로써 백두산일대에는 강력한 밀영망이 형성되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백두산주변지역 인민들속에 지하혁명조직을 내오고 그 지역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리였다.

권영벽, 지태환, 박록금을 비롯한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이 백두산주변의 주민지대에 파견되였다. 그들은 인민들속에서 대중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 여러곳에 당 및 조국광복회 조직들을 내

오고 광범한 인민들을 혁명화하여나갔다. 정치공작원들은 인민들을 혁명화하는 한편 혁명조직의 핵심적인 일군들을 적들의 말단통치기관들에 침투시켜 향장, 촌장, 십가장 등의 직위를 차지하고 적들의 통치기능을 마비시키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지방주민들속에 들어가시여 정치사업을 하시고 곰의골밀영에서 리제순 등 핵심청년들에게 강습도 주시면서 백두산일대를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에 의하여 당 및 조국광복회 조직망이 조밀하게 형성되고 적통치기관들이 혁명조직성원들에게 장악되게 됨으로써 백두산주변 주민지대는 형식상으로는 적들의 행정권이 미치지만 실제적으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장악통제하는 혁명화된 지역으로 전변되였다.

백두산근거지는 대산림지대의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리용하여 설치된 조선인민혁명군의 밀영망과 그 주변지역 인민들속에 깊이 뿌리박은 지하혁명조직망으로 구성된 반유격구형태의 근거지였으며 적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혁명의 성새였다.

백두산근거지의 창설은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백두산근거지의 창설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며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할데 대한 남호두회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됩니다. 백두산근거지가 창설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은 그곳에 튼튼히 의거하여 국내깊이 들어가 군사정치활동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였으며 인민들을 대중적인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게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135페지)

백두산근거지는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기 위한 조선혁명의 책원지, 기본전략적기지였다.

백두산근거지가 창설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은 적들의 폭압파

발악적인 《토벌》공세가 날로 강화되는 조건에서도 자체의 튼튼한 전략적기지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하여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휴식과 훈련, 유격대력량을 보존강화하는 사업을 안전하게 체계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백두산근거지가 창설됨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그에 의거하여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 당적령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하여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항일무장투쟁과의 밀접한 련계밑에 당창건준비사업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국적판도에서 급속히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한후 계속하여 국내깊이에로 비밀근거지들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갔다.

국내깊이에로 비밀근거지를 확대하는것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활동기지, 작전기지, 후방기지를 국내의 종심지대들에까지 꾸림으로써 전국적판도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활발히 전개하고 광범한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7년 3월 서강회의에서 백두산근거지를 랑림산줄기일대에 확대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그후 국내비밀근거지의 창설지대와 그 형태들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부대와 정치공작원들을 국내 여러곳에 파견하시여 군사정치활동에 유리한 산림지대에 밀영과 련락소 등 여러가지 형태의 근거지를 꾸리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몸소 여러차례에 걸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후창, 랑림, 부전, 신흥, 양덕 지구를 비롯한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평안남도 일대 등 여러 지역에 진출하시여 이 일대에서 활동하는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의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국내깊이에로 무장투쟁의 범위를 확대해나가면서 분담된 지역들에서의 군사활동과 대중정치사업에 유리한 산림지대들에 비밀근거지들을 꾸리였다. 이러한 비밀근거지들은 백암, 풍산, 후창, 후치령, 랑림산줄기, 신흥, 위원, 창성, 오가산지구를 비롯한 북부조선일대와 덕천, 양덕, 안주, 평성, 구월산,

토산, 태백산줄기 지구를 비롯한 중부조선일대, 지리산지구를 비롯한 남부조선일대 등 전국각지의 정치군사적으로 중요한 지대들에 수많이 꾸려졌다.

국내도처에 꾸려진 비밀근거지들은 백두산밀영에 자리잡은 혁명의 사령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지역에서 벌어지는 무장투쟁, 당조직건설을 위한 투쟁, 조국광복회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반일대중투쟁, 전민항쟁준비사업 등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지역적령도거점,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활동기지, 작전기지, 후방기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의 도처에 비밀근거지가 창설됨으로써 유격근거지는 국경일대로부터 전국적판도의 중요지대들에까지 확대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백두산근거지와 국내비밀근거지들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급속히 확대해나갔다.

조선인민혁명군은 1936년—1937년 겨울 일제의 대대적인 《동기토벌》을 격파함으로써 무장투쟁을 넓은 지역, 특히 국내에로 확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국경지대진출과 백두산근거지창설에 극도로 당황한 일제는 1936년 10월 조선총독과 만주주둔 관동군 사령관사이의 이른바 《도문회담》을 벌려놓고 우리 나라 국경지대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며 만주지역에 《집단부락》을 대대적으로 설치하는 한편 방대한 병력을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에 집중할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뒤이어 일제는 백두산주변에 저들의 무력을 대대적으로 집결시켰으며 1936년 11월부터 대규모적인 《동기토벌》을 감행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11월 꼼의골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적들의 《동기토벌》을 격파하기 위한 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대부대활동과 소부대활동을 밀접히 결합하고 집중과 분산, 유인, 매복, 야습 전술을 능란하게 활용하여 집요하게 달려드는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1937년 2월의 홍두산전투와 도천리전투, 리명수전투의 승리를 계기로 적들

의 《동기토벌》을 완전히 격파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적들의 《동기토벌》을 격파하는 어려운 전투환경속에서도 백두산근거지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적극 벌려 그들의 반일기세를 북돋아주었다. 국경일대에 몰려들었던 적들의 대병력을 무찌르는 치렬한 투쟁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투력이 급속히 강화되고 백두산근거지가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많은 소부대들을 국내 여러 지역에 파견하는 한편 대규모적인 국내진공작전을 벌려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7년 3월 서강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으로 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의 서광을 안겨주자》에서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은 일제의 학정밑에서 신음하는 조선인민에게 조국광복의 서광을 안겨주고 그들을 항일대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을 국내깊이에로 확대하기 위한 돌파구를 여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서강회의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작전이 전개되였다.

최현이 인솔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는 국내 무산방향으로, 다른 한 부대는 림강, 장백 일대로 진출하여 국경일대의 적의 력량을 분산시키고 놈들의 국경경비에 혼란을 조성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력부대에서 우수한 대원들로 원정대를 편성하시였으며 5월하순에 곰산밀영에 나오시여 보천보일대의 적정을 료해하시면서 국내진공작전준비를 다그치시였다.

무산과 장백, 림강 일대에 진출한 부대들의 활동정형과 적들의 움직임을 수시로 장악하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산지구에 진출한 부대가 적의 집중적인 포위공격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자 예정하셨던 날자보다 앞당겨 6월 4일에 원정대를 친솔하시고 적의 전략상 요충지인 보천보를 공격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용감하고 민활한 전투행동으로 경찰

판주재소, 면사무소를 비롯한 일제의 통치기관들을 순식간에 습격소탕하고 보천보일대를 해방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작성하신 《포고》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거리에 내붙이고 여러가지 격문과 삐라들을 살포하면서 인민들에 대한 정치선동을 적극 벌리였다.

인민들은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전설적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진군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인민들앞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여 그들의 가슴마다에 투쟁의 불씨, 필승의 신념을 심어주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원정대가 승리의 개가높이 보천보를 철수할무렵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에 질겁한 일제는 황급히 《특설경비대》를 비롯한 경찰대들과 국경수비대, 조선강점 일본군과 위만군부대들을 동원하여 미친듯이 달려들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뒤따라오는 적들을 구시산과 간삼봉계선에서 섬멸적인 타격을 가하여 적들의 《토벌》책동을 완전히 파탄시켰다.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 의의는 일본놈을 몇명 죽인데 있는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신념을 북돋아주는 혁명의 서광을 비쳐준데 있습니다. 보천보전투는 조선사람은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다, 〈내선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놈과 조선사람은 〈동조동근〉이 아니다, 조선사람은 일본놈과 함께 중국을 침략하지 않는다, 조선사람은 모국어를 버리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성을 일본놈성으로 바꾸지 않을것이다, 조선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일본놈과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전세계에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보천보전투의 전략적의의입니다. 여기에 보천보전투의 력사적의의가 있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

12권, 288～289페지)

보천보전투의 빛나는 승리는 우리 인민들에게 조선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제침략자들과 맞서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안겨주었으며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또한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주고 조선인민에 대한 폭압과 략탈에 미쳐날뛰던 놈들을 걷잡을수 없는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었으며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를 밑뿌리로부터 뒤흔들어놓았다.

보천보전투의 빛나는 승리는 식민지인민들이 침략자를 반대하여 일떠서 손에 무장을 들고 억세게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고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파쑈투쟁과 민족해방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보천보전투의 소식은 삽시에 방송과 신문, 잡지들을 통하여 온 조선땅은 물론 일본,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널리 퍼졌으며 이 전투를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성은 전체 애국적조선인민과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의 가슴속에 《해방의 구성》, 《민족의 태양》, 《위대한 군사전략가》, 《전설적영웅》, 《강철의 령장》으로 더욱 깊이 아로새겨지게 되였다.

보천보전투의 승리로 하여 항일무장투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하기 위한 돌파구가 형성되였다.

제 4 절
국내당공작위원회 결성. 전국적범위에로 당 및 조국광복회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

백두산근거지에 의거하여 당창건준비사업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전국적범위에서 힘있게 추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9월 장백현 19도구 마순

구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시고 전국적범위에서 당조직건설사업과 조국광복회 조직건설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수행을 위하여 정치공작원들을 압록강, 두만강 연안과 국내각지에 파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조직들을 국내 넓은 지역에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시는 한편 국내에서의 당조직건설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기 위한 지역적당지도기관으로서 국내당공작위원회를 내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6년 12월 국내공산주의자들에게 친서를 보내시였으며 이와 함께 국내에서 활동하던 박달을 백두산근거지에 부르시여 국내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당면임무와 활동방향을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자주적인 당창건방침을 밝혀주시고 국내에서의 당조직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에서 당창건준비사업을 힘있게 다그치자면 종파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적혁명로선에 기초한 공산주의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단위, 모든 지역들에서 당세포, 당분조들을 내오며 당조직들을 아래로부터 울리 건설하여야 한다고 밝히시였다. 이와 함께 조직사업에서 발로시켰던 좌경관문주의적경향을 극복하고 당장성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며 당조직을 내올수 있는데서는 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당조직을 내올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지 못한데서는 대중단체를 먼저 조직하여 여기에서 자라난 핵심들로 당조직을 내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에서 조국광복회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준비에 기초하여 1936년 12월 31일 국내당공작위원회를 결성하시였다.

국내당공작위원회는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국내의 당조직들과 혁명운동에 대한 통일적인 령도를 실현해나가는 지

역적당지도기관이였다.

국내당공작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국내에서의 당조직건설사업과 공산주의운동이 더욱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전개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1937년 5월하순 곰산밀영에서 진행된 국내당공작위원회 회의는 국내당공작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국내에서의 당조직건설사업과 혁명운동에 대한 지도를 한층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국내당공작위원회결성이후 당조직결성정형을 총화하시고 국내당조직건설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 과업과 방도들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조직건설, 당생활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할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당조직과 대중단체를 조직하는 순차를 지방의 실정에 맞게 할데 대하여 다시금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을 당조직을 비롯한 혁명조직에 묶어세우고 광범한 대중속에 당조직을 내오며 당조직들이 확대되는데 맞는 당조직지도체계를 확립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내에서의 당조직건설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 북선정치공작대를 국내에 파견하는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시였다.

1937년 가을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우수한 정치일군들로 편성된 북선정치공작대는 북부조선을 비롯한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 분산되여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과 핵심군중을 장악하여 교양하면서 당조직들을 내왔으며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 그들을 적극적인 반일대중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다.

전국적판도에서 당조직건설사업을 추진시켜나가는데서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정치공작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1937년 3월중순 압록강연안에 파견되시였으며 국내의 신파, 풍산 지구와 량림, 부전, 신흥, 북청, 리원, 단

천, 허천 일대 그리고 장백일대에서 정력적이며 헌신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적들의 삼엄한 경계속에서도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널리 해설선전하시였으며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여러 지역에 당조직과 조국광복회 조직, 부녀회조직을 내오시고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을 튼튼히 묶어세우시였다.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정치공작원들과 국내당공작위원회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국내의 넓은 지역에 당조직들이 급속히 확대되였다. 짧은 시일안에 신파를 비롯한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의 여러 광산, 탄광, 공장, 농촌, 어촌, 도시들 그리고 전국각지에 당조직들이 결성되였다.

장백, 무송, 림강 일대의 조선인거주지역들에도 당조직들이 뿌리를 박았으며 동만과 남만 일대에서도 당조직들이 확대되였다.

전국적범위에서 당조직건설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분산되여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결속되고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가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전국적범위에서 당조직들이 확대되는데 따라 이에 맞게 정연한 당조직지도체계를 확립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안의 각급 당조직들이 개편정비되였으며 국내당공작위원회의 지도밑에 움직이는 국내의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수립되였다.

1937년 2월에는 장백현당위원회가 조직되고 남만일대의 당조직들에 대한 지도체계가 세워졌으며 이미 1936년 3월에 조직되여 활동하던 동만당공작위원회가 더욱 튼튼히 꾸려졌다. 지역적당지도기관들과 함께 그의 지도를 받는 지구당위원회, 현당위원회들과 구당위원회 등 각급 지도기관들이 조직정비되였다.

그리하여 모든 당조직들이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움직이는 전국적범위의 강력한 당조직지도체계가 세워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성하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진행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는 비록 당중앙을 선포하지 않았지만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내와 국내외 로동자, 농민들 속에 당조직들과 각종 지하혁명조직들을 내왔으며 이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고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178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고령도기관인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로부터 기층조직인 세포에 이르기까지 당조직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짐에 따라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축성사업에서 획기적발전이 이룩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조직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전국적판도에서 조국광복회 조직건설사업도 적극 추진시키시였으며 조국광복회운동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강회의와 1936년 9월에 있은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과 당정치일군강습회들 그리고 1937년 봄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조선에서 광범한 군중의 반일운동을 어떻게 조직할것인가》에서 조국광복회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서 나서는 구체적과업들과 조국광복회 운동에 대한 당적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원칙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명확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조국광복회 조직에서 확고한 지도적지위를 차지하고 그 조직을 혁명적으로 지도하며 통일전선운동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반일애국력량을 최대한으로 묶어세우는 동시에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며 단결과 투쟁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을 조국광복회 운동에 대한 당적령도의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각 계급, 계층들과의 사업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서도 뚜렷이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과 그 동맹자인 농민대중을 광범히 조직결속하고 그들의 계급적각오와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자각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사업하며 청년학생,

지식인들과의 사업에도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리고 민족자본가와 민족주의자들, 종교인들과의 사업에 심중한 주의를 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그들과의 사업에서는 하층통일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상층통일을 옳게 결합시키며 단결하면서 부정적측면과는 투쟁하는 원칙을 신축성있게 적용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이와 함께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과의 사업에 관심을 돌리며 그들을 봉건적인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반일혁명투쟁에 나서도록 교양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 운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비합법적활동과 합법적활동을 옳게 배합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여러가지 합법적조직들, 지어는 반동단체들까지도 리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통치기관에 깊이 들어가서 활동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치공작원들과 리제순을 비롯하여 장백일대와 국내에서 료해선발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조국광복회 조직확대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에 대한 강습을 주시여 여러곳에 파견하시였다. 그리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대한 해설론문을 발표하시여 광범한 인민들이 조국광복회 운동의 본질과 목적,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인식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광복회 운동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우선 백두산근거지안에서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여 이 일대가 조국광복회 운동을 전국적범위에로 확대하기 위한 믿음직한 거점으로 되였다.

조국광복회 조직이 전국적범위에로 확대되여갔으며 불과 수개월동안에 수십만의 군중이 여기에 망라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회는 창건된후 극히 짧은 기간내에 수많은 반일군중을 자기 산하에 망라시킨 강유력한 지하혁명조직으로, 가장 광범한 대중조직으로 장성발전하였다.

지금 만주와 국내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반일대중과 각계

각층 애국인사들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받들고 반일민족통일전선에 광범히 망라되여 혁명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이미 광활한 만주각지와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강원도의 중요도시들과 농촌들을 비롯한 국내도처에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이 결성되여 활발히 활동하고있으며 전국에 하나의 조밀한 조직망이 형성되여가고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169페지)

국내에서 조국광복회 조직망은 함경남북도와 평안북도 등 북부조선일대와 평안남도, 강원도, 경기도를 비롯한 중부조선일대 그리고 경상남도를 비롯한 남부조선일대 등 전국의 여러 지역들에 확대되였다.

조국광복회 조직망은 만주의 조선인거주지역들에도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일본의 여러 조선인거주지들에까지 뻗치였다.

조국광복회 조직들에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시민, 중소상공업자, 민족주의자, 애국적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인민들이 널리 망라되였다. 최윤구가 인솔하던 민족주의자들의 《독립군》부대도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지지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 참가하였으며 나중에는 조선인민혁명군에 편입되게 되였다.

진보적인 천도교인들도 조국광복회에 수많이 망라되여 활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종교인들가운데서 천도교인들이 노는 중요한 역할과 반일애국을 지향하는 그들의 동향을 깊이 헤아리시고 천도교인들을 조국광복회 조직에 묶어세울데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6년 11월에 몸소 백두산지구비밀근거지의 사자봉밀영에서 천도교의 함경남도 도정이였던 박인진을 만나시여 조국광복회 운동의 목적을 밝히시고 그에게 조국광복회 운동에 나설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후 우리 나라 북부지대와 장백일대의 천도교상층부가 조국광복회를 적극 지지하여나섰으며 풍산을 비롯한 여러 지방의 천도교인들이 자진하여 조국광복회 조직을 결성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7년 가을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를 이끄시고 풍산지구에 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에 며칠동안 머무르시면서 당 및 조국광복회 조직 성원들과 여러가지 회의를 하시고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 대한 연설도 하시였으며 이곳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특히 천도교인들이 많은 이 지대의 특성에 맞게 교인들을 널리 조국광복회 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 천도교인들의 압도적다수가 애국적인민들이라는 실정을 고려하시여 그해 겨울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천도교대회에 박인진을 비롯한 천도교 교직자들과 김봉석 등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시여 전국의 천도교인들에게 혁명적영향을 주기 위한 대책도 취하시였다.

조국광복회 조직들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그에 대한 통일적인 조직지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벌어졌다.

백두산근거지일대에서는 1937년 2월에 조국광복회 장백현위원회가 조직된것을 계기로 하여 현, 구, 지부 등 각급 단위의 조직들이 나와 정연한 지도체계가 세워졌다.

국내에서도 북청지구위원회를 비롯한 조국광복회의 지구별 지도기관들과 각급 조직들이 결성되여 정연한 조직지도체계가 확립되였다. 동만과 남만, 북만 일대의 조국광복회 조직들을 지도하는 체계도 튼튼히 세워졌다.

조국광복회 각급 조직들의 지도적자리에는 해당 지역 당조직에서 우수한 당원들이 파견됨으로써 조국광복회 조직들에 대한 당적지도가 강화될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조국광복회 운동전반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할수 있는 조국광복회 조직지도체계가 확립되였으며 조국광복회의 각급 조직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각계각층의 애국력량을 묶어세우고 그들을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나갔다.

전국적범위에서 당조직건설사업과 조국광복회 조직건설사업이 힘차게 벌어지고 당조직과 조국광복회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함

에 따라 공산주의자들과 광범한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며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결속되였다.

제 5 절
중일전쟁발발후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의 확대강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급변하는 내외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전반적조선혁명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갔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이 국내깊이에 확대되고 전국적범위에서 당조직과 조국광복회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던 시기 혁명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간고하였다.

1936년 11월에 파쑈독일과 《방공협정》을 체결하고 침략전쟁준비를 다그쳐오던 일제는 1937년 7월 7일 드디여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략을 개시하였다.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전쟁수행에서 조선이 차지하는 전략적위치와 우리 나라의 인적 및 물적 자원에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후방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구실밑에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폭압과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한편 국제당에 들어앉아있던 좌경모험주의자들은 《열하원정》로선 즉 만주의 항일무장부대들이 장춘을 포위공격하고 열하방면으로 원정할데 대한 무모한 로선을 계속 강요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7년 7월 백두산밀영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 지휘성원들의 회의, 8월에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와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원 및 병사대회에서 그리고 9월에 친히 작성발표하신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보내

는 호소문》에서 급변하는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국경지대와 전국각지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적극화하고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쳐 적의 배후를 강력히 타격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가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침략무력을 분산시키고있는 때에 전체 조선인민이 항일무장투쟁과 각종 반침략투쟁을 적극화하여 놈들의 뒤통수를 호되게 후려갈긴다면 일제를 헤여날수 없는 곤경에 몰아넣게 될것이며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더욱 앞당기게 될것입니다.》(《일제의 대륙침략전쟁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앞당기자》, 단행본, 6~7페지)

일제가 침략전쟁에 미쳐날뛰고있을 때 조선인민혁명군이 적배후교란작전을 적극 벌려 일제에게 보다 심대한 타격을 주며 국내깊이에 소부대들, 정치공작원들을 대대적으로 파견하여 국내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여 일제의 대륙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을 광범히 벌리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섰다. 또한 적후방에서의 무장폭동과 파괴활동을 위한 전위적집행조직으로서 로동자돌격대를 조직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적극적인 군사행동에 배합하여 전인민적항쟁준비를 다그치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좌경모험주의적《열하원정》로선을 배격하고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국경일대와 국내깊이에서 무장투쟁과 혁명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열하원정》로선의 좌경모험주의적본질과 그것이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미치게 될 후과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언제 어데서나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모든 혁명운동을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열하방면에로가 아니라 압록강, 두만강 연안과 국내깊이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

명군은 군사활동의 방향을 열하방면에로가 아니라 압록강, 두만강 연안의 국경지대와 국내깊이에로 지향시키고 도처에서 적배후교란작전과 대중조직정치사업을 세차게 벌려나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신방자전투와 쌍산자전투(1937년 8월), 고력보자전투와 마순구부근전투(9월), 무송—서강사이 도로매복전투(10월)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를 벌려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적후방을 큰 혼란속에 몰아넣었다. 한편 최춘국이 인솔한 다른 부대는 적들의 행정적, 군사적 중심지의 하나인 휘남현성에 대한 공격전투(9월)를 승리적으로 진행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국내의 북부국경지대와 장백, 림강, 무송, 휘남, 몽강, 통화, 즙안현 일대를 비롯하여 만주의 광활한 지역에서 적극적인 유동작전으로 적배후를 련속 타격하였다.

국내에서 반일반전투쟁을 강화하는데도 큰 힘이 돌려졌다.

국내에 파견된 소부대와 정치공작원들의 지도밑에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파업과 농민들의 소작쟁의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으며 각계각층 인민들의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전민항쟁준비사업도 추진되여 압록강연안일대에는 반군사조직인 생산유격대들이 조직되였으며 도처에서 로동자돌격대를 내오기 위한 사업이 벌어졌다.

이 시기 국내인민들의 반일대중투쟁에서 로조, 농조 운동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로조, 농조 운동은 1920년대부터 진행되였으며 1930년대에 이르러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영향밑에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전반기까지만 하여도 로조, 농조 운동의 상층부에 앉아있던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이 운동은 일련의 심중한 결함과 제한성을 나타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초기부터 로조, 농조 운동에 혁명적영향을 주기에 힘쓰시였으며 1930년대 후반기에는 모든 애국력량을 단합하여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야 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조, 농조 운동에 대한 혁명적령도를 강화

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깊이에서 벌어지는 항일무장투쟁을 비롯한 전반적혁명운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시기 위하여 1937년 9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한 소조를 친솔하시고 함경남도의 신흥지구비밀근거지에 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에 얼마동안 계시면서 이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들과 신흥탄광지구를 비롯하여 함흥, 흥남, 원산 일대의 혁명조직들의 활동을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7년 9월 25일 신흥지구비밀근거지가 자리잡고있던 함경남도 영광군 자동리 삼발골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들과 지하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중일전쟁》에 대처하여 국내에서 혁명투쟁을 더욱 앙양시킬데 대한 과업과 방도를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함흥, 흥남을 비롯하여 군수공장들이 집결된 동해안지구에 혁명조직들을 확대하며 광범한 로동자와 농민을 망라하고있는 《로동조합》과 《농민조합》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조합》과 《농민조합》의 역할을 높여 로동운동과 농민운동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로동조합》과 《농민조합》 지도성원들이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으로 무장하고 사상의지적인 통일을 실현하며 《로동조합》과 《농민조합》을 튼튼히 꾸리며 《로동조합》과 《농민조합》안에 당조직을 확대하고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소조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사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리고 로조, 농조 성원들이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일제의 군수생산을 저지파탄시키고 놈들의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각종 형태의 반일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흥지구에서 벌리신 정력적인 혁명활동은 국내에서 혁명운동을 더욱 앙양시키며 특히 로조, 농조 운동에 대한 혁명적령도를 강화하고 로동운동, 농민운동을 새롭게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그리하여 로조, 농조들이 혁명적

으로 개편되고 그안에 당조직들이 확대되였으며 각지 로조, 농조들에 대한 당조직들의 지도가 체계적으로 미치게 되였다. 또한 여러 지역에 혁명적인 새로운 로조, 농조들이 결성되여 로조, 농조 운동은 혁명적인 대중운동으로 새롭게 발전하게 되였다.

중일전쟁발발후의 복잡한 정세와 반일혁명투쟁을 계속 발전시켜야 할 혁명발전의 요구는 조선인민혁명군 성원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킬것을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이것은 일제의 광란적인 탄압이 날로 우심해지고 이에 겁을 먹은 일부 사람들속에서 동요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있던 당시 형편에서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조선인민혁명군 성원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7년 11월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집대성하고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당면임무를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로작은 항일무장투쟁을 더욱 확대강화하여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주류이며 가장 높은 형태인 항일무장투쟁을 확대강화하여야 일제의 발악적인 반동공세를 무찌를수 있고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각종 형태의 반일투쟁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롭게 앙양시킬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과 그 군사정치활동을 가일층 강화하여 무장투쟁을 국내깊이에로 더욱 확대하고 여기에 배합하여 전인민적항쟁을 조직하는것이 요구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힘있게 조직진행하여 전국적, 전민족적 범위에서 보다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묶어세움으로써 반혁명세력에 비한 혁명력량의 우세를 확고히 보장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애국력량을 튼튼히 결속하여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키기 위한 강력한 정치운동이였던것만큼 이 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것은 반일혁명투쟁을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었다.

로작은 조국광복회 조직들을 전투적으로 꾸리고 그것을 국내깊이에로 확대하며 조국광복회 운동전반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할데 대하여 밝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광범한 조중반일통일전선을 형성하며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할데 대한 구호를 계속 높이 들며 국제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계속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당창건준비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더욱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한 문제를 중요하게 내세우시였다.

로작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와 혁명적인 대중단체안에 당조직을 확대하며 공산주의자들을 통일적인 당조직체계에 결속하고 그들을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단련시키며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리고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철저히 벌려 공산주의대렬의 순결성과 사상의지의 통일을 확고히 실현하는것을 당창건을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기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자기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자주적립장은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혁명을 책임적으로 끝까지 수행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근본립장이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183페지)

공산주의자들은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자기 나라 실정에 부합되는 혁명로선과 방침을 세우고 그를 철저히 옹호관철할수 있으며 어떠한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조직동원하여 자기 나라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과 조선공산주의자들인것만큼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신념에 따라 혁명투쟁을 전개하며 자체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시였다.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항일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원칙적립장과 주체적인 전략전술, 당면한 임무와 투쟁과업들을 환히 밝혀준 강령적문헌으로서 그들을 주체적인 혁명로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참된 교과서로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과 각지의 당조직들, 조국광복회조직들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진행하도록 지도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성원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였다.

1937년—1938년 겨울에 마당거우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집중적인 동기군정훈련이 진행되였다. 이 훈련은 인민혁명군대원들의 정치군사적자질을 한계단 더 높이고 그들을 견결한 공산주의혁명투사로 키운 말그대로 밀림속의 《군정대학》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과 《3.1월간》, 《서광》, 《종소리》를 비롯한 혁명적출판물들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며 혁명적구호를 통한 교양사업이 또한 큰 생활력을 나타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적구호를 통한 교양사업을 정치사업의 중요한 형식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적절한곳들에 구호를 써놓고 대원들과 인민들을 교양하도록 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정치일군들은 근거지들과 회의장소, 숙영지들과 련락장소 등에 있는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그자리나 바위들에 여러

가지 구호들을 썼다. 이 구호들에는 《조선민족의 최고원수 김일성 만만세》와 같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신 크나큰 자랑과 영광을 노래한 내용들과 《우리는 항일주력군 모두다 조선혁명 책임진 자각 잊지 말자》, 《조선동포들이여 모두다 단결하여 우리 민족 힘으로 삼천리금수강산 광복하자》 등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조국광복위업을 완수할것을 열렬히 호소한 내용들이 담겨져있었다. 또한 광범한 인민들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 관철에로 힘있게 부른 내용,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광복하자》, 《필승항일》 등 숭고한 애국주의정신과 견결한 공산주의혁명정신, 필승의 신념으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을 고무하는 내용들이 반영되여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중일전쟁발발직후에 벌린 군사정치활동과 대오의 정치사상적준비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전국적판도에서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준비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세를 벌림으로써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갔다.

1938년 봄에 진행된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춘기공세는 국경일대의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전국각지에서 활동하는 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8년 5월상순에 백두산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 성원들과 군정간부들, 국내에서 활동하던 정치공작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전국적판도에서 무장투쟁을 적극화하고 전민항쟁준비사업을 다그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국내진출을 보다 강화하며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시급히 복구정비하고 전국각지에서 당 및 조국광복회 조직들을 대대적으로 확대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전민항쟁준비를 위한 북선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고 전민항쟁준비를 적극 다그치며 간백산일대에 밀

영을 새로 건설하고 이곳에서 전민항쟁을 위한 핵심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회의후 전국적판도에서 무장투쟁을 확대하고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치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였다.

무엇보다도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복구정비하고 전국각지에 당 및 조국광복회 조직들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1937년 10월부터 장백지구와 혜산일대에서 대검거선풍을 일으키고 이 일대의 혁명조직들을 파괴하였으며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7년말과 1938년초에 마동희를 비롯한 정치공작원들을 국내에 파견하시여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조직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게 하신데 이어 1938년 봄에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를 대진평지구에 파견하시여 이곳에 피신하고있던 박달에게 일제의 검거선풍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공산주의자들의 활동방향을 제시하시였다.

그리하여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정비하기 위한 투쟁이 성과적으로 전개되였으며 일제의 야수적탄압이 계속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 및 조국광복회 조직들이 계속 확대되여갔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일제의 검거선풍에 대처하여 혁명조직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면서 전국적판도에서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준비사업을 급속히 확대강화하여나갔다.

김주현을 책임자로 하는 소부대를 비롯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수많은 소부대, 소조들이 국내각지에 파견되여 이미 현지에 나와 활동하던 부대들과의 련계밑에 군사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내종심깊이에로 무장투쟁의 불길을 확대하고 국내각지에 파견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의 활동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국내깊이에 진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8년 여름에 후창, 랑림, 부전령,

신흥 등 북부조선일대와 중부조선의 양덕, 덕천 지구에까지 진출하시여 그 일대의 비밀근거지들에 의거하여 활동하고있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 소부대, 정치공작원들의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지에 파견된 부대, 소부대들의 활동정형과 국내각지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도처에서 일제에 대한 군사적타격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당 및 조국광복회 조직들을 확대강화하고 전민항쟁준비사업을 적극 밀고나갈데 대한 전투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과 소부대, 소조, 정치공작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전국도처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맹렬히 벌렸다.

북부 및 중부 조선과 지리산일대를 비롯한 남부조선의 여러 지역에 창설되였던 비밀근거지들에 의거하여 당 및 조국광복회 조직 확대와 민간무장대오결성을 비롯한 전민항쟁준비사업이 각양한 형태로 줄기차게 벌어졌으며 적들의 병영, 군수창고, 군사시설들과 식민지통치기관들을 습격파괴하는 전투들이 련속 진행되였다.

이 시기에 전민항쟁을 위한 핵심육성사업이 적극 벌어졌다.

1938년에 백두산지구의 간백산일대에는 당창건준비사업과 조국광복회운동, 전민항쟁준비를 위한 핵심육성기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담당수행할 밀영이 새로 건설되였다. 새롭게 꾸려진 이 간백산밀영에는 강습소가 설치되였으며 여기에서 각곳의 혁명조직들에서 선발되여온 우수한 일군들에게 당 및 조국광복회 조직을 확대하며 전인민적무장봉기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군사정치훈련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였다.

당시 간백산밀영의 이 강습소에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정치공작원들과 국내의 많은 혁명가들이 강습을 받았다.

강습생들은 훈련을 마치는 차제로 군사전략상으로 중요한 지대들에 계획적으로 파견되였으며 인민들속에서 전민무장봉기준비사업을 전망성있게 벌려나갔다.

전민항쟁준비사업이 적극 추진됨으로써 국내 곳곳에 여러가지 명칭을 가진 무장항쟁조직들이 나오게 되였으며 로동자, 농민, 청

년학생들과 지식인 등 각계각층 인민들속에서 반일항쟁기운이 날을 따라 급속히 높아갔다.

제 6 절
남패자회의.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고난의 행군

조선혁명은 겹쌓인 난국을 헤쳐나가는 준엄한 투쟁속에서 전진하였다.

전국적판도에서 항일무장투쟁과 전민항쟁준비사업이 줄기차게 확대강화되여나가던 시기 우리 혁명앞에는 새로운 난국이 조성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의 혁명적진출을 저지시키지 않고서는 중일전쟁을 제대로 계속해나갈수 없다고 타산하고 전례없는 반동공세를 감행하였다.

일제는 관동군주력사단들의 대부분과 봉천, 안동경비사령부관하의 위만군부대들, 지방무장경찰대까지 총동원하여 압록강, 두만강 연안의 군사전략상 중요지대들에 《지구별 토벌대》를 배치하였으며 《토벌》작전의 주되는 목표를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에 두고 《장거리추격전술》로 진드기처럼 달려들었다.

일제는 혁명조직들을 계속 파괴하고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검거, 투옥, 학살만행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일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38년 한해동안에 검거투옥된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무려 4만 4,000여명에 달하였다.

일제는 1938년에 파쑈적악법인 《국가총동원법》, 《륙군특별지원병령》 등을 실시하고 《근로보국대》를 조작하여 조선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침략전쟁마당에 깡그리 동원하기에 미쳐날뛰였으며 《국민정신총동원조선련맹》, 《조선방공협회》 등 반혁명적파쑈단체들을

만들어 우리 인민의 반일혁명의식을 마비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일제의 반혁명적공세의 강화로 하여 혁명정세는 매우 어려워졌다.

혁명앞에 새로운 난국이 조성되게 된것은 또한 국제당안에 있던 좌경모험주의자들의 강요로 하여 《열하원정》의 길에 나섰던 항일련합군안의 중국인부대들이 많은 손실을 당한것과도 관련되여 있었다.

형제적중국인부대들이 당한 손실은 공동의 적을 반대하여 함께 싸우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손실로도 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조선인민혁명군은 백두산서남부일대에서 증강된 적의 대병력을 거의 단독으로 대상하여 싸워야 할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였다.

조성된 정세는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일제의 발악적인 공세를 짓부시고 《열하원정》의 후과를 시급히 가시며 혁명을 계속 줄기차게 발전시킬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1938년 11월 25일—12월 6일에 몽강현 남패자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항일련합군안의 중국인부대 지휘간부들도 참가하였다.

회의는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를 해치려고 덤벼든 1만여명이나 되는 적들에게 남패자가 포위된 매우 긴장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자》에서 좌경모험주의적《열하원정》로선을 심각히 분석비판하신 다음 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주체적립장에서 조선혁명을 계속 앙양시켜나갈데 대한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회의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시급히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압록강, 두만강연안의 국경지대에로 진출할것을 결정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몽강일대로부터 국경지대에로 진출하는것은 이 일대에 집중된 적들의 군사전략적기도를 짓부시고 국내 여러곳에 파견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 소부대들의 활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적들의 반동공세밑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북돋아주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할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길이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광활한 지대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것을 결정하였다.

국내와 만주의 광활한 지대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일제의 대규모적인 《토벌》과 검거, 학살 만행이 감행되는 조건에서도 조선인민혁명군이 주도권을 틀어쥐고 일제를 사면팔방에서 끊임없이 타격할수 있고 당창건준비사업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도 계속 힘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었다.

회의에서는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부대들을 3개의 방면군으로 재편성하고 그 활동구역을 분담하는 조치가 취하여졌다.

남패자회의는 조성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전반적조선혁명을 계속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회의후 조선인민혁명군의 일부 력량으로 《열하원정》과정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항일련합군중국인부대를 보강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며 제1방면군은 통화, 관전, 즙안 등 남만의 산악지대로, 제3방면군은 액목, 녕안 등 북만과 두만강연안의 북부국경일대에로 진출하였다.

제2방면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솔밑에 12월상순 압록강연안의 북부국경일대와 국내를 향하여 남패자를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력사적인 100여일간의 고난의 행군이 개시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이 간고하였지만 특히 남패자로부터 국경연안에로 향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행군로정은 실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의 혈로였다.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를 해치려고 수십만의 대병력과 항공대까지 동원하여 이중삼중의 포위망을 형성하고 사방에서 악착스럽게 덤벼들었으며 《귀순공작반》과 같은 간첩주구단체들을 조작

하고 비행기로 삐라를 뿌리면서 회유기만책동을 집요하게 감행하였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가렬한 전투와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모진 추위, 키를 넘는 생눈길과 심한 식량난은 조선인민혁명군의 행군길에 더없는 곤난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제아무리 간악한 적도 그 어떠한 엄혹한 시련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혁명적투지를 끊임없이 높여주시는 한편 대담무쌍하고 령활한 행군술과 유격전술로 적들을 족치시면서 부대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이끄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행군의 첫 시기에 제시하신 대부대에 의한 집중공격과 대섬멸전으로 적을 타격할데 대한 전술적방침에 따라 대부대로 남패자일대에 집결된 적을 격파한데 이어 이도화원, 5도차, 요구, 마의하, 왕가점 일대에서 적을 소멸하였으며 1939년 1월초에 장백현 7도구치기에 이르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지대에서 적이 대병력을 배치하고 최후의 대결을 기도하고있다는것을 간파하시고 그에 대처하여 대부대활동으로부터 분산활동으로 넘어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여 부대를 세개의 방향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적의 집중공세를 분산시켜 격파하고 놈들을 수습할수 없는 혼란에 빠뜨리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집중과 분산, 이동 전술로 적들을 타격하면서 1939년 3월말에 북대정자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고난의 행군은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혁명군부대들의 압록강연안 국경일대에로의 행군은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고 원쑤들의 발악적인 반동공세로부터 혁명을 보위하며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계속 앙양에로 이끌어올린 승리와 영광의 로정이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185폐지)

조선인민혁명군은 남패자로부터 국경일대에로의 간고한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일제의 집요한 《토벌》책동을 여지없이 짓

부셔버렸으며 국내깊이에서 무장투쟁과 당창건준비사업,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좌경모험주의적인 《열하원정》로선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주체적립장에서 조선혁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확고한 혁명적립장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고난의 행군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군술과 령활한 유격전술, 수령님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전투적위력을 널리 시위한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난의 행군과정에 병력의 집중과 분산, 대부대에 의한 집중공격전과 소부대에 의한 불의의 기습전, 령활하고도 신속한 기동전, 유인전술과 매복전술, 망원전술, 선회전술을 능란하게 활용하시면서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시고 력량상으로 우세한 적들을 걸음마다 타격소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치렬한 전투로 낮과 밤을 이은 간고한 행군의 나날 몸소 대오의 진두에 서시여 숭고한 혁명정신, 간고분투의 위대한 모범을 보이시였으며 자신께서 드셔야 할 한홉의 미시가루마저 대원들에게 나누어주시며 끝없는 사랑과 힘을 주시여 전대오를 원쑤격멸에로 힘차게 일떠세우시였다.

시련의 고비고비로 련속되였던 고난의 행군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유격대원들의 무한한 충실성,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혁명군의 자랑찬 위용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관철하였으며 수령님께서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였다.

오중흡련대장은 자기 부대를 사령부로 가장하여 희생을 무릅쓰고 사령부로 쏠리는 적의 대부대를 유인하여 끌고다님으로써 사령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였다. 재봉대원들과 로약자들을 인솔하고 청봉밀영으로 가시였던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외곡하고 혁명대오

를 분렬파괴하려고 날뛰던 혁명의 배신자를 폭로하시고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시였다.

참으로 고난의 행군은 수령과 전사간의 일심단결을 가장 높은 경지에서 실현하고있는 조선공산주의대오의 불패의 위력과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견결한 투쟁정신, 불굴의 혁명적투지, 고상한 애국심을 남김없이 보여준 영웅서사시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솔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있는 한 그 어떤 난국이 앞을 가로막아도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뚜렷이 과시한 영광의 행로였다.

제 7 절
무산지구진공작전. 백두산동북부일대에 강력한 혁명의 보루를 구축하기 위한 투쟁. 당조직건설사업의 적극적추진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끝낸 조선인민혁명군은 적들을 련속 타격하면서 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힘차게 이끌어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9년 4월초 북대정자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간부회의를 소집하시였으며 《적극적인 반격전으로 일제침략자들을 련속 타격하고 조국으로 진군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시고 새로운 투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적들은 동기〈토벌〉작전에서 만회할수 없는 참패를 당하고 사방에 분산된채 제 소굴에 처박혀있습니다. 우리는 적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말고 적극적인 반격전으로 넘어가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속 타격을 가하고 조국으로 또다시 진군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

집≫ 제1권, 191～192페지)

조선인민혁명군이 적극적인 공세에로 넘어가 국경일대와 국내에서 적들을 련속 타격한다면 혼란속에 빠져있는 적들에게 더욱 심대한 군사정치적패배를 안겨주고 적들의 반동공세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크게 고무추동할수 있었다.

회의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당면하게는 춘기공세를 벌려 국경일대의 적들을 피동과 수세에 몰아넣고 국내진공을 위한 준비를 갖추며 이어 무산지구에로 진공할데 대하여서와 정치공작원들, 소부대들을 국내각지에 파견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무장투쟁과 배합하는 각종 형태의 대중투쟁을 세차게 전개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무산지구진공작전을 수행한 다음 백두산동북부에서 대부대에 의한 새로운 작전을 전개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회의후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일부 력량은 계속 백두산서남부일대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고 기본력량은 조국에로 향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지체없이 춘기반격전으로 넘어가 구가점전투, 15도구전투, 반절구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을 승리적으로 진행하여 조국으로 진군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9년 5월상순 경위중대와 일부 소부대성원들을 이끄시고 국내의 간백산밀영에 오시여 리명수, 삼지연, 무포, 대홍단 일대에 소부대정찰조를 파견하시고 주민들의 동향과 적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으며 국내진공작전의 시기와 도강지점, 부대의 진출로정, 국내에서 조직진행할 군사정치활동내용 등 조국진군작전계획을 완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때 간백산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무산지구진공작전을 수행한 이후 백두산동북부일대에 새로운 근거지들을 창설하며 국내각지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군사활동을 보다 적극화할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푸의풀밀영에 집결시킨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1939년 5월 18일에 압록강을 건너 조국에 진출하시였다.

청봉, 건창, 베개봉을 거쳐 삼지연에 이른 부대는 일행천리전술로 갑무경비도로를 대낮에 100여리 행군하여 대홍단지구에 진출하였으며 신사동과 신개척 일대에서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사동의 목재소 로동자들과 인민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벌리시였으며 5월 22일에는 그들앞에서 《조국의 광복을 앞당기기 위하여 반일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미 세우신 작전계획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5월 23일 추격해오는 적의 수비대와 경찰놈들을 대홍단벌에 유인하여 섬멸하였다.

무산지구진공작전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고 조선이 《안정된 후방》이라고 떠벌이던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주었으며 광범한 인민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그들을 적극적인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9년 5월하순 안도현 큰골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백두산동북부일대에 또하나의 강력한 혁명의 보루를 축성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백두산동북부에 의거하여 군사정치활동을 전개하는것은 백두산서남부일대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백두산동북부일대에 또하나의 강력한 혁명의 보루를 구축함으로써 두만강연안 북부조선일대는 물론, 전국적범위에서 조국광복전선에 더 많은 군중을 결속하여 혁명투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자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백두산동북부에 의거하여 군사정치활동을 힘있게 전개할데 대하여》, 단행본, 2～3페지)

당시 혁명근거지들이 주로 백두산서남부일대와 국내의 백두산

줄기 이남지대들에 창설되여있던 실정에서 백두산동북부와 두만강연안 북부조선일대에까지 새로운 강력한 혁명의 보루를 구축한다면 혁명근거지를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조선일대는 물론 전국의 넓은 지대에 자리잡게 할수 있었으며 전국적범위에서 조국광복전선에 더 많은 군중을 결속하여 반일혁명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할수 있었다. 또한 이 지대는 1930년대 전반기에 유격구, 반유격구가 창설되여있었던 지대로서 여러가지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있었다.

당시 백두산서남부일대와 압록강연안지대에 일제의 대병력이 집중되여있던 조건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주동적으로 백두산동북부와 두만강연안 일대에로 투쟁무대를 확대하는것은 적을 혼란에 빠뜨리며 인민혁명군의 전투력을 보존확대하면서 전반적조선혁명을 힘차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동북부일대에로 투쟁무대를 확대하고 군사정치활동을 전개하는데서 나서는 중요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우선 이 지대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의거하여 활동할수 있는 근거지, 거점들을 튼튼히 꾸리되 그것들은 수시로 기동할수 있는 림시밀영의 형태로 그리고 국내깊이에로 진출하는데 유리한곳에 꾸려야 하였다. 또한 조선인민혁명군은 여러 련대들이 련합하여 활동하던 지난 시기와는 달리 련대규모로 나뉘여져 집중과 분산, 이동 전술을 능숙하게 적용하면서 도처에서 적들을 련속적으로 타격하여야 하였다. 이와 함께 백두산동북부와 두만강연안의 북부조선일대에 조국광복회조직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확대하고 광범한 군중을 결속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반일반전투쟁에 적극 동원하여야 하였다.

회의후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소속 련대들의 활동구역을 새로 분담하고 정치공작원들과 정치공작소조들을 각지에 파견하며 동만당공작위원회를 강화하고 그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먼저 화룡현, 안도현을 비롯한 동만일대의 여러 지대를 혁명화하

는 투쟁을 벌리였다. 또한 올기강전투, 삼남구전투, 청산리부근 목재소습격전투, 3도구전투, 청두촌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을 련속 벌려 도처에서 적들을 타격하고 군사적으로 제압하였으며 대중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 여러곳에서 당 및 조국광복회 조직들을 복구정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옥돌골과 류동 일대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혁명조직을 복구정비하시면서 대중정치사업의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혁명조직들을 복구정비하는데서 동만당공작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동만당공작위원회성원들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적극적인 군사적보호를 받으면서 여러곳에 당 및 조국광복회 조직들을 내왔으며 그에 대한 정연한 지도체계를 세워놓았다.

조선인민혁명군은 화룡현의 옥돌골, 류동, 휘풍동, 3도구, 명월구를 비롯한 유리한 산림지대에 비밀근거지들을 설치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무산, 연사 지구를 비롯한 북부국경일대와 국내깊이에도 비밀근거지들을 꾸려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현지에 오시여 국내 당 및 조국광복회 조직들을 지도하시면서 국내 여러 지역에 비밀근거지들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동걸을 비롯하여 이미 무산, 연사 일대에서 활동하고있던 정치공작원들을 통하여 국내에서의 당 및 조국광복회 조직확대사업과 비밀근거지창설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데 이어 1939년 6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성원들을 친솔하시고 무산군 삼장면 국사봉에 오시여 지하혁명조직책임자 및 정치공작원회의를 소집하시고 《국내 혁명조직들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연설에서는 조선혁명을 앙양시켜나가는데서 무산, 연사 지구를 비롯한 북부조선일대를 혁명기지로 꾸리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를 위하여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이 제시되였다. 또한 무산, 연사 지구와 국내의 여러곳의 로동자, 농민들 속에 조국광복회 조직을 비롯한 혁명조직을 내오고 그에 대한 정연한 지도체계를

세우며 국내도처에 당조직을 확대할데 대하여 그리고 생산유격대를 비롯한 반군사조직들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인민혁명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할데 대하여 지적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9년 6월하순에 또다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무산군 삼장면 삼하덕일대에 오시여 국내혁명조직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사봉과 민봉 일대를 비롯한 무산, 연사 지구의 유리한 산림지대에 비밀근거지들이 꾸려졌으며 더 나아가서 새별지구, 어랑지구를 포함한 북부조선의 도처에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의거하여 활동할수 있는 비밀근거지들이 꾸려지게 되였다.

당 및 조국광복회 조직확대를 위한 사업도 힘있게 전개되였다.

이 시기 무산, 연사 지구에 오신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강의한 의지와 능숙한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시여 1939년 6월에 연사지구당조직과 조국광복회 연사지구위원회를 조직하시였으며 서두수수력발전소공사장, 연사, 신양 등지에 당세포와 당분조를 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9년 8월에 또다시 무산, 연사 지구에 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산군 새골리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들이 북부조선일대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더욱 세차게 벌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무산군 독소리 연두골에서 소집하신 조국광복회 조직책임자 및 정치공작원회의에서는 조국광복회 조직을 전국적판도에서 더 많이 내오고 광범한 인민들을 반일반전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할데 대한 과업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뒤이어 무산군 연사면 사지봉에서 국내당공작위원회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혜산사건》이후의 당조직건설사업정형을 총화하시고 국내당공작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전국적범위에서 당조직건설사업을 더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과업

을 밝히시였다.

회의에서는 오랜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일군들로 국내당공작위원회 성원들을 보충하였으며 전국적범위에서 당조직지도체계를 더 정비강화하며 특히 지구당위원회와 같은 지역적단위의 당지도기관을 잘 꾸릴데 대한 전투적과업들이 제시되였다.

회의후 북부조선일대를 비롯한 전국적판도에서 당조직건설사업이 한층더 적극적으로 전개되였다.

무산, 연사 지구는 물론 북부 및 중부, 남부 조선의 산업지대들과 중요도시들, 농촌과 어촌들에 당조직들이 급속히 확대되여나갔으며 여러 지역에 지구당위원회가 새로 나왔다.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이 더 높아지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직결속하는 사업과 전민항쟁준비사업, 반일반전투쟁에 대한 당조직들의 지도가 강화되였다.

조국광복회 조직들을 확대하는 사업도 힘있게 추진되였다.

이 시기 조국광복회 조직들을 확대하는 사업은 두만강연안일대와 북부조선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중요한 지대들에 새로 많은 조직을 내오고 전반적인 조국광복회 조직들에 대한 조직지도체계를 정비강화하면서 특히 지구위원회와 같은 지역적인 지도기관들을 튼튼히 꾸리는 방향에서 진행되였다.

수많은 정치공작원들과 소부대, 소조들이 무산광산과 서두수수력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중요 탄광, 광산, 공장의 로동자들과 농민, 종교인, 지식인, 청년학생들 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 조국광복회 조직들을 확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백두산동북부일대에서 벌린 조선인민혁명군의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에 의하여 두만강연안의 동만지대와 북부조선의 도처에 강력한 혁명의 보루가 축성되였으며 각종 형태의 혁명근거지들이 넓은 지역들에 꾸려지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백두산동북부일대에 혁명의 강력한 보루를 구축한데 이어 일제의 대규모적인 《토벌》을 짓부시기 위한 대부대선회작전을 전개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무산지구진출과 백두산동북부일대에서의 눈부신 활동에 극도로 당황한 일제는 1939년 9월 관동군사령관직속으로 길림에 《노조에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20여만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완전히 《소멸》하며 혁명조직들을 파괴하기 위한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이라는 대규모적《토벌》작전을 감행하여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9년 10월 안도현 량강구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일제의 대규모적《토벌》작전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대부대선회작전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대부대선회작전은 고정된 근거지들에 의거하여 벌리던 종래의 군사정치활동방식과는 달리 조선인민혁명군이 대부대로 미리 지정된 비밀로정을 따라 넓은 지역을 선회하면서 적들을 타격소멸하는 신출귀몰하고 림기응변한 새로운 작전이였다.

대부대선회작전방침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하여금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들을 이리저리 끌고다니면서 소멸약화시킬수 있게 하는 령활한 방침이며 백두산동북부일대에 집결된 적의 대병력을 분산약화시킴으로써 이 일대에 축성된 혁명의 보루를 보존하고 적들의 작전기도를 짓부셔버리기 위한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방침이였다.

회의후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휘밑에 두만강연안의 여러곳에서 적들을 타격하고 유인하여 놈들을 화룡, 안도현 일대의 산발과 골짜기에 몰아넣고 순식간에 북쪽으로 수백리를 행군하여 돈화현 오지에 이르렀으며 1939년 12월 륙과송과 쟈신즈의 목재소습격전투를 벌려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적들을 돈화현 오지로 유인한 부대는 이번에는 남쪽방향으로 빠져 안도—무송현경 송화강류역의 백석탄에서 40여일간의 군정훈련을 진행하였다.

그후 부대는 두만강대안에 진출하여 1940년 3월상순에 국경지대의 적《토벌》거점의 하나였던 대마록구를 습격하였으며 3월하순에는 거듭되는 참패를 만회하려고 달려드는 가장 포악한 《토벌대》인

《마에다부대》를 홍기하골짜기에서 매복습격하여 전멸시켰다.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멸하겠다고 덤벼들었던 일제침략군은 계속 피동에 빠져 앉은 자리에서 된벼락을 맞고 따라다니다가 얻어맞아 나중에는 추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주저앉고말았다.

홍기하전투후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한 부대는 국내 무산일대에 진출하여 일제군경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대부대선회작전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빛나는 승리로 결속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0년 4월 안도현 화라즈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대부대선회작전의 승리를 총화하시였으며 일제의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을 최종적으로 격파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무산지구를 비롯한 국내의 여러 지역과 안도, 화룡, 연길, 돈화, 왕청 현을 비롯한 만주의 광활한 지역에서 적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0년 여름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한 소조를 지휘하시여 대사하치기에서 일제의 가장 악질적인 괴뢰무장집단인 《신선대》놈들을 완전히 섬멸해버리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대사하치기전투에서 적탄이 날아오는 순간 몸으로 막아나서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보위하기 위하여 전투마다에서 높이 발휘하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무한한 희생성은 실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가 지녀야 할 고결한 풍모의 빛나는 모범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대부대선회작전과 그에 이어 벌린 수개월간에 걸치는 군사정치활동을 통하여 일제의 발악적인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을 산산이 짓부시고 적들에게 보다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주었으며 백두산동북부에 축성한 혁명의 보루를 굳건히 지키고 자기의 전투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힘있게 전진시켜나갔다.

조선인민혁명군은 1930년대 후반기에 중국인민들과의 반일공동투쟁도 한층더 강화하였으며 쏘련인민을 무장으로 적극 지원하

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의 뒤통수를 치는 과감한 전투들을 련일 벌리면서 만주의 넓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항일련합군의 중국인부대들의 전투행동을 힘있게 지원하였으며 그들과의 수많은 공동작전들을 벌려 전투적뉴대를 한층더 공고히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친히 교양육성하신 정치군사간부들을 항일련합군의 중국인부대들에 수많이 파견하시고 형편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 부대들의 장구류와 식량, 피복 등을 해결해주도록 하시였다.

김책, 최용건, 허형식, 박길송, 박선봉을 비롯한 수많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남만과 북만에서 활동하던 항일련합군의 중국인부대들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사업하면서 부대들의 전투행동을 성과적으로 지휘하였다.

중국반일부대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계속 강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일부대의 지휘간부들과 련계를 강화하시고 그들이 항일구국의 기치를 계속 들고나가도록 적극적인 영향을 주시였으며 적의 《토벌》에 위축되여있던 수많은 반일부대들이 항일련합군에 편입되여 싸우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1936년 8월 무송현성진공전투, 1938년 4월 쌍산자전투를 비롯한 대규모적인 련합작전들을 벌려 그들의 전투사기와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일제의 반쏘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침략자들이 수많은 《정예》사단들과 예비병력을 쏘만국경지대에 집결시키고 군사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면서 쏘련침공준비를 다그치던 시기에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쏘련에 대한 일제의 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쏘만국경지대를 비롯한 여러곳에서 교란작전을 벌려 일제의 군사적요충지들을 련속 공격하고 적비행장과

교량, 병영 등을 파괴함으로써 일제의 대쏘침략책동을 파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특히 1938년 7월 일제가 쏘련의 하싼호일대에 대한 침공사건을 조작하였을 때 적배후교란작전을 활발히 벌려 군사적요충지들과 군사시설들을 습격파괴함으로써 일제의 대쏘침공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그후에도 1939년 5월에 일제가 할힌골일대에서 감행한 대규모적인 반쏘무력침공을 파탄시키기 위한 맹렬한 작전을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할힌골사건》초기에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일제의 반쏘무력침공을 위한 보급로인 《경라선》을 비롯한 철도연선에 집결시키고 관동군의 병력이동과 군수물자수송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전투들을 맹렬히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그해 8월에는 조선인민혁명군 각 부대들에 명령을 내리시여 적배후타격전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1939년 8월의 대사하, 대장강 전투와 9월의 요차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을 벌려 《최정예부대》라고 자처하던 일제침략군의 대부대들을 격파하고 수다한 전투기술기재들을 로획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강력한 적배후타격작전은 쏘련침공에 미쳐날뛰던 일제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으로 되였으며 쏘련인민에 대한 힘있는 지원으로 되였다.

1930년대 후반기에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조선혁명은 백두산지구비밀근거지를 중심적령도거점으로 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 일대 앙양을 가져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방침들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이 국내깊이에로 확대되여 일제에 대한 군사적타격을 결정적으로 강화할수 있었으며 전국적범위에서 당창건준비사업과 조국광복회 운동이 힘차게 벌어졌다.

이 과정은 수십만의 일제침략군과 그 앞잡이들, 종파분자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의 반혁명적책동과 좌경모험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 배타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주체의 혁명적기치, 조선혁명의 자주적로선을 확고히 고수한 위대한 투쟁으로 일관되였다.

겹쌓인 시련과 위기의 고비들을 넘고 넘어야 하였던 엄혹한 투쟁의 실천속에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 수많이 육성되고 국내도처에 당조직이 확대되였으며 통일적인 당조직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지고 공산주의대오의 통일단결이 강화되였다. 또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힘차게 벌어져 전민족적애국력량의 조직적결속이 더 튼튼히 이루어졌으며 국내 여러 지역에 혁명근거지들이 수많이 꾸려졌다.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일대 앙양기로 특징지어지는 1930년대 후반기에 이룩된 모든 성과와 경험들은 항일혁명투쟁의 종국적승리와 당창건준비사업의 완성을 위한 새로운 투쟁단계에로 조선혁명을 발전시키는데서 확고한 밑천으로 되였다.

제 4 장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한 승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축성사업의 완성
(1940. 8—1945. 8)

제 1 절
소할바령회의,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한 방침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섰다.

10년간의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속에서 조선혁명의 중추적력량인 조선인민혁명군이 강철의 대오로 장성강화되였으며 당창건준비사업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이 굳게 뭉치게 되였다. 이것은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벌려 조국을 광복할수 있는 강력한 주체적력량이 마련되였다는것을 의미하였다.

당시의 내외정세는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1939년 9월 파쑈독일의 뽈스까침공을 계기로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은 급속히 확대되여갔다. 파쑈독일은 대전초기에 벌써 뽈스까를 비롯한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을 강점하였으며 이딸리아는 동남

구라파와 동부아프리카의 일부 나라들을 침공하였다.

다른 한편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대동아공영권》을 조작하려는 침략적야망밑에 중국대륙에서뿐아니라 동남아세아지역에까지 전쟁을 확대하려고 미쳐날뛰였다.

일제는 침략전쟁확대에 광분하면서 조선과 만주에서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놈들은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군사정치적공세와 경제적봉쇄정책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일제의 이 모든 발광적인 책동은 멸망을 앞둔자들의 최후발악에 불과하였다.

일제는 전선이 확대되는데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병력과 군수물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낼수가 없었으며 게다가 조중인민을 비롯한 광범한 아세아인민들의 강력한 반항에 부딪치고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규탄을 받고있었다. 그리고 일제와 미국, 영국을 비롯한 제국주의국가들간의 모순도 더욱 격화되여 그들사이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가능성이 날로 커가고있었다. 이러한 정세는 일제의 멸망이 확정적이며 시간문제라는것을 보여주었다.

1940년 8월 10일—11일에 돈화현 소할바령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가 소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준비를 튼튼히 갖추어나가야 할 필요성을 분석하시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방침들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일본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멸망시키기 위한 최후결전에 림할 준비를 잘하며 해방된 조국땅우에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정권과 인민무력을 창건하고 혁명을 계속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는 모든 준비를 잘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나서는 전략적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전략적과업에

서 중요한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보존축적하고 강화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선혁명의 중추력량인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보존축적하면서 그들을 유능한 정치군사간부로 육성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215페지)

조선혁명의 중추력량인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보존축적하면서 그들을 유능한 정치군사간부로 튼튼히 육성하여야 일제침략자들과의 최후결전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그들을 골간으로 하여 해방된 조국땅우에 새 조선을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었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전략적과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일제와의 최후결전에 대처할수 있도록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였다.

장차 조국광복의 대사변이 도래할 때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작전에 배합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전인민적항쟁을 조직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였다. 특히 그것은 당시 일제가 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과 반동적사상공세를 강화하고있던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한 전략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대부대작전으로부터 소부대작전으로 이행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이 전략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대부대작전으로부터 소부대작전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215페지)

일제의 《토벌》공세가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계속 대부대로 적과 맞서 싸운다면 불가피하게 큰 손실을 입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앞길에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었다. 원래 최후발악하는 적들과 정

면으로 맞서 자체의 력량을 소모약화시키는것은 유격전쟁의 기본요구에도 어긋나는것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소부대작전으로 넘어감으로써만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놈들에게 끊임없는 타격을 주면서도 자기의 력량을 보존강화해나갈수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소부대활동에로 넘어가는것은 대중정치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도 절실한 문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대중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갈수 있도록 소부대와 정치공작소조들을 편성하여야 하며 지하투쟁을 강화하여야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소부대활동으로 넘어가는것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발전의 요구일뿐아니라 전반적세계혁명발전의 요구이기도 하였다.

당시 쏘련은 파쑈독일과 일제의 반쏘침공위협이 증대되고있는 긴박한 정세에 대처하여 파쑈국가들의 침공을 제어하며 특히 두 파쑈국가의 협공의 위험을 막고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는 시간적여유를 얻기 위하여 동방에서 정세를 완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있었다. 이 시기 일제가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을 대쏘침략전쟁도발의 구실로 삼으려 하고있던 조건에서 당분간 대부대작전을 중지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국가인 쏘련을 돕는것으로 되며 전반적세계혁명발전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투쟁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소할바령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방침은 항일무장투쟁의 종국적승리와 조국이 해방된 다음 새 사회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주동적인 방침이였다.

소할바령회의를 계기로 항일무장투쟁은 새로운 전략적단계로 넘어가게 되였으며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제 2 절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대활동과 집중적군정훈련

소할바령회의후 조선인민혁명군은 소부대활동으로 넘어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0년 8월중순 소할바령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당정치일군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부대와 소조 그리고 군정훈련을 하는 부대들로 편성하며 그에 따라 각 부대의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도 새로 조직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소부대, 소조들은 어떤 정황속에서도 군사정치활동을 훌륭히 조직전개할수 있도록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된 간부들과 로대원, 신대원들을 적절히 배합하는 원칙에서 편성되였으며 소부대, 소조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체계와 련락망체계도 세워졌다. 그리고 소부대와 소조들에 당세포와 당분조들이 조직되였다.

소부대를 편성하고 당조직을 내오는 사업과 함께 군정훈련을 진행할 부대를 편성하고 당조직과 정치기관을 내오기 위한 사업도 진행되였다.

군정훈련에 참가할 대원들이 쏘만국경지대에 설치된 훈련기지에 집결되였으며 그들로 정규적체제를 갖춘 부대들이 편성되였다. 포 및 박격포 구분대, 통신구분대 등 기술병종구분대도 조직되였으며 각종 훈련을 계획하고 지도하는 참모부서들과 후방부서들도 나왔다. 새로 편성된 각종 부대에는 부대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이 조직되였다.

간백산밀영에 꾸려진 훈련기지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성원들과 함께 당 및 혁명 조직들에서 선발된 핵심적인 일군들로 새로운 부대가 편성되였으며 훈련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에서 부대지휘체계가 세워졌다.

소부대안의 당조직들과 훈련부대들의 당조직들에 대한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통일적지도체계가 세워졌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부대들에 대한 사령부의 새로운 지휘체계가 수립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조직편제와 당조직, 정치기관들이 개편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소부대군사활동과 소조들의 대중정치사업, 집중적군정훈련, 전민항쟁준비를 위한 핵심육성사업 등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군사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제때에 장악하고 지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새로 편성된 소부대와 소조들은 군사정치활동을 힘있게 벌렸다.

국내와 만주 각지에 파견된 소부대, 소조들은 림시비밀근거지를 꾸리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소부대들은 1930년대 후반기에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넓은 지구에 이미 꾸려진 비밀근거지들을 기지로 리용하면서 함경북도 라진, 청진 일대와 연사, 무산, 온성을 비롯한 전국각지의 전략전술적으로 중요한 지역들과 만주의 넓은 지역에서 자기 활동구역의 특성에 맞게 림시비밀근거지들을 수많이 설치하였다. 이 근거지들은 소부대활동의 은밀성과 민활성을 잘 보장할수 있도록 림시적이고 소규모적이며 비밀적인 근거지로 꾸려졌다.

소부대들과 소조들은 림시비밀근거지에 의거하여 군사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산지구비밀근거지에 의거하시여 여러곳에 파견된 소부대, 소조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시는 한편 몸소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를 이끄시고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0년 8월 안도현 황화전자부근 사득판전투와 연길현 발재룬부근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를 조직지휘하시여 적들에게 련속 타격을 가하시였으며 넓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대중정치사업을 진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지에 파견된 소부대, 소조들의 활동을 세심히 보살피시며 끊임없는 지도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0년 9월 간백산밀영에서 백

두산주변일대에서 활동하고있는 소부대와 소조 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소부대, 소조들의 활동방향과 투쟁임무를 다시금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부대와 소조의 모든 성원들이 유능한 정치군사간부로 자라나도록 노력하며 중요산업지대와 농어촌들에 깊이 침투하여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고 각종 형태의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적의 무력과 군사요새지, 군사시설들에 대한 정찰활동을 강화하고 국내도처에 림시비밀근거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소부대, 소조 성원들은 국내와 만주의 광활한 지역에서 습격전과 매복전 등 대담한 군사활동과 정치활동을 적극 벌려 일제의 1940년 《추기 및 동기 토벌》책동과 1941년 봄 《토벌》책동을 여지없이 짓부셔버렸다.

1941년에 들어서서 안팎의 정세는 더욱 복잡하여졌다. 1941년 4월에 《쏘일중립조약》이 체결되고 6월에는 파쑈독일이 쏘련에 대한 불의의 침공을 감행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큰 국제적사변들이 일어날 때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쏘일중립조약》체결과 관련하여 일제는 사상정치적공세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쏘일전쟁이 반드시 일어날것이며 이 전쟁에서 일제가 패망하리라고 생각하고있었던 조건에서 《쏘일중립조약》의 체결은 그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사태와 관련하여 1941년 5월에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고 6월에는 간백산밀영에서 국내와 장백일대에서 활동하는 소부대와 정치공작소조, 혁명조직책임자들을 부르시여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주체적립장을 더욱 철저히 견지하며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7월에 왕청현 자피거우에

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책임자회의를 소집하시고 《필승의 신념을 안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지휘관들과 대원들이 자체의 힘으로 만난을 극복하고 조선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자신을 불굴의 투사로, 유능한 정치활동가, 군사지휘관으로 튼튼히 준비하며 군사정치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구체적인 과업과 임무를 밝혀주시고 몸소 왕청—라자구사이 군용도로공사장 습격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을 조직지휘하시였으며 연길현 명월구 남소툰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 혁명조직들을 내오도록 하시고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벌리시였다. 그리고 1941년 7월과 10월에는 온성, 새별을 비롯한 국내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부대, 소조, 당 및 혁명 조직들을 몸소 지도하시여 그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고 군사정치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그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정황이 가로놓인 조건에서도 언제나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항일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안길, 김일, 류경수가 인솔한 소부대들을 비롯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은 선봉, 은덕을 비롯한 국내 여러 지방과 왕청, 연길, 훈춘 등 넓은 지역에서 적의 수송로와 통신선, 군수물자보급기지, 적병영, 경찰서, 적기관들을 습격하는 전투들과 함께 철도를 파괴하고 군용렬차를 전복시키며 군용도로공사장들을 습격하는 전투활동을 강화하여 적의 유생력량과 전투기술기재, 군수수송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소부대, 소조들의 활동에서는 군사정찰활동에 큰 주목이 돌려졌다. 군사정찰활동은 적들과의 당면한 전투를 위하여서뿐아니라 앞으로의 최후결전을 위하여서도 매우 중요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대, 소조들은 넓은 지역에서 군사정찰활동을 벌리였으며 선봉과 라진, 청진과 라남, 홍남, 원산, 평양, 서

울, 대구를 비롯한 적의 요새지와 요충지들의 군사시설물들과 병력 및 그 이동정형, 북부조선의 항만시설과 연해의 수심을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정찰조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에서는 적의 동태를 날날이 꿰뚫어볼수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와 소조들은 인민대중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적극 벌리였다.

소부대와 소조들, 정치공작원들이 국내의 여러 지역들 그리고 만주일대뿐아니라 시모노세끼, 쯔루가 등 일본본토의 여러 지역에까지 파견되였다.

소부대, 소조, 정치공작원들은 혁명적구호를 통한 대중정치사업에 계속 많은 힘을 넣었다.

그들은 《김일성령수 받들어 자주독립국 세우자》, 《자자손손 받들자 항일명장 김대장》 등 위대한 수령님을 독립된 조국에 민족의 령수로,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천세만세 행복을 누려갈 념원을 담은 구호들과 함께 《아 조선아 백두성탄생을 알린다》, 《백두광명성 빛나는 조선의 미래 찬란하다》를 비롯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탄생을 더없는 경사로 맞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할 굳은 결의를 담은 구호들을 전국도처의 나무들에 썼다. 그리고 《조국해방 3대로선 만세 1 전민봉기 2 항일군 총공격 3 배후련합작전》 등과 같이 전체 인민을 최후결전준비에로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담은 구호들도 많이 썼다.

소부대, 소조, 정치공작원들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령활무쌍한 령군술에 대하여 잘 알게 되고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였으며 필승의 신념과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반일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되였다.

소부대와 소조, 정치공작원들은 파괴된 당조직과 혁명조직들을 복구정비하며 온 민족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

을 힘차게 벌리였다. 그들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앞으로 있을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작전에 호응하여 전인민적항쟁을 일으킬수 있는 모든 준비태세를 갖추어나가도록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전체 지휘관들과 전사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군정훈련도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앞두고 우리에게는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된 우수한 간부들이 수많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도래할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조선혁명의 핵심력량인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지휘간부들과 전사들이 자신을 얼마나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220페지)

군정훈련의 기본목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정치사상적, 군사적 자질을 전면적으로 훨씬 높이며 대오전반을 간부화하는것이였다. 대오를 간부화하는것은 앞으로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진행할수 있는 주도적, 핵심적 력량과 당창건을 위한 조직적골간을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한 절실한 요구였다.

1941년초부터 긴장된 군정훈련이 진행되였다.

정치교육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지휘간부들과 전사들을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로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로작들을 깊이 학습하는데 기본을 두면서 혁명의 원리, 조선 력사와 지리, 국제공산주의운동경험 그리고 여러가지 실천적문제들이 취급되였다. 군사교육에서는 유격 전술과 전법을 더욱 깊이 체득시키는 동시에 현대전의 전략전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군사 과학적 및 기술적 문제들이 중요하게 취급되였으며 정규군의 기본병종훈련과 여러가지 특수병종훈련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정훈련전반을 조직지도하시면서 정치군사학습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들에 대하여 몸소 강의도

하시고 학습토론과 훈련도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군정훈련과 소부대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던 시기 정세는 조선혁명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여갔다.

1943년경부터 파쑈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였다. 파쑈독일군대는 1943년초부터 쏘련령토에서 밀려나고있었으며 1943년 7월에 이딸리아는 파쑈독재가 전복됨에 따라 전쟁에서 항복하고말았다. 일제도 중국과 동남아세아 그리고 태평양전선에서 패전을 거듭하고있었다.

일제는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어갈수록 조선인민에 대한 탄압과 략탈을 더욱 발악적으로 감행하였다. 놈들의 정치적폭압과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에 대한 징발과 강탈은 극도에 달하였다.

조선인민의 처지는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적들의 발악이 극도에 이를수록 더욱더 불타는 적개심을 품고 각종 형태의 반일반전투쟁을 굴함없이 진행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끄시고 조국을 해방시키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였다.

이 모든 안팎의 정세는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앞에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준비를 더욱 다그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이 최후결전준비를 더욱 다그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3년 2월 함경남도 신흥군 서곡리 수리봉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과 그에 배합한 전인민적봉기, 배후련합작전 등 우리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할데 대한 3대로선과 그 실현준비를 위한 과업을 제시하신데 이어 1943년 9월 15일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간부 및 정치교원들 앞에서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반적형편을 분석하시고 조국광복의 대사변이 가까와오고있다는것을 론증하신 다음 조선혁명가들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에 대한 학습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이 박두하고있는 오늘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조국에 대한 학습을 잘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하여 잘 알아야 애국자, 공산주의자로서의 의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잘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225페지)

조선혁명을 책임지고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조국의 력사와 지리, 문화전통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앞당기기 위하여 나서는 당면한 투쟁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벌릴수 있도록 전국적범위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일층 강화하여 국내의 모든 애국력량을 굳게 결속하며 랑림산줄기와 태백산줄기 등 깊은 산속에 혁명근거지를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하였다. 또한 지휘원들과 전사들이 정치군사적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추어 앞으로 몇급 높은 직무에서 능숙하게 사업할수 있는 정치군사간부로 준비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연설은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을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며 해방된 다음 새 조국 건설에서 중요한 임무들을 담당수행할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있어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전체 지휘성원들과 전사들은 학습과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그들은 조선혁명의 전략전술을 더욱 깊이 학습하고 세련된 령도예술을 충분히 소유하며 조선의 실정과 당, 국가, 무력 건설을 비롯한 새 조국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깊이 학습하였다. 군사훈련에서는 유격전술과 함께 정규군의 공격작전, 상륙작전 및 항공륙전대작전과 같은 현대전법들을 취급하였다. 이것은 정규군관학교에서의 여러해의 군사학습과제와 맞먹는것이였으나 조

선인민혁명군 지휘간부들과 전사들은 모든 난관을 이겨내면서 짧은 기간에 그것을 훌륭히 습득하였다.

이 시기 간백산밀영에 꾸려진 훈련기지에서도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의 훈련과 전민항쟁을 위한 핵심육성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이것은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치는데서와 최후결전의 승리를 보장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체계적인 정치군사훈련을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오는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최후결전에서 주도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수행할 튼튼한 골간부대로, 조국이 광복된 다음 새 사회 건설을 떠메고나갈 우수한 간부대오로 자라났다.

제 3 절
당창건준비를 다그치기 위한 투쟁. 조국광복회 운동의 확대강화

소할바령회의후 전국적범위에서 당창건준비를 더욱 다그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보존축적하고 그들을 유능한 정치군사간부로 육성하며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하여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당건설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는것이 중요하였다. 또한 조국광복의 대사변이 다가옴에 따라 이미 당창건준비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정세가 조성되면 제때에 당을 창건할수 있도록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마련하는것이 절박한 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의 요구에 맞게 당창건준비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1년 4월 백두산동북부에 진출하는 소

부대성원들에게 임무를 주시였을 때를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건설사업을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구체적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들을 국내의 여러 지역에 파견하시는 한편 몸소 새별, 선봉 등 두만강연안 북부조선일대와 백두산동북부의 넓은 지대들에서 당조직을 정비확대하는 사업을 조직지도하시였다.

1943년에 들어서면서 조국광복의 대사변이 박두함에 따라 당창건준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이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1943년 2월 연사군 우적골에서 전국당조직 책임자 및 당핵심성원들의 회의가 소집되였다.

회의에는 함경남북도와 북부, 중부 조선은 물론 남부조선까지 포함한 전국의 모든 도들에서 온 당조직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남호두회의후 당조직건설사업정형을 총화하시고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의 넓은 지역에 기층당조직들을 확대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특히 로동계급이 집중되여있는 산업중심지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대들, 남부조선을 비롯하여 아직 당력량이 약하게 미치고있는 지역들에 당조직을 내오는데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국내의 넓은 지역에 기층당조직들을 계속 확대하여야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우는 사업과 당창건준비사업을 전국적판도에서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당대렬이 급속히 늘어나는 조건에서 당조직들을 질적으로 공고히 하고 당대렬의 순결성과 사상의지적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며 지역적당지도기관을 튼튼히 꾸려 당조직지도체계를 더욱 정비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 해당 지역과 단위에서 조국광복회 조직을 비롯한 혁명조직들, 전민항쟁준비를 위한 무장조직들에 대한 장악지도사업과 반일대중투쟁에 대한 지도를 옳게

함으로써 혁명투쟁전반에 대한 당적령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우적골회의는 당창건준비를 전면적으로 다그치는데서 전환적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회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1944년 7월 함경북도 라진시 어명산림시비밀근거지에서 국내당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최후결전의 시기가 다가오는 정세하에서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을 높일데 대한 과업과 방도를 또다시 밝혀주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와 소조, 정치공작원들은 전국도처에서 기층당조직을 내오며 조국광복회와 혁명조직들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핵심들을 당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이와 함께 기층당조직들에서 당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과 조직생활을 강화하며 그들을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끊임없이 단련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도시와 농촌, 산업중심지들에 지구당위원회 등 당의 지역적중간지도기관들을 내오고 당조직규률을 강화하는 사업도 추진되였다.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와 지역에서 조국광복회를 비롯한 혁명조직들, 무장대조직들을 새로 내오고 확대강화하면서 최후결전준비를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이와 함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들을 반일반전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하였다.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소조, 정치공작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일제의 파쑈적폭압이 극도에 이르렀던 조건에서도 국내외의 넓은 지역에 기층당조직들이 조직되고 정연한 조직지도체계가 확립되였으며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이 더욱 높아졌다. 그리하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는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당창건을 위한 준비가 모든 면에서 완성되여갔다.

조국광복회 운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와 정치공작소조들은 조선과 만주의 광

범한 반일대중속에 들어가서 적들에 의하여 파괴된 조국광복회조직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복구정비하며 그것을 확대발전시키는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광범한 반일대중이 혁명조직에 결속되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219페지)

광범한 반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고 그들을 전민항쟁에 힘차게 조직동원하기 위하여서는 일제에 의하여 파괴된 조국광복회 조직들과 모든 혁명조직들을 복구정비하고 그것을 확대발전시켜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소할바령회의에서 조국광복회 조직을 확대강화할데 대한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으며 그후 1942년 6월 무산군 풍산리 독골에서 열린 지하혁명조직 및 반일단체 책임자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소부대, 소조, 혁명조직들의 사업정형을 료해하시고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조국광복회 조직을 정비확대하며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우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청년학생, 지식인, 량심적인 민족자본가, 종교인 등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기 위하여서는 전국각지에 조국광복회 조직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대대적으로 내오는 동시에 적들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조직선을 잃고있는 조직성원들을 찾아내여 파괴된 조직을 복구정비하여야 하였다.

또한 지하활동에서 조직의 비밀을 엄수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방의 특성과 주민들의 준비정도를 고려하여 《결의형제》, 《계》와 같은 관습적인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혁명조직들을 위장함으로써 그 활동의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이 중요하였다. 특히 일제와의 최후결전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의 출발계선으로 될 두만강연안 국경지대를 튼튼히 장악하는것이 중요하였으며 그러자면 조국광복회 조직과 혁명조직을 일제침략군과 적기관 내부에까지 박아넣고 량심적인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 적기관 근무자들을 조직에 흡수하여 적내부에 로출되지 않는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산동북부와 북부조선 일대

에 진출하시여 소부대, 소조들, 혁명조직들의 활동을 지도하시는 한편 몸소 여러 지방의 로동자, 농민들 속에 들어가시여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을 복구하고 새로 무어주시였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북부조선일대와 장백지구에서 조국광복회 조직을 비롯한 혁명조직을 정비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1941년과 1942년에 연사, 무산 지구에서 서두수수력발전소공사장, 무산광산, 철도부문 로동자들을 조국광복회조직에 광범히 결속하시였으며 조국광복회 조직들로 하여금 각계각층 군중을 묶어세우며 생산유격대와 같은 반군사조직을 뭇고 놈들의 군수 생산과 수송을 파탄시키기 위한 각종 반일반전투쟁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장백현 도천리에서도 조국광복회 조직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부단히 확대하며 광범한 군중을 결속하기 위한 사업을 벌리시였다. 이와 함께 조선인민혁명군 참군자가족들을 비롯한 핵심들을 국내각지에 파견하여 혁명조직들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시켜나가시였다. 국내외의 광활한 지역에 파견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와 정치공작소조, 정치공작원들은 광범한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대하여 널리 해설선전하고 급변하는 안팎의 정세와 일제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잘 알려주면서 일제와의 최후결전에 힘차게 떨쳐나설수 있도록 준비시켜나갔다.

소부대와 정치공작소조, 정치공작원들은 지난 시기 혁명조직성원이였던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교양하고 각성시켜 조국광복회 조직을 뭇고 그 대렬을 늘이는것과 함께 그들을 국내의 넓은 지역에 파견하여 조직을 내오고 반일군중을 묶어세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결의형제》, 《독서회》, 《동갑계》 등 합법적조직을 뭇고 그것을 잘 운영하는 방법으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조직에 망라시켰다. 소부대, 소조들은 적들의 파쑈적탄압으로부터 조국광복회를 비롯한 광범한 혁명조직들을 보위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국내도처에 반일회, 반일로동자협회, 연안조국광복단 등 여러가지 명칭을 가진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이 수많이 나왔으며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이 튼튼히 결속되게 되였다.

조국광복회 운동을 전국적범위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일제와의 최후결전이 박두함에 따라 더욱 힘있게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3년 7월 새별군 룡계리에서 열린 정치공작원 및 반일애국단체성원들의 회의와 1943년 9월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간부 및 정치교원들 앞에서 하신 연설에서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전국적범위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일층 강화하며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성과적으로 벌릴수 있는 튼튼한 대중적지반을 닦을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그리고 1944년 7월에는 함경북도 연사군 신장리 상당산림시비밀근거지에서 전국 조국광복회 조직책임자회의를 소집하시고 최후결전준비를 위한 조국광복회 조직들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하신 조치에 따라 대중정치사업방법과 지하사업경험을 소유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과 대원들이 국내 전반적지역과 멀리 국외에까지 파견되여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들은 특히 최후결전시기에 부대들이 진공하여 근거지로 삼을 산간지대의 인민들을 조직결속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정치공작원들은 박우현, 리주연, 리영, 리용, 민덕원 등 국내에서 활동하던 수많은 혁명가들과 련계밑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들속에 들어가 일제의 멸망이 시간문제로 되고있으며 조국광복의 대사변이 다가오고있는데 대하여 해설해주면서 그들을 일제와의 최후결전태세를 갖추도록 준비시켜나갔다. 이에 기초하여 혁명적으로 각성된 핵심들로 지방의 특성과 대중의 준비정도에 맞게 반일청년단, 반일청년회 등 여러가지 명칭을 가진 조국광복회 조직을 뭇고 그 대렬을 늘이였다.

정치공작원들은 청진, 함흥, 흥남, 평양을 비롯한 산업중심지들에 있는 제철소, 제강소, 화학공장, 병기공장 등 중요공장, 기업

소들에 침투하여 선진적인 로동자들을 료해장악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한 다음 그들을 핵심으로 하여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을 뭇고 부단히 확대해나갔다. 조국광복회 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속에서도 힘있게 벌어졌다.

전국도처에 조직된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은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전민항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제 4 절
전국적범위에서 전인민적항쟁 대세의 강화

전민항쟁태세를 강화하는것은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사업의 중요측면을 이루고있었다.

전인민적항쟁태세를 갖추기 위한 투쟁은 이미 1930년대부터 힘있게 진행되여왔다.

전민항쟁태세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의 군사정치활동의 혁명적영향이 국내깊이에로 확대되고 당 및 조국광복회 조직들의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급속히 강화되여갔으며 일제와의 최후결전이 박두한 시기에 더욱 고조되였다.

전민항쟁태세는 인민대중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면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합세하기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갖추어나가며 그들속에서 각종 형태의 반일반전투쟁이 계속 강화된데서 나타났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속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흠모의

정이 날을 따라 높아갔다.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수령님께서 하루속히 조국해방을 이룩해주실것을 열망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칭송하는 각종 혁명적간행물, 삐라와 격문들이 널리 전파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업적과 탁월한 령군술, 전법을 칭송한 혁명적간행물들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시의 형식으로 100자의 한문자로 함축한 《대강백자령》과 같은 간행물들이 더욱더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전파되고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졌다.

나라의 곳곳에 《김일성장군 만세!》, 《근일 김일성대장 조국개선》, 《…김일성장군님께서 쳐들어오시기를 기다리라!》 등의 구호들이 나붙었으며 지어는 평양병기창과 같은 일제의 군수공장과 일제기관, 《경방단》들에도 이러한 구호들이 나붙었다. 1944년에는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끼를 왕래하는 관부련락선 《고안마루》의 3등선실 천정에 《조선독립대장 김일성》이라는 글이 붉은 글자로 커다랗게 씌여졌다.

인민들은 남녀로소 할것없이 모여앉기만 하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며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고 민족재생의 날을 확신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독립후의 조선의 최고지도자》, 《장래 조선의 대통령》, 《대원수》로 높이 우러러 모시면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제를 때려부시고 해방된 조국땅우에 륭성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우고야 말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은 백두산에서부터 제주도에 이르는 우리 나라 전역에서 그리고 멀리 해외에 있는 동포들속에서까지 민족재생의 상징으로, 전체 조선인민의 희망의 등대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흠모와 신뢰는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추진시키는 가장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였다.

각계각층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합세하기 위한 전민항쟁준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갖추어나갔다.

전민항쟁준비사업은 제2차 세계대전의 대세가 일제와 파쑈국가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조성된 1943년 이후시기에 한층더 적극화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3년 7월 온덕군 룩야리 어은동 곰산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 및 지하조직책임자회의에서 전민항쟁을 위한 로동자, 농민의 무장대들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민항쟁을 위한 무장대의 성격과 사명을 밝히시고 당조직의 지도밑에 로동자, 농민, 청년들과 특히 일제의 강제징집을 피하여 은신하고있는 열혈청년들로 무장대오를 도처에 많이 조직하며 또한 생산유격대와 로동자돌격대 등 반군사조직들을 전민항쟁을 위한 무장대오로 개편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혁명조직들을 보위하면서 최후결전을 위한 준비를 튼튼히 갖출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곰산회의를 계기로 전민항쟁준비사업이 더욱 힘차게 전개되였다.

간백산밀영에서는 이미부터 진행되여오던 전민항쟁준비를 위한 핵심육성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핵심육성을 위한 학습과 훈련에서는 무장대오의 조직과 그 활동방법,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격에 배합한 배후교란작전의 준비와 진행,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전민항쟁에 일떠세우기 위한 대중조직정치사업의 내용과 방법, 무장활동에 필요한 군사지식 등이 취급되였다.

육성된 핵심들은 전국도처에 파견되였으며 당조직의 지도밑에 소부대, 소조들과 함께 무장대오를 조직하여 광범한 군중을 전민항쟁에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속에서는 항일무장투쟁에 호응하여 무기를 들고 일어나 싸울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많은 청년학생들이 조선인민혁명군과 련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240페지)

정치공작원들과 당조직들은 곳곳에서 무장봉기조직들을 무었으

며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전인민적봉기에 합세하도록 준비시켜나갔다.

1943년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대》가 결성되여 국내외의 넓은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김일성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가 되여 조국해방의 성전에 한목숨 바칠것을 결의한 혁명적인 항쟁조직으로서 이 조직성원들은 반일지하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조직망을 중요 공장, 기업소, 군사전설장, 지어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인 로동자들속에까지 넓혀나갔다.

1944년 여름 평양에서는 《조국해방단》이 조직되여 평안남도와 황해도일대의 넓은 지역에서 맹렬히 활동하였다. 《조국해방단》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해방작전에 배합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킬 목표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 속에 조직망을 넓히고 일제의 경찰기관, 관공서들에까지 조직선을 뻗치는 한편 무기들을 자체로 만들거나 적의 무기를 빼앗는 투쟁을 벌렸으며 군사활동과 정찰활동을 비롯하여 결정적시기에 무장봉기를 일으킬 준비를 튼튼히 갖추어나갔다.

서울에 파견된 정치공작원은 《경성제국대학》출신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무장봉기준비결사》를 조직하였다. 이 조직에서는 서울시내의 선진적인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 로동자들 속에 조직되였던 공산주의리론연구조직들을 실천투쟁조직으로 발전시키고 확대하는 한편 원산, 함흥, 부산, 마산, 서울에 있는 동지들과 련계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조직을 내오며 무장봉기를 일으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평안북도, 강원도 일대, 황해도 그리고 풍산을 비롯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여러 지방들에서도 무장봉기조직들이 결성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 속에서 무장폭동태세가 날을 따라 강화되였다.

무산, 회령, 청진 지구의 비밀무장결사, 황해도일대의 인민무장대를 비롯한 무장항쟁조직들은 산간지대에 비밀근거지를 꾸리고 적의 무기를 빼앗고 폭탄을 제조하는 한편 무장과 식량, 의약품들을 저장하는 등 무장폭동준비를 다그쳐나갔다.

평양의 철공로동자들은 조선인민혁명군에 참군할것을 계획하고 비밀리에 무기를 만들었으며 북부조선의 산간지대 농민들을 비롯한 여러곳의 인민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진군의 날을 고대하면서 이에 호응하기 위한 준비로서 무기와 식량, 피복을 마련하는 투쟁을 적극 벌리였다.

이밖에도 성진, 함흥, 북청, 신의주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인민들은 《김일성장군님 무장부대에 찾아가자!》, 《김일성장군님께서 거느리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격에 대중적무장폭동으로 합세하자!》라는 구호밑에 무장봉기를 준비하였다.

청년학생들속에서도 조선인민혁명군에 합세하려는 기운이 급격히 높아갔다.

부산초량상업학교, 전주사범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국내의 수많은 청년학생들과 지어는 도꾜, 오사까와 같은 일본에서 공부하는 청년학생들도 김일성장군님의 전사가 될것을 결의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해방작전에 호응할 준비를 갖추었다. 성진의 청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활동하시는 백두산이 조선혁명의 근거지라는 취지에서 《백두산회》라는 비밀단체를 조직하고 투쟁하였다. 그리고 문천에서는 일제침략군대에 징모되기를 거부한 청년들이 《구국청년회》라는 비밀조직을 뭇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격에 합세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투쟁하였으며 경상북도의 청년들은 징용령장을 배격하고 《결심대》를 무어 산속에 들어가 무기를 준비하면서 일제와의 투쟁을 벌렸다.

조선인민혁명군에 합세하기 위한 투쟁은 일본군대에 강제징집된 조선청년들속에서도 벌어졌다. 평양주둔 일제침략군 사단안에서는 《학도병》으로 끌려나온 조선청년들이 정치공작원의 지도밑에 《반일학도병무장대》를 뭇고 《목표 백두산, 김일성장군》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조선인민혁명군에 합세할 준비를 다그쳐나갔다. 경상남도 진해의 해병단에 끌려간 조선청년들은 김일성장군님부대에 찾아가 조선독립을 위해 싸울것을 계획하고 대담하게 병영에서 탈주하여나왔다.

이러한 투쟁은 그 어떤 개별적인 지역이나 계층에 한한것이 아

니라 온 나라 각계각층 인민대중속에서 일반적현상으로, 막을수 없는 대세로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소조들과 정치공작원들은 북대봉산줄기, 랑림산줄기, 함경산줄기, 부전고원과 개마고원을 비롯한 북부고원지대는 물론 구월산에 이르는 중부조선의 산간지대들에 혁명기지를 꾸리며 최후결전시 무장대의 활동에 필요한 무장과 식량 등을 준비저장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태발전에 당황망조하여 적들도 조선인민이 일본의 패전을 확신하고 자기들이 흉모하여마지 않는 김일성장군님과의 련계밑에 무장봉기를 일으킬것을 계획하는것이 전반적현상으로 되였다고 실토하지 않을수 없었다.

인민들은 조국해방의 날을 눈앞에 내다보면서 여러가지 반일반전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각지 로동자들은 파업과 태업 투쟁으로 일제의 전시생산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1942년 7월의 흥남질소비료공장 로동자들의 파업, 1943년 여름에 있은 라진부두로동자들의 파업, 1943년 6월과 1944년 6월에 있은 성진고주파공장 로동자들의 파업을 비롯하여 중요 항구들과 군수공장들에서 로동자들의 파업이 련이어 일어나 적들의 전시수송과 군수생산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지어는 일본 북해도의 유바리탄광에 끌려간 조선인로동자들도 파업투쟁을 벌리였다.

로동자들은 점차 일제의 전시생산시설을 방화파괴하는 적극적인 투쟁에로 넘어갔다. 이 시기에 회령탄광에서의 폭파사건, 남포제련소에서의 기계파괴사건, 강원도 삼척탄광, 진해의 해군공장, 서울 여의도에 있던 《조선항공회사》에서의 방화사건, 여러차례에 걸친 본궁화학공장에서의 폭발사건, 흥남질소비료공장에서의 폭발사건과 같은 방화, 폭파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일제의 전시생산을 마비시키였다. 평양, 청진, 서울, 부산을 비롯한 중요산업도시들과 군수공장, 비행장들에서 폭발 및 화재 사건들이 그치지 않았다.

농민들은 농산물의 강제공출과 각종 전시부담, 강제동원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평안남도 평원군 한천면, 전라북도 남원

군 운봉면을 비롯한 여러 지방의 농민들은 집단적으로 일제의 관공서를 습격하고 량곡창고를 짓부시였으며 악질적인 주구들을 처단하는 과감한 투쟁을 벌리였다.

전국각지에서 교원들과 학생들의 비밀결사사건과 동맹휴학사건도 련이어 일어났다.

징병과 징용, 강제동원을 반대하는 청장년들의 투쟁도 힘차게 벌어졌다. 징병과 징용을 기피하고 도주한 사람들의 수가 해마다 10여만을 헤아렸다.

나라의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반일반전투쟁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해방작전에 적극적으로 호응할수 있는 전인민적항쟁태세, 최후결전준비가 튼튼히 갖추어져갔다.

제 5 절
간백산밀영군정간부회의.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작전과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한 승리

1945년에 들어와서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을 조직전개할수 있는 결정적시기가 나날이 다가왔다.

1945년 5월 9일 파쑈독일이 드디여 무조건 항복하였다. 독일의 패망은 그의 중요동맹국이였던 일제의 처지를 더욱더 악화시켰으며 그의 패망도 멀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모든 전선에서 일제의 패전은 더욱 걷잡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일본안에서도 계급적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였으며 지배층내부에서의 알륵과 갈등이 심하여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정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1945년 5월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을 면밀히 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를 회상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제놈들과 마지막 판가리싸움을 할 작전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때 조선인민의 마음은 한결같이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우리에게 쏠리고있으며 조선의 깊은 산속에는 우리와 련계를 가지고 반일성전에 나서려고 숨어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국내에서 보내온 통보자료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의 힘으로 일제를 때려엎고 조국을 해방할것을 타산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5년 6월 간백산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그 작전계획을 발표하시였다.

작전계획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대규모적인 군사작전과 전인민적봉기를 배합하여 조국해방을 이룩할것이 예견되였다. 그리고 작전의 주요방향과 그에 따르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주요전투임무가 밝혀졌다.

1945년 최후공격작전을 앞둔 시기 백두산지구비밀근거지의 간백산밀영에는 북부조선일대에서 활동하고있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집결되여있었으며 청진이북 두만강연안에는 중국동북지방에서 활동하고있던 부대들이 집결되여있었다. 그리고 쏘만국경지대의 훈련기지에는 군정훈련을 하고있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집결되여있었다.

작전계획에는 간백산밀영에 집결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길주, 북청, 신흥, 강계 등 네개 방향으로 진출하여 모든 도들을 차지하게 되였으며 두만강연안에 집결한 부대들은 압록강, 두만강 연안과 청진지구에 진출하게 되여있었다. 또한 쏘만국경지대의 훈련기지에 있던 부대들은 평양지방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신속히 진출하여 군사작전들을 벌리게 되여있었다.

이렇게 진출하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압록강, 두만강 연안과 청진지구를 해방하며 내륙지대의 중요요충지들을 공격하여 장악하며 패주하는 관동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그를 소멸하게 되여있었다. 그리고 전국의 넓은 지역에 이미 꾸려놓은 혁명근거지들을

미리 차지하고 일제를 격멸소탕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벌릴것이 예견되여있었다.

이와 함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국내의 선진적청년들과 일제의 징병을 기피하여 산간지대에 은신해있는 애국청년들을 비롯하여 각계각층 애국력량을 인입하여 기민한 작전으로 일제군경과 패잔병들을 격멸소탕하며 일제가 항복한후에는 반항하는 일제잔여세력들을 구축하고 조국의 안전을 보장하는것을 중요한 임무로 삼았다. 뿐만아니라 일제경찰기관, 식민지통치기관들을 소탕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면서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지방인민정권기관들을 내오며 기층당조직들과 지역적당지도기관들을 정비확대하는것을 임무로 내세웠다.

작전계획에는 이와 함께 국내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와 정치공작원들이 전민항쟁조직을 새로 뭇거나 늘여 인민들을 전민항쟁에 불러일으킴으로써 국내 이르는곳마다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격에 합세하게 되여있었다.

작전계획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부대편성과 각 부대들의 작전지대에로의 진출로정과 질서, 방법 그리고 지휘체계와 부대호상간의 협동질서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백산밀영군정간부회의에 이어 1945년 6월 간백산밀영지휘원, 병사대회와 두만강연안 북부국경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원 및 소부대, 정치공작소조책임자회의, 전민항쟁을 위한 반군사조직인 돌격대 지휘성원들의 회의, 지하혁명조직 책임자 및 인민무장대 책임자회의들에서 최후공격작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해방작전계획은 나라의 해방을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이룩하기 위한 가능성을 정확히 타산한 주체적이며 과학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작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대책들도 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치에 따라 두만강과 압록강 연안에서 활동

하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간백산밀영에 집결하여 최후공격준비를 갖추었다.

그리고 부대들의 활동상 특성에 맞게 지휘관들이 새로 임명되였다. 이와 함께 각 부대들에서는 현대적군사전법을 소유하고 각종 전투기술기재들을 능숙히 다루기 위한 군사훈련을 강화하며 부대들간의 협동훈련, 종합전술훈련을 조직진행하였다. 오백룡이 인솔한 소부대를 비롯한 소부대, 소조들은 수시로 변화되는 적정을 료해장악하기 위한 군사정찰활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최후공격작전에 필요한 여러가지 무기들과 각종 전투기술기재들, 군사물자들을 마련하는 사업도 적극 진행되였다.

전인민적봉기를 일으키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추진되였다. 전국도처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은 새로운 무장조직들을 더 많이 내오며 일제와의 최후결전에 필요한 무기들을 마련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하며 조국해방을 위한 공격작전이 개시되면 전체 인민들이 지체없이 전인민적항쟁에 떨쳐나설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5년 7월 하바롭쓰크에서 쏘련의 고위군사지휘관들과 쏘련군대와 협동작전을 진행할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시였으며 8월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조국해방작전계획을 실현하는데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부대들은 전면적공격작전에 앞서 일제의 군사요충지들인 함경북도 선봉군의 토리와 훈춘현의 남별리, 동흥진을 습격하여 적의 무력에 된타격을 가하고 국경지대에 혼란을 일으킴으로써 최후공격작전을 벌리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지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5년 8월 9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에게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총공격에로 넘어갔으며 대일작전에 참가한 쏘련군대와 협동작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면서 힘차게 진격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조국해방작전의 첫 순간부터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간백산밀영에 집결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작전계획에 예견된 진로를 따라 맹렬히 진격해나갔다.

한 부대는 라진을 재빨리 해방하고 전과를 확대해나갔다. 두만강연안에 집결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일제히 강을 도하하여 《난공불락의 방어선》이라고 떠들던 적의 국경요새들을 돌파하고 은덕, 새별 일대를 해방하였으며 선봉과 회령 방향으로 계속 전과를 확대하면서 국내의 넓은 지역을 해방하였다.

그리고 해안상륙부대의 선견대에서 활동하던 일부 부대들은 지상부대와의 긴밀한 협동작전으로 선봉에 상륙하였으며 전투활동을 강화하면서 청진으로 진격하였다.

한편 작전의 보조방향부대들도 만주의 금창, 동녕, 목릉, 목단강시를 해방하고 적들을 격멸하기 위한 치렬한 전투를 벌려 관동군에게 치명적타격을 주고 두만강대안으로 진출하였다.

조국해방작전에는 국내도처에서 활동하던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 전국각지의 인민무장대들, 무장봉기조직들과 광범한 인민대중이 적극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작전전반을 조직지휘하시는 한편 우리 나라의 주요전략적지대들에 락하할 항공륙전대들을 출동시킬 준비도 다그치시였다.

아군부대들의 맹렬한 공격과 인민들의 적극적인 반일항쟁에 의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일제는 조국해방작전이 개시된지 1주일밖에 안되는 1945년 8월 15일에 황급히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우두머리들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이후에도 《조선의 공산화》를 《방지》할 음흉한 기도밑에 일제침략군 부대들에 무장을 놓지 말고 계속 싸우라고 명령하였으며 《종전후의 치안유지》라는 간판밑에 경찰이 최후발악을 하였다. 그리하여 일제의 패잔병무리들과 경찰들은 저항하면서 도처에서 파괴암해책동과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학살만행을 감행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적진출을 각방으로 방해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함흥, 원산, 양덕, 평양, 철원, 해주를 비롯한 전국도처에서 발악적으로 저항하는 일제침략군을 최종적으로 격파분쇄하기 위한 전투를 과감히 벌려나갔으며 적들을 소멸하고 무장을 해제하였다.

한편 정치공작원들의 지도밑에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헌병대와 경찰기관, 관청 등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를 짓부시였으며 놈들의 파괴암해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산업시설들과 문화시설들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은 각지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을 묶어세우면서 당조직들과 인민위원회들, 지방자치기관들을 내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마침내 일제는 패망하고 조선인민은 근 반세기에 걸친 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되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만고의 령장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15성상에 걸친 조선인민의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은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제 6 절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의의.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진행된 영광스러운 민족해방전쟁이였으며 혁명군대가 아무런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강대한 적과 정면으로 싸워이긴 세계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간고하고 장기적인 혁명전쟁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는 오직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주체적혁명로선의 빛나는 승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우리앞에는 수많은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 있었으나 우리는 자체의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투쟁방침을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투쟁함으로써 부닥친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3권, 380페지)

위대한 주체사상은 가장 정확한 혁명로선과 자주적인 당창건방침을 세울수 있게 하였으며 그 관철을 통하여 항일혁명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갈수 있었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주체적혁명력량, 혁명의 자주적주체가 쟁취한 위대한 승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조선인민혁명군과 광범한 인민대중이 일심단결됨으로써 혁명의 주체가 튼튼히 꾸려지고 그 위력과 역할이 끊임없이 높아졌으며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난관과 시련들을 뚫고 항일혁명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전략과 유격전술의 자랑찬 승리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군사전략적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쥘수 있었으며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령활무쌍한 유격전술을 능숙하게 적용하여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비할바없이 우세한 적을 쳐부시고 전투마다에서 승리할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는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면서 쟁취한 빛나는 승리였다.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의 중요한 한 고리로서 국제혁명력량, 특히 린접국가 혁명력량과의 긴밀한 련계속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처음으로 국제적인 반제공동전선에 관한 독창적인 로선을 내놓으시고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중국의 공산주의자들 및 광범한 반일세력과의 공동투쟁, 공동전선을 강화하시였으며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고 세계 혁명적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공고히 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이것은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조선인민의 혁명투쟁발전에서 항일무장투쟁은 참으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의의는 우선 이 투쟁이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으며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으로부터의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새 사회 건설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526페지)

항일무장투쟁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진행된 혁명투쟁으로서 지도사상으로 보나 투쟁형태로 보나 가장 높은 수준의 적극적인 투쟁이였으며 따라서 이 투쟁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할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이 승리함으로써 일제식민지기반으로부터 민족적해방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이때로부터 우리 인민앞에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이것은 조선혁명과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전환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의의는 다음으로 조선혁명을 앞으로 힘차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한데 있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육성되고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가 실현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떠메고나갈 골간부대가 튼튼히 꾸려졌다. 또한 이 행정에서 로동계급의 령도가 확고히 실현되고 로농동맹이 강화되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이 굳게 단합되게 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혁명의 주체, 주체적혁명력량이 튼튼히 꾸려졌기에 반일민족해방운동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또한 혁명을 계속 발전시켜나갈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의의는 또한 그 투쟁행정에서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닦아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룩되였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과정에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334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시기에 비로소 자주적인 당창건방침이 세워졌으며 이에 기초하여 당창건준비사업이 항일무장투쟁 및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밀접히 결합되여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닦아지게 되였다.

항일혁명투쟁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영원히 계승발전시켜야 할 귀중한 혁명전통이 이룩되였다.

이렇듯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닦아지고 빛나는 혁명전통이 이룩됨으로써 해방후 그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당이 튼튼한 토대우에서 지체없이 창건될수 있었으며 집권당으로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해나갈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은 국제적으로도 큰 의의를 가지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의 새로운 길을 밝혀주었으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자체의 힘으로 개척하기 위하여 일떠선 인민들의 앞길은 그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은 제국주의의 독점적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을 처음으로 승리적으로 결속한 위대한 혁명전쟁인것으로 하여 세계의 피압박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주었으며 또 주고있다.

1968년 꾸바에서 진행된 아바나문화대회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하에 조직전개된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이라는 문헌을 채택하고 그것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전략전술로 삼을것을 결정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국제파시즘의 아세아《돌격대》였던 일제를 패망시킴으로써 인류를 파쑈노예화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붕괴의 시초를 열어놓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을 피로써 도와주고 자본주의포위속에서 단독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던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함으로써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주체적인 혁명로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리론과 유격전을 기본으로 하는 무장투쟁리론 및 반제민족통일전선에 관한 리론을 비롯한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독창적리론과 그것을 관철한 투쟁경험들은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전세계의 로동계급과 혁명적인민들의 귀중한 공동의 재부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구현하시여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20여성상의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과정에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그것으로 일관된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가장 심각하고 다방면적인 투쟁속에서 이룩된 주체의 혁명전통은 끝없이 심오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서는 우선 주체의 사상체계와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체의 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서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주체사상에 기초한 유일적인 사상체계로 이루어져있다.

공산주의적혁명정신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필승의 신념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혁명적락관주의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혁명적동지애와 혁명적의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등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가 전면적으로 담겨져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는 또한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과 인민정권 및 대중단체 건설, 혁명무력건설, 통일전선운동, 문화건설 등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들이 중요하게 담겨져있다.

이와 함께 혁명적 군중관점과 군중로선에 기초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주체의 혁명전통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있다.

주체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확고한 력사적뿌리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수해나가는데서 영원히 드놀지 않는 만년초석으로, 우리 인민의 가장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된다. 우리 당은 이 위대한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당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해나가는 전과정에서 빛나는 력사적성과들을 이룩할수 있었다.

제 5 장

주체형의 혁명적당, 공산당의 창건과 근로인민의 대중적당, 로동당으로의 발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과업수행을 위한 당의 투쟁

(1945. 8—1947. 2)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 조선 건설을 위한 3대당면과업 제시. 진보적민주주의의 길 천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이 승리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이 성취됨으로써 우리 인민앞에는 새 조선을 건설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해방후 나라안팎의 정세는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유리하게 조성되고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반파쑈민주진영의 승리로 끝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력량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쏘련의 국제적지위가 높아지고 아세아와 구라파의 많은 나라들이 파시즘과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적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아세아, 아프리카의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으며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로동운동과 민주주의운동도 빨리 장성강화되여갔다.

반면에 자본주의는 전반적으로 심히 약화되였다. 전쟁에서 과

쏘독일과 일본, 이딸리아와 같은 전패국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것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련합국측의 자본주의렬강들도 전패국들에 못지 않게 큰 피해를 입었다.

제국주의자들은 쇠퇴몰락하여가는 저들의 처지를 구원해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막대한 리득을 보고 급격히 비대해진 미제는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등장하여 장성하는 사회주의, 민주주의 력량을 견제하고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정책에 매달리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진보적인 사회주의, 민주주의 력량과 반동적인 제국주의세력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날로 격화되였으며 국제적으로 변동된 력량관계에 기초하여 반제반미투쟁이 강력히 벌어지게 되였다.

해방후 우리 나라의 정세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이루어진 력량관계는 8.15해방직후의 혁명적앙양속에서 더욱더 유리하게 변화되였으며 혁명력량이 반동세력을 완전히 압도하였다.

우리 인민은 전설적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개선을 맞이하여 끝없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였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적기세는 터진 화산과도 같이 용솟음쳤다.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절세의 애국자로, 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끝없이 흠모하여온 우리 인민은 조국광복의 새날을 가져다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의 령도따라 새 생활 창조의 길로 나아갈 굳은 결의로 가슴을 불태웠다.

우리 인민은 해방의 기쁨을 안고 새 조국 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섰으며 온 나라에는 일대 혁명적앙양이 일어났다.

각지에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조직되였던 공산당조직들이 지하에서 나와 활동하게 되였고 새로운 지방당조직들도 나왔다. 그리고 지방인민위원회들, 각종 지방자치기관들이 결성되여 활동하였다. 전국도처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를 짓부셔버리고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적발숙청하는 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다.

로동자들은 일제가 차지하고있던 공장, 기업소들을 자체의 힘으로 관리하고 보위하였으며 농민들은 자기의 향토를 굳건히 지키면서 지주의 압박과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섰다. 량심적인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도 새 조국 건설에 적극 나섰으며 각계각층의 애국력량이 건국사업에 합류하였다.

한편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비롯한 온갖 반동세력은 인민대중의 앙양된 혁명적기세에 눌리여 머리를 쳐들지 못하였으며 인민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여갔다.

전반적혁명정세는 우리 인민이 반동세력을 타승하고 자체의 힘으로 능히 새 나라, 새 사회를 건설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의 새 조국 건설의 앞길에는 여러가지 난관과 애로가 가로놓이게 되였다.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를 호시탐탐 노려오던 미제침략자들은 일제패망후 남조선을 영구히 강점하며 나아가서 전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아세아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한 책동을 발광적으로 감행하였다.

친일친미파, 민족반역자들을 비롯한 반동분자들은 미제의 비호밑에 각종 반동적 정당들과 단체들을 조작하는데로 나갔으며 혁명력량을 분렬시키고 인민대중을 반동의 길로 끌고가려고 하였다. 또한 혁명의 배신자들과 각양각색의 정치적투기분자들이 나타나 해방직후의 혼란된 정세를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리용하려 하였으며 인민들을 자기 편에 끌려고 음흉하게 책동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정세속에서 인민들은 한시바삐 새 조선 건설을 위한 참다운 길이 밝혀질것을 절절히 바라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이 이룩된 새로운 조건과 해방후 내외정세의 추이를 예리하게 통찰하시면서 새 조선 건설을 위한 제반 로선들을 밝혀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인 1945년 8월 20일 군사정치간

부들앞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에서 새 민주조선 건설로선을 뚜렷이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조국이 해방된 새로운 조건에서 혁명을 계속 앞으로 전진시켜야 하며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부강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당면한 3대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은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이룩한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에 토대하여 건당, 건국, 건군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새 조선 건설의 력사적과업을 반드시 빛나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251페지)

혁명을 전진시키고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부강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인민의 진정한 주권, 혁명주권을 세우며 혁명적정규무력을 건설하는것이 하루도 지체할수 없는 긴급한 과업으로 나섰다.

혁명의 참모부인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여야 근로대중을 비롯한 광범한 민주력량을 혁명의 편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혁명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그리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워야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으며 그것을 무기로 하여 제반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또한 강력한 혁명적정규무력을 건설하여야 나라와 인민을 보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혁명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이룩된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통일적인 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하며 인민혁명정부로선을 구현하여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며 조선인민혁명군을 강력한 정규적인 혁명무력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그 구체적방도들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연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는 나라를 강점하고있던 일제침략세력을 몰

리친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들이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 새 조국을 건설해나갈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준 강령적문헌으로,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의 근본지침으로 되였다.

전당, 전국, 전군 사업을 다그쳐 혁명을 전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가 어떠한 길로, 어떤 사회정치제도를 세우는데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것을 인민대중에게 똑똑히 밝혀주는것이 필요하였다. 불타는 건국열의로 들끓고있는 인민대중에게 이것을 똑바로 알려주어야 그들이 새 조국 건설에 목적의식적으로 떨쳐나설수 있었다.

해방후 우리 나라가 어떠한 길로 나아갈것인가 하는 문제는 심각한 로선상 문제로서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그릇된 경향들이 나타나고있었다. 우익세력들은 자본주의길로 나갈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좌경분자들은 당장 사회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들고나왔다. 이 모든 주장들은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5년 10월 3일 평양로농정치학교 학생들앞에서 하신 력사적인 강의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하여》에서 새 조선 건설을 위하여 우리 인민이 어떠한 민주주의를 세우는데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뚜렷이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이 나아갈 길은 참다운 민주주의인 진보적민주주의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 인민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으며 나라의 완전자주독립을 보장하여줄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282폐지)

새 조선 건설을 위하여 우리 인민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구미자본주의국가의 《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사회주의국가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본딴것으로도 될수 없었다. 그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 놓여있는 조선의 현실에 가장 알맞는 새형의 민주주의로 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건국사업에서 력사발전단계에 뒤

떨어진 요구를 내세워도 안되며 또한 그것을 뛰여넘는 요구를 내세워도 안된다고 하시면서 진보적민주주의에 기초한 자주독립국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는것만이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우리 나라 실정에 가장 알맞는 길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진보적민주주의의 중요특징을 명백히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진보적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자주의 특징을 가진다고 가르치시였다.

자주는 민족적독립의 필수적요구이며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기본전제이다. 따라서 자주성에 기초하는 민주주의, 다시말하여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예속되는것을 반대하며 자기 나라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로 판단하고 자기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주적인 립장과 창조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민주주의만이 참다운 민주주의로 될수 있다.

민족적자주권, 자주적립장 및 창조적태도와 결부시켜 참다운 민주주의의 특징을 규정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새로운 리론은 참다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며 제1차적인 요구를 처음으로 뚜렷이 밝힌 위대한 독창적리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진보적민주주의가 련합의 특징을 가진다는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진보적민주주의는 전민족의 리익과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민주주의이며 따라서 그것은 통일전선적련합에 기초하는 민주주의,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민주주의였다.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인민들의 련합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의 력량편성의 기본요구이다. 그러므로 련합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민주주의의 력사적특징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진보적민주주의는 또한 인민대중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며, 부강한 국가건설을 지향하며, 혁명을 지향하며, 나라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지향하는 민주주의로 특징지어진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 알맞는 새형의 민주주의, 진보적민주주의의 중요특징들, 참다운 민주주의의 본성적요구들을 뚜렷이 밝히심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혁명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였으며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대중의 정치투쟁에 강력한 무기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진보적민주주의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해방직후의 그 복잡하고 혼란된 정세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있던 우리 인민들에게 새 조국 건설의 길을 명백히 가르쳐주었으며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에게 자주의 기치밑에 새 생활, 새 제도를 창조하기 위한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중요한 지침으로 되였다.

진보적민주주의에 관한 리론은 그후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민주주의에 관한 리론으로 발전되였다.

제 2 절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결성,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위업의 완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조선 건설을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면서 무엇보다먼저 로동계급의 전위부대이며 혁명의 참모부인 공산당을 창건하는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해방후 공산당을 창건하는 사업은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진행하여온 당창건을 위한 투쟁의 직접적인 계속이였으며 그것을 완성하는 사업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새형의 혁명적당을 곧 창건하기 위한 현명한 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에서 단련육성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고 여러 지방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

을 망라하여 통일적인 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우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되고 육성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통일적인 로동계급의 당인 조선공산당을 하루속히 창건하여야 합니다. 물론 국내에서 활동하던 일부 공산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단련되지 못하였을수 있으며 종파주의사상여독을 청산하지 못하였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장기간의 무장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골간부대가 준비되여있는 한 그들을 대담하게 믿고 아량있게 사업한다면 그들이 혁명의 옳바른 길로 나아갈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254~255페지)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당을 창건하여야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할수 있고 당을 건전한 궤도우에서 발전시킬수 있으며 당이 위대한 주체사상과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정확히 구현해나갈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국내외의 여러 지역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널리 망라하여야 공산주의운동의 분렬을 방지하고 통일적인 당을 즉시에 보다 넓은 지반우에서 창건할수 있었다. 물론 그들이 조직적으로 단련되지 못하였을수 있지만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믿음직한 골간부대가 있는 조건에서 그들을 당에 받아들여도 능히 소화할수 있고 당의 통일을 유지강화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북과 남에 조성된 판이한 정세에 비추어 모든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여있는 북조선에 강력한 당중앙지도기관으로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지체없이 결성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북조선에 조성된 판이한 정치정세는 남북조선에서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게 혁명을 발전시키며 당창건사업을 추진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북조선에 조성된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강력한 당중앙지도기관으로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결성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308~309페지)

해방후 우리 나라의 정세가 매우 복잡하였고 특히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가혹한 군정을 실시하고있는 조건에서 전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망라하는 당을 당장 창건할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전조선적인 당을 창건할수 있는 조건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수도 없었다. 나라의 북과 남에 조성된 판이한 정세는 각각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혁명을 발전시키며 당창건사업을 추진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북조선에 강력한 당중앙지도기관으로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창립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혁명이 처한 이러한 실정을 고려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전조선적인 당대회를 곧 소집하여 당중앙위원회를 구성할수 없었던 당시의 조건에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빨리 내와야 각 지방에 조직되여 활동하고있던 공산당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공산주의대렬의 조직사상적통일을 실현할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여있는 북조선에서 혁명을 빨리 추진시켜 북조선을 조선혁명의 튼튼한 기지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창건방침은 곧 실천에 옮겨졌다.

당을 창건하는 사업앞에는 많은 난관과 애로들이 가로놓여있었다. 그 난관과 애로들은 주요하게 종파분자들의 분렬책동과 관련되여있었다.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조선공산주의운동에 큰 해독을 끼친 종파분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은 해방후에도 계속 공산주의대렬을 혼란시키고있었다. 종파분자들의 책동은 서울에서 극심하였다. 이미 오래전에 혁명을 배반하고 미제의 고용간첩으로 된 박헌영은 자기의 정체를 가리우고 화요파계렬을 비롯한 종파분자, 혁명의 배신자들을 그러모았으며 엠엘파분자들을 비롯한 종파분자, 변절자들은 《장안파》를 형성하고 이에 맞섰다. 종파분자들은 제각기 《공산당》의 간판을 내걸고 추악한 파벌싸움을 벌렸다. 북조선에서도 종파분자, 지방할거주의자들이 제가끔 자기 파의 지반을 닦기 위한

음모에 몰두하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종파분자들의 분렬책동을 리용하면서 온갖 교활한 방법을 다하여 혁명력량의 결속과 혁명적당창건을 가로막으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겹쌓인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시면서 당창건사업을 정력적으로 추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당창건방침을 구체적으로 해설하시였으며 몸소 평안남도당을 비롯한 여러 지방당조직들에 나가시여 당창건준비사업을 지도하시였다. 한편 김책, 김일, 안길, 김경석, 림춘추를 비롯한 항일투사들을 여러 지방에 파견하시여 지방당조직들을 정비확대하고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묶어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할수 있는 모든 조건이 빨리 갖추어져갔다.

1945년 10월 5일, 평양에서는 당창건을 위한 예비회의가 열리였다.

회의에서는 당의 중앙지도기관으로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내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 많은 대표들은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의 창설을 적극 지지찬동하였다. 그러나 종파분자, 지방할거주의자들은 더러운 종파적야욕으로부터 이른바 《서울중앙》을 내세우면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의 결성을 반대하여나섰다.

회의에서는 종파분자, 지방할거주의자들의 분렬파괴책동을 폭로분쇄하기 위한 날카로운 투쟁이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파분자들의 추악한 목적을 낱낱이 폭로하시고 그자들의 분렬책동에 강한 타격을 가하시는 한편 미제의 강점밑에 있는 서울에는 절대로 전조선적인 당중앙을 둘수 없다는것과 남북조선에 조성된 판이한 정치정세는 남북조선에서 각각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게 혁명을 발전시키며 당창건사업을 추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는것을 힘있게 론증하시였다. 그리고 북조선에 조성

된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강력한 당중앙지도기관으로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결성하여야 한다는것을 구체적으로 해설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원칙적인 투쟁에 의하여 당창건을 방해하던 종파분자들의 책동은 마침내 분쇄되고말았다.

1945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서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창립대회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당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대회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내올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제의를 지지찬동하였으며 중앙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에 기초하여 당의 조직로선을 채택하였다.

당의 조직로선을 똑바로 규정하는것은 당을 튼튼한 기초우에 건설해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이것은 특히 종파분자들이 분렬책동을 일삼으며 혁명적당건설원칙의 관철을 반대하고있던 당시의 조건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당의 조직로선은 우선 당의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릴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조직적골간을 옳게 꾸리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건설에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당의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려야 당이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고 당의 통일단결을 튼튼히 유지할수 있으며 어떠한 애로와 난관앞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옳게 수행해나가는 전투적당으로 될수 있다. 특히 우리 당이 국내외의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망라하여 조직되는 조건에서 이 문제는 더욱 긴절한 문제로 나섰다.

대회에서 채택된 당의 조직로선에서는 장기간의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속에서 육성단련된 우수한 공산주의자, 혁명투사들로 당의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릴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당의 조직로선은 당을 무산계급의 토대우에 튼튼히 선 대중적당으로 만들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로동자, 농민들속에서 선진분자들을 당대렬에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당을 무산계급의 토대우에 튼튼히 선 대중적정당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812페지)

공산당은 오직 무산계급의 토대우에 튼튼히 선 대중적당으로 될 때에만 로동계급의 진정한 전위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리익의 철저한 옹호자로 될수 있으며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

당의 조직로선은 당이 유일한 지도사상에 의하여 조직되고 지도되여야 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혁명적당의 위력의 원천은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에 있으며 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은 오직 전당이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에 의하여 지도될 때에만 이룩될수 있다.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며 우리 당안에는 이밖에 다른 그 어떤 사상도 있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 건설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으로 된다.

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종파주의와 지방주의를 뿌리빼며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야 한다.

당의 조직로선은 당안에 혁명적인 규률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당규률을 강화하는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잘 관철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혁명적당의 규률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적규률이다. 당안에서는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은 상급에, 전당은 당중앙에 복종하는 원칙이 확고히 견지되여야 한다.

당규률을 지키는데서는 상하의 차이가 없으며 모든 당원들은

하나의 당규률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당규률강화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는 모든 당원들이 당결정에 무조건 복종하는것이다.

당창립대회에서 채택된 당의 조직로선은 혁명적당건설원칙과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당조직건설경험을 해방후 당건설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발전시킨것으로서 우리 당을 위력한 정치적참모부로, 대중속에 뿌리박은 강력한 당으로,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우에 통일단결된 필승불패의 전투적대오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확고한 지침으로 되였다.

대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에 기초하여 당의 정치로선을 채택하였다.

당의 정치로선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은 당의 활동방향과 투쟁임무를 명확히 하며 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이것은 당시 종파분자들이 각종 좌우경적견해들을 퍼뜨려 인민대중을 혼란시키고있던 조건에서 특히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면한 조선혁명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것을 밝히시고 당앞에 나서는 기본정치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여 우리 조국을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로 발전시켜야 할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단계에서 우리앞에 나선 기본정치과업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319～320페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제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며 혁명의 강력한 무기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여야 하였다.

대회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기본정치과업으로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4대당면과업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첫째로,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각 정당과 각 파들을 망라하는 민주주의적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애국적민주력량을 묶어세우며 둘째로, 일본제국주의잔재세력과 모든 반동분자들을 쓸어버리고 나라의 민주주의

적발전을 순조롭게 하며 셋째로, 각 지방에 참다운 인민의 정권인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민주주의적개혁들을 실시하며 경제를 부흥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임으로써 민주주의적독립국가건설의 기본토대를 튼튼히 닦으며 넷째로, 제기된 이 모든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산당을 확대강화하고 사회단체들의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였다.

대회에서는 북조선을 민주주의적기지, 혁명의 기지로 전변시킬데 대한 로선을 규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당면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함으로써 민주주의인민공화국건설을 다그치며 북조선을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강력한 민주주의적기지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327페지)

미제가 강점한 남조선에서 혁명이 지연되고있는 조건에서 모든 유리한 조건들이 지어진 북조선에서 혁명을 빨리 추진시켜 북조선을 혁명적민주기지로 만드는것은 전반적조선혁명, 조국의 통일독립을 앞당기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였다.

혁명적민주기지로선은 해방후 조성된 복잡한 정세에서 우리 인민의 주체적혁명력량을 빨리 강화하고 조선혁명을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수행해나가려는 확고한 자주적로선이며 미제를 견결히 반대하는 철저한 반제혁명로선이였다.

민주기지로선은 우리 당 정치로선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되였다.

대회에서 채택한 당의 정치로선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해방후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발전시킨 가장 정당한 혁명적로선이였으며 해방후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우리 당과 인민이 처음부터 옳바른 길을 따라 전진할수 있게 한 투쟁강령이였다.

당의 조직로선과 정치로선은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강화발전시키며 당의 혁명활동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감에 있어서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 당은 자기의 강력한 중앙지도기관을 가지

고 가장 정확한 조직로선과 정치로선을 가진 위신있는 당으로 이 세상에 태여났다.

우리 당의 창건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조선혁명 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당의 창건으로 우리 나라에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으로부터 시작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영광스러운 항일혁명전통을 계승하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새형의 혁명적당이 탄생하게 되였다.

공산당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나라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은 자기 리익의 참다운 대표자, 옹호자를 가지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은 자기의 힘있는 전투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다. 공산당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 새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확신성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이때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위에 모신 혁명의 참모부를 가진 존엄있고 힘있는 인민으로, 필승불패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을 가진 강력한 민족부대로서 국제혁명대오에 당당히 서나가게 되였다.

제 3 절
당의 정치로선을 옹호하며 당의 조직지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

당은 당의 정치로선과 조직로선을 옹호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의 이 투쟁은 종파분자, 지방할거주의자들의 분렬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동반하였다.

종파분자들과 지방할거주의자들은 우리 당이 아직 튼튼히 꾸려

지지 못한 틈을 타서 저들의 종파적목적을 달성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특히 박헌영도당은 남조선에서 혁명적조직원칙에 따라 당을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여러차례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어기고 자기 추종분자들로 종파집단을 꾸리고 공산주의대렬을 분렬시켰다. 그뿐아니라 북반부에까지 자기의 졸개들을 들여보내여 저들의 종파적지반을 닦으려 하였으며 우리 당의 정치로선과 조직로선의 관철을 방해하여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안에 조성된 형편을 깊이 통찰하시고 반당종파분자들과 지방할거주의자들의 책동을 폭로분쇄하며 당의 정치로선과 조직로선을 옹호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벌리도록 이끄시였다.

이 투쟁에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2차 확대집행위원회와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1945년 11월에 열린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2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 당건설문제와 함께 정권문제, 대중단체조직에 대한 문제, 통일전선문제, 토지개혁문제를 비롯하여 당의 정치로선 관철과 관련한 문제들이 중요하게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특히 정권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론의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진정한 인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권수립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와 관련한 종파분자들의 부당한 주장들을 엄격히 비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경투항주의자들이 들고나온 《인민공화국》은 그 구성으로 보아 반인민적인 부르죠아정권으로밖에 될수 없으며 이를 지지하는것은 혁명의 기본무기인 정권에 대한 당의 령도를 포기하고 반동들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우경투항주의적행동이라고 폭로하시였다. 그리고 엠엘파분자들이 당장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객관적요구와 인민대중의 준비정도를 고려하지 않는 극좌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의 정치로선에 기초하여 참다운 인민의

정권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문제에 대하여 상세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제외한 각계각층 인민의 참다운 대표들로 구성되여야 하며 광범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하여 세워져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조선적인 통일정권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새 조국 건설의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여있는 북조선에서 먼저 그 준비사업을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북조선에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림시적인 중앙주권기관을 창설하여 통일적중앙정부수립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회의에서 박헌영의 졸개들은 당의 정치로선을 시비하여나섰으나 즉시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당중앙조직위원회 제2차 확대집행위원회는 우리 당의 정치로선을 반대하는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제2차 확대집행위원회가 있은 다음 종파분자들과 지방할거주의자들은 당의 정치로선을 감히 정면으로 반대하여나서지 못하였다.

당은 종파분자들, 지방할거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당의 조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도 적극 벌리였다.

1945년 12월에 소집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 당의 조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북조선공산당 각급당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에 기초하여 각급당조직들의 사업에서의 성과와 결함, 특히 조직사업에서 나타난 결함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당건설과 당의 조직정치사업전반을 추켜세우기 위한 과업을 토의결정하였다.

회의에서는 우선 당의 성분을 개선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원구성에서 로동자비률이 매우 낮은 결함을 지적하시면서 당장성사업을 바로잡기 위하여 당일군들이 로동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하며 선진적로동자들을 당에 많이 받아들이고 공장, 기업소들에 당세포들을 널리 조직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회의에서는 당의 통일과 규률을 강화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유력하고 위신있는 공산당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모든 힘을 다하여 당내규률을 강화하며 당의 통일을 보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480폐지)

당시 종파분자, 지방할거주의자들은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당규률을 문란시키고있었다. 회의에서는 이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엄격히 지적하면서 당안에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며 당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전당적투쟁을 벌릴데 대한 과업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규범을 철저히 지키고 당의 결정지시를 의무적으로 집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과의 련계를 부단히 강화하지 않는다면,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대중을 가르쳐줄뿐아니라 대중에게서 배울줄 모른다면 로동계급의 당인 공산당은 전체 근로자들을 인도할 능력을 가진 진실로 대중적인 당으로 될수 없을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481폐지)

당의 구성성분을 개선하고 당을 강화하는 문제나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문제는 다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함으로써만 해결될수 있다. 그러므로 회의에서는 당일군들이 공장, 기업소와 농촌들에 내려가 대중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나라의 정세에 대하여 해설해주며 그들의 사업상 애로를 해결해주고 구체적과업들

을 제시하여주는것을 자기의 임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 직업동맹에 대한 당의 지도, 간부양성과 당의 력량배치, 당증수여와 당원통계사업 그리고 통일전선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들도 토의하였다.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는 당을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였다.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를 계기로 종파분자, 지방할거주의자들의 책동이 결정적으로 분쇄되고 우리 당 사업전반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가 확고히 실현되였으며 당의 조직로선이 정확히 관철되게 되였다. 이때부터 비로소 우리 당이 진실로 건전하고 강력한 당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당은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제기된 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은 당대렬을 강화하는데 힘을 기울이였다. 1945년말～1946년초에 유일당증교부사업과 당원심사사업을 전당적으로 진행하여 당안에 기여들었던 불순이색분자들을 내쫓고 당대렬을 정비하였다. 이 과정에 당원들의 정치적각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와 함께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들속에서 당대렬을 확대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공장과 농촌들에 당세포가 빨리 늘어나고 당이 로동계급과 빈농민들속에 깊이 뿌리박게 되였으며 당의 구성성분이 개선되여갔다.

당은 종파주의를 반대하며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투쟁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갔다. 1946년 2월에 소집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4차 확대집행위원회는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 결정집행정형을 총화하고 당의 조직 원칙과 규률을 계속 위반하는 종파분자들을 엄격히 취급하고 해당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투쟁속에서 당중앙으로부터 세포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기초한 조직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졌으며 당중앙의 결정, 지시에 복종하는 규률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당중앙지도기관과 각급 당조직이 새로운 우수한 일군들로 꾸려지고 당의조직적 및 사상적 통일이 더욱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당사업이

전반적으로 제 궤도에 들어섰으며 우리 당은 새 조국, 새 사회를 건설하는 력사적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능숙하게 령도해나갈수 있는 강유력한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제 4 절
대중전취를 위한 투쟁. 대중단체들의 조직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결성

당은 자기 대렬을 확대하고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광범한 대중을 전취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데 커다란 힘을 돌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혁명의 편에 대중을 많이 묶어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 것은 당의 운명과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권, 256페지)

당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대중을 전취하고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당이 광범한 대중을 자기 주위에 묶어세우지 않고서는 위력한 혁명적당으로 될수 없으며 로동계급의 전위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없다.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우는것은 우리 당이 창건 첫날부터 새 조선 건설을 직접 령도해나가야 하였던 조건에서 특별히 중요하였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혁명력량을 분렬시키려고 책동하고 각 당, 각 파가 대중을 자기 편에 끌어당기려고 날뛰고있던 복잡한 정세에서 더욱 긴절한 문제로 나섰다.

우리 당은 대중전취를 위하여 인민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해방을 맞이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는 비상히 앙양되였으나 그들의 의식수준은 높지 못하였으며 새 조선 건설에 대한 리해도 매우 부족하였다. 더우기 해방직후의 복잡한 정세를 리용하여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이 저마다 《애국자》, 《혁명가》로 자처하고 《건국》에

요, 《민주》요 하면서 인민대중을 기만하였으며 여러가지 책동으로 그들을 혼란시키고있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대중을 전취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그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한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하였다.

당은 대중속에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꾸준히 해설선전하면서 우리 당이 근로대중과 민족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대표하고 옹호하는 당이라는것을 해설해주었다. 그리고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식민지노예근성을 철저히 뿌리빼고 민족적 자부심과 자신심을 높이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또한 근로대중의 계급적각성을 높이고 그들로 하여금 적아를 똑바로 가릴수 있도록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면서 대중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인 친일친미파, 민족반역자를 비롯한 온갖 반동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당은 대중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그들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우는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대중단체건설경험에 기초하여 계층별, 직업별로 대중단체를 조직하고 해당한 계급과 계층을 통일적으로 망라시키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광범한 대중을 자기 주위에 묶어세우며 인민대중속에서 령도적지위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직업별, 계층별 대중단체조직사업을 동시에 벌려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256폐지)

당은 반동분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짓부시면서 로동자들은 로동자조직에, 농민들은 농민조직에, 청년들은 청년조직에, 녀성들은 녀성조직에, 문화인들은 문화인조직에 묶어세우는 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1945년 11월에 직업동맹과 민주녀성동맹이 결성되고 1946년 1월에는 농민동맹이 조직되였다.

당은 민주청년동맹을 결성하여 조국의 앞날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을 통일적으로 묶어세우는데 특별히 큰 힘을 넣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특히 조국의 앞날의 주인공들인 청년학생들을 유일적인 조직

에 묶어세우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지금 청년학생들은 여러 청년단체에 망라되여 통일적인 대오를 이루지 못하고있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종파분자들과 지방할거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청년들이 분파적으로 결합되여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청년동맹을 민주청년동맹으로 개편하고 거기에 모든 청년학생들을 묶어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327페지)

청년들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청년대중을 하나의 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은 우리 혁명의 발전과 조국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해방직후 공산주의청년동맹이 조직되여 활동하였으나 여기에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소수의 무산청년들만이 망라되여있었다. 다른 한편 계급적원쑤들은 반동적인 청년단체를 조직하고 청년운동을 분렬시키려고 책동하였으며 각 정당들도 제각기 청년들을 끌어당기려고 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각계각층의 청년들을 망라하는 단일한 대중적인 청년조직을 내오지 않는다면 광범한 청년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울수 없었고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분렬시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청년운동의 실태를 깊이 통찰하시고 《애국적청년들은 민주주의기발아래 단결하라》는 구호밑에 공산주의청년동맹을 대중적청년단체인 민주청년동맹으로 개편하여 각계각층의 모든 애국청년들을 이 하나의 조직에 묶어세울데 대한 로선을 내놓으시였다.

민청조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반동분자들의 파괴책동과 종파분자들의 분렬책동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동반하였다.

교조주의와 좌경관문주의에 물젖어있던 종파분자들은 민청조직로선의 혁명적본질을 리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청년운동의 《퇴보》니, 《우경화》니 하면서 반대하였으며 그 집행을 고의적으로 태공하였다.

반동분자들도 청년학생들이 민주주의기발아래 하나로 통일단결되는것을 방해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당은 청년운동을 분렬시키려는 종파분자들과 반동분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민청조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다그쳤다. 그리하여 마침내 1946년 1월 청년들의 유일한 정치조직

인 민주청년동맹이 조직되였다.

당은 대중단체들을 조직하는 사업과 함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로동계급의 당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사회단체들과 통일전선을 이룩하는것은 당활동의 사회적지반을 확대강화하며 반혁명세력을 고립약화시키고 강력한 혁명력량을 꾸리는데서 전략적의의를 가진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당, 청우당과 같은 민주주의적정당들과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리익을 대표하는 여러 사회단체들이 조직되여 활동하였다. 우리 당은 민주주의적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순조롭게 조직되고 활동해나가도록 도와주었으며 이 정당, 단체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전적로작 《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와 《민족통일전선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운동의 목적, 통일전선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투쟁 방향과 원칙, 그 형식과 방법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과 농민뿐만아니라 민족자본가도 포함한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이 참가하는 통일전선을 결성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33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해방된 새로운 조건에 맞게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민족통일전선을 이룩하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워 건국사업에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내놓으신 통일전선원칙들을 구체화하시면서 통일전선운동에서 공산당의 독자성과 령도적역할을 확고히 보장하며,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에 기초하여 량심적인 민족자본가도 포함한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의 단합을 이룩하며, 동요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단결하면서 투쟁하는 원칙을 견지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통일전선을 한다고 하여 덮어놓고 뭉치자는 주장을 배격하고 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들을 반대

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이 조직된 조건에서 민족통일전선을 항일혁명투쟁시기와는 달리 정당, 사회단체들의 련합전선의 형태로 조직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당은 민주당, 청우당과의 사업에 많은 힘을 기울이였으며 그들이 옳은 길로 나가도록 이끌었다.

우리 당은 우당들이 미제와 남조선반동들과의 련계를 맺지 않고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에 적극 참가하며 공산당과 우호관계를 가지는 기초우에서 그들과 통일전선을 맺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통일전선운동에서 종교인들과의 사업에 큰 주의를 돌리였다.

해방후 일부 종교인들은 우리 당의 종교정책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숭미사상으로부터 심한 동요성을 나타냈으며 지어는 미제의 부추김밑에 반혁명적책동을 감행하기까지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시여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당의 종교정책과 통일전선정책을 구체적으로 해설해주시였으며 그들에게 종교를 믿어도 조선사람으로서의 제 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믿어야 하며 미제의 침략정책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독립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애국적종교인이 되여야 한다는것을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정확한 방침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많은 종교인들이 각성되여 당의 통일전선방침을 적극 지지하여나섰다.

우리 당은 인민정권을 세우고 민주개혁을 실시하는데서 주동적으로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공동행동을 강화하였다.

통일전선운동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1946년 7월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북반부에서는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련합의 형태로 통일전선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모든 애국력량이 우리 당을 중심으로 굳게 단합되였다.

제 5 절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수립. 북반부에서 민주개혁의 성과적수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정치로선에 따라 당은 북반부에서 시급히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며 혁명적민주기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였다.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혁명의 기본문제인 주권문제를 해결하여야 하였다. 이로부터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2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북반부에서 림시적인 중앙주권기관을 내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벌리였다. 이 중앙주권기관을 빨리 내와야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지체없이 수행하고 조국통일의 믿음직한 담보인 혁명적민주기지를 창설하며 전조선적인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수 있었다.

당은 우선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의 구성과 조직체계를 정비강화하여갔으며 1945년 11월에는 인민경제의 해당 부문을 지도하고 각 도 호상간의 경제적련계를 실현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잠정적조치로서 산업, 교통, 체신국을 비롯한 10개의 행정국을 조직하였다.

당은 북조선중앙주권기관을 내올수 있는 조건들이 성숙됨에 따라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발기위원회를 조직하고 중앙주권기관창립을 위한 준비사업을 더욱 다그쳤으며 1946년 2월 8일에는 북조선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행정국, 인민위원회대표협의회를 소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목전 조선정치정세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북반부의 중앙주권기관으로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을 밝히시고 그앞에 나서는 당면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표들로써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시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수립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밝히신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의 빛나는 실현이였으며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주권을 전취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피흘려 싸워온 고귀한 결실이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주적인 정권의 떳떳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광범한 반제반봉건적민주력량을 망라하고있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정권으로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415페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부르죠아정권과 근본적으로 다를뿐아니라 쏘베트정권과도 구별되는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이였으며 진보적민주주의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는 정권이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사명은 친일친미파, 민족반역자, 지주, 예속자본가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면서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고 혁명적민주기지를 창설하며 점차 사회주의혁명단계에로 넘어갈 전제조건을 마련하는데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과업을 11개조당면과업과 《20개조정강》에 뚜렷이 밝히시였다. 11개조당면과업과 20개조정강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해방후

의 새로운 조건에 맞게 발전시킨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의 강령이였으며 새 민주조선 건설을 위한 투쟁의 기치였다.

당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세운 다음 그에 의거하여 곧 민주개혁을 수행하는데 착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개혁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리론실천적문제들에 명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민주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개혁을 실시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였습니다. 민주개혁을 실시하여야만 지주, 예속자본가를 비롯한 반동계급들의 경제적기초를 없애고 사회적진보를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을수 있었으며 인민정권의 사회경제적지반을 튼튼히 하고 북반부를 강력한 혁명적민주기지로 전변시킬수 있었습니다.》(《김일성 저작집》 제22권, 415페지)

민주개혁을 수행하여야 제국주의와 지주, 예속자본가를 비롯한 반동계급들의 사회경제적지반을 없애버리고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기초를 쌓을수 있으며 인민대중을 식민지적, 봉건적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나라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며 민족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을수 있었다. 또한 민주개혁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북반부를 전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튼튼한 혁명기지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봉건적사회경제변혁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도록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문제에 대하여 명백히 가르치시였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광범한 근로대중이 민주개혁을 위한 투쟁에 주인답게 적극적으로 참가할수 있는 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는것이였으며 또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로농동맹을 강화하는데 기본을 두면서 통일전선사업을 잘하여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이 민주개혁수행에서 통일적보조를 취하도록 하는것이였다. 이와 함께 적대계급들의 반항을 진압할수 있는 권력

기관들, 특히 인민정권기관들과 보안기관들을 튼튼히 꾸리는것이 중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개혁을 수행하는 전과정에서 당이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 근본립장들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개혁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정확히 관철하여 근로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모든 개혁들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인민적운동으로 수행하도록 하는것을 중요원칙으로 내세우시였다. 그리고 력량관계를 정확히 타산한 기초우에서 민주개혁들을 진공적으로, 련속적으로 진행하여 짧은 시일안에 민주개혁전반을 완수하는 적극적립장을 견지하며, 민주개혁을 앞으로 사회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유리한 조건들을 조성하는 방향에서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개혁전반에 대하여서뿐아니라 매개 민주개혁들에 대하여서도 그 수행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그것을 정확히 관철시켜나가시였다.

민주개혁에서 제일먼저 수행해야 할 과업은 토지개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토지문제는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초미의 문제입니다. 토지문제를 해결하여야만 농촌에 뿌리박은 반동세력의 경제적지반을 없애고 농민들을 봉건적착취에서 해방하여 그들의 정치적열성을 비상히 높일수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을 민주화하기 위한 사회정치적지반을 강화할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개혁을 하여야만 농업생산력을 봉건적질곡에서 해방하고 빨리 발전시켜 민족공업과 전반적민족경제의 부흥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415페지)

토지문제는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으며 토지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사회발전과 혁명발전의 가장 선차적인 요구였다.

해방당시 북반부에서는 전체 농호의 4%밖에 안되는 지주가 총

경지면적의 58.2%를 차지하고있었으며 농민들의 대부분은 토지를 전혀 가지지 못하였거나 아주 적게 가지고있었다. 봉건적소작제도는 농민들을 극도의 빈궁속에 몰아넣었으며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심히 억제하였다. 봉건적토지소유제도는 인민경제 다른 부문들의 발전도 저애하였으며 전반적인 사회적진보를 가로막는 커다란 질곡으로 되여있었다.

그러므로 먼저 토지문제를 해결하여야 우리 사회발전의 질곡으로 되고있는 봉건적생산관계를 청산하고 농민대중을 세기적 락후와 빈궁에서 해방할수 있었으며 전반적민족경제의 부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 민주주의 새 조선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었다.

당은 토지개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그 담당자이며 주인인 농민대중이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도록 그들을 사상적으로 준비시켰다.

당은 1945년 가을과 겨울에 3,7제투쟁을 조직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계급적각성과 혁명적열의가 크게 높아졌다.

급격히 앙양된 농민들의 혁명적기세는 토지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농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토지를 나누어주실것을 청원하는 수많은 편지를 매일과 같이 올렸으며 1946년 2월말에는 북조선 각지의 농민대표들이 직접 수령님을 찾아뵙고 토지를 요구하는 전체 농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말씀드리였다. 3.1인민봉기 27돐기념일에는 북반부각지에서 200여만명의 농민들이 토지를 요구하는 대중적시위를 벌리였다. 3,7제를 위한 투쟁과 토지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통하여 농민대중은 토지개혁의 담당자로서의 사상적준비를 튼튼히 갖추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토지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1945년 12월부터 1946년 2월까지 석달동안이나 평안남도의 대동군, 강동군, 강서군, 중화군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 나가시여 농촌형편과 땅에 대한 농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이 과정에 우리 나라 농촌에 착잡하게 얽힌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전면적으로 깊이 분석하시고 토지의 몰수대상과 몰수 및 분배 방법, 소작제도를 영원히 없애기 위한 방도를

하나하나 확정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시여 1946년 3월초에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5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토지개혁방침을 천명하시였으며 3월 5일에는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법령에서는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밑에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것을 토지개혁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하며 몰수한 땅을 농민들의 개인소유로 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가족수와 로력자수에 따라 땅을 고르롭게 나누어주고 나누어준 땅에 대하여서는 팔고 사며 소작주거나 저당을 잡히지 못하게 하였으며 몰수한 산림, 관개시설, 과수원들과 농민들이 부치는데 불리한 일부 토지는 국유화하도록 하였다.

토지몰수대상과 기본투쟁대상(청산대상)도 명확히 규정하였다.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토지와 남에게 소작주는 모든 토지가 몰수대상으로 규정되였다. 그리고 5정보이상의 땅을 가지고 소작주면서 놀고먹던자들이 청산할 지주로 규정되고 그들의 땅과 부림소, 농기구, 살림집, 관개시설들이 다 몰수대상으로 되였다.

청산지주들에 대하여서는 다른 지방에 이주시켜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게 함으로써 지주세력을 분산약화시키며 지주의 나쁜 영향이 농민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였다.

토지개혁법령은 봉건적인 토지소유제도와 착취관계를 철저히 뿌리빼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하는 동시에 농촌에서 자본주의적요소, 부농경리의 장성을 최대한으로 제한함으로써 앞으로 농업협동화를 실시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줄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법령이였다.

당은 토지개혁에서 견지하여야 할 계급정책도 명확히 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토지개혁에 대하여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고농과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고 중농과 동맹하며 부농을 고립

시키는 계급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지주를 청산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3권, 345~346페지)

빈농과 고농은 토지분여의 기본대상으로서 토지개혁에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였다. 중농은 대부분 자작농으로서 토지분여의 기본대상은 아니였으나 지주, 고리대금업자들의 착취와 억압으로 하여 자기들의 토지소유를 항상 위협당하고있었기때문에 토지개혁을 지지하였다. 부농은 토지개혁에서 청산대상이 아니므로 정면으로 반대하여나서지는 않았으나 소작주던 땅은 몰수당하게 되여있었으므로 토지개혁을 반대할 요소도 가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모든것을 깊이 통찰하시여 고농과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고 중농과 동맹하며 부농을 고립시키는 계급정책을 내놓으심으로써 지주를 청산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시였다.

당은 토지개혁수행에로 전체 당원들과 인민을 조직동원하였다.

당은 고농, 빈농들로써 1만 1,500여개의 농촌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여기에 9만여명의 농민들을 망라시켰다. 농촌위원회는 토지를 몰수하고 나누어주는 일을 직접 담당수행하였으며 지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앞장에 섰다.

당은 1만여명의 선진적인 로동자들로 토지개혁지원대를 무어 농촌에 보내였다. 토지개혁지원대들은 농민들속에서 토지개혁법령을 해설하는 한편 토지개혁을 반대하여나선 지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음모책동을 짓부시는 농민들의 투쟁을 적극 도와주었다.

당은 로동조합, 농민조합을 비롯한 대중단체들을 발동하여 토지개혁을 도와주게 하였으며 우당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면서 전체 인민을 토지개혁사업에 조직동원하였다.

토지개혁은 날카로운 계급투쟁을 동반하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들여보낸 테로, 암해분자들과 땅을 빼앗기게 된 지주들은 토지개혁을 반대하는 시위와 폭동을 일으키려는 음모까지 꾸미였다.

지주와 반동들의 파괴책동을 막기 위하여 《토지개혁실시에 대한 림시조치법》이 제정공포되였으며 인민정권의 독재기능이 강화되고 광범한 대중이 원쑤들과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리하여 계급적원쑤들의 모든 시도는 제때에 제압되였으며 적대분자들은 감히 정면으로 반항하여나서지 못하였다.

당은 지주와 민족반역자들을 감싸주는 우경적편향과 몰수대상이 아닌 부농, 중농의 토지까지 몰수하거나 민족반역자가 아닌 사람들을 함부로 민족반역자로 규정하는 좌경적편향을 제때에 바로잡으면서 토지개혁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평안남도의 대동군, 강서군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 나가시여 토지개혁사업이 옳바로 진행되도록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지도하시였으며 반동들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토지개혁은 한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수행되였다. 토지개혁의 결과 100만정보이상의 토지가 무상으로 몰수되여 72만여호의 농가에 무상으로 분배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의 중요한 특징은 매우 짧은 기간에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에로의 계속혁명의 요구에 맞게 가장 철저히 수행되였다는데 있다.

토지개혁은 우리 인민의 새 사회 건설투쟁에서 참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으며 농촌에서의 일대 혁명이였다.

토지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농민들을 모진 착취와 억압 속에 시달리게 하던 봉건적토지소유관계와 착취제도가 영원히 없어졌다. 토지개혁의 수행으로 제 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려던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 실현되여 그들이 처음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농업생산력이 봉건적질곡에서 완전히 해방되여 빨리 발전할수 있게 되였으며 그것은 전반적민족경제의 부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게 되였다. 또한 우리 당의 농촌진지가 강화되고 로농동맹이 더욱 튼튼해졌으며 농촌에 믿음직한 혁명력량이 꾸려지게 되였다.

토지개혁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고 투쟁열의를 북돋아주었으며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와 압박 밑에서 신음하고있는 나라 인민들에게 고무적힘을 주었다.

당은 토지개혁에 뒤이어 그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당은 농촌진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의 당조직들과 인민정권기관, 사회단체들을 튼튼히 꾸리고 농민들속에서 대중정치사업을 계속 강화하였으며 특히 토지개혁의 성과를 허물어보려는 전복된 지주계급과 반동분자들의 책동을 짓부시도록 하였다.

토지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경제적조치들도 련이어 취해졌다. 낡은 공출제도와 가렴잡세는 영원히 페지되고 단일한 농업현물세제가 실시되였다. 당은 인민정권으로 하여금 땅을 받은 농민들이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게 부림소, 농기구, 종자, 화학비료를 해결해주도록 하는 한편 농민은행, 소비조합과 같은 신용 및 상업 협동단체들을 널리 조직하여 고리대와 모리행위를 막도록 하였다.

또한 《해방된 조선의 첫봄을 증산으로 맞이하며 한치의 땅도 묵이지 말자!》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농업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농민들을 불러일으켰다.

당은 토지개혁에 뒤이어 다른 민주개혁들을 련이어 수행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6년 8월 10일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또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식민지통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의 소유였던 중요기간공업,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대외무역을 국유화하여 그것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리용되도록 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41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깊이 분석하신 기초우에서 산업국유화를 사회주의혁명의 과업으로만 인정하던 종

래의 견해에 구애되지 않으시고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시였다.

해방전 우리 나라 산업의 대부분을 일제와 그와 결탁한 예속자본가들이 독차지하고있던 조건에서 이것을 몰수하여 국유화함으로써만 반제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할수 있었다.

중요산업을 국유화한 결과 전체 산업의 90%이상에 달하는 1,034개의 중요산업기업소들이 전인민적소유로 되였다.

중요산업이 국유화됨으로써 온갖 사회적불행을 낳게 하던 화근이 산업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없어졌으며 지난날 조선인민의 피땀을 짜내는데 리용되던 중요생산수단들이 나라의 륭성발전과 근로대중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복무하게 되였다. 그리고 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의 경제적지반이 청산되고 산업분야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쌓으며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게 되였다.

중요산업의 국유화에 의하여 로동계급은 정권의 주인일뿐아니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계급의 령도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자본주의적소유일반을 청산한것이 아니였다. 민족자본가들의 소유는 법적으로 보호되고 인민정권을 지지하고 인민경제의 부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중소상공업자들의 활동은 장려되였다. 이와 함께 그들의 투기적경향과 모리행위를 반대하고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민주개혁방침에 따라 당은 소유관계를 개혁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개혁들을 실시하였다.

1946년 6월 24일에는 로동법령이 발포되여 로동자들에게 처음으로 8시간 로동제와 동일한 로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제, 유급휴가제와 사회보험제를 비롯하여 로동과 휴식에 대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전면적으로 보장되게 되였다.

1946년 7월 30일에는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발포되였다.

남녀평등권법령에 의하여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 로동과 교육의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였으며 사회발전에서 그들의 역할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사법, 검찰, 교육 및 문화의 민주화를 위한 여러가지 시책들도 실시되였다.

당은 여러가지 사회경제개혁들과 함께 민족간부대렬을 꾸리는 것을 새 사회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내세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민주건설사업에서 모든 문제의 초점은 결국 인재문제입니다. 인재문제를 푸는가 못푸는가 하는것은 우리 사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권, 560페지)

일제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해방후 우리 나라에는 여러 부문에 필요한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매우 부족하였으며 주민의 절대다수가 현대적기술문명에서 뒤떨어져있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민족간부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로 나섰다.

민족간부문제를 푸는데서 오랜 인테리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이 중요하였다.

오랜 인테리들은 대부분 부유한 가정의 출신으로서 지난날 일제와 착취계급에게 복무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일제의 민족적 압박과 차별대우를 받았기때문에 반제혁명의식과 애국사상을 가지고있었으며 진리를 파악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선진계급인 로동계급을 위하여 복무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랜 인테리들을 대담하게 믿고 교양개조하여 새 사회 건설에 적극 참가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해방직후 전국각지에 흩어져있던 과학자, 기술자, 문화예술인들을 부르시여 새 조국 건설에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일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남반부의 오랜 인테리들도 사선을

헤치고 수령님의 품으로 찾아들어왔으며 북반부의 인테리들과 함께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나서게 되였다.

당은 오랜 인테리들을 개조하는것과 함께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민족간부를 키우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당은 새로운 간부양성체계와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세우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출신의 새 일군들, 기술인재들을 대대적으로 키워나갔다.

1946년 6월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초대교장으로 모신 중앙당학교가 창립되고 이어 각급 간부양성기관들과 만경대혁명학원이 나왔다. 그리고 1946년 10월에는 우리 인민의 첫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이 창설되고 이 종합대학을 모체로 하여 여러 대학들이 나왔으며 전문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들이 수많이 세워졌다.

이리하여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 인테리들과 민족간부들이 수많이 자라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의 첫 시기부터 인테리를 기본혁명력량의 하나로, 혁명의 주체의 구성부분으로 인정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그들의 창조적열의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도록 이끌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벌린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북반부에서 짧은 기간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빛나게 완수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길에서 이룩한 커다란 승리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사회경제제도의 식민지적 및 반봉건적 성격이 완전히 없어졌으며 사회경제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인민경제에서 국영경제와 협동경리로써 이루어진 사회주의적경제형태가 지도적지위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그밖에 개인농경리와 도시수공업경리로 이루어진 소상품경제형태 그리고 도시의 자본주의적상공업과 농촌의 부농경리로 이루어

진 얼마 안되는 자본주의적경제형태가 남게 되였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관계에 기초하여 사회의 계급관계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북반부에서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청산되고 정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된 로동계급과 농민이 사회의 기본계급으로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이 높아지고 로농동맹이 더욱 강화되였다. 자본가계급과 도시소자산계급은 미약한 세력을 이루었다.

이리하여 북조선에는 인민민주주의제도가 튼튼히 서게 되였으며 조국통일의 믿음직한 담보인 강력한 혁명적민주기지가 창설되게 되였다.

북조선에서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고 그들을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추동하였다.

또한 세계피압박인민들과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의 자주, 독립,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동방에서의 인민민주주의의 발원지로 되게 하였다.

제 6 절
남조선혁명운동의 기본방침.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을 때 미제가 강점하고있는 남조선은 반동의 길, 식민지예속화의 길을 걷고있었다.

미제는 남조선에 기여들자마자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수립된 인민위원회들을 모조리 해산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저들의 손때묻은

오랜 앞잡이 리승만을 내세우고 친일관료배들과 민족반역자, 지주, 예속자본가를 비롯한 반동세력을 긁어모았으며 친미적인 반동정당과 폭력단들을 만들어냈다.

미제의 책동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3국외상회의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결정이 발표된것을 계기로 더욱 심해졌다.

원래 쏘, 미, 영 3국외상들의 모스크바회의결정은 조선대표의 참가없이 렬강들이 자의대로 토의하고 채택한것이며 따라서 자주독립을 갈망하는 우리 인민의 념원을 충분히 반영할수 없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조선에 통일적민주주의림시정부를 수립하도록 도와줄것을 선포한 국제적공약으로서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하려는 미제의 야망을 일정하게 제약하는 긍정적측면도 가지고있었다.

이로부터 나라의 통일독립을 절절히 바라는 애국적민주력량은 이 결정을 지지해나섰다. 우리 당은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에 대한 지지를 통하여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면서 우리 인민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 하루속히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로 이끌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를 분렬시키고 남조선을 영구히 강점하려고 날뛰는 미제는 친미반동세력을 부추겨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을 반대하는 광란적인 소동을 벌리게 함으로써 통일정부수립을 지향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분렬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인민들의 온갖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말살하는데로 나갔다. 1946년 5월 이른바 《정판사위조지폐사건》이라는 것을 날조하여 공산당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공산당기관지를 강제로 페간시켰다. 이를 계기로 많은 공산당원들과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 간부들이 검거투옥되였다.

미제는 저들의 식민지적 지배와 략탈에 유리하게 남조선의 사회경제관계를 재편성하였다. 미제는 응당 조선인민의 소유로 되여야 할 일제가 차지하고있던 재산을 이른바 《적산》이라는 명목밑에 모조리 강탈하였으며 그 일부를 저들에게 추종하는 자본가, 투기업자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예속자본가들을 길러냈다. 그리고 농촌에서 많은 토지를 빼앗고 봉건적착취관계를 보호조장시켰으며 농민들에

게 강제공출과 각종 세금을 강요하였다.

남조선의 경제는 미제의 완전한 예속경제로 되였으며 인민생활은 더욱더 령락되였다.

미제는 남조선을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군사시설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였으며 일본군대에 복무한 악질분자들을 그러모아 괴뢰군을 조작하려고 책동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과 민족문화를 짓밟고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과 《양키문화》를 퍼뜨렸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머리속에 미국에 대한 환상과 숭미사대주의사상을 불어넣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그 앞잡이들의 매국배족행위가 극심해짐에 따라 남조선혁명운동은 매우 어려운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의 형편을 깊이 헤아리시고 남반부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인민들이 미제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가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남조선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당시 리승만역도를 비롯한 친미매국노들이 류포시킨 숭미사대주의사상에 물젖어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있었으며 미제와의 원칙적인 투쟁을 벌리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제에 대한 원칙적인 립장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침략적본성을 낱낱이 폭로하시고 미제에 대하여 어떠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그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와 함께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충실한 집행자인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도 북조선에서와 같이 인민들이 주인이 되여 철저

한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여야만 조선인민의 기본요구인 민주주의적자주독립국가의 창건이 실현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권, 364폐지)

남조선인민들앞에 나선 투쟁과업은 남반부에 북반부에서와 같이 인민정권을 세우고 민주개혁을 실시하며 북반부인민들과 힘을 합쳐 통일적인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창건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혁명운동의 전략전술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을 강화하고 로동자, 농민을 묶어세워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며 그에 기초하여 각계각층의 애국적인민들을 널리 망라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을 남조선에서의 혁명력량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 군중의 의식수준에 맞는 투쟁구호를 내세우고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정확히 선택하며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등 여러가지 투쟁 형태와 방법들을 옳게 배합하여 대중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제 정신을 가지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투쟁을 벌려나가는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열렬히 흠모하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북반부인민들이 민주건설에서 이룩한 찬란한 성과에 끝없이 고무된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운동방침을 높이 받들고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남조선전역에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항거하는 로동운동이 급속히 앙양되였으며 농민운동, 청년학생운동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1946년 6월초에 일어난 삼척탄광 4,000여명 로동자들의 파업투쟁 그리고 8.15를 계기로 폭발한 광주화순탄광 로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하여 여러 지방에서 벌어진 8.15해방 한돐기념투쟁, 《하곡수집》을 반대하는 하의도농민들을 비롯한 각지 농민들의 투쟁, 《국대안》을 반대하는 청년학생들의 투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1946년 가을에 이르러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전례없이 격렬한 대규모적인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1946년 9월 4만여명의 남조선철도로동자들은 식량보장과 임금인상, 미군정의 폭압의 즉시 중지, 북조선과 같은 민주주의적로동법령의 실시를 요구하여 대중적인 파업을 일으켰다. 철도로동자들의 파업에 호응하여 남조선의 모든 산업부문의 애국적로동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학생들과 사무원, 시민들도 로동자들의 투쟁에 합세하였다. 그리하여 로동자들의 총파업은 수백만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급속히 확대되였다.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원호하도록 이끌었다.

북반부의 로동자, 사무원, 문화인들은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군중집회들을 가졌으며 로동시간을 연장하고 그로부터 받은 로임의 전부를 남조선로동자들에게 원호금으로 보내였다.

남조선로동자들의 총파업은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을 극도로 당황케 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미군과 괴뢰경찰대와 테로단들, 지어 땅크까지 동원하여 파업로동자들과 이에 합세한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곳곳에서 파업군중과 괴뢰경찰대사이에 류혈적인 충돌이 일어났다.

미제의 파쑈적탄압에 항거하여 일떠선 로동자들은 파업으로부터 대중적인 시위투쟁에로 넘어갔으며 10월에 들어서면서 이 투쟁은 전인민적인 반미구국항쟁으로 발전하였다.

항쟁에 떨쳐나선 군중은 《미국의 식민지예속화정책 반대!》, 《정권은 인민위원회로!》, 《북조선과 같은 민주개혁을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들고 남조선전역에서 시위와 파업, 폭동을 일으켰으며 경찰서를 비롯한 폭압기관들을 습격파괴하고 괴뢰경찰들과 악질관리들을 처단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야수적 탄압과 학살에도 굴하지 않고 거의 두달동안이나 피흘리며 영웅적으로 투쟁하였다. 여기에는 약 230만명의 애국적인민들이 참가하였다.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은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배격하고 조국의 자주독립과 북반부에서와 같은 인민민주주의제도의 수립을 절절히 요구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위력을 크게 시위하였다.

그러나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야수적탄압과 종파분자들, 간첩도당의 범죄적인 파괴암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10월인민항쟁이 폭발하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군과 남조선반동들을 총동원하여 수만명의 애국적인민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에서 박헌영도당과 엠엘파분자들은 엄중한 해독행위를 감행하였다.

박헌영도당은 농민들의 추수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기로 되여있던 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앞당겨 벌리도록 책동함으로써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공동진출을 방해하였다. 로동자들의 총파업에서도 출판보도부문 로동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로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보도선전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이자들은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보존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외곡하고 대중을 모험적인 폭동에로 내몰아 막대한 희생을 내게 하였으며 당조직과 많은 혁명조직들을 적들앞에 로출시켜 파괴당하게 만들었다.

엠엘파분자들은 박헌영도당과 종파적으로 대립하여 처음에는 저들의 영향밑에 있는 로동자들의 파업을 따로 조직하는데로 나아갔으며 10월인민항쟁때에는 인민항쟁을 파괴하는 행동을 감행하였다.

10월인민항쟁후 반혁명적공세가 더한층 강화되였으며 남반부의 당조직들의 활동과 인민대중의 반미구국투쟁앞에는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추켜세우기 위한 새로운 대책들을 취해나가시였다.

제 7 절
근로인민의 대중적당, 로동당의 창립

공산당이 강화발전되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이 추진됨에 따라 당을 대중적당으로 빨리 발전시켜나가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해방직후에 밝히신 대중적당건설로선을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실현하시기 위하여 1946년 6월 남북공산당 책임일군협의회에서와 그후 회의들에서 공산당을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인 로동당을 창립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당은 로동자들속에서만 자기의 력량을 확대하는 당으로 머물러있을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진보적인 농민, 근로인테리들을 많이 받아들일수 있는 대중적당으로 발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권, 318～319페지)

공산당을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으로 발전시키는것은 당시 당과 혁명 발전의 합법칙적인 요구였다.

원래 소수 착취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부르죠아정당과는 달리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대중적당으로 건설되는것은 필연적이며 당의 사회계급적지반이 비할바없이 확대된 새로운 력사적시대에 와서 그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대중적당으로 발전하여야 당대렬을 넓은 사회계급적지반우에서 급속히 확대강화할수 있고 당을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강유력한 당으로 만들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면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준비된 공산주의자들이 많지 못하였으

며 로동계급은 아직 청소하였고 인민들은 공산주의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정에서 공산당을 전체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당력량을 빨리 확대강화할수 없었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울수 없었으며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없었다.

공산당을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키는것은 당시 근로자들을 망라한 다른 정당들이 존재한 사정과 관련하여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해방후 북반부에는 로동계급의 당인 공산당과 함께 주로 중농과 근로인테리들을 망라한 신민당이 있었으며 남조선에도 이와 류사한 인민당과 신민당이 있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근로대중을 분렬시킬수 있는 위험성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그 위험성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조건에서 혁명력량의 분렬을 막고 근로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워 새 조국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이 당들을 합당하여 근로대중을 통일적으로 대표하는 대중적당을 내오는것이 필요하였다.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내오는것은 당시 변화된 사회계급관계와 정세의 절실한 요구이기도 하였다.

북반부에서는 인민정권을 세우고 민주개혁을 실시하는 투쟁행정에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의 동맹이 현저히 강화되였으며 그들모두가 나라의 주인으로서 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혁명을 전진시키는데서 리해관계를 같이하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산당과 신민당이 따로 존재하는것은 전혀 무의미하며 해로울뿐이였다. 오직 하나의 당의 통일적지도밑에서만 근로대중이 굳게 뭉쳐 반동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고 혁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었다.

남조선의 정치정세도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을 내올것을 요구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로골화하면서 민주력량을 분렬시키려고 미쳐날뛰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특히 공산당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 그 활동을 비법화하려고 하였으며 다른 근로자당들을 모략적인 《좌우합작》의 간판밑에 끌어당기려고 책동하

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활동의 합법성을 유지하며 반미구국투쟁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힘을 다하여 민주력량의 분렬을 방지하고 근로대중의 통일단결을 튼튼히 하여야 하였다. 이로부터 남조선에서도 공산당, 인민당, 신민당의 합당이 미룰수 없는 절실한 문제로 되였다.

당시에 근로인민의 통일적당을 내올수 있는 기초도 튼튼히 마련되여있었다.

북조선에서 공산당은 급속히 확대강화되고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인민대중속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갖게 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적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게 되였다.

남조선에서는 우리 당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1946년 2월 종파집단인 《장안당》과 《재건당》이 해체되고 남조선공산주의자들은 남조선공산당의 유일적인 조직체계에 망라되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나선 성실한 당원들이 빨리 늘어나게 되고 대중의 투쟁기세도 높아졌다.

또한 투쟁목표를 보아도 공산당의 당면한 투쟁강령과 다른 근로자당들의 강령이 기본적으로 일치하였다.

이 모든것은 공산당이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할수 있으며 또 합당하여도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고 강력한 대중적당으로 발전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당을 창립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면서 합당후 대중적당건설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뚜렷이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합당후에도 당의 혁명적성격이 달라질수 없다는것을 천명하시였다.

공산당이 로동당으로 되여도 그것은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직로선을 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데서는 추호의 드팀도 있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합당후 당건설에서 새로와질 측면에 대해서도 명확히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대렬을 보다 넓은 지반우에서 확대강화

하게 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합당하여 창립될 로동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인민을 대표하는 대중적당인것만큼 준비된 공산주의자들뿐아니라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 가운데서 새 조국 건설을 위하여 견결히 싸우는 사람들을 자기 대렬에 널리 망라할것을 전제로 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의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늘여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적당을 건설하면서 세포핵심을 부단히 육성하는것은 우리의 일관된 조직로선입니다. 핵심이란 공산주의의 진리를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혁명의 길로 나아갈만한 당원들을 말하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9권, 486페지)

당은 계급의 선진분자들을 망라하지만 당원들의 준비정도는 똑같을수 없다. 더우기 당이 대중적당으로 발전하고 당대렬이 빨리 늘어나는 행정에서 당원들사이에는 사상리론수준과 사업능력에서 많은 차이가 생기지 않을수 없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상리론수준과 사업능력에서 앞선 당원들이 핵심적역할을 하여야 전반적인 당원들의 수준을 빨리 높여나갈수 있고 당을 질적으로 공고히 할수 있으며 당의 모든 활동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북반부에서는 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사업이 짧은 기간에 순조롭게 진행되였다.

1946년 7월 공산당과 신민당의 중앙위원회 확대련석회의가 진행되였으며 여기서 두 당을 합당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련석회의이후 각급 당조직들이 당강령과 규약 초안을 토의하고 당조직들의 합동사업을 세포로부터 도당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올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지방당조직들의 합동에 기초하여 1946년 8월 28일부터 30일사이에 평양에서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가 열리였다.

대회에는 공산당원 27만 6,000여명과 신민당원 9만여명을 대표하여 801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근로대중의 통일적**

당의 창건을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당창립의 력사적필연성, 로동당의 성격과 기본임무를 밝히신 다음 조선근로대중의 리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선봉대인 로동당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응당 주도적력량으로 되여야 하며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서 핵심적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에 기초하여 대회에서는 당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과업들을 토의결정하였다.

대회는 무엇보다 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강철같은 규률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과 강철같은 규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그와 어긋나는 모든 경향과 무자비하게 싸워야 할것입니다.

두 당을 방금 합쳐놓았기때문에 우리 대렬내에는 여러가지 서로 같지 않은 경향들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의 강령에 기초한 동일한 사상으로 전체 당원들을 무장시키며 그들의 원칙적인 동지적단결을 강화하며 정치적각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권, 379～38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대렬의 통일과 강철같은 조직규률을 훼손시키는 온갖 경향, 특히 종파주의적경향과의 투쟁을 강화하고 종파주의잔재를 철저히 청산함으로써 우리 당을 위력한 강철의 대오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시였다.

대회는 또한 당이 군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이 어떤 환경속에서나 근로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근로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근로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당의 강령, 당의 정책과 결정을 인민대중속에 깊이 해설침투시켜 대중이 그 실현을 위하여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하신 결론에서 당이 북반부민주기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으며 당대렬을 확대강화하는 문제,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문제, 통일전선사업과 사회단체사업을 잘할데 대한 문제와 경제사업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시였다.

대회는 로동당의 창립을 선포하고 당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기관지로서 《로동신문》과 정치리론잡지 《근로자》를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회는 남반부에서의 합당사업진행정형을 심의하고 이 사업을 방해하는 종파분자들의 분렬책동을 규탄하였으며 하루속히 합당을 실현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로동당의 창립은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였다.

로동당의 창립에 의하여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을 통일적으로 대표하는 대중적당이 건설되였다. 당의 마크에는 마치와 낫 그리고 붓이 표시되였는데 이것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을 대표하는 대중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것이였다.

로동당이 창립됨으로써 당대렬이 빨리 확대강화되고 당이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을수 있게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더욱 확고히 실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로동당의 창립으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의 동맹이 더한층 강화되고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이 더욱 높아졌으며 민족통일전선의 기초가 보다 더 튼튼해졌다. 그리하여 미제와 국내반동들의 온갖 파괴책동을 짓부시면서 북반부에서 혁명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조국의 자주적통일독립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남조선에서의 로동당창립사업은 여러가지 난관과 곡절을 겪으면서 매우 어렵게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의 합당사업에서 나

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여러차례에 걸쳐 밝혀주시였으며 남조선에서 찾아온 인민당과 신민당의 간부들과도 만나시여 합당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합당방침은 남조선의 광범한 당원들과 근로대중의 지지를 받았으며 그들을 합당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남조선에서의 합당사업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괴책동과 종파분자들의 분렬책동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공산당, 인민당, 신민당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며 이 당들에 잠입시킨 간첩암해분자들을 조종하면서 합당사업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다른 한편 고질적인 종파분자들이 합당사업을 둘러싸고 파쟁을 격화시켰다. 화요파계렬의 종파분자들은 자기 파만으로 《합당준비위원회》를 만들고 합당을 계기로 저들의 지반을 더욱 강화하려고 날뛰였다. 한편 엠엘파분자들도 합당을 계기로 자기 파의 세력을 추켜세우려는 목적밑에 합당문제를 토의결정하기 위한 《대회》를 소집할것을 요구하면서 합당사업을 방해하여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엄중한 사태를 수습하시기 위하여 1946년 9월 26일 력사적인 로작 《**북조선로동당의 창립과 남조선로동당의 창건 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남조선에서 합당사업이 지연되고있는 근본원인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합당사업을 빨리 추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뚜렷이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정으로 근로대중의 리익에 충실한 모든 민주주의자들은 반동세력의 음모와 저해를 극복하고 탐위분자, 사리사욕만 아는자, 파벌분자들의 분렬행위를 폭로분쇄하며 아직 합당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 일부 당원들을 깨우쳐줌으로써 일치단결하여 합당사업을 짧은 시일내에 완성하여야 할것이다.》(《김일성저작집》 제2권, 447~448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은 종파분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남조선의

당원들과 대중을 크게 각성시켰으며 합당을 빨리 실현할데 대한 밑으로부터의 요구를 더욱 높이게 하였다.

이러한 정황에서 박헌영도당은 합당을 빨리 실현한다는 구실밑에 자기 파 일색의 로동당을 내오려고 하였으며 《대회파》, 엠엘파분자들은 이에 맞서면서 《사회로동당》이라는것을 조작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우리 당중앙위원회는 《사회로동당》을 조작한 종파분자들의 분렬책동을 적들에게 도움을 주는 범죄행위로 규탄하면서 《사회로동당》을 즉시 해체하고 합당사업에 합류할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사회로동당》은 끝 해체되고말았다.

1946년 11월에 박헌영도당은 《반대파》를 완전히 따돌리고 공산당, 인민당, 신민당안의 자기 파 지지자들만으로 남조선로동당창립대회를 열고 남조선로동당의 창립을 선포하였다.

다른 한편 《대회파》, 엠엘파 분자들은 이에 대립하여 《근로인민당》을 조작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남조선에서 로동당은 나왔으나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을 조직하려던 본래의 목적은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공산당을 로동당으로 간판을 바꾸어놓은데 지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사태를 고려하시여 남반부에서의 당건설과 당활동을 옳은 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계속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이시였다.

제 8 절
새 조국 건설을 위한 대중운동,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증산경쟁운동, 문맹퇴치운동

우리 당은 새 조국을 건설하면서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각종 형태의 대중운동을 조직전개하였다.

당은 건국사상총동원운동, 증산경쟁운동, 문맹퇴치운동 등 여

러가지 대중운동을 널리 벌리도록 함으로써 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켜 새 조국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였다.

당은 무엇보다도 새 조국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개조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대중속에서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을 힘있게 벌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정치로선에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우리 당은 인민대중속에서 일제사상잔재를 없애고 열렬한 건국사상과 건전한 민주사상을 북돋아주는데 힘을 넣었다. 이것은 그들을 제반 민주개혁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의식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조건의 변화에 비하여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뒤떨어져있었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수행됨으로써 사회경제제도에서는 제국주의적이며 봉건적인것들이 없어졌으나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의연히 제국주의적, 봉건적 사상잔재와 악습들이 많이 남아있었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일제사상잔재를 뿌리빼고 새로운 민족적기풍과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지 않고서는 민주개혁에 의하여 이룩된 새로운 사회경제관계를 공고발전시킬수 없었으며 더우기 혁명과 건설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킬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시여 1946년 11월 25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3차 확대위원회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개변을 위한 대중적운동으로서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국적으로 광범한 인민대중속에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낡은 사상의식을 개변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권, 552페지)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은 일본제국주의가 남겨놓은 모든 타락적이

고 퇴폐적인 유습과 생활태도를 없애고 새로운 민주조선의 일군다운 정신과 풍모, 도덕과 전투력을 전면적으로 키우며 생기발랄하고 약동하는 민족적기풍을 세우기 위한 일대 사상개조운동, 사상혁명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을 통하여 모든 일군들과 인민대중을 튼튼히 무장시켜야 할 사상과 정신, 기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자기 힘으로 새 조국을 건설해나가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군들과 인민대중을 무장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으며 그들모두가 식민지노예근성과 개인향락주의, 건달풍을 없애고 새 조국 건설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항상 부지런히 책임적으로 일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일군들과 인민대중 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존중히 하는 애국사상과 새로운 인민도덕을 키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두가 서로 도와주고 단결하며 다같이 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속에서 결함에 대한 비판정신을 배양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그리고 모든 일군들이 자만자족하지 말고 꾸준히 연구하고 배워 자기의 사상리론적, 실무적수준을 높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1946년 12월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14차 상무위원회와 민전중앙위원회 제8차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방침에 따라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구체적대책을 토의결정하였다.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은 전군중적운동으로 벌어졌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강한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당, 국가, 경제 기관 및 사회단체들과 공장, 농촌 등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전국사상총동원운동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 학습과 군중토의가 진행되고 심각한 비판과 자기비판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 개인리기주의와 향락주의, 게으르고 부화방탕한

현상, 관료주의와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검토비판되고 적대분자들의 책동과 전달균들의 사기, 협잡, 횡령 행위들이 적발폭로되였다. 또한 일군들의 책임성이 더욱 높아지고 사업 태도와 작풍이 개선되였으며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과 애국적열의가 비상히 높아졌다.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은 근로자들의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되였다.

로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그날 할 일은 그날에 마치자!》라는 구호밑에 애국적건국운동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부닥친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면서 건국사업에 실제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렸다.

농민들속에서는 30가마니의 애국미를 나라에 바친 김제원농민의 모범을 본받아 애국미헌납운동이 대중적으로 벌어졌으며 그것은 그후 식량절약운동, 량곡수매완납운동과 알곡증산운동으로 확대발전하였다. 애국적인 기업가, 상인들 속에서는 애국헌납운동이 광범히 일어났다.

당은 대자연개조사업과 증산경쟁운동도 힘있게 밀고나갔다.

당은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자연의 피해로부터 인명과 농토, 국토를 보호하기 위한 대자연개조에로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하여 진행된 보통강개수공사는 그 첫 출발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통강개수공사는 평양시민들이 애국적인 로동으로써 민주주의 새 조선 건설에 기여하는 첫 사업이며 해방된 우리 인민이 처음으로 하는 대자연개조사업입니다. 우리는 보통강개수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냄으로써 이 공사가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자연개조사업의 첫 봉화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권, 228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마다 큰물로 인민들에게 고통을 주던 보통강의 개수공사를 위한 모든 준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시였

으며 1946년 5월 21일 몸소 이 공사의 착공식에 참석하시여 격려사를 하시고 첫 삽을 뜨시였다.

평양시민들과 청년학생들이 보통강개수공사에 한결같이 떨쳐나섰으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10년간 걸려서도 하지 못하였던 이 방대한 공사를 단 55일동안에 빛나게 완수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보통강개수공사의 승리는 보통강일대를 큰물피해로부터 막아낼수 있게 하였을뿐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우리 인민의 새 조국 건설에 대한 의욕과 자신심을 크게 북돋아주고 우리 나라에서 대자연개조의 새 력사를 펼쳐놓았다는데 획기적인 의의가 있었다.

자연개조의 첫 봉화를 올린 보통강개수공사에 뒤이어 마탄관개공사, 안주수리공사를 비롯하여 곳곳에서 크고작은 수많은 관개공사가 전군중적운동으로 진행되였다.

당은 경제복구건설에서 증산경쟁운동을 적극 벌려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6년 2월 당중앙조직위원회 제4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공장과 광산, 농촌에서 로동영웅운동을 널리 벌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공장, 광산, 농촌에서 로동영웅운동을 광범히 조직하여 로동자, 농민들이 새 조선 건설을 위한 혁명적인 경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로동영웅운동이 나라의 경제를 부흥발전시키는데서 일대 추진력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권, 56페지)

로동영웅운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로동계급속에서 일어난 각종 형태의 생산돌격운동을 조직화하고 일반화하신 대중운동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증산경쟁운동형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영웅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시는 한편 1946년 4월 흥남비료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 농촌들을 찾으시여 로동자, 농민들을 로동영웅운동에로 적극 불러일으키시였다. 그리하여 이 운동은 급속히 확대발전되였으며 나라의 경제를 부흥발전시키는데서 일대 추진력으로 되였다. 1947년 1월 1일현재로 황해제철소를 비롯한 822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복구되여 조업을 개시하였으며 농사에서 대풍작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나라의 경제를 부흥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로 되였다.

당은 그후 인민경제의 부흥발전을 위한 투쟁이 전면적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로동영웅운동을 대중적증산경쟁운동으로 심화발전시켜나갔다.

증산경쟁운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7년초 정주철도기관구 종업원들이 대수리기지가 없는 조건에서도 파피된 수십대의 기관차를 자체의 힘으로 수리한 동시에 채탄돌격대를 뭇고 자체로 탄을 캐여 철도운행을 보장한 애국적투쟁을 일반화하도록 이끌어주심으로써 급속히 확대발전되였다.

대중적증산경쟁운동의 불길속에서 많은 기술혁신안과 합리화안들이 나오고 생산과 건설에 도입되였다. 그리하여 증산경쟁운동은 나라의 생산과 기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당은 문맹퇴치운동도 힘있게 벌렸다.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민족우매화정책의 후과로 해방후 우리 나라에는 문맹자들이 많았으며 이것은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수준을 높이고 그들을 건국사업에 동원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맹을 없애는것을 인민대중을 새 조국 건설에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과업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1945년 11월 문맹퇴치운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광범한 군중을 각성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문맹퇴치사업을 힘있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권, 42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문화향상은 문맹퇴치로부터!》**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문맹퇴치지도위원회를 조직하게 하시였으며 방방곡곡에 문맹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성인학교를 내오게 하시였다.

문맹퇴치사업에는 당조직들의 지도밑에 민청을 비롯한 근로단체들이 동원되였으며 각급 학교 교원들과 학생들이 수많이 참가하

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일제통치의 악독한 후과인 문맹이 짧은 기간에 완전히 없어졌으며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일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렇듯 우리 당은 민주주의혁명시기에 벌써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혁명적대중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리였으며 그것은 사회주의혁명단계에 들어서면서 더욱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게 되였다.

이 시기에 조직전개된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증산경쟁운동, 문맹퇴치운동은 우리 나라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시작으로 되였다.

8.15해방과 더불어 조선인민은 조국의 새 력사를 창조하는 길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로동계급의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 창건위업이 빛나게 수행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조직사상적기초에 의거하여 공산당이 창건되였으며 공산당은 혁명을 령도하는 행정에 근로인민의 대중적당, 로동당으로 발전하였다.

당은 창건후 곧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집권당으로 되였으며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사회는 새로운 인민민주주의사회로 전변되였다.

당은 인민대중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결속하면서 혁명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운동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이 급속히 강화되였다.

제 6 장
북반부에서 사회주의혁명단계에로의 이행. 인민경제의 부흥발전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당의 투쟁. 당의 질적공고화와 령도적기능의 강화

(1947. 2—1950. 6)

제 1 절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수립과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개시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혁명은 1947년초부터 새로운 발전단계, 사회주의혁명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혁명이 완수되는데 따라 북반부에서는 점차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갈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의 무기인 인민정권을 사회주의혁명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맞게 더욱 발전시킬 과업을 내놓았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418페지)

사회주의혁명단계에로 넘어가는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완수된 북반부에서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수행된 다음 북반부에는 사회주의적경제형태와 함께 소상품경제형태와 자본주의적경제형태가 남아있었다. 자본주의적경제형태와 소상품경제형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착취

와 빈궁의 근원을 없엘수 없으며 사회의 생산력을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할수 없고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계획적으로 빨리 발전시킬수 없었다. 그러므로 인민들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나라의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한 다음 계속하여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하였다.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가는것은 전반적조선혁명의 요구이기도 하였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북반부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촉진시킬수 있고 전반적조선혁명의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었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혁명단계에로 넘어갈수 있는 제반 조건들도 조성되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우리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기능이 비상히 높아지고 로농동맹이 강화되여 혁명의 주력군이 훨씬 튼튼히 꾸려졌다. 그리고 인민경제에서 사회주의경제형태가 지도적지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는 경제적조건도 조성되였다.

사회주의혁명단계에로 넘어가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사회주의정권, 프로레타리아정권을 세우는것이였다.

사회주의혁명단계의 과업은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에 의하여서만 수행될수 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세워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사이에 치렬하게 벌어지는 계급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실정에 비추어 인민정권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강화발전시키는 방법으로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 수립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인민정권이야말로 우리

나라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정권형태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따라서 그 어떤 다른 형태의 정권을 창설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인민정권을 새로운 혁명임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더욱 공고발전시키는 방법으로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세울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정권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원칙에 기초한 비밀투표에 의하여 민주주의적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민주선거를 통하여 림시적성격을 띤 각급 인민위원회들을 법적으로 공고히 하는 동시에 그 계급적구성을 개선하여 로동계급의 령도와 로농동맹을 더욱 강화하며 새로운 혁명단계의 임무를 수행하는 인민정권기관들을 세울수 있었다.

당은 1946년말과 1947년초에 각급 지방인민위원회 위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선거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다.

당은 민주선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후보자추천과 선거절차를 비롯한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서 협의하고 선거에서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행동통일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민주선거는 첨예한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되였다.

남조선의 반동세력과 북조선에 있는 계급적원쑤들은 선거를 파탄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선거사업이 시작되자 반동분자들은 여러가지 반동적요언을 퍼뜨렸으며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공동립후보에 대하여 반대투표하도록 은밀히 선동하였다. 그러나 반동분자들의 파괴암해책동은 선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선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걸음마다 분쇄되였다.

1946년 11월 3일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위원선거는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첫 민주선거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위력과 애국적열의를 남김없이 시위하였으며 우리 인민이 자기의 손으로 능히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다는것

을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선거에 의하여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들이 새로 구성되였으며 이에 토대하여 더욱 강화발전된 중앙정권기관을 내올수 있게 되였다.

민주선거의 승리에 기초하여 1947년 2월에 북조선 도, 시, 군 인민위원회대회가 소집되였다. 대회에서는 최고주권기관인 북조선 인민회의를 창설하고 새로운 중앙정권기관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수립하였다.

북조선인민회의는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수립됨으로써 점차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시작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적인 첫 민주선거를 실시하고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창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탄생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이였습니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로서 점차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임무를 수행하며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2권, 418～419페지)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더욱 강화발전된 인민정권기관으로서 북조선에서의 민주개혁의 성과들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면서 점차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과업을 수행하기 시작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이였다.

과도기는 로동계급이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세운 다음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자본주의를 타승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력사적시기이다.

과도기에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이 선차적으로 수행해야 할 중요과업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구체적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대중의 사상적준비정도와 사회경제적, 물질적 제 조건에 비추어 과도기 첫 시기부터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는 없었다. 당시 우리 당과 인민 앞에 가장 절박하게 나선 문제는 일제가 패망할 때 파괴한 경제를 시급히 복구하는것이였다.

그러므로 당의 지도밑에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사회주의적개조를 부분적으로 실시하면서 전면적개조를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해야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주되는 힘을 인민경제를 부흥발전시키는데 돌려야 하였다.

제 2 절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첫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과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강화. 정규적혁명무력의 건설

우리 당은 인민경제를 부흥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로선과 과도기 첫 시기의 인민경제부흥발전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기 민족의 자립적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여야 하며 자립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자면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립적경제의 기초가 없이는 우리는 독립도 할수 없고 건국도 할수 없고 또한 살아갈수도 없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3권, 111페지)

어떤 민족이든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정치적독립을 보장하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자체의 방위력도 튼튼히 다질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고 민족들사이의 불

평등을 낳는 경제적락후성을 완전히 없앨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특히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자주독립과 민족적번영을 확고히 보장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기본내용, 기본방도에 대하여 명백히 밝히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닦아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이룬다는것을 의미한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면서 자체의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인민대중의 창조력과 나라의 모든 내부원천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며 나라의 경제적조건과 구체적실정에 근거하여 선후차를 옳게 정하고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온갖 경제적 예속과 락후성을 완전히 없애고 자체의 힘으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경제건설로선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의 총적방향과 기본내용을 정확히 밝힌 과학적인 경제건설로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근거하여 과도기에 들어선 첫 시기의 주되는 과업을 인민경제의 부흥발전으로 규정하시고 이 시기 경제건설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민주주의적사회경제개혁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공고히 하며 그 기초우에서 민족경제를 부흥발전시키기 위한 경제건설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파괴된 경제를 단순히 복구할것이 아니라 공업과 기타 여러 부문들에서 장구한 일제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청산하며 국영부문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민족경제를 부흥발전시키는것이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4권, 219~220페지)

인민경제를 부흥발전시키는데서 우선 중요한것은 파괴된 경제를 단순히 복구할것이 아니라 일제통치의 악독한 후과인 경제의 식민지적락후성과 편파성을 청산하는 방향에서 복구발전시키는것이였다. 이것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닦아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였다.

인민경제를 부흥발전시키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국영부문이 전반적경제에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도록 하는것이였다. 이것은 사회주의혁명단계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근본적인 요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상과 같은 경제건설의 기본방향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당의 경제정책의 기초를 명백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 경제정책의 기초는 중요한 공업부문들과 철도운수, 체신, 대외무역 및 금융 기관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계획적관리를 보장하며 인민경제의 발전에서 국영부문의 지도적역할을 부단히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국영부문과 협동조합부문과 개인경리부문을 옳게 결합시키는데 있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4권, 220페지)

중요 공업부문들과 경제기관들이 국가수중에 장악된 조건에서 국가의 직접적인 계획적관리를 보장하여야 경제를 목적지향성있게 발전시키면서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으며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그리고 계획경제를 실시하면서 경제형태들의 호상관계를 바로 설정하는것이 중요하였다. 이 호상관계에서 기본은 가장 선진적경제형태인 국영부문을 빨리 발전시켜 그 지도적역할을 높이는데 두어야 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협동경리와 개인경리를 적절하게 결합하여 발전시켜야 하였다. 국영부문의 지도적역할을 높여야만 인민경제의 복구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면서 그것을 사회주의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협동조합부문과 개인경리부문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갈수 있었다. 또한 협동경리와 개인경리를 적절하

계 발전시켜야 나라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칠수 있고 로농동맹과 전체 인민의 단합을 강화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러한 경제정책에 따라 과도기 첫 시기의 인민경제계획들이 작성되였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첫 인민경제계획인 1947년계획은 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하여 공업생산을 1946년에 비하여 192%로 장성시키고 알곡생산량은 30만톤을 더 높이며 인민생활을 빨리 개선할것을 예견하였다.

경제건설의 첫 시기부터 방대한 경제계획을 수행한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우리 인민이 넘겨받은 경제란 뒤떨어지고 파괴된것뿐이였다. 우리에게는 경제건설에 대한 경험도 없고 경제기술일군과 기능로동자도 매우 부족하였으며 원료, 자재, 자금도 거의 없었다. 또한 조국이 분렬된 조건에서 나라의 모든 자원과 생산잠재력을 통일적으로 리용할수 없었다. 게다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우리 인민의 새 조국 건설사업을 파탄시키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47년인민경제계획이 발표되자 원쑤들은 그것을 절대로 실현불가능한 《허황한 계획》이라고 비방하면서 악랄하게 방해하였으며 우리의 일부 일군들까지도 계획의 현실성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였다.

그러나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굳게 묶어세우고 혁명적으로 더욱 각성시켜나간다면 참으로 큰 힘을 발휘할수 있으며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경제건설을 밀고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첫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당과 인민정권기관들의 조직지도사업을 개선강화하여야 하였다.

1947년 3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6차회의는 당사업을 개선하는 문제, 인민위원회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 문제와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당조직들의 과업 등을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6차회의에서와 1947년 7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하신 력사적결론 그리고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북조선로동당》을 비롯한 여러 고전적로작들에서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 새로운 조건에 맞게 당의 내부사업과 대중지도방법을 개선하며 특히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당단체들에서 당원들의 세포생활을 강화하며 일군들의 사업작풍을 개선하고 당조직들의 조직지도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이와 함께 첫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애국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하도록 지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기초하여 당은 생산단위의 당조직들을 정비강화하였으며 경제건설에 대한 지도를 각급 당조직들의 주요임무로 내세웠다. 그리고 당조직들이 경제건설사업을 일상적으로 장악통제하며 경제건설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게 하였다.

당은 당조직들이 경제건설에 대하여 일반적호소만 하고 구체적인 조직지도사업을 소홀히 하는 경향과 일군들이 계획수행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당원들이 경제건설에서 선봉적역할을 놀수 있도록 그들을 당정책과 경제지식, 기술지식으로 교양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생산계획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데서 커다란 장애로 되는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없애는데 큰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당정책을 해설침투시키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조직동원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도록 하였다.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또한 중요하였다.

당은 반동분자들의 파괴책동을 진압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독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백방으로 높이게 하였다. 그리고 인민정권의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에

게 국가건설과 경제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업을 강화하였으며 각급 정권기관들의 직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제도와 규률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인민정권이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높이고 인민경제계획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당은 광범한 근로대중을 경제건설에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었다.

당시 일부 반당종파분자들은 인민정권이 선 조건에서도 로동자들의 파업과 태업이 불가피하며 직업동맹은 근로자들의 《리익》을 위하여 인민정권기관들과 맞서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들고나왔다. 이것은 인민정권이 서고 중요산업이 국유화된 인민민주주의제도에서의 직맹단체들의 역할을 자본주의사회의 로동조합의 역할과 같은것으로 보며 사회단체들을 인민정권의 강화와 인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떼여내려는 반동적이며 해독적인 주장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반동적견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시고 직업동맹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로서의 역할, 근로대중을 교양하고 경제건설에 조직동원하는 대중정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광범한 대중을 인민경제계획수행에로 조직동원하시기 위하여 1947년에 황해제철소를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의 사업과 생활을 보살펴주시고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건국열의를 더욱 높여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농촌경리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몸소 미림벌에 나가시여 벼모를 꽂으시면서 알곡증산에 떨쳐나선 농민들을 고무하여주시였으며 양덕군 구지골농민들을 찾으시고는 산을 끼고있는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심으로써 우리 나라 《황금산》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농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

으로 받들고 모든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면서 인민경제계획의 기한전 완수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평양의 사동탄광 로동자들의 호소로 《3.1절기념증산경쟁운동》이 벌어졌고 뒤이어 평양철도기관구 로동자들이 발기한 《5.1절기념증산경쟁운동》이 일어났다. 6~7월에는 남포제련소 로동자들의 발기로 《로동법령실시기념증산경쟁운동》이 온 나라에 타번졌으며 7월~8월에는 흥남비료공장 로동자들의 호소로 《8.15해방 2주년기념증산경쟁운동》이 줄기차게 진행되였다.

농민들은 관개시설을 확장하고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알곡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벌린 전당적, 전인민적인 투쟁속에서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은 빛나게 완수되였다.

영웅적로동계급의 힘찬 로력투쟁에 의하여 일제가 패망하면서 혹심하게 파괴하였던 황해제철소, 흥남비료공장, 성진제강소를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복구되였으며 국영공업총생산액계획은 102.5%로 넘쳐 수행되였다. 1947년도 공업총생산액에서 국영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2%에 달하였다.

알곡생산량은 1946년보다 17만톤이나 더 늘어났다.

국영 및 소비조합 상점망이 대대적으로 증설되여 사회주의상업망의 류통액은 1946년에 비하여 9배이상 많아졌다.

교육, 문화, 보건 부문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여 학교수는 전해에 비하여 1.4배, 학생수는 1.3배로 장성하였으며 대학, 전문학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제도가 실시되였다. 수많은 병원들과 진료소들이 신설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은 현저히 개선되였다.

첫 인민경제계획의 완수는 참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실천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깨닫게 되였으며 자기의 힘으로 자주독립국가를 능히 건설할수 있다는 신심을 더 굳게 가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경제건설에 대한 지도에서 귀중한 경험을 쌓았으며 경제건설을 더욱 확신성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1947년 인민경제계획의 승리적완수는 우리 당과 인민정권을 비

방중상하며 우리의 경제건설을 파탄시키려던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대한 커다란 타격으로 되였다.

당은 첫 인민경제계획 수행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1948년 인민경제계획 수행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였다.

1948년계획에는 국영 및 협동단체 공업총생산액을 1947년실적에 비하여 41% 더 늘이며 알곡생산을 장성시켜 식량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도록 할것이 예견되였다.

당은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리였다.

각급 당조직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주인답게 나서도록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생산단위들에서 계획화수준을 높이고 생산 및 로력 조직을 잘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기술기능수준을 빨리 높이면서 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끌어나갔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1948년인민경제계획도 빛나게 초과수행되였다.

국영 및 협동단체 공업총생산계획은 102%로 넘쳐 완수되여 1947년보다 공업생산이 50.6%나 더 늘어났으며 알곡수확고도 일제시기의 최고수확년도보다 10.4%나 더 높아져 식량을 자급자족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경제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정규적혁명무력건설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강력한 정규적인 민족군대를 가지는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매개 민족은 자체의 강력한 정규무력을 가져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낼수 있고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을 무력으로 담보할수 있다.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는것은 당시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전쟁준비에 미쳐날뛰면서 1947년부터는 북반부에 대한 무장도발을 격화시키고있었다. 이런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강력한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여야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수호하고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있으며 나아가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해방직후에 정규화된 인민군대를 건설하는것을 새 조국 건설을 위한 당면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최용건, 강건을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을 파견하시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치시였다. 그리하여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 조선항공협회와 수상보안간부학교가 세워지고 여러곳에 보안간부훈련소들이 조직되여 군사정치간부양성사업이 진행되였으며 앞으로 내올 정규무력의 핵심들이 육성되였다.

우리 당은 이러한 준비사업에 기초하여 1948년 2월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직접 계승한 군대이며 항일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조직된 참다운 인민의 군대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5권, 340페지)

조선인민군은 항일혁명투쟁의 억센 력사적뿌리에서 자라난 혁명군대이다. 조선인민군은 근로인민을 억압하며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제국주의군대와는 달리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 사명을 지닌 인민의 군대이다.

정규적인 혁명무력이 건설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국방에서 자위를 보장할수 있는 자체의 강력한 현대적민족군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기의 힘으로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과 안전을 지켜낼수 있는 자주독립국가의 무력적기초를 튼튼히 마련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내놓으신 독창적인 혁명무력건설원칙을 정규군건설에 구현하시여 조선인민군을 강철의 대오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당은 군대안에서 군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당과 혁명에 대한 불타는 충

실성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무한한 헌신성, 강의한 혁명정신과 불굴의 투지, 강철같은 규률, 령활한 전술과 백발백중의 사격술, 무쇠같은 체력을 가진 주체형의 혁명군대로 키워나갔다.

당은 또한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를 친혈육과 같이 극진히 사랑하고 적극 원호하도록 하였으며 자체의 군수공업을 창설하여 필요한 장비와 군수품을 보장해나가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인민군은 어떠한 침략자도 때려부실수 있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급속히 장성강화되여갔다.

제 3 절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준비사업의 추진

당은 인민경제를 부흥발전시키는데 힘을 집중하면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문제에 커다란 주의를 돌리였다.

이 시기 당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부분적으로 진행하면서 주로는 앞으로 그 개조를 전면적으로 다그칠수 있는 준비사업을 벌려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해방후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북반부는 점차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길에 들어섰으며 사회주의적개조도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전에는 필요한 사회경제적 및 물질적 조건들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였던 관계로 사회주의적개조는 부분적으로 실시되였으며 주로는 그 준비사업이 진행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161페지)

우리 당은 수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부분적으로 실시해나갔다.

수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령세하고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수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며 수공업자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인민들의 생활필수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7년 9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생산합작사를 조직할데 대하여》에서 개인수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합작사는 자원성의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우선 농촌의 가내부업자들과 수공업자들로 조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생산합작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점차 도시수공업자들과 소시민들로도 생산합작사를 조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3권, 418페지)

당은 우선 농촌의 가내부업자들과 수공업자들로 생산합작사를 조직하였다. 이것은 당시 농촌에 계절적인 로력예비가 많고 또한 농민들자신이 부업생산을 공동으로 하는것을 쉽게 받아들일수 있었던 현실적조건을 정확히 타산하여 취해진 조치였다.

당은 농촌에서 생산합작사들이 조직되자 생산을 빨리 늘이고 합작사들을 조직경제적으로 공고히 하며 중간착취를 없애기 위하여 생산을 계획화하고 수입을 높이며 생산된 상품들을 소비조합상점을 통하여 직접 구매자들에게 팔게 하였다.

당은 또한 농촌에서 생산합작사들이 조직되고 그 우월성이 나타나게 되자 도시수공업자들속에서도 생산합작사를 점차 조직하도록 하였다.

당은 생산합작사조직에서 자원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게 하였으며 자금과 자재를 국가가 계획적으로 융통해주고 생산된 제품을 국영경리를 통하여 판매해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투기분자들의 해독행위로부터 합작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산조직을 국가의 계획경제에 복종시키도록 대책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도시수공업자들로 이루어진 생산합작사들은 조직된 초기부터 건전하게 발전할수 있었고 그 우월성을 뚜렷이 나타내게 되였다.

1948년말현재 도시와 농촌들에 조직된 생산합작사수는 274개,

사원수는 9,387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1949년말에 벌써 수공업자의 22.5%가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조되였으며 공업총생산액에서 생산합작사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2%에 이르렀다.

당은 생산합작사와 함께 수산합작사를 조직하여 령세어민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조하는 사업도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7년 8월 농림국 책임일군들에게 령세어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며 나라의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산합작사를 조직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당은 동서해안의 어촌들에 수산합작사들을 널리 조직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였다. 수산합작사의 조직형태에는 일정한 어로기간에만 림시적으로 협동적공동로동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사회주의적맹아형태와 배, 그물 등의 재산에 대한 사원들의 개인소유권을 남겨두고 그 리용권만을 합작사가 가지는 반사회주의적형태가 있었다. 또한 배와 그물 등의 재산을 공동소유로 하고 오직 로동에 의한 분배만을 실시하는 사회주의적성격을 띤 수산합작사도 있었다. 수산합작사들은 1948년 6월말현재 89개나 조직되였으며 여기에 1만 1,146명의 사원들이 망라되였다. 수산합작사들은 당시 어업총생산의 19.7%를 담당하였다.

당은 생산합작사와 수산합작사가 급격히 늘어나고 발전함에 따라 그에 대한 지도체계를 더욱 개선강화하도록 하였다. 1950년 3월에는 소비조합중앙위원회에서 하던 생산합작사와 수산합작사에 대한 지도기능을 분리시켜 각각 독자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게 하였다.

그리하여 합작사들의 경제토대는 더욱 강화되고 관리운영방법도 훨씬 개선되였다.

당은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도기 첫시기에 우리는 토지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 생활력을 발양시키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앞으로 농촌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3권, 353페지)

우리 나라에서 과도기 첫 시기에는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성숙된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다. 토지개혁에 의하여 농민들이 땅의 주인으로 됨에 따라 그들의 애국적열성과 생산의욕은 비상히 높아졌으며 다른 한편 자기 땅에 대한 애착심이 매우 강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농촌경리의 협동화문제를 전면에 제기한다면 농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수 없으며 앙양된 그들의 열의를 떨어뜨릴수 있고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수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소규모적인 개인농민경리를 언제까지나 계속 유지해나갈수는 없었다. 소규모적개인농경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농민들을 착취와 빈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할수 없었고 농업생산을 새로운 토대우에서 빨리 발전시킬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이 시기에 토지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 생활력을 발양시키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앞으로 농업협동화를 실현할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점차적으로 성숙시켜나가는 방향에서 농촌사업을 이끌어나갔다.

당은 우선 부농경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토지개혁때부터 여러가지 법령과 결정으로 농촌에서 상시적으로 고용농을 두는것을 금지시킨 결과 과도기 첫 시기 부농경리의 발전은 극히 제한되였다. 이것은 앞으로 농업협동화의 실현을 방해하는 세력이 크게 자라날수 없게 하였다.

당은 농민들이 집단경리의 우월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인식하도록 하기에 힘썼다.

당은 해방직후 새별군과 평강군을 비롯한 여러곳에 창설된 국영농목장들을 공고발전시키고 전반적농촌경리발전에서 그의 선구자적역할을 높여나갔다.

그리하여 분산된 개인농민경리에 비한 사회주의적집단경리의 우월성을 농민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농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소겨리, 품앗이와 같은 협동적로력조직형태들을 널리 보급하고 적극 장려함으로써 농민들로 하여금 공동로동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점차 농업생산의 협동화에로 접근해나가도록 지도하였다.

당은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경제기술적조건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시켰다.

당은 농촌에서 부족되는 축력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1949년 7월부터 전국도처에 우마임경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1950년 2월에는 평안북도 룡천군과 정주군, 평안남도의 안주군, 함경남도의 함주군, 황해도의 재령군 등 벌방지대에 5개의 농기계임경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분소들을 내왔으며 뜨락또르를 배속시켰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개량농기구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 관개시설들을 신설확장하였으며 많은 화학비료를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였다.

당은 빈농들을 고리대적착취로부터 보호하며 그들에게 영농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농민은행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농민들은 농민은행을 통하여 영농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재정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갔다.

당은 소비조합의 활동도 보다 강화하였다. 소비조합은 농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공업상품들을 농촌에 제때에 공급하는 한편 농업생산물과 부업생산물을 수매하여 도시에 가져다 파는 상업활동을 적극 벌렸으며 여기에서 얻은 리익금을 출자몫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였다. 당은 국가에서 소비조합에 재정적방조를 주고 그 역할을 높이게 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련계를 강화하였고 농민들은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체험할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자본주의적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준비사업을 점차적으로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도기에 있어서 자본주의적상공업에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은 그 좋은 측면을 리용하고 나쁜 측면을 제한하면서 그것을 점차 사회주의적경리로 개조하는데 있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168페지)

당은 개인기업가, 상인들의 기술과 경험, 자금을 리용하면서 그들의 업종을 생활필수품의 생산과 상품류통에 국한시키고 누진소득세를 실시하였다. 또한 투기, 모리, 탈세를 비롯한 부정적인

행위를 법적으로 통제하며 생산류통분야에서 나타난 위법현상들을 사회적으로 폭로하게 하였다. 당은 개인기업을 장려하면서도 그것이 철저히 인민경제의 부흥발전에 복종하게 하였으며 상공업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고상한 애국주의정신을 가지고 나라와 인민의 리익을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서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전면적으로 다그칠수 있는 토대가 점차 마련되여갔다.

제 4 절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제시.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

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미투쟁이 강화됨에 따라 조국통일의 기운이 날로 높아갔다.

그러나 남조선을 영구강점하려는 미제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통일적자주독립국가창건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많은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였다.

인민대중의 완강한 항거로 군정을 더는 유지할수 없게 된 미제는 신식민주의수법에 따라 자기 주구들로써 괴뢰정부를 조작하여 남조선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려고 책동하였다.

미제는 1947년 10월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고갔다. 원래 조선문제는 민족자결에 관한 조선인민의 내부문제로서 애당초 유엔의 토의대상으로 될 문제가 아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조선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시키고 조선대표의 참가도 없이 저들의 거수기를 발동하여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조작하고 그 감시밑에 조선에서 《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세울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게 하였다.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무시한 유엔의 이 《결의》는 전체 조선인민과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일치한 반대와 규탄을 받았으며

우리 당과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이 결의를 단호하게 거부한다는것을 온 세상에 선언하였다.

이렇게 되자 교활한 미제는 1948년 2월 《유엔소총회》에 강요하여 남조선에서만이라도 유엔의 감시밑에 단독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케 하였다. 이리하여 미제의 민족분렬정책은 공개적인 실현단계에 들어섰으며 우리 나라에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엄중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시고 미제의 민족분렬책동을 결정적으로 분쇄하고 통일적인 민주주의정부를 세우기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8년 《신년사》와 같은해 1월 강계군 각 정당, 사회단체열성자회의에서 하신 연설 《우리는 이해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일할것인가?》와 특히 같은해 3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제25차회의에서 하신 연설 《반동적남조선단독정부선거를 반대하고 조선의 통일과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를 비롯한 여러 고전적로작들에서 통일적인 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조선문제는 오직 조선사람만이 해결할수 있으며 조선인민외에는 그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능력도 권리도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4권, 27페지)

《우리는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원칙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써 전조선최고립법기관을 선거할것을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선거된 진정한 인민의 최고립법기관에서 헌법을 승인하고 나라를 통성발전시키며 인민을 행복의 길로 이끄는 진정한 민주주의적인민정부를 조직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것은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동시에 철거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4권, 18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는것을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으로 규정하시였다.

자주성의 원칙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다. 조선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따라서 조선의 통일문제는 그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철저하게 조선인민의 의사에 따라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이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민족자결의 권리이다.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한다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주의적방법으로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세우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적원칙을 관철하여야 조선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조국을 통일할수 있으며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다.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것은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따라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하고 외부의 간섭이 없는 한 조선인민은 능히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방도에 대하여서도 명확히 밝히시였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이 중요하였다.

미제는 조선을 분렬시킨 장본인이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애물이다. 그러므로 미제를 몰아내기 위한 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당면하게는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실시하여 괴뢰정권을 조작하려는 미제의 범죄적인 민족분렬책동을 파탄시켜야 하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 가장 절실한 요구로 나섰다.

조선혁명의 책원지이며 조국통일의 결정적담보인 북반부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면에서 강화하는것과 함께 남반부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워 그들을 반미구국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하는 기초우에서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환경도 마련해나가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은 철저한 자주적립장과 견결한 반제반미투쟁정신으로 일관된 혁명적방침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당은 조국의 자주적통일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나갔다.

조국의 자주적통일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남조선단독정부조작음모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하였다.

우리 당은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반대배격하는 투쟁에로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였다. 북반부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반대배격하는 항의집회들을 가지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책동을 폭로규탄하였으며 남반부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은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이 남조선에 기여드는것을 반대하여 결연히 일떠섰다. 그들의 투쟁은 1948년 2월에는 마침내 남조선전역을 휩쓴 구국항쟁으로 확대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시고 북과 남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할것을 발기하시고 그 준비를 추진시키시였다.

북반부에서의 혁명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앞에 조성된 정세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더욱 강화하고 북반부의 혁명적민주기지를 튼튼히 다지며 미제의 민족분렬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구국대책을 세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1948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의 사이에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가 열리였다.

대회에는 70만 8천여명의 당원을 대표하여 990명의 결의권을 가진 대표와 96명의 발언권을 가진 대표가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와 당규약수정문제가 주요로 의사항으로 상정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제2차대전후 국제국내정세를 분석하시였으며 우리 당이 진행하여온 전반사업을 총화하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과 북반부민주기지를 튼튼히 다지며 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대회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책동을 폭로규탄하면서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은 남반부에서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의 비호밑에 놈들이 감행하려는 단독선거와 매국적인 괴뢰정부조작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하는 조건에서 전조선적인 민주선거를 실시하여 최고립법기관을 구성하며 민주주의적헌법을 채택하고 민주주의인민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그리고 전민족의 단합을 위한 남북조선의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의 련석회의를 진행할데 대하여서도 토의하였다.

대회에서는 북반부혁명기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과업, 특히 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개선강화하며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업을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정세는 우리 당이 군중을 조직하며 정치적으로 지도할줄 아는 당으로 될뿐아니라 경제를 건설하고 기업을 관리운영할줄 알며 경제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건설자의 당으로 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4권, 222폐지)

혁명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고 혁명임무가 더욱 복잡해진 조건에서 당의 령도적기능을 높이는것이 절실하게 요구되였다. 특히 과도기에 들어서면서 인민경제부흥발전의 과업이 전면에 나선 조건에서 당은 인민대중에 대한 정치적지도뿐아니라 경제건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당조직들이 생산에 깊이 침투하며 공장, 기업소들에서 엄격한 질서와 규률을 세우고 기업관리전반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가르

치시였다. 그리고 인민경제발전에서 국영부문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개혁의 승리를 공고히 하며 민족경제의 부흥발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당일군들이 국가를 관리하고 정권을 운영하는 방법과 지식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대회에서는 당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당대렬의 질적공고화를 위한 과업을 전면에 제기하였다.

당은 짧은 기간에 량적으로 빨리 장성하였다. 그러나 당대렬의 급속한 장성에 비하여 그 질적공고화가 따라가지 못하였다. 특히 국내외의 복잡한 정세와 당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임무는 우리 당을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걸머지고 힘있게 전진할수 있는 강력한 당으로 만들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대회는 당을 질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당세포를 강화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내세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세포는 당원들을 일상적으로 교양훈련하여 당대렬의 사상적 일치와 조직적통일을 보장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실생활에 구현하는 기본조직입니다. 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는데서 기본으로 됩니다.》(《**김일성**저작집》 제4권, 234페지)

대회는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포핵심육성에 힘을 넣으며 세포사업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 모든 세포들을 생기발랄하고 전투적인 산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아래당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일군들의 사업작풍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 대중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문제, 간부양성사업과 간부선발배치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대회에서는 당사상교양사업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을 엄격히 지적하면서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대회는 특히 첨예한 정치정세와 당이 수행하여야 할 무거운 혁명임무에 비추어 당원들과 인민대중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의 원리교양,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

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반종파투쟁을 힘있게 벌려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을 당건설의 중요과업으로 내세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내의 강철같은 규률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종파분자들이 마음대로 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손발을 얽어매놓아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4권, 259페지)

당시 종파분자들은 당을 공공연히 반대하여나서지는 못하였으나 의연히 양봉음위하면서 음흉한 책동을 계속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파분자들의 교활한 수법과 종파의 사상적근원을 분석폭로하시고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종파주의의 그 어떤 사소한 표현에 대하여서도 묵과하지 말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당내에서 종파잔재를 철저히 뿌리뽑아 없앨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대회에서는 그간 당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그리고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의 요구에 맞게 당규약을 일부 수정보충하였다. 규약에는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며 당규률과 당원들의 당조직생활, 당의 통일단결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보충되였다.

당 제2차대회는 미제의 민족분렬책동에 대처하여 조국통일방침을 확정하고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내외에 선포함으로써 전당과 전체 인민을 거족적인 반미구국투쟁에로 힘차게 고무추동하였다.

대회는 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대책과 과업들을 내세움으로써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첫 시기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대회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당을 질적으로 공고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높이는데서 중요한 계기를 열어놓았다.

제 5 절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과 남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의 단합을 실현할 목적으로 이미 1947년 10월 북조선민전 중앙위원회 의장단회의에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소집을 발기하시였으며 당 제2차대회에서도 련석회의소집을 다시금 제기하시였다. 1948년 3월 북조선민전 중앙위원회 제26차회의에서는 1948년 4월에 평양에서 남북련석회의를 열것을 남조선정당, 사회단체들에 제의하는 공개서한을 채택하였다.

당은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다그쳤다. 남북련석회의준비사업은 안팎의 원쑤들의 파괴책동으로 하여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였다. 남반부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회의에 참가하려는 인사들에 대하여 위협공갈하며 지어는 폭행까지 감행하였다. 박헌영도당은 저들의 비위에 맞는 몇몇 사람들만을 회의에 참가시키려고 책동하면서 남북련석회의를 지지하는 많은 정당, 사회단체들을 배척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사태를 제때에 포착하시고 남반부의 많은 정당, 사회단체와 개별적인사들에게 직접 사람을 파견하시여 우리 당의 통일전선정책을 설득시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이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미제의 민족분렬정책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지지하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사들과 단결하며 반미구국의 길에 나서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고 손잡고나갈것이라는것을 명백히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하신 적극적인 대책에 의하여 1948년 4월에 56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695명의 참가밑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열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구국대책을 밝힌 력사적인 보고 《북조선정치정세》를 진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반부에서의 인민정권의 수립과 민주개혁의 실시, 경제와 문화 건설의 빛나는 성과들을 개괄하시고 이와는 판이한 남조선정세를 분석하시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분렬책동을 폭로하시고 당면한 구국대책에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당면한 최대의 민족적과업은 미제가 감행하려는 남조선단독선거를 저지파탄시키고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통일적중앙정부를 세워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서는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거족적인 반미구국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조국분렬의 위기에 처한 이 엄중한 때에 우리가 단결하여 투쟁하지 않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물리칠 일대 구국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족과 후손들에게 천추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짓는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통일적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며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벌려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4권, 28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는 전체 회의참가자들의 열렬한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련석회의는 《조선정치정세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련석회의는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도구라는것을 폭로하고 남조선단독선거를 반대배격할것을 결정하였으며 단독선거에 의하여 조작되는 괴뢰정부를 조선인민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것이며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진정한 통일정부를 세울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련석회의는 또한 전체 조선인민에게 미제가 감행하는 남조선단독선거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여 《전조선동포에게 격함》이라는 격문을 채택하였으며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의 해체와 외국군대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였다.

회의는 거족적인 반미구국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남조선단독선거반대투쟁전국위원회를 조직하며 전국각지 조선민족이 사는 모든곳에 각 정당련합으로 되는 단독선거반대투쟁위원회를 무을것을 결정하였다.

련석회의에 뒤이어 4월말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협의회를 가지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당면문제들을 밝힌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월 2일 대동강의 쑥섬에서 김구, 홍명희, 김규식을 비롯하여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였던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과 련석회의에서 결정된 문제를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의회에서 망국단선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문제와 통일적인 중앙정부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할데 대한 문제를 천명하시였으며 외세의존사상과 숭미사대주의사상을 뿌리빼고 조선사람자신의 손으로 부강한 새 조선을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련석회의는 북과 남의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국통일문제를 토의한 력사적인 첫 대민족회합으로서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과 통일전선정책의 정당성을 내외에 널리 과시하였다.

련석회의는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정견과 계급적립장이 서로 다른 정당, 사회단체들도 공통적인 민족적리념에 기초하여 능히 단결할수 있으며 민족의 대단합으로 거족적인 구국투쟁을 힘차게 벌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공산주의자들을 한사코 반대하여오던 우익정객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고매한 덕성에 감화되여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면서 우리 당과 합작할것을 결의해나섰다.

련석회의를 계기로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뭉친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은 망국단선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북반부인민들은 군중 집회와 시위를 련일 진행하면서 단독선거를 규탄하였으며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수백만의 애국적인민들도 여러가지 형태의 애국투쟁을 세차게 벌리였다. 로동자들은 《〈단선〉반대구국총파업위원회》를 조직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망국적인 《단선단정》책동을 반대하여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들에서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들에서는 인민들이 무장봉기를 일으켜 적의 폭압기구들을 파괴, 마비시키였다.

이에 당황한 미제는 남조선강점부대들에 전투태세를 갖출것을 명령하고 남조선전역을 계엄상태에 놓이게 한 다음 1948년 5월 10일 인민들을 총칼로 위협하면서 《단선》을 감행하였다.

격노한 인민들은 투표장을 들부시고 괴뢰경찰지서들을 습격하였다. 제주도에서는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선거》의 흉내조차 내지 못하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이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경상북도에서는 유권자의 겨우 10～20%만이 강압에 못이겨 투표장에 끌려나왔을뿐이며 다른 지방들에서도 사태는 거의 같았다.

남조선단독선거는 사실상 파탄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사기와 협잡으로 《선거》결과를 날조하고 미리 꾸며낸 각본에 따라 괴뢰국회와 괴뢰정부를 조작하였다.

미제의 총검에 의하여 조작된 괴뢰정권은 추악한 민족반역자들로써 꾸려진 매국적《정권》이며 철두철미 미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예속적인 《정권》이며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의 탐욕적리익을 대변하는 반인민적인 반동《정권》이였다. 이것은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산물로서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았다.

남조선괴뢰정권의 조작으로 말미암아 민족분렬의 위험은 극도

에 이르렀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새로운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다.

이러한 정세는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을 막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새로운 구국대책을 요구하였다. 남조선괴뢰정권이 현실적으로 권력행사를 하는 조건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범죄행위를 단죄하는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수 없었다. 조국을 구원하기 위한 주동적인 실천적대책이 요구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며 결정적인 구국대책을 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8년 6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에서 지체없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전조선적인 통일적중앙정부를 세워 조국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체없이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전조선최고립법기관을 세우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단독정부를 세울것이 아니라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써 전조선정부를 세워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4권, 356페지)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우리 인민자신의 손으로 전체 조선인민의 진정한 의사를 대표하는 국가주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는것은 더는 지체할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나섰다.

남북총선거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여야 미제에 의하여 조작된 남조선괴뢰정부의 비법성을 내외에 철저히 폭로하고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과 의사를 대표하는 합법적정권을 가질수 있으며 공화국의 기치밑에 전체 인민을 굳게 묶어세워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리고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었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는것은 원래 우리 당의 정치로선이였으며 이것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인 요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함으로써 우리 인민정권을 완전한 국가주권으로 발전시킬수 있었으며 따라서 우리 인민은 혁명의 더욱 강력한 무기를 가질수 있었다.

협의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방침이 나라에 조성된 엄중한 위기를 뚫고나가기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라는것을 일치하게 강조하였으며 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전체 인민을 지체없이 조직동원할것을 결정하였다.

1948년 8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주권기관을 세우기 위한 남북조선총선거가 실시되였다.

온갖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북반부에서는 인민대중의 정치적열의와 로력투쟁이 비상히 앙양된 분위기속에서 합법적으로 민주주의적선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남반부의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도 내외원쑤들의 악랄한 탄압과 암해 책동을 물리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적극 참가하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테로와 폭압에도 불구하고 전유권자의 77.52%가 선거에 참가하여 서명하는 방법으로 인민대표를 선출하였으며 선출된 인민대표들이 해주에 모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거하였다.

남북조선총선거의 빛나는 승리에 기초하여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가 평양에서 열리였다.

최고인민회의는 전인민적토의를 거쳐 전체 조선인민의 일치한 지지와 찬동을 받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으로, 국가수반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조직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강에서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대내외정책에서 자주성을

튼튼히 지키며 북반부에서 실시한 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축성하며 자주적국방력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들을 내놓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국가주권으로서 해방후 북반부에서 실현된 고귀한 혁명적성과들, 사회경제변혁들에 기초하여 수립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속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창건된 조선인민의 유일한 합법적국가주권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으며 자주독립국가의 기발을 높이 들고 세계의 대소민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당당히 나서게 되였다.

공화국의 창건으로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을 더욱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공화국의 창건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광명한 새 생활을 창조하며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체 조선인민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끝없이 높여주었다.

공화국의 창건은 또한 국제무대에서 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인민들에게 크나큰 고무를 주었으며 국제혁명력량과 우리 인민과의 련대성을 보다 튼튼히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으로 통일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제 6 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당은 북반부의 혁명적민주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면에 걸쳐 더욱 튼튼히 다지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북반부의 혁명적민주기지를 굳건히 다지고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 정치적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향도적력량이며 정치적참모부인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1949년 2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5차회의에서는 당 제2차대회후 하급당조직들의 9개월간의 사업정형을 총화하고 당대회에서 제시된 당건설의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며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토의하였다.

당은 이에 기초하여 당세포를 강화하고 당핵심대렬을 늘이며 당원들, 특히 간부들의 정치리론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그리고 당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치밀하게 조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일하며 내용이 없이 걸치레만 하는 형식주의적경향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이 과정에 당의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이 개선되고 당원들의 자각적열성과 적극성, 창발성이 높아졌으며 당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문제가 성과적으로 풀려나갔다.

당은 지역적 및 생산적 단위에 따라 자기의 조직체계를 더욱 정비하고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당의 지도와 통제 밑에 사업하는 체계를 튼튼히 세웠으며 중요 공장, 기업소들에는 당중앙위원회조직원제를 두었다. 그리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단체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후 정권기관들을 강화하는 사업이 각별히 중요하였다.

당은 각급 정권기관들의 조직체계와 사업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강화하고 엄격한 질서와 국가규률을 확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권기관들을 견실하고 유능한 일군들로 꾸리고 각 성들과 지방들에 정권기관 일군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각급 양성기관들을 설치하였으며 단기강습들도 조직하였다.

당은 정권기관들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게 하면서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우리 당과 인민정권의 위신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적대분자들은 공개적인 반항으로부터 은밀한 파괴암해책동으로 넘어갔다. 이자들은 비밀리에 반혁명집단들을 형성하려고 날뛰였으며 기관, 기업소들에 기여들어 악랄한 해독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원산철도공장을 비롯한 일부 공장, 기업소들과 기관들에서 오작사고들과 파괴사건이 자주 일어났다.

1949년 6월 당중앙위원회는 전체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여 혁명적경각성을 높이고 반혁명분자들을 반대하는 전군중적운동을 벌리도록 하였으며 인민정권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높여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을 철저히 적발숙청하게 하였다.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당원들과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이 높아졌으며 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이 제때에 분쇄되였다.

당은 공화국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은 1949년부터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2개년인민경제계획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발전속도를 더욱 높이며 아직까지 복구하지 못한 공장들을 다 복구하며 설비가 불완전한 공장들의 설비를 보충완비하며 조업하고있는 공장들의 설비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식민지적편파성

을 퇴치함으로써 자주적인 민족경제의 건설을 촉진하는것과 함께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용필수품들을 많이 생산할것을 예견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5권, 245페지)

2개년계획기간에 파괴된 공장들을 완전히 복구확장하고 필요한 공장들을 새로 건설하여 공업생산의 규모에서 해방전 수준을 훨씬 릉가하며 식민지적편파성을 현저히 퇴치하고 공업의 자립적기초를 축성할것이 예견되였다.

당은 인민경제계획수행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함에 있어서 증산경쟁운동을 발전시키는데 큰 주목을 돌리였다.

당조직들은 근로대중의 증산경쟁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집단적경쟁과 개별경쟁을 옳게 결합시키며 생산장성을 위한 투쟁을 경제절약과 로동생산능률제고를 위한 투쟁, 대중적기술창안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켰다.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경제지도일군들의 사업태도와 지도방법을 개선하고 그들의 사업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9년말부터 1950년초에 걸쳐 산업, 농림, 수산, 교통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부문별 회의들을 소집하시고 혁명이 추진되고 경제가 발전하는데 따라 조성되는 새로운 조건과 환경에 맞게 일군들의 사업태도, 사업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이를 위하여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대중의 앙양된 로력투쟁에 의하여 1950년 상반년까지 2개년계획에 예견되였던 생산과제들이 기본적으로 수행되였다.

중요 공장, 기업소들이 다 복구되였으며 현대적인 발전소, 야금공장, 기계공장, 방직공장들이 개건확장되였다. 그리하여 공업생산은 해방전 수준을 훨씬 넘어섰으며 식민지적편파성이 현저히 극복되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도 알곡생산이 해방전 최고수준을 뛰여넘었으며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도 높아졌다.

국영부문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국영부문과 협동조합부문, 개인경리부문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경제정책이 정확히 관철되여 1949년에 공업총생산액에서 국영 및

협동경리 부문의 비중이 90.7%를 차지하게 되였다.

새 조국 건설에서 가장 큰 난관의 하나였던 민족간부육성문제도 점차 풀려나갔다. 15개의 대학과 각종 전문학교 및 간부양성기관들이 창설되였으며 수많은 민족간부들이 새로 자라났다. 1950년 9월부터 전반적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할수 있는 준비가 되였으며 성인교육사업이 널리 벌어져 문맹자가 완전히 없어졌다. 또한 인민보건사업이 발전하여 인민들에 대한 의료상 방조도 훨씬 개선되였다.

당은 날로 우심해가는 미제의 침략책동에 대처할수 있도록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미제는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준비를 미친듯이 다그쳤으며 괴뢰도당을 부추겨 38도선에서의 무장도발을 날을 따라 더욱 격화시켰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어느 시각에 전쟁을 일으킬지 알수 없는 첨예한 정세는 원쑤들에 대한 경각성을 높이고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 어떠한 불의의 정황에도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출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당은 인민군대의 군사정치훈련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국방공업을 창설하여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개선하여나갔다.

당은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한편 인민자위대를 조직하고 조국보위후원회를 결성하여 전체 인민이 향토를 보위하고 인민군대에 대한 원호사업을 강화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인민군대와 힘을 합쳐 적과 싸울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공화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은 급속히 강화되였다.

이 시기 남조선의 형편은 날을 따라 더욱 험악해졌다.

미제는 괴뢰정부와 여러가지 《협정》들을 맺고 남조선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부문의 지배권을 틀어쥐였다. 미제의 사촉밑에 리승만괴뢰도당은 《북진통일》과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으며 《국가보안법》과 그밖의 파쑈적악법들을 만들어내고 괴뢰군과 경찰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인민대중의 구국항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놈들은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

을 금지하였으며 로동당원들과 애국자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남조선의 정세는 박헌영도당의 해독행위로 말미암아 더욱더 악화되였다.

남조선에서 당의 지도적자리를 차지하고있던 박헌영도당은 남조선정세에 맞게 당조직들을 건전하게 꾸려나갈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거듭되는 가르치심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이자들은 대중적당건설방침을 외곡하고 배타주의적으로 나아갔는가하면 또 그후에는 남조선당의 《위세》를 《시위》하려는 종파적야욕으로부터 출발하여 5배가, 10배가 운동으로 당장성사업을 무원칙하게 진행하여 당안에 많은 불순이색분자들이 기여들게 하였다.

박헌영도당은 혁명력량을 보존확대하는 기초우에서 비합법투쟁과 합법투쟁을 옳게 결합시켜 반미구국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원칙적인 방침을 지키지 않고 혁명에 아무런 리익도 줄수 없는 무모한 폭동을 마구 조직함으로써 당조직들을 다 드러나게 하고 수많은 애국자들이 원쑤들에게 학살당하게 하였다. 특히 려수를 비롯한 여러곳에서 무모한 군인폭동을 일으킴으로써 괴뢰군안의 혁명력량까지 다 말아먹었다.

당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훈련하지 않은 결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일부 당원들은 혁명이 어려워지자 투쟁을 포기하고 적들이 전향자들로 조작한 반동적단체인 《보도련맹》에 들어가는데까지 이르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가혹한 탄압과 박헌영도당의 해독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전면적파괴상태에 빠진 남반부의 당사업을 수습하고 남북로동당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더욱 튼튼히 보장하기 위하여 1949년 6월 북조선로동당과 남조선로동당을 단일한 조선로동당으로 합당하는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 당이 전면적으로 파괴되고 그 지도적지위에 있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북반부에 들어오고 또한 남조선에서 당의 합법적활동이 보장되지 못하는 조건에서 우리 당은 남반부에서의 당사

업을 강화하며 남북 로동당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더욱 튼튼히 보장하기 위하여 1949년에 공식적으로 남북 로동당을 합당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0권, 270페지)

북조선로동당과 남조선로동당의 합당은 남조선에서 전면적으로 파괴된 당조직과 혁명대오를 재정비하고 강화하며 북과 남의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북과 남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더욱 광범히 묶어세우기 위하여 1949년 6월 북조선과 남조선의 72개의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을 망라하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도록 하시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북조선과 남조선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망라되였던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는 물론 조국의 자주통일을 원하는 남조선의 수많은 중간 및 일부 우익 정당, 사회단체들까지도 망라한 유일한 전조선적인 통일전선조직이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결성됨으로써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을 하나의 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워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제 7 절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의 강화. 미제의 세계제패야망을 짓부시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당의 대외활동.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

당은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통찰하시고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을 정확히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외정책에 있어서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가 세계민주주의진영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히 하며 평등한 립장에서 우리를 대하는 여러 자유애호국가들과 친선적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4권, 441～442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자유애호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의 기본으로 제시하시였다. 이와 함께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짓부시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일본군국주의를 되살리려는 온갖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시였다.

당은 사회주의나라, 인민민주주의나라들과 국가적관계를 맺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리였다.

그리하여 1948년 10월부터 1950년 1월까지의 기간에 쏘련, 몽골, 뽈스까, 유고슬라비아, 로므니아, 체스꼬슬로벤스꼬, 웽그리아, 벌가리아, 알바니아, 중화인민공화국, 민주독일, 웰남민주공화국 등 민주진영나라들과 국가관계를 맺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창건하신후 몸소 정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사회주의나라, 인민민주주의나라들을 국가방문하시여 이 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전개하시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이 여러 국제기구들에 참가하여 적극 활동하게 하심으로써 공화국의 대외적권위를 높이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시였다.

우리 당은 미제의 세계제패야망을 짓부시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대외활동도 적극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2차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와 결론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당시 조성된 국제정세를 분석총화하시고 제국주의자들, 전쟁방화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 특히 미제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반제, 반미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해방자》, 《원조자》의 탈을 쓰고 전쟁정책을 추구하고있는 미제의 침략적정체를 간파하지 못하고 미제에 대한 환상을 갖고있거나 놈들의 위협공갈에 겁을 먹고 반제, 반미 투쟁을 포기하고있었던 형편에서 반제, 반미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세계혁명을 위하여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려면 국제반동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동시에 서부독일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저지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전세계평화애호력량이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국제로동계급이 단결하고 그 대렬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제, 반미 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에 기초하여 미제의 세계제패전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 사회단체들은 수많은 성명과 호소문 그리고 유엔과 국제단체들에 보낸 편지들에서 미제가 남조선을 영구강점하려는 목적밑에 《유엔조선위원단》을 조작하고 조선인민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비법적 《결의》를 날조하고있으며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 책동을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전면적으로 폭로규탄하였다. 이와 함께 세계평화옹호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들에 대표단들을 파견하여 미제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도처에서 침략과 전쟁도발에 미쳐날뛰고있으며 일본과 서부독일에서 군국주의, 파쑈세력을 재생시키기 위하여 책동하고있는 사실을 낱낱이 발가놓았다.

우리 당이 벌린 적극적인 대외활동은 국제적인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세계피압박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과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식민지, 반식민지 예속국가들에서 전례없이 앙양된 민족해방운동은 날을 따라 급속히 장성강화되여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었다. 우리 당은 세계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확고히 고수해나갔다.

우리 당은 중국혁명을 성심성의로 지원하였다.

미제의 사촉밑에 장개석도당은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한 기회를 리용하여 공산당이 더 큰 세력으로 장성되기전에 《소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전면공세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와 린접하고있는 중국동북지방은 공산당과 국민당간에 누가 누구를 하는 대격전장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중국혁명을 적극 지원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중국동북지방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중국인민들의 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지지성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우리 당은 새 조선 건설을 밀고나가는 그토록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육성된 유능한 지휘간부들과 유격대원들을 중국에 파견하는 한편 포련대와 공병부대까지 조직하여 동북해방전쟁에 보냈으며 많은 무기와 화약, 탄약, 식량을 비롯한 군수물자들을 지원하였다. 또한 1946년—1947년 기간 중국동북해방군이 어려운 고비를 겪고있을 때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를 대후방기지, 전략기지로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해방직후 중국혁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견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원들과 대원들은 중국동북지방의 여러곳에서 조선인부대들을 조직하였으며 중국동북해방전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동북해방전투에서 결정적승리를 가져오게 한 장춘해방전투와

길림, 사평, 심양 해방전투들에서 조선인부대들과 중국인부대안의 조선의 우수한 아들딸들은 돌격대적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수많은 희생을 내면서 피로써 중국혁명을 지원하였다. 조선인부대들과 중국인부대안의 조선의 우수한 청년들은 중국혁명전쟁의 전기간 동북의 연변, 목단강 지방으로부터 시작하여 장강을 건너 귀주성, 해남도에 이르는 수만리 해방전쟁의 장도에서 국제주의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우리 당은 프랑스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도지나인민들의 투쟁과 화란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인도네시아인민들의 투쟁, 영국제국주의자들의 무력간섭을 반대하는 희랍인민들의 투쟁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지지성원하고 고무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자본주의나라 근로자들의 투쟁에도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우리 당이 원칙적인 대외활동을 적극 벌려나가는 과정에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강화되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국제적지위와 역할이 급속히 높아졌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면서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은 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영향력이 대중속에 급속히 확대될수록 그리고 남조선에서의 정치경제적위기가 격화됨에 따라 《북벌》소동을 더욱더 요란하게 벌리면서 전쟁도발준비를 다그쳤다.

그들은 《후방안정》이라는 구실밑에 남조선사회의 파쑈화를 다그치면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모든 애국력량을 가혹하게 탄압학살하였다.

이와 함께 남조선청년들을 강제징집하여 괴뢰군병력을 대대적으로 늘이였으며 그 장비를 미국식으로 현대화하였다. 비행장들이 신설확장되고 비행장과 군항 사용권이 미군에 이관되였다. 38도선일대에 북침을 노린 공격진지를 대대적으로 구축하고 괴뢰군기본

력량을 38도선연선에 집중배치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이미 1947년부터 38선 무장침습을 빈번히 감행함으로써 사실상 조선침략전쟁의 막을 열었다. 놈들은 1949년에 이르러 《북벌군사전략계획도》를 작성해놓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장침습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1947년에 지상으로부터의 무장침습이 구분대규모의 병력으로 270여회 감행되였다면 1949년에는 부대, 련합부대 규모의 병력과 《특수부대》까지 동원하여 옹진반도의 국사봉과 까치산, 은파산, 개성의 송악산, 강원도의 양양 일대를 비롯한 38도선 전연선에 걸친 대규모적인 무장침습으로 확대되였다.

지상과 해상, 공중으로부터의 무장침습과 총포사격 회수는 무려 2,600여회에 달하였다. 적들은 우리 내부와 민심을 혼란시키고 괴뢰군주력부대들의 침공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호림부대》를 비롯한 《북진》돌격대까지 여러차례 공화국북반부에 침입시켰다. 그러나 우리 인민경비대의 적극적인 방어에 의하여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이 감행한 무장도발은 매번 참패를 면할수 없었으며 결국 1949년의 《북벌》계획은 좌절되고말았다.

1950년에 들어와 우리 나라 정세는 더욱 긴장해졌다. 미제는 리승만괴뢰도당을 일본에 불러다 일본군국주의자들과 결탁시키고 7월 이전에 전쟁을 도발할것을 지시하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조선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고 《5.30선거》에서 패배하여 수세에 빠지게 된 리승만괴뢰도당은 전쟁도발로써 정치적위기를 타개하려고 획책하였으며 미제는 리승만《정부의 붕괴위기》를 계기로 이미 작성해놓은 전쟁도발계획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였다. 괴뢰군의 대대적인 배비변경이 실시되고 38도선의 괴뢰군부대들은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일본주둔 미군도 조선출동준비를 갖추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당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적들의 기도를 파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는 혁명적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적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당의 평화적조국통일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5권, 288페지)

우리 당과 정부는 국방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전체 인민이 긴장된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우리 나라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이미 1949년 6월에 소집되였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에서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방책들을 밝힌 선언서를 채택하였다. 선언서에서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전조선립법기관을 세울것을 제기하였으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엔조선위원단》과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수시키며 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것을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에게 요구하였다.

선언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조국통일에 대한 조선인민의 불같은 념원을 외면하면서 더욱더 북침전쟁준비에 열을 올리였다.

당은 어떻게 하나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일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적극적인 방안들을 련이어 제기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인내성있게 벌리였다.

1950년 6월초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8.15해방 5돐을 계기로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북총선거를 실시할것을 제의하는 호소문을 북과 남의 모든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인민들에게 또다시 보내였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특별사찰경비》라는 사실상의 계엄령을 실시하여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평화통일제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검거투옥하면서 그 실현을 각방으로 방해하였다.

1950년 6월중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한편으로는 인민대중으로부터 극도로 고립된 괴뢰도당이 총

선거를 두려워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을 방지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지체없이 실현하려는 목적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를 련합하는 방법으로 전조선립법기관을 창설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은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의 이 모든 제의에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일으키는것으로써 대답하였다.

북반부에서는 1947년 2월에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인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수립됨으로써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시작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수립으로부터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기는 과도기 첫 시기로서 당은 이 시기에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주로 그 준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인민경제를 부흥발전시키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룩되였다.

당은 경제건설을 지도하면서 정치적령도조직으로서뿐아니라 건설자의 당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에 힘썼다.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북반부의 혁명적민주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굳건히 다지면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당은 북반부에서 달성한 정치, 경제적 성과와 북과 남의 민주력량의 광범한 단합에 기초하여 조선인민의 유일한 합법적국가주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인민민주주의제도의 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날로 격화되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원쑤들의 그 어떠한 침략책동도 즉시에 쳐부실수 있는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어나가면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제 7 장
조국해방전쟁승리를 위한 당의 투쟁. 당대렬의 확대와 당의 조직사상적강화
(1950. 6—1953. 7)

제 1 절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전쟁도발과 조국해방전쟁의 개시. 나라의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 조선인민군의 반공격과 남반부 넓은 지역의 해방

오래동안 침략전쟁을 준비하여온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괴뢰도당은 1950년 6월 25일 이른새벽 38도선 전역에 걸쳐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불의의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적들은 해주, 금천, 철원 및 그밖의 여러 방향들에서 38도선 이북지역으로 쳐들어왔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경비대에 침입하는 적들을 시급히 격퇴할것을 명령하는 한편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에게는 침략행위를 즉시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은 전쟁의 불길을 더욱 확대하는 길로 나갔다. 놈들은 단숨에 인민군방어진지를 돌파한 다음 평양—원산계선을 점령하고 이어서 급속히 압록강 및 두만강 지역까지 진출함으로써 《전격전》의 방법으로 북반부전역을 강점하려고 기도하였다.

미제의 전쟁도발로 조국의 평화통일의 길은 막히고 조선인민은

전쟁의 엄혹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은 엄중한 위협을 받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사태의 엄중성에 비추어 1950년 6월 25일 내각비상회의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소집하시고 침략자들을 징벌할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내각비상회의에서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무력침범자들을 소탕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적의 침공을 분쇄하고 즉시 전전선에서 반공격으로 이행할것을 명령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우리 인민군대는 적들의 진격을 좌절시키고 지체없이 반공격에로 넘어갔으며 전체 인민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성스러운 싸움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전쟁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조국해방전쟁, 민족해방전쟁이였으며 인민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계급투쟁이였다.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또한 미제를 비롯한 세계반동의 련합세력을 반대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튼튼히 지키기 위한 치렬한 반제반미투쟁이였다.

자기의 국가주권과 정규군을 가지게 된지 오래지 않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상대로 전쟁을 한다는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이였으며 엄혹한 시련이였다. 그러나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는 일제의 백만대군을 물리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진두에 서계심으로 하여 미제침략자들을 반드시 타승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에 차넘쳐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기대 속에서 전쟁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전체 조선인민을 전쟁승리에로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0년 6월 26일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

를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방송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송연설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전쟁에서 노리는 침략적목적과 조선인민이 진행하는 전쟁의 정의적성격을 명백히 하시고 인민군장병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전쟁승리를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조선인민은 또다시 외래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거든 리승만매국〈정권〉과 그 군대를 타도분쇄하기 위한 구국투쟁에 다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6권, 1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송연설에서 전쟁승리를 위한 전투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장병들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며 남반부를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며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바쳐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북반부 전체 인민들은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후방을 철옹성같이 다지며 전선에 요구되는 온갖 물자와 식량을 충분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또한 남반부인민들은 유격투쟁을 강화하여 적의 후방을 교란하고 폭동, 파업, 태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국방군》장병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총부리를 돌리고 인민의 편으로 넘어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송연설은 전인민적, 전민족적 전쟁으로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영예를 수호하기 위한 혁명적인 방침과 과업들을 뚜렷이 밝혀준 강령적지침으로,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을 원쑤격멸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로 되였다.

당은 지체없이 나라의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전선과 후방을 강력한 전투대오로 꾸리기 위한 정치, 경제, 군사적 대책

들을 취해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군사위원회가 조직되여 나라의 모든 주권과 일체 권력이 이에 집중되였으며 전선과 후방의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게 되였다.

당중앙위원회는 1950년 6월 27일 전체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여 전시환경에 맞게 당사업을 개편하고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며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강화하고 모든 당원들이 군사지식을 습득하며 어떤 조건에서도 원쑤들과 싸울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출것을 호소하였다.

국가보위와 사회질서 및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시상태가 선포되고 전시동원령이 실시되였으며 모든것을 전쟁승리에로 기동성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강력한 전시동원체계가 확립되였다.

당, 정권기관 및 사회단체 사업도 개편되여 전시조건에 맞게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일수 있게 되였다.

당은 당파와 정견,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를 막론하고 미제를 반대하는 모든 애국력량을 단결시켜 원쑤를 쳐부시는 투쟁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사업을 당의 중요한 전략적과업으로 제기하고 통일전선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전시환경에 맞게 경제를 전시체제로 개편하는 사업도 지체없이 실현되였다. 가능한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군수품을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로 전환되고 새로운 병기공장들을 창설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며 전시경제의 요구에 맞게 년간계획이 조절되고 분기별 계획으로 전환되였다. 철도운수부문의 군사화가 실현되고 농촌사업에 많은 힘이 돌려졌다.

당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웠다.

항일혁명투사들과 우수한 당원들이 인민군대에 수많이 파견되였으며 인민군대의 지휘체계가 전시에 맞게 개편되였다. 새 사단들을 편성하여 후비병력을 준비하는 사업도 빨리 추진되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전쟁이 시작된후 두달도 못되는 사이에 근 85만명의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전선을 탄원하여나섰으며 주요공장지구들에서는 로동계급이 로동자련대를 뭇고 전선으로 나갔다.

이와 같이 하여 매우 짧은 기간에 온 나라가 전시체제로 개편되고 전당, 전군, 전민이 하나의 전투대오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전체 인민이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승리를 위한 현명한 군사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전략적방침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대병력이 동원되기전에 리승만괴뢰군대와 이미 우리 강토에 침입한 미군을 짧은 기간에 소탕하고 조국땅을 완전히 해방하며 우리의 무력을 전국각지에 기동성있게 배치함으로써 미제의 증원부대가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전략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높은 기동과 련속적인 타격, 신속한 우회기동과 포위소멸, 산악전과 야간전, 대소부대배합전, 군종, 병종들의 긴밀한 협동작전을 주요한 전법으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전전선에서 반공격으로 이행한 인민군부대들은 빠른 속도로 진격하였다. 주타격방향의 인민군부대들은 개성과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를 해방하였으며 6월 28일 새벽에는 서울해방을 위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류경수가 지휘한 땅크련합부대가 돌격로를 열어놓은데 뒤이어 보병련합부대들이 적을 정면과 익측, 배후로부터 타격하면서 시가에 육박하여 그날 오전중에 서울을 완전히 해방하였다.

서울해방은 적들을 붕괴의 위기에 몰아넣었으며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에게는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방침에 따라 인민군부대들은 적들이 새로운 계선에서 방어를 강화할 사이없이 놈들에게 련속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진공속도를 높여나갔다.

미제는 저들의 공군과 해군의 지원밑에 남조선괴뢰군을 앞세워 공화국북반부를 단숨에 침공하려던 첫 시도가 실패되자 이미 세워진 계획에 따라 비행대와 함대를 증강하는 한편 지상부대를 대대적으로 조선전선에 들이밀었으며 추종국가의 고용군대들까지 끌어들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미제는 이 범죄적인 침략행위를 《합

법화》하기 위하여 우리 공화국대표도 참가하지 않고 쏘련대표와 중국의 합법적대표도 참석하지 않은, 실제상 성립도 되지 않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벌려놓고 부당한 《결의》를 날조하였다. 그리고는 저들의 침략군대와 추종국가군대들로 《유엔군》을 조작하였다.

미제의 무력침공이 본격화됨에 따라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더욱 준엄해졌으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반대하는 전쟁으로 확대되였다.

당은 변화된 군사정치정세에 대처하여 전선의 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들을 세웠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조직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시였다.

전선사령부도 조직되여 김책이 그 사령관으로 임명되였으며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와 군대안에서의 정치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선지휘기관들에 군사위원들이 파견되고 군사위원회가 조직되였다. 미제의 증강되는 침략무력에 대처하여 새로운 해안방어부대들과 예비부대들이 편성되였으며 각 도에 방어지역군사위원회가 조직되고 전인민적방위체계가 세워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0년 7월 8일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물리치자》라는 력사적인 방송연설을 통하여 유엔의 간판을 도용한 미제의 흉악한 책동과 야수적본성을 낱낱이 폭로하시면서 전체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미제침략자들을 더욱 무자비하게, 결정적으로 격멸소탕할것을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은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미제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과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그들을 원쑤격멸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을 전선을 지원하기 위한 투쟁에로 한사람같이 조직동원하였다.

로동자들은 여러가지 형태의 전시증산경쟁운동을 줄기차게 벌리였으며 적기의 맹폭격속에서도 공장과 직장을 목숨으로 지키면서 전시생산을 보장하였다. 철도, 자동차 운수부문 일군들은 적기의 야만적폭격을 무릅쓰고 무비의 희생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전시수

송을 보장하였다. 농민들은 더 많은 식량을 전선에 보내기 위하여 식량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였으며 파괴된 도로와 교량을 복구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전선수송을 도와나섰다.

남반부의 해방지역인민들도 전시생산과 전선수송을 보장하면서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하였으며 45만명에 이르는 남반부의 애국적 청년, 학생들이 의용군에 나갈것을 탄원하였다.

인민군용사들은 전인민적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남진하였으며 오산계선에서 기술적우세를 자랑하는 미제침략군 지상부대와 첫 전투를 벌려 적들에게 참담한 패배를 안겨주었다.

바빠맞은 적들은 금강좌안에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유지하며 대전을 군사전략적요충지로 강화하여 전쟁국면을 역전시켜보려고 발악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의 작전적기도와 적아의 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련속타격으로 적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말며 금강을 단숨에 강행도하하여 적의 증원부대들이 전선에 기여들기전에 대전지역에서 적의 대집단을 포위소멸할 대담한 작전을 펼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선사령부에 나가시여 몸소 작전을 지휘하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지휘와 령활한 전술에 의하여 적들이 《불퇴의 선》이며 《최종방어선》이라고 호언장담하던 금강방어진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인민군부대들은 적의 주력을 대전으로 압축하였다. 그리하여 대전은 적아쌍방의 치렬한 결전장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론산계선에 진출한 인민군부대들을 감쪽같이 대전동남쪽으로 우회기동시켜 적의 퇴로와 증원부대의 진격로를 차단하게 함으로써 대전에 대한 포위를 실현하시였다. 이어 소부대를 시내에 진입시켜 적들을 일대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동시에 주력부대로 하여금 각 부대와 병종들간의 긴밀한 협동작전밑에 대전의 적을 정면과 익측에서 타격하게 하시였다.

인민군부대들은 드센 공격을 들이대여 이른바 《상승사단》이라

고 자랑하던 미제침략군 제24사단을 완전히 포위소멸하고 7월 20일에는 대전을 해방하였다.

대전해방작전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몸소 창조하신 령활한 주체전법을 현대전의 조건에 능숙하게 구현한 위대한 작전이였으며 각 병종부대들의 긴밀한 협동작전밑에 정면공격과 익측 및 배후 타격, 민첩한 기동과 우회, 차단과 습격, 대소부대배합전과 같은 다양한 전투 형식과 방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진행한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이였다.

대전해방작전의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군사예술과 인민군대의 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으며 미제침략군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여지없이 깨뜨려버리였다.

대전일대에서 참패한 미제침략자들은 대구, 부산 계선으로 패주하였으며 락동강계선에 새로운 방어지대를 구축하여 인민군대의 진격을 막아보려고 기도하였다.

그런데 이때 군사분야에서의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후과가 심하게 나타나고있었다. 일부 련합부대와 부대들은 산악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조건에 맞게 적을 우회하여 포위소멸할 대신 대도로를 따라 적을 정면으로만 밀고나갔으며 적의 항공습격과 기동로가 제한된 산악조건을 구실로 보병과 포병사이의 협동작전을 조직하지 않고 주로 보병만을 전투에 내밀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편향을 바로잡아주시기 위하여 1950년 8월초 천여리 포연탄우속을 헤치시며 충주 남쪽의 수안보에 자리잡은 전선사령부로 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휘관, 정치일군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전략적 및 작전적 방침관철에서 나서는 중요문제들과 그 해결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해독적후과를 엄격히 지적하시면서 대도로를 따라 적을 정면으로만 밀고나갈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산길과 산릉선을 타고 적의 익측과 후방으로 우회하여 적을 대대적으로 포위소멸하며 부대들의 공격속도를 더욱 높여 적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말고 계속 추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

다. 특히 야간전투행동을 강화하며 포병화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선지도에 무한히 고무된 인민군장병들은 과감한 전투행동으로 적을 포위소멸하면서 질풍같이 남으로 진격하여 적들을 경상남북도 한구석의 좁은 지역에 몰아넣었다. 이리하여 전쟁이 시작된지 불과 한달 남짓한 동안에 우리 인민군대는 남조선괴뢰군의 기본력량과 미제침략군의 주력을 소멸하고 남반부지역의 90%이상과 인구의 92%이상을 해방하였다.

우리 당은 해방된 남반부지역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제도를 청산하고 민주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가렬한 전투가 진행되는 전시환경에서 민주개혁을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이였다. 거기에다가 미제의 고용간첩 박헌영, 리승엽 도당은 서울에서 《토지조사위원회》, 《의용군본부특수부》와 같은 테로단체들을 조작하고 수많은 애국자들과 당원들을 암살하였으며 당정책관철을 각방으로 방해하였다.

당은 해방된 남반부지역의 복잡한 사태를 고려하여 경험있는 우수한 간부들과 정치공작원들을 수많이 파견하여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도와주도록 하였다.

당의 현명한 조치에 의하여 각지에서 당조직들과 정권기관, 근로단체들이 짧은 시일안에 복구되였으며 군, 면, 리(동) 인민위원회선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그리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토지개혁이 수행되였으며 로동법령과 남녀평등권법령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민주주의적시책들이 실시되였다.

이리하여 해방된 남반부의 넓은 지역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반동통치제도가 청산되고 인민민주주의제도가 세워졌다.

남반부인민들은 오래동안 흠모하여마지 않던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 안겨 새 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선 크나큰 행복과 기쁨을 안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뭉쳤으며 미제를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에 더욱 견결히 일떠섰다.

후방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전선의 인민군부대들은 미제침략자들을 완전히 격멸하기 위하여 락동강좌안에 압축된 적집단을 강력히 타격하면서 적들의 《부산근거지》를 최종적으로 소탕할 새 작전을 벌리였다. 인민군부대들은 락동강을 서부와 북부에서 강행도하하여 적종심깊이에 진출하였으며 9월초에는 대구와 경주를 위협하였다.

락동강에서 적아간의 공방전은 더욱더 치렬해졌다.

제 2 절
전쟁의 일시적난국의 타개. 전전선에서의 새로운 반공격. 혁명적규률의 강화와 후방의 복구정비

1950년 9월중순에 이르러 나라의 군사정치정세는 급변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국이 조성되였다.

미제는 수치스러운 참패를 만회하는 동시에 전조선을 강점하려는 침략목적을 기어이 실현해보려고 태평양방면의 륙해공군을 총동원하고 지중해함대의 일부와 영국을 비롯한 추종국가 및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무력까지 조선전선에 끌어들여 인천지구와 락동강계선에서 《총공세》를 감행하였다.

적들은 특히 인천지구에 대병력을 상륙시켜 인천, 서울, 원주일대를 장악함으로써 우리의 전선과 후방을 차단하며 락동강계선에서의 미8군의 공세와 배합하여 인민군주력부대들을 《포위소멸》하고 짧은 시일안에 전조선을 강점하려고 기도하였다. 적들의 인천상륙작전에는 5만여명의 대병력과 300여척의 함선, 약 1,000대의 비행기가 투입되였다.

인천—서울지구방어임무를 맡은 우리의 용감한 전투원들은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비할바없이 우세한 적들을 상대로 간고한 전투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당원들을 핵심으로 한 우

리의 영웅적방위자들은 무비의 용감성과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면서 원쑤들을 맞받아 싸웠다. 월미도해안포중대 영웅전사들은 적들이 미친듯이 퍼붓는 폭탄과 포탄으로 섬이 활화산처럼 타번지는 가운데서도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수십수백배나 되는 적들과 맞서 결사전을 벌리였으며 불과 4문의 포로 인천의 관문을 3일간이나 지켜냄으로써 놈들의 상륙작전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인천과 서울 시가에서도 가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인민군전투원들과 함께 시민들도 떨쳐나서 손에 무장을 들고 적과 싸웠다. 인천, 서울 지구 방위자들은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함으로써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의 침공을 14일간이나 저지시켰다.

락동강계선의 인민군부대들도 대대적으로 증강된 적과 맞서 치렬한 방어전을 벌리였다.

그러나 전선형편은 적아간의 력량상 현저한 차이로 하여 아군에 불리하게 급변하였다. 그리하여 전쟁은 제2계단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계단에 있어서 우리 당의 전략적방침은 적들의 진공속도를 최대한으로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쟁취하여 인민군주력부대들을 구출하고 새로운 후비부대들을 편성하여 강력한 반공격집단을 형성하며 계획적인 후퇴를 조직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6권, 128페지)

전쟁 제2계단의 전략적방침은 변화된 군사정치정세에 대처하여 인민군주력부대를 보존하고 신속히 새로운 반공격집단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미제침략자들에게 새로운 결정적타격을 줄수 있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침이였다.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락동강전선부대들은 련합부대들 호상간의 익측과 린접점을 믿음직하게 보장하면서 공격으로부터 재빨리 방어에로 넘어갔다. 인민군부대들은 형언할수 없이 간고한 조건에서 영웅적으로 싸워 적의 발악적인 《총공세》를 분쇄하면서 조직적인 기동을 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도로를 따라 공격하는 적의 약점과 우리 나라 지형의 특성을 고려하시여 전선부대들로 하여금 련합부대단위로 기동방어를 하면서 산줄기를 타고 조직적으로 후퇴하도록 하시였다. 이 전술은 인민군부대들이 대전, 서울 방향으로 무질서하게 퇴각하리라고 믿었던 적의 예측을 뒤집어놓았으며 인민군주력부대를 《포위소멸》하려던 미제의 기도를 완전히 파탄시키였다.

목적을 이루지 못한 적들은 모든 병력을 38도선 돌파에로 내몰았으며 10월초에는 세계 진보적여론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38도선을 넘어 공화국북반부에로 침입해들어왔다.

조성된 정세는 일시적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할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9월 27일 도당위원장협의회를 소집하시고 당의 전략적방침 관철에서 나서는 당단체들의 과업을 밝히시였으며 10월 11일에는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사수하자》라는 력사적인 방송연설을 하시여 조국의 한치의 땅도 피로써 지켜싸울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송연설에서 인민군장병들은 우리의 도시와 농촌을 수호하기 위하여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바쳐 싸우며 후방인민들은 전시생산투쟁을 강화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전선에 대한 공급을 보장하며 부득이 후퇴하는 경우에는 모든 물자와 철도운수수단을 옮겨 한대의 기관차, 한대의 차량, 한알의 쌀도 적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또한 적후에서 유격투쟁을 광범히 벌려 적의 지휘부를 기습소탕하고 보급선을 끊으며 적의 통신수단들을 파괴하고 창고와 군수물자에 불을 질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은 우리 인민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온 가장 어려운 시기에 허세를 부리며 우리를 위협공갈하는 적들에게 단호한 타격을 주고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에게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그들을 원쑤격멸을 위한 영웅적투쟁에로 더욱 용감히 떨쳐나서게 하였다.

인민군용사들은 38도선계선과 원산, 양덕, 평양 일대에서 밀려

드는 적을 맞받아 영웅적으로 싸움으로써 놈들의 진공속도를 지연시키고 인민군주력부대와 인민들의 조직적후퇴를 보장하였으며 반공격집단을 편성할수 있는 시간적여유를 얻어내였다.

락동강계선에서 후퇴의 길에 올랐던 인민군주력부대들은 앞뒤에서 달려드는 적들을 대담하게 기습소탕하면서 짧은 시일안에 전략적후퇴의 임무를 수행하고 지정된 지역에 집결하였다.

공화국북반부지역에 기여든 미제침략자들은 강점지역들에서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설사 그대들앞에 있는것이 어린애나 로인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의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 죽이라!》 이것이 바로 미제침략군 제8군사령관놈이 자기 고용병들에게 한 명령이였다.

적들은 일시적강점지역에 극악한 파쑈적폭압체제를 세우고 반동분자들을 긁어모아 《치안대》, 《멸공단》과 같은 반동단체들을 조작하였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로동당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남녀로소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총살하고 불태워죽이고 생매장하였다.

미제야수들은 신천군 한개 군에서만도 전체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000여명을 학살하였다. 그리고 발길이 닿는 모든곳에서 교육, 문화, 보건 기관과 시설들을 파괴하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슬기와 창조적재능이 깃들어있는 귀중한 력사유물들을 파괴략탈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일시적강점지역들에서 감행한 만행은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서는 상상할수 없고 세계력사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잔인무도한것이였다. 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성은 히틀러나쑈군대를 훨씬 더 릉가하였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의 그 어떠한 야수적만행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을 결코 굴복시킬수 없었다.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적강점지역들에서 유격대들을 광범히 조직하여 맹렬히 활동하도록 이끌었다.

지하당조직들은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조직하고

지도하였다.

고원, 구월산, 문천, 곡산, 맹산, 린제, 철원, 안변, 홍남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서 지방당단체들의 지도밑에 인민유격대가 조직되여 유격투쟁을 과감히 벌리였다. 인민유격대들은 산악지대에 의거하여 활동하면서 적의 주요 거점들과 집결처들을 습격하였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운수수단과 전투기자재들을 파괴, 소각하였다. 또한 적의 유생력량을 부단히 소멸하는 한편 반동통치기구들을 처부시고 악질반동분자들을 처단함으로써 적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하였으며 인민들에게는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공화국영웅 조옥희를 비롯한 수많은 녀성들과 나어린 소년들까지도 강점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으며 청소년들은 청소년근위대를 뭇고 곳곳에서 침략자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우리 당원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감옥과 교수대에서도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않았으며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굴함없이 싸웠다.

당은 일시적인 전략적후퇴를 조직하는 한편 전반적인민군부대들을 정비, 확대, 강화하며 강력한 반공격집단을 꾸리는 사업에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인민군부대들의 대오는 곧 정비강화되고 새로 많은 예비대들이 편성되였다. 전투에서 단련된 주력부대들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갓 편성된 부대들을 편입시킴으로써 짧은 시일안에 강력한 새 군단들이 조직되고 반공격집단의 기간력량이 꾸려지게 되였으며 주력군단과 함께 예비군단들도 준비되였다. 적의 기술적우세를 능히 분쇄할수 있도록 각 군종, 병종 부대들을 새로운 전투기술기재로 장비하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였다. 특히 공군건설에 큰 힘이 돌려지고 포병, 땅크, 반항공 부대를 비롯한 기술병종부대들이 더욱 확대강화되였다.

당은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였다. 인민군대안에서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적기능을 높이고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1950년 10월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으로 개편하였으며 각 부대안의 문화부를 정치부로 개편하고 부대, 구분

대들에 전반적으로 당단체들을 조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반공격을 준비하시면서 정규군의 련합부대들로 적후에 강력한 第2전선을 형성하는 사업을 조직지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력부대들이 반공격으로 넘어갈 때 第2전선부대들은 적극적인 적후투쟁을 벌려 적의 뒤통수를 타격하여야 합니다. 주력부대들의 반공격에 합세하여 적후부대들이 맹렬한 배후타격을 들이대면 적들을 큰 포위망에 몰아넣고 모조리 소멸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第6권, 169페지)

적의 종심에 정규군련합부대들로 第2전선을 펴고 기본전선과의 긴밀한 배합작전으로 적을 앞뒤에서 타격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전법은 세계전쟁력사상 전례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주체의 전법이였다. 이 전법은 적후련합부대들로 하여금 전쟁의 상치단계에 있어서는 적후방을 교란하고 해방지역을 확대하며 적의 보급선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하다가 기본전선의 련합부대들이 반공격으로 넘어갈 때에는 기본전선에 배합하여 적을 대포위속에 몰아넣고 등뒤로부터 타격소멸하게 하는 위력한 전법이였다.

第2전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현을 비롯하여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된 우수한 간부들이 적후에 파견되였으며 적후로 들여보낸 부대들과 후퇴하던 부대들이 대련합부대를 편성하여 중부조선의 넓은 지대를 차지하고 10월중순부터 적극적인 적후투쟁을 벌리였다. 지방인민유격대들도 第2전선부대들과 함께 반공격작전에 참가할 임무를 받았다.

적후부대들은 황해도와 강원도, 평안남도 일대에 근거지를 창설하고 과감한 전투를 벌려 많은 지역을 해방하였으며 령활한 전법으로 끊임없이 적의 배후를 타격하여 적의 보급선을 끊고 수많은 유생력량과 전투기술기재를 소멸하였다. 적들은 第2전선부대를 미군의 《배속의 암》이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기본전선에서 한개 군단의 병력을 떼내여 보급선에 배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부대들은 잠

은 기간에 반공격으로 넘어갈수 있는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었다.

이 시기 국제정세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변되여갔다. 특히 형제적중국인민들은 자기 조국의 안전을 보위하고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미원조보가위국》운동을 힘있게 벌리였으며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지원군을 조직하여 조선전선에 파견하였다.

1950년 10월하순부터 전쟁은 제3계단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쟁의 제3계단은 우리 인민군대가 중국인민지원군 부대들과 함께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적의 유생력량을 대량적으로 섬멸하면서 적들을 38선이남까지 구축하는 시기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6권, 181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전쟁 제3계단의 전략적방침은 적의 공격을 좌절시킨 다음 전전선에서 반공격으로 넘어가 침략군대를 대량적으로 소멸하면서 적을 공화국북반부지역에서 완전히 몰아내며 우리의 력량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1950년 10월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군관, 장령회의를 소집하시고 《새로운 반공격준비를 철저히 갖추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전략적후퇴정형을 총화하신후 전쟁승리의 요인을 밝히시고 새로운 반공격준비를 갖출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패배주의, 비관주의적 경향과 무규률적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부대의 대렬을 정비하며 인민군대안의 당정치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공격준비를 위하여 먼저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반타격전을 조직지휘하시였다.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부대들은 10월하순부터 11월초

순에 걸쳐 전선서부에서는 청천강이북에 기여든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었으며 전선동부에서는 황초령, 부전령, 어랑천 일대에서 완강한 방어전을 벌려 적의 공격을 저지시키였다. 그리하여 이해의 《감은절》인 11월 23일전으로 압록강까지 침입하겠다던 적들의 기도는 산산이 부서졌으며 아군부대들은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전전선에 걸쳐 반공격에로 넘어갈수 있게 되였다.

아군부대들의 새로운 작전에 의하여 적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공격기도를 버리지 않고 이번에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전으로 조선전쟁을 끝내겠다고 떠들면서 이른바 《크리스마스총공세》를 감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의 모험적인 공격기도와 군사적약점을 꿰뚫어보시고 전전선에 걸쳐 결정적인 반공격에로 넘어갈것을 명령하시였다.

아군부대들은 1950년 11월하순 총반공격에로 넘어가 적의 력량이 집결된 청천강부근에서와 장진호반에서 대포위섬멸전을 벌려 적의 공격집단을 괴멸시켰다. 적후의 제2전선부대들은 평양—개성, 평양—신계, 양덕—원산 사이의 도로를 장악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적의 중간방어조직과 증원부대의 진출을 파탄시켰다. 아군부대들은 패주하는 적들에 대한 적극적인 추격전과 포위섬멸전을 벌려 1950년 12월말에는 공화국북반부의 적강점지역을 완전히 해방하고 남반부의 일부 지역까지 해방하는 빛나는 전과를 거두었다.

전선의 형편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그러나 미제는 저들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미국본토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한편 조선에서 《원자탄사용도 고려중》이라고 위협하면서 새로운 군사적모험에 매달렸다.

조성된 군사정치정세는 전선과 후방을 더욱 공고히 하며 특히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에 일부 나타났던 무질서를 수습하고 당, 국가기관 및 군대안의 사업을 개선강화하며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규률을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0년 12월에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력사적인 보고 《현정세와 당면과업》을

진술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와 결론에 기초하여 반년동안의 전쟁행정을 분석총화하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당면한 정치, 경제, 군사적 과업들을 토의결정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군사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 모든 군사활동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벌릴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이 적극적인 추격전과 포위섬멸전을 벌릴데 대한 군사적과업들을 제시하시면서 각급 지휘부의 지휘능력을 높이고 산악전, 야간전과 적후투쟁을 강화하며 보병과 포병의 협동작전을 잘 조직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리고 후비부대와 기술병종들을 더욱 빠른 속도로 훈련시키며 훈련에서도 이미 있는 규정에만 매여달릴것이 아니라 이번 전쟁에서 얻은 산 경험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적들의 일시적인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지역들에서 당, 정권기관 및 근로단체들을 시급히 정비하며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고 인민생활을 안정시키며 전선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특히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에 나타났던 무규률적인 현상과 온갖 부정적경향들을 엄격히 비판하고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규률을 철저히 세우며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쑤들을 격멸하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는 우리 당이 그 어느때보다도 규률을 더욱 강화하며 당중앙위원회주위에 전당을 철통같이 묶어세우는것입니다.

당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는 강력한 규률이 전당을 지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6권, 205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규률을 약화시키는 온갖 경향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하며 난관에 부닥칠수록 혁명적규률을 더욱 강화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튼튼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선전선동사업과 대중단체지도사업, 우당들과의 통일전선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들을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적들이 일시적강점지역들에 끼쳐놓은 정치사상적악영향을 청산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반동단체가담자들을 정확히 처리하기 위한 대책도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내세웠다.

전쟁이 날로 더욱 가렬하여짐에 따라 반당종파분자들과 일부 타락분자들은 우리 인민의 힘을 믿으려 하지 않고 국제적지원에만 매달리려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경향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조선의 주인은 우리 조선사람이며 따라서 누가 어떻게 도와주든지간에 우리 문제는 우리자신의 손으로 해결하고 승리는 우리의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는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에 조성되였던 무규률적현상들을 극복하고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확립하며 군대와 후방을 강화하여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긴절한 과업들을 결정한 매우 중요한 회의였다.

전원회의는 특히 혁명적규률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당, 국가, 군대안의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를 열어놓았다.

전원회의후 당은 혁명적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당적으로 조직진행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와 그 이후시기에 당의 명령, 지시를 어기고 당, 국가 및 군사 규률을 위반한 모든 현상들이 신랄히 폭로비판되였으며 온갖 동요와 자유주의, 무책임성을 반대하는 강한 사상투쟁이 벌어졌다. 이 행정에서 온갖 무규률적현상이 극복되고 당, 국가기관 및 군대안에서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규률이 튼튼히 서게 되였으며 당의 통일단결과 전투력이 강화되였다.

당은 군사분야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세

우는데 큰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인민군부대들에서 곡사포와 박격포들이 증강되고 산악전과 야간전을 잘할수 있게 무장장비가 개선되였으며 산지, 야간 훈련이 강화되고 해군과 공군 부대들에서는 기뢰부설, 야간폭격 훈련에 힘을 넣게 되였다.

당은 후방을 정치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당은 적의 일시적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지역들에서 당조직들을 신속히 복구하고 정비강화하였으며 당원재등록사업을 진행하였다. 당은 이 과정을 통하여 불순분자, 비겁분자, 이색분자들을 적발숙청하였으며 매개 당원들의 사업정형을 전반적으로 료해하고 일부 당원들이 범한 과오를 비판시정시키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당대렬의 순결성이 보장되고 당원들의 당생활이 정상화되였으며 당조직체계가 다시 튼튼히 서게 되였다.

당은 인민정권기관들과 군중단체들을 복구정비하는 사업도 빨리 진척시켜나갔다.

당은 북과 남의 민청과 직맹, 녀맹 등 대중단체들을 통합하고 통일전선사업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 민주당, 청우당안의 적지 않은 당원들이 반동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 당을 반동적정당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비판시정되였으며 우당들에 대한 우리 당의 영향력이 강화되였다.

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하면서 반혁명분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를 강화하였다.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원칙에 따라 적대계급출신으로서 우리 제도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악질적으로 행동한자들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독재를 실시하였으며 기본계급출신으로서 적들의 위협과 기만에 넘어가 반동단체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피동적으로 행동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관대히 용서하고 포섭하였다.

또한 자수정책을 실시하여 비록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죄과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스스로 솔직히 자백하는 사람들은 관대히 용서하였다. 그리고 법적절차를 거쳐 인민대중자신이 직접 반혁명분자들을 심판하고 처벌하게 함으로써 원쑤

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동시에 대중의 계급적각성과 투쟁기세를 높이였다.

반혁명분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를 통하여 대중의 혁명적 자각과 열의가 높아지고 광범한 군중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게 되였으며 민족내부에 불화의 씨를 뿌리고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려던 미제의 교활한 책동은 여지없이 분쇄되였다.

당은 후방을 복구정비하면서 적들의 일시적강점과 략탈, 야수적인 폭격으로 하여 극도로 령락된 인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큰 힘을 넣었다.

전재민구호위원회가 조직되여 전재민들에게 식량과 의복을 공급하는것과 같은 여러가지 구호대책들이 취해졌으며 애국렬사유가족과 인민군대 후방가족을 위하여 국가적 및 사회적 원호사업이 광범히 조직되고 영예군인들과 애국렬사유자녀들, 전재고아들을 위하여 영예군인학교들과 유자녀학원, 애육원, 초등학원들이 세워졌다.

공장들이 복구되고 생산합작사들이 많이 조직되여 생활필수품생산이 늘어났으며 국영 및 소비조합 상업망들이 빨리 복구되여 상품류통이 증가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적들의 야수적인 파괴와 략탈로 말미암아 극도로 령락되였던 인민생활은 급속히 안정되여갔다.

후방이 복구정비되여감에 따라 인민군부대들의 전투력이 강화되고 전투성과도 계속 확대되였다.

인민군부대들은 1951년 1월말—6월초에 걸쳐 38도선일대에서 끊임없는 소모전과 여러차례의 강력한 반타격전, 적극적인 적배후교란활동을 벌려 적의 유생력량과 전투기술기재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쟁 제3계단의 전략적 임무는 빛나게 수행되였다.

제 3 절
적극적인 진지방어전. 당조직사업에서 좌경적편향을 극복하고 당대렬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투쟁

1951년 6월에 이르러 전선은 38도선계선에서 교착되고 전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38도선이남으로 쫓겨간 미제침략자들은 여러차례의 발광적인 대규모작전을 벌려보았으나 차례진것은 막대한 인적 및 물질적 손실뿐이였다. 온갖 군사적모험에서 련속 참패를 당한 미제침략자들은 하는수없이 38도선계선에 주저앉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침략의 야망을 버리지 않은 미제는 다시 력량을 수습하고 비행대와 포화력을 대대적으로 높이면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였으며 지상에서 현 전선을 돌파하며 동서해상으로 상륙작전을 감행하려고 기회만 노리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군사정치정세에 대처하여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선차적임무는 전선을 공고히 하는것입니다. 미제의 대규모적인 무력증강책동에 의하여 조국해방전쟁이 장기성을 띠게 된 조건에서 완강한 진지방어전을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6권, 457페지)

전쟁 제4계단의 전략적방침은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을 벌려 이미 차지한 계선을 견지하고 적을 끊임없이 타격소멸하는 한편 시간을 쟁취하여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한층 강화하고 후방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모든 조건을 마련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을 상대로

하여 적극적인 방어전을 벌릴수 있도록 진지를 갱도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군사활동을 벌릴데 대한 독창적인 전법을 내놓으시였다.

갱도화된 진지는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부대지휘를 보장하고 적의 공중 및 지상 감시와 전파탐지로부터 부대를 위장하며 적의 각종 타격으로부터 인원, 무기, 전투기술기재를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게 한다. 그뿐아니라 반돌격과 습격전을 비롯한 적극적인 전투행동도 원만히 준비하고 수행하며 갱도진지를 출발선으로 하여 전반적부대들의 반공격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갱도를 기본으로 한 적극적인 진지방어전법은 방어의 견고성과 적극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수적,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을 무력하게 만들어 피동에 빠뜨림으로써 전쟁의 주도권을 계속 튼튼히 틀어쥘수 있게 하는 위력한 전법이였다.

인민군부대들은 전선과 해안방어지대들에서 적들과 치렬한 전투를 벌리면서 진지의 갱도화를 다그쳤다. 그러나 당시 전선사령부에 잠입한 반당종파분자들은 《운동전》, 《기동전》을 운운하면서 갱도진지의 굴설을 의식적으로 태공하였으며 전선의 포화력을 후방에 이동시키는 해독행위를 감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당종파분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본질에 있어서 투항주의적반역행위라고 규탄하시고 갱도를 기본으로 하는 강력한 방어진지를 꾸리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는 한편 현대전의 요구와 산악지대가 많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인민군대의 기술장비를 개선강화하며 포화력, 특히 곡사화력을 더욱 증강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시였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의 지형적특성과 전쟁의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적의 기술적우세를 짓부시기 위한 여러가지 새 전법을 창조하시였으며 특히 습격조, 저격수조, 비행기사냥군조, 땅크사냥군조, 이동포병중대, 독립중기조 등의 활동을 강화하여 방어의 적극성을 높이도록 하시였다.

그 결과 전연과 동서해안에는 요새화된 갱도진지들이 구축되고 그에 의거한 보병과 포병의 협동작전이 강화되였으며 주체의 전법에 기초한 인민군부대들의 군사활동이 더욱 적극화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선에서 거듭되는 참패를 당하고 더는 헤여

날수 없는 궁지에 빠지게 되자 1951년 6월말 우리측에 정전담판을 제의하여왔다.

적들의 정전담판제의는 결코 미제가 침략적야욕을 포기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였다. 적들은 정전담판을 제의함으로써 시간을 얻어 날로 더욱 심각해지는 정치군사적곤경에서 벗어나보려고 꾀하였으며 마치도 제놈들이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바라는듯이 가장함으로써 미제의 조선침략을 규탄하는 세계인민들의 목소리를 무마해보려고 시도하였다. 미제는 정전담판의 막뒤에서 침략무력을 증강하여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는 한편 전쟁에서 이루지 못한 침략목적을 정전담판을 통하여 달성해보려고 간교하게 책동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이러한 음흉한 기도를 꿰뚫어보시고 정전담판에 대한 우리 당의 립장과 태도를 명백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정전담판에만 기대를 걸고 평화적분위기에 사로잡혀있을것이 아니라 장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정전을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전이 달성되지 못하면 장기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7권, 248～249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의 리익에 맞지 않는 불합리하고 공정치 못한 정전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는 단호한 립장을 표명하시면서 정전은 오직 우리의 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적들의 침략행위를 결정적으로 짓부시는 때에만 실현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1951년 7월 10일부터 시작된 정전담판행정은 미제의 교활성과 침략적본성을 더욱 똑똑히 보여주었으며 놈들의 음흉한 기도를 그대로 드러내보이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저들의 공군과 해군의 《우세》를 떠들면서 그 《보상》으로 군사분계선을 현 지상대치선보다 훨씬 북쪽에 설정하여야 한다는 황당하고 파렴치한 주장을 들고나왔으며 그것이 우리의 정연한 론리와 단호한 태도에 의하여 일축되자 정전담판을 일방적으로 파탄시키고 새로운 군사적공세를 감행하는 길로 나아갔다.

적들은 1951년 8월중순부터 대규모적인 《하기 및 추기 공세》를 감행하였다.

적들은 마치도 전선서부에서 대공세를 감행할듯이 가장하면서 은밀히 전선동부에 대병력을 투입하였으며 지상부대의 공격에 배합하여 동해안의 원산, 통천 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써 전선 동, 중부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악지대를 장악하려고 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간계를 꿰뚫어보시고 적들의 주타격방향이 전선서부가 아니라 동부라고 가르치시면서 전선서부의 련합부대를 신속히 전선동부에 기동시키고 중요고지들에는 강력한 방어지대를 형성하게 하시였으며 예비부대를 조성하고 동해안방어를 더욱 강화하게 하시였다. 특히 1211고지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꾸리도록 이끄시였다. 1211고지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지였다. 만일 이 고지를 적들에게 내주게 되면 금강산을 빼앗기게 되고 원산까지 잃게 되며 해안으로 상륙하려는 적들의 기도를 파탄시킬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211고지를 강화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9월하순에 몸소 화선천리길을 헤치시고 그 계선에 나가시여 지휘관들과 《1211고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담화에서 1211고지를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전연고지와 해안진지의 갱도화를 완성하고 습격조활동을 강화하며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포화력조직을 잘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 그들의 전투사기를 높일데 대한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에 무한히 고무된 1211고지 방위자들은 방어지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직사포들을 고지에 더 많이 끌어올려 조선식포화력조직을 하였으며 전연방어밀도를 더욱 높이였다.

전투원들의 사기를 한층더 높이기 위하여 당정치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전투를 앞둔 전호마다에서는 당회의와 민청회의들이 진행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수많은 편지와 맹세문들

이 채택되였다.

적들은 1211고지를 돌파하려고 막대한 무력을 집중하였으며 하루에도 평균 3만~4만발의 폭탄과 포탄을 퍼부으면서 발악적으로 공격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211고지전투를 지휘하시면서 고지에서 싸우는 인민군전투원들의 건강과 침식에 대하여 친어버이사랑으로 하나하나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어버이사랑에 감격한 고지의 영웅적방위자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사신이 되여 싸웠다. 리수복영웅을 비롯한 영웅전사들은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았고 수류탄묶음을 안고 서슴없이 적들속으로 뛰여들어갔으며 파도식으로 하루에도 수십차례나 공격해오는 적을 화력과 육박전, 맹렬한 반돌격으로 소멸하였다. 전투는 말그대로 피의 격전이였다.

후방인민들도 한발의 포탄, 한알의 쌀이라도 더 많이 1211고지에 보내주기 위하여 불비속을 뚫고 탄약과 식량을 운반하였으며 고지의 전투원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싸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작전지휘와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1211고지는 영예롭게 사수되고 적들의 《하기 및 추기 공세》는 완전히 파탄되였다.

조선인민군이 이룩한 이 빛나는 승리는 갱도진지에 의거하여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벌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군사전략적방침의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하였으며 주체전법의 위력앞에서는 미제의 그 어떠한 큰 규모의 공세도 파탄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돌이킬수 없는 참패를 거듭하게 된 미제는 1951년 10월하순 다시 정전담판장에 기여나오게 되였으며 군사분계선 확정과 비무장지대 설치에 대한 우리측의 합리적인 제안을 접수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교활하고 음흉한 미제침략자들은 포로송환문제에서 《자원송환》이라는 구실밑에 우리측 포로들을 강제억류하려는 부당한 주장을 들고나와 담판을 계속 지연시키면서 그 막뒤에서 또다시 새

로운 군사적모험을 준비하였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선과 후방에서 긴장한 투쟁이 계속됨에 따라 당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더한층 강화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그런데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에 적들이 끼쳐놓은 후과들을 청산하며 당조직들을 복구정비하는 과정에 좌경적편향이 심하게 나타나 당대렬을 확대강화하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 사업에 큰 저애를 주고있었다.

한때 당의 지도적자리에 있던 허가이를 비롯한 교조주의자, 사대주의자들은 로동자성분비률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고있는 근로농민들과 근로인테리들을 당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동자와 군인들에 대하여서도 수준이 낮다느니, 근무년한 부족이니 하는 여러가지 부당한 구실을 붙여 당문을 닫아매는 심한 관문주의적경향을 나타내고있었다. 또한 당규률을 강화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 결정집행을 무원칙한 책벌주의로 대신하였으며 수많은 당원들을 출당시켰다. 이자들은 또한 당내민주주의를 억제하고 심한 관료주의, 형식주의적 사업작풍을 퍼뜨리였다. 이 모든것은 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는 우리 당을 약화시키며 당대렬을 조직적으로 와해하는 취소주의적경향이였으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해독행위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자들이 저지른 해독행위와 그 후과의 엄중성을 제때에 포착하시고 당사업에서 나타난 좌경적편향을 바로잡기 위하여 1951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당단체들의 조직사업에서의 몇가지 결함들에 대하여**》와 《**당조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보고와 결론을 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와 결론에 기초하여 당조직사업에서 나타난 좌경적오유들을 비판하고 대중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성격에 맞게 당대렬을 확대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중요하게 토의결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하고 로동계급의 사상과 그의 령도적역할을 견결히 보전하면서 각계각층 인민의 애국적선진분자들을 당대렬에 받아들여 당을 대중적으로 확대강화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6권, 474페지)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속에서 당대렬을 확대하여 당을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일관한 조직로선으로서 전시에 조성된 환경은 그것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것을 요구하였다. 많은 당원들이 전선으로 나갔고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에 적지 않은 당원들이 희생된 조건에서 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자라난 근로인민의 선진분자들을 널리 당에 받아들여야만 당대렬을 끊임없이 보충하고 당을 더욱 광범한 대중적당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그들을 전쟁승리에로 더욱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좌경관문주의적경향을 배격하고 당장성사업을 옳게 조직진행하여 전쟁행정에서 검열된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들과 군인, 근로인테리들을 당에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근로농민을 널리 받아들인다면 우리 당이 소자산계급화되고 농민당으로 될것이라고 우려하는 교조주의적견해를 엄격히 비판하시고 농민이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나라의 사회계급관계를 보아 로동자비률만 따지고 근로농민들을 당에 널리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참다운 대중적당으로 발전할수 없다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대렬을 빨리 확대해나가되 당장성사업을 캄빠니야식으로 진행할것이 아니라 당규약에 따라 개별적입당절차를 엄격히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전원회의는 책벌주의적경향을 철저히 시정하고 당안에 자각적인 규률을 세울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조직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무원칙한 책벌로 대신하려고 하는 경향을 분석비판하시고 당책벌을

주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당원들을 교양하여 그들이 다시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부당하게 적용된 당책벌은 취소하고 지나치게 준 처벌은 시정하며 사업에서 열성을 내는 당원들의 책벌은 빨리 벗겨주는 동시에 당원들의 정치의식수준을 더욱 높여 그들이 당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세포핵심을 육성하는 사업, 실지사업을 통하여 간부들을 양성하는 사업, 신입당원들에 대한 교양사업 등 당을 질적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통일전선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도 중요하게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통일전선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좌경배타주의적편향을 비판하면서 통일전선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층통일뿐아니라 하층통일을 강화하여 상층에 남아있는 일부 동요분자의 동요를 저지시키고 불순분자를 고립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우당원들을 정치, 경제, 문화 사업에 적극 인입하여 그들속에서 우리 당의 영향을 강화하며 각 정당, 사회단체의 모든 력량을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더 잘 조직동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당조직사업과 통일전선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의 주요원인이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가 우리 당의 위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일부 일군들의 관료주의적, 형식주의적 사업작풍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반대하는 전당적투쟁을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는 사대주의, 교조주의로부터 산생된 당조직사업에서의 좌경적오유를 극복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대중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성격에 맞게 당대렬을 확대강화하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데서 전환적계기를 열어놓았다.

당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후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좌경관문주의와 책벌주의의 후과를 가시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그리하여 전선과 후방에서 애국적 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한 로동자, 농민, 군인 및 근로인테리들 가운데서 수십만의 우수한 선진분자들이 새로 당에 들어왔으며 전원회의가 있은 다음 1년동안에 우리 당은 100만명이상의 당원을 가진 강력한 대오로 장성하게 되였다.

또한 수많은 당세포핵심들이 자라나 당조직이 튼튼히 꾸려졌으며 잘못 적용되였던 당책벌이 시정되고 당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이 비상히 높아졌다.

통일전선사업도 개선되여 우당원들속에서 우리 당의 영향력이 더한층 강화되였으며 로동당에 대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가 더욱 두터워졌다.

당은 제4차전원회의결정에 따라 모든 부문에서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52년 2월 도, 시, 군인민위원회위원장 및 당지도일군련석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현계단에 있어서의 지방정권기관들의 임무와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인민정권의 성격과 특징, 그 기능과 임무를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인민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내놓으시였으며 특히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관료주의는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을 억압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반인민적통치방법으로서 그것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제도에서는 용납될수 없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부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일부 정권기관일군들은 자기가 인민의 충복이라는것을 잊어버리고 일제시기의 관리와 같이 행세하면서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였다. 그들은 군중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대신 호령만 하고 아래실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내려먹이기만 하였으며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을 철저히 뿌리뽑지 않고서는 인민정권기관을 공고발전시킬수 없고 당과 인민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할수 없었으며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발동시켜 그들을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인민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인민의 리익을 존중히 하며 인민에게 호령할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복하고 교양하며 항상 인민에게서 배우며 인민을 위하여 성심성의로 복무할줄 아는 진정한 인민의 일군이 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7권, 42페지)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을 철저히 뿌리뽑고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는것은 인민정권기관일군들앞에 나선 특별히 중요한 과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2월연설은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부문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세우는데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와 력사적인 2월연설에 기초하여 각급 당조직들은 일부 일군들속에서 나타난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을 반대하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세우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 투쟁속에서 반당분자들이 끼쳐놓은 사상여독과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들이 날카롭게 비판되고 탐오, 랑비를 비롯한 온갖 부정적현상들이 철저히 폭로비판되였다. 그리하여 사업방법과 작풍이 현저히 개선되고 지도사업이 아래에 접근되여 당 및 정권기관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가 더욱 튼튼해졌다.

당은 전쟁이 장기화되여감에 따라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모든 면에 걸쳐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인민군대안의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군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짧은 기간에 14만여명의 우수한 청년군인들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인민군대안의 당대렬이 급

속히 장성강화되고 인민군대오는 정치사상적으로 굳건히 다져졌다.

당은 현대전의 특성과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 그리고 군인들의 체질적특성에 맞게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개선강화하는데도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1952년에 이르러 인민군대는 량적으로 3배 장성하였으며 포화력과 보병의 자동무기화력이 증강되여 매 보병사단의 화력은 그 전해에 비하여 160%로 늘어났다. 고사포화력과 비행대의 활동이 강화되고 비행기사냥군조의 역할이 적극화되여 적비행대는 마음대로 행동할수 없게 되였다.

당은 지휘관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각급 군관학교와 강습소들을 신설확장하고 군관 양성 및 재교육에 많은 힘을 넣었다. 그 결과 1952년 한해동안에만도 전체 지휘관의 거의 절반이 재교육을 받았으며 수많은 지휘관들이 새로 양성되였다. 인민군부대들에서는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전법과 실전을 통하여 얻은 풍부한 전투경험에 기초하여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였다.

인민군대를 질적으로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높이는데서 1951년 10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발기하신 모범중대창조운동이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모범중대창조운동을 통하여 인민군대의 기본전투단위이며 세포인 중대들이 질적으로 강화되였으며 전반적으로 인민군대의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지고 보다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벌릴수 있게 되였다.

전선부대들은 습격조와 저격수조 활동, 땅크사냥군조와 이동포병중대 활동을 강화하여 수많은 적유생력량과 전투기술기재들을 소멸파괴하고 적들로 하여금 늘 공포에 떨게 하였다.

전선에서 거듭 참패를 당한 미제침략자들은 이무렵 국제법의 규범들과 초보적인 인간도덕마저 란폭하게 유린하고 화학무기와 세균무기를 사용하는 범죄적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어떠한 야만적인 전쟁방법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을 놀래울수 없었으며 우리의 기동적인 반화학전, 반세균전에 의하여 여지없이 파탄되고말았다.

궁지에 빠진 미제침략자들은 이해 10월 우리측 포로를 강제억

류하려는 시도가 파탄되자 정전담판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김화계선에서 발광적인 공세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 일대를 방어하고있던 중국인민지원군 부대들은 강력한 화력지원과 완강한 반돌격으로 적들에게 결정적타격을 주고 전략적요충지인 상감령을 영웅적으로 지켜냈다. 린접한 인민군련합부대들은 적의 고지들에 대한 강한 타격전을 벌림으로써 김화방향에 집중하는 적의 력량을 분산시켰으며 전선지구 인민들은 지원군용사들을 헌신적으로 원호하였다.

가렬한 전투를 통하여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사이의 전투적우의는 더욱 두터워졌으며 전투사기는 날로 높아갔다. 이와 반면에 미제고용병들속에서는 염전사상이 만연되고 탈주병수가 늘어났으며 미군과 추종국가군대들사이의 알륵과 모순이 더욱 격화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더욱더 궁지에 빠져들어갔다.

제 4 절
전시생산과 전후복구건설준비사업의 적극적 추진. 미제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며 세계 혁명적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당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전시생산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가렬해지면서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한 전선수요는 날로 높아갔으며 다양하여졌다. 증대되는 이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문제로 되였다.

당은 이로부터 적들의 맹폭격이 계속되는 그 간고한 조건에서도 전시생산을 보장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당은 무엇보다 농촌에 힘을 집중하고 농업생산을 높이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식량이 많아야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령락된 인민생활을 안정시킬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7권, 209페지)

도시와 공업시설들이 혹심하게 파괴된 조건에서 농촌은 가장 중요한 후방기지로 되였다. 농촌에 힘을 집중하여 농업생산을 늘이지 않고서는 전선에 식량을 제대로 보낼수 없고 인민생활을 안정시킬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의 우수한 력량을 농촌에로!》라는 구호를 내놓으시고 유능한 지도력량을 수많이 농촌에 파견하시였으며 농촌사업을 강화하는데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집중하도록 하시였다.

당은 전시식량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대책을 세웠다.

로력과 부림소의 부족을 해결하고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농민들속에서 품앗이반, 소겨리반을 널리 조직하고 로동자, 사무원, 학생, 군인들로 로력협조대를 무어 영농사업을 적극 도와주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다수확운동, 녀성보잡이운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였다.

전선에 린접하고있는 강원도일대에서는 청장년들로 《전선공동작업대》들을 광범히 조직하여 적과 싸우면서 토지를 공동경작하여 전시생산과 전선원호사업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비료의 부족은 자급비료로 극복하게 하였고 식량과 종곡이 없는 농민들에게는 대여곡과 종곡을 보내주도록 하였다.

당은 또한 모든 난관을 이겨내면서 농기계임경소들을 늘이였으며 전재민들로 국영농목장들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전쟁기간에 농기계임경소수는 3배로, 국영농목장수는 5.7배이상으로 늘어났다.

당은 전시식량증산을 위하여 1952년 1월에 전국다수확농민열성자대회, 축산일군열성자회의를 소집하여 농업증산투쟁에서 얻은 성과를 총화하고 우수한 경험을 일반화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1년 3월 평안남도내 여러 농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며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다》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농민들을 전시식량증산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으며 1952년 5월에는 평안남도 대동군 동암면 원화리를 찾으시여 농민들에게 전시 식량증산을 위한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우리 나라에서 농촌경리의 협동화의 전망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에 무한히 고무된 농민들은 적비행기의 맹폭격속에서도 봄갈이와 씨뿌리기,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 등 모든 영농작업을 제철에 원만히 보장하였다. 전선지대와 해안연선의 농민들은 무장작업대를 조직하고 기여드는 적들과 싸우면서 농사를 지었다. 농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시농업생산이 성과적으로 보장되고 전선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었다.

당은 온갖 난관을 이겨내면서 전시공업생산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당은 공장, 기업소들을 안전지대에 분산소개하고 중요생산설비들을 지하에 이설 혹은 신설하여 전시조건에서도 생산을 계속하도록 하였으며 도처에 소규모의 공장들을 꾸렸다.

로동자들은 생산시설들이 마사지고 자재와 원료가 모자라는 형편에서도 모든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면서 여러가지 형태의 전시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들은 산골짜기에 소형용광로까지 차려놓고 쇠물을 뽑으면서 각종 무기와 포탄, 탄약을 비롯한 군수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였으며 철도부문 로동계급들은 밤낮을 이어 파괴된 철길과 철다리, 차굴들을 복구하면서 전시중송경쟁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였다.

당은 경공업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다. 복구, 이설된 경공업기업소들이 생산을 계속하게 하는 한편 개인들의 생산수단과 로력을 합치는 방법으로 생산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도록 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전시생산에

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1952년에 국영 및 협동단체 공업총생산액은 1951년에 비하여 19%, 알곡총수확고는 13% 높아났으며 철도화물수송량은 13% 장성하였다.

당은 인민들의 생활안정에 큰 힘을 넣었다.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고 부업경리운영조건도 보장해주었으며 195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였다. 후방인민들속에서는 전재민구호사업과 전재고아를 맡아키우는 운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그리하여 전쟁의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인민들가운데는 굶어죽거나 얼어죽는 사람은 물론 거리를 헤매는 고아도 찾아볼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전시생산을 위한 투쟁을 전후복구건설준비사업과 결부시켜 진행하도록 이끄시였다.

1952년 6월, 락원기계제작소 주철직장 당세포총회에 참가하시여 로동자들과 전후복구건설사업을 의논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만 끝나면 자기들이 모든것을 더 훌륭히 건설해낼터이니 전후복구건설에 대하여서는 너무 근심하지 마실것을 삼가 말씀드린 한 녀성당원의 소박한 말에서 우리 인민의 강의한 의지를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로동계급, 이러한 인민이 있는 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수 있으며 전후복구건설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가지시고 그 준비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시였다.

1951년부터 희천, 구성, 덕천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현대적인 기계공장들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전쟁기간에 공작기계, 정밀기계, 광산기계 공장들과 자동차부속품공장을 비롯한 새 기계공장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여러개의 전기공장과 조선소들이 조업을 개시하였으며 금속, 전기, 석탄, 화학, 건재 공업과 같은 기간공업부문들을 복구하기 위한 준비사업도 적극 추진되였다. 그리고 강남요업공장을 비롯한 건재공장들이 마련되였으며 평양시 복구건설총계획도가 작성되였다.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의 실태조사사업과 그 복구건설계획 및 설계작성사업, 나라의 자연부원과 대자연

개조를 위한 조사사업도 진행되였다.

당은 전시 농업과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속에서 도시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시켜나갔다.

195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는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의 싹을 키우며 빈농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업생산협동조합을 조직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당은 새로 조직된 일부 부업생산협동조합들이 부업뿐아니라 농사일까지 공동으로 하도록 이끌었으며 농민들속에서 널리 조직보급된 협동적로력조직형태들을 점차 사회주의적인 농업협동조합으로 발전시키였다. 그리하여 1953년 7월 현재 농업협동조합은 102개, 부업생산협동조합은 72개에 달하였다. 당은 또한 더욱 많은 수공업자들을 생산협동조합에 망라시켜 생산협동조합의 수를 현저히 높이였으며 소비협동조합의 역할도 높이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경제형태의 지위는 확대강화되였으며 앞으로 생산관계의 전면적인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게 되였다.

당은 전쟁의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민족간부양성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중단함이 없이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나날이 가렬해지는 조건에서도 전선에 나간 교원들과 대학생들을 부르시여 교육사업을 계속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각급 학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였으며 전선에서 수많은 전투원들이 소환되여 대학에서 공부하게 됨으로써 전후복구건설의 모든 부문에 요구되는 기술자, 전문가들이 준비되여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시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포연탄우를 헤치시고 몸소 김일성종합대학과 중앙당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과 간부양성기관들을 찾으시여 민족간부양성방향을 밝혀주시고 교수교양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과학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계속하도록 온갖 조건을 마련해주시였다.

1952년 4월에는 몸소 과학자대회를 소집하시고 앞으로 전후인

민경제복구발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의 방향과 과학자들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1952년 12월에는 과학원을 창설해주시였다.

이렇듯 언제나 혁명발전의 앞길을 환히 내다보시면서 당면과업과 혁명의 전망적요구를 밀접히 결합시켜 해결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와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전쟁의 환경속에서도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전쟁승리에로 효과적으로 동원할수 있었으며 필승의 신념을 안고 적을 타승해나갈수 있었다.

우리 당은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를 전쟁승리에로 조직동원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미제를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을 수행하는 우리 인민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지지와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전시대외활동방침을 명확히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침략전쟁에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전세계에 폭로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력사상 류례없는 놈들의 온갖 야수적만행을 인류앞에 구체적으로 폭로함으로써 미제야수들을 더욱 철저히 고립시켜야 하겠습니다.

…

우리는 쏘련, 중화인민공화국 기타 인민민주주의국가들과의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6권, 203～20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시대외활동방침은 미제의 침략적정체를 온 세계에 폭로하여 놈들을 국제무대에서 철저히 고립시키며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혁명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함으로써 전쟁승리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이였다.

우리 당은 전시대외활동방침에 따라 무엇보다 미제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대외활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은 전쟁이 개시되자 공화국정부성명을 통하여 전쟁도발자로서의 미제의 정체를 세계인민들앞에 낱낱이 폭로하고 조선문제에 관한 유엔의 《결의》가 전적으로 부당하며 무효이라는것을 단호히 선포하였다. 그리고 괴뢰정부의 비밀문서고에서 압수한 범죄적문건들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세계 여러 나라 정부들에 전달함으로써 미제야말로 조선전쟁의 도발자라는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였으며 세계인민들로 하여금 조선전쟁이 미제의 침략적인 극동정책과 대조선정책의 산물이였다는 사실을 인식할수 있게 하였다.

당은 조선에서 감행한 미제의 온갖 만행을 세계에 널리 폭로함으로써 세계인민들이 미제의 야수성과 부패성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며 숭미사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에 힘썼다.

당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국제법과 인류도덕의 초보적인 규범마저 짓밟고 조선의 도시와 농촌, 문화후생시설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며 남녀로소 가림이 없이 평화적주민들을 대중적으로 학살하며 세균전과 화학전 등 온갖 야수적만행을 다 감행한 미제의 범죄행위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세계에 널리 폭로하도록 하였다.

당은 미제의 범죄적만행을 국제적인 공동조사를 통하여 폭로규탄하는 활동도 벌리였다.

1951년 5월, 국제녀맹조사단이 우리 나라에 와서 미제가 감행한 야수적만행을 조사확인하였으며 1952년 3월에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이, 7월에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세균학 및 생물학 박사, 교수들을 중심으로 무어진 국제과학자조사단이 조선에 와서 미제의 세균전 및 화학전 만행을 조사하여 그 범죄적사실을 세계에 공포하였다.

당은 세계대전을 도발하려는 미제의 전쟁확대음모를 전면적으로 폭로하고 일본과 서독 군국주의를 재생, 재무장시키는 범죄적책동을 세계면전에 낱낱이 발가놓았다.

우리 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은 숭미, 공미 사상에 물젖어있던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그들을 반미투쟁에 나서게 함으로써 미제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우리의 동정자, 지

지자 대렬을 확대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전쟁에서의 미제의 정치도덕적참패를 촉진시켰다.

당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 혁명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적극 벌리였다.

당은 무엇보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와 협조를 각 방면으로 발전시켜나갔으며 당, 정부 및 기타 친선대표단의 호상방문과 재외대표부의 활동을 통하여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의 친선을 강화해나갔다.

당은 또한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의 침략성과 반동성을 폭로규탄하면서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정의의 해방위업과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의 투쟁, 각국 인민들의 평화옹호운동을 적극 지지성원하였으며 국제민주단체들과의 련대성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갔다.

당은 특히 전시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평화옹호세계대회와 세계평화리사회회의, 아세아 및 태평양지역 평화옹호대회,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비롯한 여러 국제 회의들과 행사들에 대표단을 보내여 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적극 벌리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전쟁승리에로 전당, 전군, 전민을 조직동원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우리 나라를 방문한 수많은 나라 대표단과 국제민주단체 대표단, 평화인사들과 기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반미, 평화옹호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해주시였으며 우리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시였다.

우리 당의 정확한 대외정책과 우리 위업의 정당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지지성원은 날로 강화되였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조선인민과 한전선에서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정부성명과 선언, 각종 출판보도수단들

을 통하여 혹은 유엔무대를 리용하여 미제의 침략책동을 견결히 반대항의하고 그자들의 죄행을 걸음마다 폭로규탄하였으며 미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온갖 야수적만행을 준렬히 단죄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중국,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은 전쟁이 개시된 첫날부터 우리 인민의 투쟁에 물심량면으로 되는 국제주의적지지성원을 보내여왔으며 싸우는 조선인민에게 사심없는 지원을 줌으로써 계급적형제이며 반제반미투쟁의 한전선에 선 전우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은 《조선원조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우리 인민의 투쟁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 그들은 《조선인민과의 단결주간》을 설정하고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는 전군중적운동을 벌리였으며 《김일성브리가다》, 《조선작업반》 등을 조직하여 생산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 원조자금과 지원물자를 마련하여 우리 인민들을 도와주었다.

국제민주단체들도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운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세계직업련맹과 세계민청 및 국제녀맹은 《조선인민과의 적극적단결주간》, 《조선에 대한 미제침략반대운동주간》, 《조선옹호주간》 등을 설정하고 이 기간에 세계 여러 나라의 산하조직들에서 반미캄파니야와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운동을 벌리도록 하였다.

조선인민에 대한 련대성운동은 식민지예속국가들과 자본주의나라 평화애호인민들속에서도 벌어졌다.

서구라파의 많은 나라 인민들은 미제는 《조선에서 손을 떼라!》는 구호를 들고 파업과 시위투쟁을 단행하면서 반미반전운동을 벌리였다.

아세아의 자본주의나라 로동자들은 미제의 전쟁물자의 적재와 하차 및 수송을 거부하는 투쟁을 벌리였으며 군용차량들을 파괴하였다.

라틴미주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의 혁명적인민들은 미제의 고용군으로 자기 나라 군대를 조선전선에 파견하는것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아세아의 여러 나라 청년들은 우리 인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전선탄원운동을 벌리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진보적 정당, 단체, 개별적인사들은 성명, 선언, 담화 등을 발표하여 조선인민과 어깨결고 싸워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면서 미제의 무력간섭을 견결히 규탄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고무하는 편지와 함께 옷, 식료품, 의료기구, 의약품 등 지성어린 원호물자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벌린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미제는 국제적으로 더욱더 고립되고 우리의 벗은 날을 따라 늘어났으며 전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보다 유리한 국제적환경에서 진행되게 되였다.

제 5 절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 당원들의 당성제고와 박헌영도당의 숙청. 전쟁의 최후 승리를 위한 투쟁

거듭되는 심대한 군사정치적패배로 말미암아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어간 미제침략자들은 최후발악을 하면서 새로운 대규모적인 공세를 시도하였다.

새로 대통령자리에 들어앉게 된 호전광 아이젠하워는 1952년 12월초에 남조선에 기여들어 전선을 《시찰》한후 《신공세》흉계를 꾸미였다.

미제는 《신공세》를 통하여 지상전선에서의 공격과 함께 동서량해안에서의 상륙작전과 종심에 대한 공수작전을 감행함으로써 또다시 공화국북반부 깊숙이 침입하려고 망상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중국본토에 대한 공격과 《원자탄의 전술적리용》도 계획하였다. 적들은 《신공세》를 위하여 수많은 함선과 비행기 그밖의 전투기술기재들과 막대한 병력을 새로 증강하는 한편 장개석군대까지 조선전선에 끌어들이려고 책동하였다.

조성된 정세는 적들의 새로운 군사적공세를 짓부시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였다. 무엇보다도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당의 전투력을 높이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원쑤와의 결정적인 싸움에 떨쳐나서도록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였다.

1952년 12월에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가 소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당의 조직적사상적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에서 제4차전원회의후 당사업에서 거둔 성과와 나타난 부족점들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과업들을 내놓으시였다.

전원회의는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에 기초하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원들의 당성단련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세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성을 강화한다는것은 매 로동당원이 당에 무한히 충실하고 당사업에 적극적이며 혁명의 리익과 당의 리익을 자기의 제일생명으로 알고 개인의 리익을 이에 복종시키며 어느때, 어느곳,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당의 리익과 당의 원칙을 고수하며 일체 반당적이고 반혁명적인 사상들과 타협없이 투쟁하며 당조직생활을 잘하고 당의 규률을 철저히 지키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부단히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7권, 412페지)

당성은 한마디로 말하여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우리 당원들의 당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각성이며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다.

당원들의 당성을 강화하는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하며 그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요구로 된다. 그것은 특히 난관이 겹쌓이고 높은 혁명적헌신성이 요구되는 전시조건에서 그리고 제4차전원회의이후 당대렬이 빨리 늘어나 당적훈련이 부족한 신입

당원들이 많아진 조건에서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부 당원들가운데서 나타나고있는 당성이 부족한 현상들을 지적하시면서 당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개인의 리익을 혁명의 리익에 복종시키지 않는 온갖 자유주의적경향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특히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기 위한 투쟁을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으며 종파분자들의 해독적책동과 수법을 날카롭게 분석폭로하시였다.

전원회의는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종파주의와 자유주의적경향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규률을 강화하고 당생활에서 민주주의적중앙집권제원칙을 관철하며 비판과 자기비판의 예리한 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 당성과 어긋나는 모든 경향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원칙적인 비판과 솔직하고 성실한 자기비판을 생활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가렬한 전쟁이 계속되고있고 당대렬에 많은 신입당원들이 있으며 더우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온갖 선전수단을 동원하여 우리 내부에 반동사상을 침투시키려고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사상사업을 강화하여야 하였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는데 사상사업의 기본을 두고 그들의 계급의식과 혁명적각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였다.

이 시기 당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에 의하여 부식되고 조장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는 사상사업에 심대한 해독을 끼치였으며 그 해독성은 민족적자부심과 승리의 신심, 혁명적적극성과 창의창발성을 고도로 높여야 할 전쟁시기에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

식주의, 민족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우리 혁명의 실천적문제들을 푸는 방향에서 당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의 계급의식과 혁명적각성을 높이며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는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종파주의를 반대하며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서와 당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는데서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으며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전원회의가 있은 다음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제5차전원회의 문헌토의사업을 진행하였다. 전원회의 문헌토의과정에 당원들의 당성이 비상히 높아지고 당의 전투력이 한층더 강화되였으며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경향들이 극복되고 당대렬이 튼튼히 꾸려졌다. 특히 이 행정에서 박헌영, 리승엽도당이 해방전후를 통하여 감행한 반당반혁명적죄행이 낱낱이 드러났다.

박헌영은 이미 해방전에 일제에 투항하고 미제의 고용간첩으로 굴러떨어진 혁명의 배신자로서 화요파계렬의 종파분자들과 배신자들을 중심으로 간첩종파집단을 형성하였으며 해방후에는 미제의 지령밑에 남조선에서 당조직을 파괴하고 인민들의 모든 혁명투쟁을 말아먹었다. 공화국북반부에 기여든 다음에도 간첩, 암해분자들을 규합하고 반혁명적책동을 계속하였으며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는 당, 국가 및 군사 비밀을 미제첩보기관에 계통적으로 넘겨주었다. 1951년 미제침략자들이 《하기 및 추기 공세》를 감행하던 때와 아이젠하워가 《신공세》를 기도하던 때에 적의 공격과 배합하여 무장폭동을 일으켜 당과 정부를 뒤집어엎고 조선인민을 미제의 식민지노예로 만들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철의 대오로 강화발전된 우리 당에 의하여 박헌영도당의 모든 반당반혁명적음모책동은 적발되였으며 놈들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박헌영도당이 적발숙청됨으로써 해방전부터 오래동안 우리 나라 혁명운동에 큰 해독을 끼쳐온 화요파계렬의 악질적인 종파분자, 혁명의 배신자들이 기본적으로 청산되고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한층더 강화되였다.

당사상사업에서도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학습이 강화되고 전당적으로 《김일성장군의 략전》 학습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우리 당 정책을 자로 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비롯하여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는 기풍이 서갔으며 제4차전원회의이후 당의 량적장성과 질적상태사이에 생겼던 불일치가 극복되여갔다.

당은 당중앙위원회 第5차전원회의이후 자기 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면서 모든 힘을 미제의 《신공세》기도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돌렸다.

미제의 《신공세》기도를 분쇄하고 전쟁의 최후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며 인민군장병들로 하여금 주체의 전쟁 리론과 전법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 중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 및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1952년 12월 조선인민군 고급군관회의에서 《인민군대를 강화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주체의 전쟁리론을 발전시키시고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미제의 《신공세》기도를 분쇄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은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전선과 동서량해안을 철벽의 요새로 다져 미제의 발악적《공세》기도를 완전히 분쇄하며 전쟁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강유력한 무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뒤이어 최고사령관명령 《진지방어를 강화할데 대하여》를 하달하시고 적의 모험적인 《공세》를 격파하기 위한 군사적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1953년 1월 전체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편지는 모든 당원들과 인민들이 침략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기 위한 태세를 빈틈없이 갖추며 만일 적들이 새로운 군사적모험을 감행한다면 그를 격파하고 미제침략군의 운명을 서산락일로 만들어 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종국적으로 몰아내기 위한 결사전에 한결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제5차전원회의 문헌과 결부하여 당중앙위원회의 편지를 토의하는 당회의들을 가지였다.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의 사기는 비상히 앙양되였다. 로동당원들을 선두로 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후방인민들은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다하여 조국의 촌토를 수호하자!》, 《모두다 적을 섬멸하는 결사전에로!》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원쑤들과의 판가리싸움에 한사람같이 일떠섰다.

인민군부대들은 전선과 동서해안에 갱도식진지체계를 더욱 완성하고 예비물자들을 조성하여 전투준비를 철저히 갖추었다.

자위대원들을 비롯한 후방의 애국청년들은 적간첩과 해상 및 항공 륙전대를 소멸할 전투훈련을 강화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유격전으로 넘어가 적과 결사전을 벌릴 준비를 갖추었다.

우리의 전선과 후방은 철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1953년에 들어서면서 미제침략자들은 모험적인 《신공세》를 위한 군사행동을 더욱 미친듯이 감행하였다.

그가운데서도 1월 25일 철원 서쪽 구릉지대의 정형고지에 대한 공격은 가장 악랄하였다. 적들은 이 작은 무명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1주일동안에 무려 수십만발의 각종 포탄과 폭탄, 나팜탄, 기총탄을 퍼붓고 화염방사기로 불태운 다음 수많은 땅크를 앞세우고 대병력으로 공격해왔다. 그러나 고지의 인민군용사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에 따라 종심에서 긴급히 기동하여온 인민군포병들의 강력한 포화력의 지원밑에 견고하게 꾸려진 갱도진지에 의거하여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고 파도식으로 공격해오는 적유생력량을 거의 전멸시켰다.

참담한 패배를 당한 적들은 정형고지에 대한 공격은 인민군대에 대한 정면공격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며 비록 원자탄을 사용한다고 해도 갱도진지에 의거하고있는 인민군대를 격파할수 없을것임을 립증하였다고 아우성을 쳤다.

미제침략자들은 날로 강대해지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위력앞에서 공포에 떨었으며 마지막 기대를 걸고 준비해온 《신공세》마저 단념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전쟁의 전반적행정은 어떠한 제국주의침략세력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정의의 항전에 한사람같이 일떠선 영웅적인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전쟁을 계속해야 아무런 승산도 없다는것을 깨닫게 된 미제는 또다시 정전담판장에 기여나오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적들은 1년 6개월이나 토의를 끌어오던 포로송환문제에서 우리측의 정당한 제의를 접수하고야말았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앞에 굴복하는 마지막순간까지도 저들의 침략적이며 야만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미제침략자들은 이미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우리측 포로들을 《석방》이라는 명목밑에 강제억류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으며 북반부지역의 모든 발전소들과 저수지들, 주택지구들을 타격목표로 삼고 집중적으로 폭격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리승만괴뢰도당은 《정전결사반대》, 《단독북진》 소동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전쟁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적들에게 보다 큰 섬멸적타격을 안기는것이 필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장병들에게 전전선에서 적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타격을 가할것을 명령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부대들은 1953년 5월중순부터 7월하순까지 3차례에 걸처 적들에 대한 련속적인 강력한 타격전을 벌리였다. 인민군부대들은 이 타격전에서 351고지를 비롯한 여러 지대들에서 적들을 대량적으로 소멸하고 놈들의 중요방어지대와 넓은 지역을 해방하였으며 군사분계선을 수백평방키로메터나 남쪽으

로 더 밀어놓았다.

세차례의 강력한 타격전은 적에 비한 아군력량의 결정적우세를 실증하였다. 사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정전담판의 막뒤에서 간교하게 책동하면서 침략전쟁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놈들에게 더 큰 패배를 가져다줄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미제는 자기를 《승리자》로 내세우기 위하여 정전담판을 2년이상이나 끌어오면서 온갖 공세를 다 감행해보았으나 결국 차례진것이란 패배밖에 없었다. 이이상 침략전쟁을 계속한다면 더욱 큰 파멸에로 굴러떨어지리라는것이 명백해졌다. 그리하여 미제는 하는수없이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조인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도발한 그자리에 주저앉아 정전협정에 조인함으로써 전조선을 강점하고 나아가서 아세아와 세계를 제패하려던 놈들의 무모한 침략계획은 여지없이 파탄되였다.

제 6 절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 전쟁승리의 력사적의의

정전의 실현으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끝났다.

우리 인민은 인류력사에서 류례없이 가렬하고 엄혹한 전쟁의 시련을 영웅적으로 이겨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안겨주고 력사적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한 영광스러운 인민으로 되였다.

3년간의 전쟁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당한 패배는 참으로 참담한것이였다.

미제는 조선전선에 자기 나라 륙군의 3분의 1과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의 추종국가군대들과 남조선괴

미군 및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포함하여 무려 200여만의 대병력과 막대한 량의 최신전투기술기재를 투입하였으며 세계전쟁사에 일찌기 없었던 가장 야만적인 전쟁 방법과 수단들을 다 썼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써도 놈들은 자신을 패배에서 구원할수 없었다.

적들은 3년간의 전쟁기간에 미군 40만 5,000여명을 포함하여 156만 7,000여명의 병력을 살상포로당하고 1만 2,200여대의 비행기, 560여척의 각종 함선, 3,250여대의 땅크 및 장갑차, 1만 3,000여대의 자동차를 비롯한 막대한 량의 전투기술기재들과 군수물자의 손실을 보았다.

미제는 정치도덕적으로도 심대한 패배를 당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전령토에 걸친 《초토화작전》과 《교살작전》, 세균전과 화학전, 대중적인 학살만행 등 인류가 아직 알지 못하던 야수적전법과 잔인한 만행으로 하여 세계인민들은 미제를 현대의 《가증스러운 고등야만인》, 《20세기의 식인종》으로 한결같이 단죄규탄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과 숭미, 공미 사상에서 벗어나 반미에로 기울어짐으로써 미제는 더욱더 고립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력사적승리는 오직 혁명의 영재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전기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으로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시면서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는 전쟁의 이 모든 승리를 확고히 담보한 근본요인이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전쟁의 전기간 자기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적기능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에 대한 향도적 및 조직자적 역할을 옳게 수행하였기때문에 이룩될수 있었다.

당은 전쟁의 매 시기, 매 계단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현명한 방침들을 높이 받들고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을 전쟁승리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였다.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 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전투력을 높여나가면서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후방을 반석같이 다지는 어려운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당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이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영광스러운 혁명전통,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열렬한 애국주의사상,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무장시키고 원쑤격멸을 위한 영웅적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당의 이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은 전선과 후방에서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세운 전투적위훈의 원천으로 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다음으로 조선인민군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군사 사상과 리론 및 전법을 빛나게 구현하고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 대중적영웅주의, 애국적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이룩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군사사상에 기초하시여 전쟁의 매 계단마다 가장 정확한 군사 전략, 작전적방침들을 내놓으시고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최대한 발양시키면서 여기에 군사기술사업을 옳게 배합하는 원칙을 확고히 지키도록 하시였으며 전투에서 언제나 주체의 전법을 활용하여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 우세로써 적을 타승하도록 이끄시였다.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위적군사사상과 주체의 전법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충실히 관철함으로써 수적, 기술적 우세를 자랑하는 적을 격멸소탕하고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전쟁의 모든 행정에서 나서는 어려운 군사적과업들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인민민주주의제도의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이에 기초한 후방의 공고성에 의하여 보장되였다.

인민민주주의제도는 나라의 모든 인적 및 물적 력량을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 성과적으로 동원할수 있게 하였으며 후방의 공고성을 보장하는 기초로 되였다.

인민민주주의제도에서 나라의 주인이 되여 자유롭고 행복한 새 생활을 체험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이 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전선과 후방에서 높은 애국적헌신성과 자기 희생성을 발휘하였으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영웅적으로 싸웠다.

인민민주주의제도에 기초하고있는 공고한 후방과 인민들의 대중적영웅주의는 전쟁승리를 보장한 강력한 물질적 및 정신적 담보로 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국제주의적인 지지성원속에서 이룩되였다.

우리 위업의 정당성과 당의 정확한 대외정책에 의하여 사회주의나라, 인민민주주의나라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우리 인민의 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해주었으며 조선에 대한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여 각종 형태의 반전평화옹호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 국제주의적지원과 반미투쟁은 싸우는 우리 인민들에 대한 고무적힘으로 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는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우리 당과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굳건히 지켜내고 민족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과 인민군대는 자기의 희생적투쟁으로 현대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무력침략군을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해로부터 우리 조국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수호하였으며 민주개혁의 성과들과 민주기지를 수호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7권, 526폐지)

우리 인민은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당과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호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향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게 되였다.

다음으로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의의는 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되였으며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이 비상히 강화되였다는데 있다.

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우리 당은 매우 풍부한 경험을 쌓은 세련되고 단련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우리 인민군대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장성강화되고 풍부한 전투경험을 쌓은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다. 특히 전쟁의 간고한 시련속에서 수십만의 혁명적골간들이 새로 자라나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고귀한 밑천으로, 귀중한 재부로 되였다.

우리 인민은 전쟁의 엄혹한 시련속에서 정치사상적으로, 계급적으로 더욱 각성되고 혁명적으로 단련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는 반드시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

이 모든것은 앞으로 우리 혁명을 그 어떠한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주체, 우리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가 튼튼히 마련되였다는것을 의미하였다.

혁명의 주체가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전후 그토록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인민은 재더미속에서도 불사신처럼 일어나 전쟁의 상처를 빨리 가시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당과 인민은 항일의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그 혁명정신을 구현하여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였으며 이 과정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더욱 풍부화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이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자신의 영웅적투쟁으로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는 세계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8권, 104페지)

조선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함으로써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그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렸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다.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미제의 새로운 세계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자기의 운명을 자신이 튼튼히 틀어쥐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일떠선 인민은 그 어떠한 힘으로도 정복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우리 인민의 승리는 또한 제국주의 및 전쟁과 평화에 대한 온갖 기회주의적견해에 결정적타격을 주고 세계 평화와 안전, 민족적해방과 독립은 오직 제국주의자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하여서만 쟁취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력사적인 승리를 계기로 세계 피압박인민들, 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였으며 제국주의식민지체계는 더욱 급속히 무너지게 되였다.

제 8 장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과 사회주의기초 건설을 위한 당의 투쟁. 력사적 으로 내려오던 종파의 청산
(1953.7—1960)

제 1 절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로선. 전후인민경제 복구건설을 위한 투쟁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우리 당과 인민은 곧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에 들어서게 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무엇보다도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경제를 급속히 복구발전시켜 령락된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며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강화해나가야 하였다. 이것은 북반부사회발전의 절박한 요구인 동시에 조국통일의 결정적담보인 북반부혁명기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필수적요구였다.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의 앞길에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었다.

정전은 되였으나 나라의 정세는 의연히 긴장하였다. 미제는 전쟁에서 당한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침략적야망을 버리지 않고 남조선을 계속 강점한채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날뛰였으며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리승만괴뢰도당으로 하여금 《북진》소동을 벌리게 하였다.

이러한 정세에서 당은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복구건설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전쟁피해는 혹심하였다. 도시와 농촌은 재더미로 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여지없이 파괴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토대도 거의다 마사졌다. 전후복구건설을 무엇부터 시작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형편은 어려웠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고 떠벌였으며 우리를 동정하는 외국의 벗들까지도 조선인민이 이 엄혹한 난관을 과연 어떻게 뚫고나가겠는가 하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당과 인민은 조금도 실망하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이 있고 령토가 있고 당이 있고 인민정권이 있는 이상 아무리 전쟁피해가 크고 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또다시 새 생활을 창조할수 있다는 확고한 립장에 서시였으며 《모든것을 민주기지강화를 위한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에로!》라는 전투적구호를 내놓으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복구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승리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주석단에서 내리시는 길로 강남요업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으며 뒤이어 황해제철소, 평양방직공장, 강선제강소를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들과 농촌들을 찾으시여 로동자, 농민들과 복구건설사업을 의논하시고 그들에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억센 투지를 안겨주시였다.

1953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가 소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모든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에 기초하여 전원회의에서는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과 관련된 중요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

전원회의는 먼저 정전이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하여 평화적건설을 못할것처럼 생각하는 경향과 정전에 의하여 완전한 평화가 온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다같이 경계하면서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을 다그쳐 북반부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하게 투쟁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의 기본방향과 그 수행방도들이 중요하게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전후복구건설사업을 세개의 기본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 첫째 단계는 반년 내지 1년동안에 인민경제를 전반적으로 복구건설하기 위한 준비사업과 정리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로, 둘째 단계는 3개년계획을 수행하여 인민경제의 각 부문에 걸쳐 전쟁전 수준을 회복하는 단계로 그리고 셋째 단계는 5개년계획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쌓는 단계로 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전후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뚜렷이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전후경제건설에서 중공업의 선차적복구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할수 있고 인민생활을 빨리 개선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8권, 18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로선으로서 종래에 경공업을 먼저 발전시켜 자금을 축적한 다음 중공업을 건설하거나 일정한 기간 중공업을 먼저 건설한 다음 경공업을 발전시킨것과는 전혀 다른 독창적인 경제건설로선이였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전후복구건설의 모든 문제를 푸는 중심고리였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원래 뒤떨어져있는데다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혹심하게 파괴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성과적으로 복구발전시킬수 없었으며 령락된 인민생활을 추켜세울수 있는 튼튼한 경제적밑천을 마련할수 없었다.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닦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며 국방력을 강화하는것도 오직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만 풀수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전후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 중공업건설에만 힘을 돌리고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뒤로 미룰수는 없었다.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야만 령락된 인민생활을 빨리 안정향상시킬수 있었다. 중공업과 함께 경공업, 농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도 절실히 필요하였다.

모든것이 파괴되고 모자라는 조건에서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이 있으며 나라에 풍부한 자원이 있고 비록 파괴는 되였으나 중공업의 일정한 밑천이 있는 조건에서 이 과업을 능히 수행할수 있었다.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현실적가능성을 옳게 타산한 정당한 로선이고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가장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로선이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기초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빨리 건설할데 대한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구현한 혁명적인 로선이였다.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확고히 보장하면서도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며 중공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 농업의 발전과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복무할수 있는 중공업을 건설해나가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다. 이 로선이 밝혀짐으로써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사이, 인민경제부문들사이, 축적과 소비사이의 가장 적극적이며 합리적인 균형을 보장하고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경제토대를 쌓는 문제와 인민생활을 높이는 문제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며 전후복구건설의 과업뿐아니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나갈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을 밝힌것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에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으로 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촌경리를 점차 협동화해나갈데 대한 방침에 따라 먼저 일부 지역에 경험적으로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할데 대한 과업을 내놓았다.

회의에서는 인민경제 각 부문의 복구발전방향과 구체적방도들을 뚜렷이 규정하였다.

전원회의는 로동계급속에서 사상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박헌영, 리승엽 간첩종파도당을 적발숙청한 우리 당의 투쟁경험을 총화하였으며 오래동안 당 및 국가 사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반당분자 허가이의 배신행위를 폭로규탄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는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을 위한 뚜렷한 투쟁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에게 확고한 전망을 열어주었으며 전체 인민을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한사람같이 불러일으키는 획기적계기로 되였다.

당은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당은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데 선차적주의를 돌리였다.

전당적으로 벌어진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 문헌재토의사업을 통하여 박헌영도당이 뿌려놓은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독소가 철저히 가셔지고 당대렬의 순결성이 확고히 보장되게 되였으며 당원들의 당성이 강화되고 전후복구건설에서 그들의 선봉적역할이 높아졌다. 또한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속에서 정치사상사업, 특히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이 강화되여 그들이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에 더욱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되였다.

전후복구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통일전선사업을 개선하는것이 중요하였다. 1953년 12월에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제7차전원회의에서는 통일전선사업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비판하고 통일전선사업을 전후환경에 맞게 개선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당은 전후복구건설에 들어서면서 경제체제를 복구건설의 요구에 맞게 개편하고 당과 국가의 우수한 일군들을 경제건설부문에 파견하였으며 수많은 군인들을 제대시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였다.

당은 또한 정전직후에 전국전투영웅대회를 소집하였다. 영웅대회의 소집은 전후복구건설투쟁에서 광범한 대중을 영웅적위훈에로 고무추동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당의 부름따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전시에 원쑤 미제를 무찌르던 그 기세, 그 용맹으로 전후복구건설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인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온갖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기 위한 치렬한 로력투쟁을 벌리였다. 그 결과 정전된지 불과 며칠동안에 철도가 전반적으로 움직일수 있게 되였으며 적지 않은 공장, 기업소들이 짧은 시일안에 복구되여 조업을 시작하였고 도처에 건재공장들이 일떠섰다. 농민들은 파괴된 농경지와 관개수리시설들을 복구정비하면서 영농사업을 다그쳤다.

우리 당과 인민은 전반적복구건설준비단계의 과업을 앞당겨 끝내고 1954년부터 3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 들어섰다.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1954—1956)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쟁전 수준을 회복하는것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파괴된 인민경제를 단순히 원상대로 복구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을 없애며 앞으로 나라를 공업화하기 위한 기초를 쌓는 방향에서 될수록 새 기술에 토대하여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 개건, 확장하고 새 기업소들도 많이 건설할것을 예견한것이였다. 3개년계획은 인민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닦기 위한 전망과업과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켜야 할 당면과업을 밀접히 결합시킨 계획이였다. 3개년계획기간에 공업총생산액은 1949년에 비하여 거의 1.5배로 높이며 알곡생산은 전쟁전 수준에 이르게 할것을 예견하였다.

당은 3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세웠다.

3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특히 산업운수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며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섰다.

1954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산업운수부문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고치고 당, 국가, 경제기관들의 경제지도사업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이 토의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며 모든 일군들이 사무실적, 관료주의적 사업방법을 버리고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생동하고 실무적이며 분석적인 지도를 하며 자기 사업을 깊이 연구하고 높은 책임성을 발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당은 전원회의에 이어 인민경제 부문별 회의들을 소집하고 해당 부문 사업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과 인민경제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당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대중적증산경쟁운동을 널리 조직하고 이 운동을 집단적기술혁신운동과 밀접히 결합시키도록 하였다.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은 반당종파분자들과의 심각한 투쟁을 동반하였다.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은 반당종파분자들은 《인민생활이 어려운데 중공업건설에 치우친다.》느니, 《기계에서는 밥이 나오지 않는다.》느니,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실시해본적이 없다.》느니 하면서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반대하여나섰다. 이자들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축성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반대하면서 모든것을 당면한 소비에 돌려 탕진할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결국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 축성을 저애할뿐아니라 확고한 경제적토대우에서 인민생활도 계통적으로 향상시킬수 없게 하는 반혁명적견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반당종파분자들의 방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전후복구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모든것이 어렵던 그속에서도 3개년인민경제

계획은 성과적으로 수행되여갔다.

제 2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총적과업 제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성과적추진

당은 인민경제를 복구건설하면서 사회주의기초건설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의 과업들을 내놓으시였으며 1955년 4월에 발표하신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에 관한 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테제에서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기본임무를 명백히 하시고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기초건설의 필연성을 밝히시였다.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혁명은 복잡성과 간고성을 띠게 되였으며 북과 남에서 혁명이 같은 보조로 발전할수 없었다. 북반부에서는 이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혁명단계에 들어섰으나 남반부인민들은 미제의 강점밑에서 제국주의적, 봉건적 착취와 압박에 계속 시달리고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혁명의 성격은 전국적견지에서 볼 때 의연히 반제민족해방의 과업과 반봉건적과업을 수행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였다. 그리고 이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서는 우리의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을 전진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을 추진시켜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섰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은 공화국북반부사회경제발전을 빨리 다그칠수 있게 하는 동시에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추동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력량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테제에서 공화국북반부의 경제형태들과 계급관계를 깊이 분석하시고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총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과도기의 현계단에 있어서 우리 당앞에 나선 기본임무는 로동자, 농민의 동맹을 더한층 강화하면서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쟁취한 성과들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는데 있다.》(《**김일성**저작집》 제9권, 236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상품경제형태와 자본주의적경제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며 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과 기술적락후성을 퇴치하고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쌓는것을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총적과업으로 규정하시였다.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는것은 지난날 경제가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이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단계를 거쳐야만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수 있으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실현하는데로 빨리 나아갈수 있다.

사회주의기초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리론은 전혀 새로운 독창적인 리론이다. 이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전략적단계들을 옳게 설정하고 문제해결의 선후차를 바로 가르면서 그 전반적건설과정을 가장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지도적

지침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을 완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위대한 리론이다.

테제에서는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적사상으로 교양하며 새로운 기술, 문화 일군들을 많이 양성할데 대한 문제,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하는 문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고 국가주권을 더한층 강화하며 인민군대를 강철같은 간부군대로 단련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의 기초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이 뚜렷이 밝혀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는 나라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 강령적문헌이였다.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기초건설의 길을 따라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갔다.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개인농경리를 협동화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농업협동화에서 새로운 길을 확신성있게 개척하여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전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농촌경리의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농업협동화운동을 힘있게 벌렸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7권, 582페지)

농촌경리의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은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한 독창적인 방침이였다.

이전에는 공업화를 실현한 기초우에서 농업협동화를 추진시킨 경험만을 알고있었으며 이것은 농업협동화에서 어길수 없는 하나의 철칙처럼 되여있었다. 우리 당안에서도 사대주의, 교조주의자들, 반

당종파분자들이 공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현대적농기계가 없는 조건에서 농업협동화를 하는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당의 농업협동화방침을 반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농업협동화의 실현조건을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새롭게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조건은 농촌경리가 현대적기술로 장비되여있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농업협동화가 농민들자신의 생활적요구로 나서고있는가, 그것을 맡아할만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여있는가 하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7권, 58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성숙조건을 주로 물질적기초, 생산력발전수준에만 귀착시키던 종래의 견해와는 달리 사람들의 현실적인 생활적요구와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주체적력량의 준비를 혁명수행의 결정적조건으로 보시였다.

전후 우리 나라에서는 비록 기술발전수준은 낮았지만 농업협동화가 절박한 생활적요구로 나섰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농촌경리는 혹심하게 파괴되고 농민의 거의 40%가 령세농민의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개인농경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농업생산을 빨리 높일수 없고 계획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공업에 농업을 따라세울수 없었으며 령락된 농민들의 생활을 빨리 추켜세울수 없고 특히 전쟁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빈농민문제를 해결할수 없었다. 전쟁의 피해로 말미암아 제 힘으로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된 농민들은 무엇보다도 서로 힘을 합쳐야만 하였다.

전후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를 맡아할수 있는 혁명력량, 혁명의 주체도 튼튼히 마련되여있었다.

우리 농민들은 해방후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특히 가렬한 전쟁의 시련속에서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강력한 력량으로 자라났다. 그들은 또한 사회주의경리에 망라되여있는 로동계급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었다. 이와 반면에 부농을 비롯하여 농업협동화를 반대하는 세력은 매우 미약하

였다.

전후시기는 계급적력량관계로 보나 농민들의 처지와 사상상태로 보아 농업협동화를 하는데 아주 유리한 시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모든것을 깊이 헤아리시고 농촌에서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앞세우고 사회주의적농업협동경리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농업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며 공업이 발전하는데 따라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를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할것을 타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협동화운동을 벌리는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지도적원칙들을 명확히 밝히시였다.

농업협동화운동을 지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자원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협동화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어디까지나 농민들의 자원에 의해서 협동조합을 조직하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9권, 132～133페지)

농업협동화에서 자원성의 원칙을 지킨다는것은 결코 이 운동을 자연발생성에 내맡긴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농민대중속에서 사상교양과 실물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각적으로 농업협동화의 길에 나서도록 하는것이였다.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계급적원칙을 지키고 계급정책을 옳게 실시하는것이였다.

전후시기 우리 나라 농촌에서 농민의 약 40%를 차지하고있던 빈농은 처음부터 농업협동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농민의 절반이상에 달하는 중농은 농업협동화를 대하는 태도가 각이하였다. 토지개혁후에 중농으로 된 사람들은 대부분 협동화를 지지하였으나 원래부터 중농이던 사람들은 두고보자는 태도였다. 농민의 0.6%에 지나지 않던 부농은 농업협동화를 외면하거나 반대하는 립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 당은 농업협동화운동에서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고 중농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부농을 제한하면서 점차 사회

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계급정책을 실시하였다.

농업협동화운동에서 중요한 지도적원칙은 또한 이 운동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였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는 사회주의적농업협동경리제도의 발생과 그 공고발전을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특히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것이 마사진 조건에서 협동화를 하게 된 우리 나라의 경우에 이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세우신 지도적원칙들을 튼튼히 틀어쥐고 농업협동화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우리 당은 농업협동화운동을 벌리는데서 자체의 경험을 창조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경험적단계를 설정하였다.

경험적단계를 설정한것은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협동화의 방도를 확정하며 일군들로 하여금 이 운동을 지도하는데서 경험을 쌓고 신심을 가질수 있게 할뿐아니라 농민들에게 협동화의 우월성을 실물로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자진하여 대중적으로 협동경리에 들어올수 있게 하는 현명한 조치였다.

당은 협동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한 빈농들과 농촌의 핵심들로 먼저 경험적으로 매개 군에 농업협동조합을 몇개씩 조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평안남도 중화군 삼정리를 비롯한 여러곳에 조직된 농업협동조합들을 세심히 지도하시여 협동경리의 우월성이 뚜렷이 나타나게 하시였으며 끝 그 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이끄시였다.

당은 농업협동화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협동경리의 형태와 규모, 생산수단들의 통합방식 등을 확정하고 이것을 1954년 1월 당중앙위원회지시 《농업협동경리의 조직문제에 대하여》에 밝혀 내려보냈다.

당은 농민들의 재산정도와 사상적준비정도가 서로 다른 실정을 고려하여 농업협동경리의 형태를 세가지로 규정하고 농민들이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자유로 선택하게 하였다. 제1형태는 작업만을 공동으로 하는 고정적로력협조반이였고 제2형태는 토지를 통합하고

공동경리를 운영하되 로동과 토지에 따라 분배를 하는 반사회주의적 형태였으며 제3형태는 토지를 비롯한 기본생산수단을 통합하고 로동에 의해서만 분배를 하는 완전한 사회주의적형태였다.

당은 농촌의 기계화수준이 높지 못하고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관리일군들의 관리운영수준이 낮은것을 고려하여 협동조합의 규모를 처음에는 15~20호 정도로 하고 점차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40~100호 정도로 늘이도록 하였다.

부림소와 농기구 같은 생산수단을 통합할 때에는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그들의 희망에 따라 통합하든가 일정한 기간 계속 사적소유로 남겨두면서 공동으로 리용하도록 하였으며 통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한 값을 치르도록 하였다.

당의 정확한 농업협동화정책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방들에서 농업협동조합들이 활발히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당은 농업협동화초기에 자원성의 원칙을 잘못 인식하고 농업협동화운동을 자연발생성에 내맡기거나 또는 농민들이 높은 형태의 조합을 요구하는데도 기계적으로 낮은 형태로부터 시작하는것과 같은 소극적편향들을 제때에 바로잡아나갔다.

당은 빈농민들로 갓 조직된 협동조합들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강화하였다. 협동조합들에 대한 장기대부를 주고 식량과 종곡을 꾸어주며 농기구를 우선적으로 보내주고 비료를 눅은 값으로 더 많이 공급하며 농기계임경소와 우마임경소들에서 농업협동조합의 밭갈이와 영농물자운반을 먼저 보장해주도록 하였다. 농업현물세도 개인농민보다 5% 낮추어주었다.

농업협동조합들은 벌써 첫해농사에서부터 그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1954년에 협동경리에서 알곡의 단위당 수확고는 개인농경리에서보다 10~50% 더 높았으며 현금수입은 2~7배나 되였다.

1954년 11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농업협동화의 경험적단계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를 총화하고 농업협동화운동을 대중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을 내세웠다.

전원회의후 농업협동화운동은 대중적발전단계에 들어섰으며 빈

농들뿐아니라 중농들도 협동조합에 광범히 들어오게 되였다.

농업협동화운동이 대중적단계에 들어서자 일부 일군들은 조급성에 사로잡혀 자원성의 원칙을 어기고 행정적방법으로 협동화의 속도를 높이려고 하거나 농민들의 준비정도와는 관계없이 덮어놓고 높은 형태와 큰 규모의 조합만을 조직하려고 하였다. 한편 일부 농민들속에서는 경제토대가 비교적 튼튼한 사람들끼리 조합을 무으려고 하거나 규정이상으로 개인터밭을 남겨두며 조합에 들여놓은 부림소와 농기구의 값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것과 같은 부정적현상들이 나타났다.

당은 나타난 편향들을 제때에 극복하고 자원성의 원칙과 계급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농업협동화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였다.

농업협동화운동은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심각한 투쟁을 동반하였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승리가 뚜렷해짐에 따라 적대분자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가로막아보려고 미쳐날뛰였다. 전복된 지주계급과 악질부농, 파괴암해분자들은 농업협동화운동을 반대하는 반동적요언을 퍼뜨리며 조합의 공동재산을 침해하고 농업생산을 파탄시키기 위한 해독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사업을 앞세우면서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반혁명적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였다.

당은 빨리 늘어나는 농업협동조합들을 질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당은 1955년부터 해마다 중앙과 지방의 많은 일군들을 동원하여 농업협동조합들에 대한 지도사업을 진행하였다.

당은 농업협동조합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물질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많은 힘을 돌리였으며 조합관리일군들과 농촌기술인재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내기 위한 대책들을 세웠다.

당과 국가의 끊임없는 지도와 방조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들은

정치경제적으로 빨리 튼튼해졌으며 협동화운동은 더욱 대중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1956년말까지 전체 농가호수의 80.9%가 농업협동조합에 망라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도시수공업과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도 적극 밀고나갔다.

당은 이미 전쟁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하여오던 수공업의 협동화를 전후에 본격적으로 밀고나갔으며 그것은 1956년에 이르러 거의 끝나게 되였다.

당은 자본주의적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에 큰 주목을 돌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자본주의적상공업의 특성을 고려하시여 그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독창적인 길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자본주의적상공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을 수탈하지 않고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방침을 취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7권, 585페지)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 민족자본의 발전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심히 억제당하였으며 민족자본가들의 경리란 보잘것 없었다. 그러므로 민족자본가들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일정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었다.

민족자본가들에 대한 우리 당의 립장은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까지 같이 가려는것이였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그들을 배척하거나 수탈할수는 없었다. 이로부터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에 대하여 그 좋은 측면은 리용하고 나쁜 측면은 제한하면서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이 필요하였다.

전후시기에 와서 자본주의적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문제가 전면에 나서게 되였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원래 약하던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은 거의다 파산되여 수공업자나 소상인과 별로 다름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기업가, 상인들은 자기 혼자의 힘으

로는 파괴된 경리를 복구할수도 없었고 생활을 개선해나갈수도 없었다. 전후 령락된 기업가, 상인들이 자기 경리를 복구하고 생활을 개선해나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국가의 지원밑에 자기들의 힘과 자금을 모아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현실적조건을 헤아리시고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과업을 전면에 내놓으시였다. 그것은 자원성의 원칙에 따라 기업가, 상인들을 여러가지 형태의 협동경리에 받아들이며 그것을 통하여 경리형태의 개조와 인간개조를 밀접히 결합시켜 그들모두를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만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방침은 우리 나라 자본주의적상공업의 특성과 사회주의건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전혀 새로운 독창적인 방침이였으며 기업가, 상인들 자신의 리익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현명한 방침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적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도 성과적으로 추진되여갔다.

제 3 절
계급교양사업의 강화.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우기 위한 투쟁

당은 사회주의기초건설을 다그치면서 이에 맞게 당사상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이 시기 당사상사업에서 전면에 나선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이였다.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과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투쟁은 날카로운 계급투쟁을 동반하였으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자각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요구하였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비하여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자각이 부족하였던 실정은 그들에 대한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을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하였다.

1955년 4월에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에 기초하여 계급교양사업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회의에서는 계급교양사업을 우리 나라의 생동한 현실생활, 실지투쟁과 결부하여 진행할것을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다른 나라 당들의 투쟁경험을 조선의 실정과 결부하여 연구하지 않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여 당원들에게 불어넣는 경향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9권, 260페지)

다른 나라의 경험이나 이미 알려져있는 일반적명제에 대한 교조주의적인 태도를 철저히 배격하고 당사상사업, 계급교양사업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진행하여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나라의 사회경제형편과 계급관계를 잘 알고 적아를 똑똑히 가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깨닫고 그를 관철하는데서 혁명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게 할수 있었다.

회의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을 굳게 가지도록 하는 방향에서 계급교양사업을 진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자연과 사회의 발전법칙을 똑똑히 알며 자본주의, 제국주의는 멸망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굳게 가지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여야 그들이 혁명적세계관을 똑바로 세우고 언제나 혁명적락관주의에 넘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나서게 할수 있었다.

회의는 계급교양사업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굴의 혁명투사로, 열렬한 정치활동가로 키우는 방향에서 진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굴의 혁명투사로, 열렬한 정치활동가로 준비시켜야만 그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을 위하여,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자기의 혁명임무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게 할수 있었다.

전원회의에서 규정된 계급교양사업의 기본방향은 당사상사업을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혁명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실속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확고한 지침으로 되였다.

전원회의는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 특히 관료주의를 퇴치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고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관료주의를 퇴치할데 대하여》에서 관료주의의 본질과 표현형태, 그 해독성과 사상적근원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명확히 밝히시였다.

전원회의후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사상사업의 체계와 내용, 학습방법이 고쳐졌으며 선전일군대렬이 보다 튼튼히 꾸려지고 사상사업에 대한 당조직들의 지도가 개선강화되였다.

당은 계급교양을 강화하면서 모든 분야, 특히 사상사업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없애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벌리였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는것은 우리 나라의 지리적위치와 환경, 력사발전의 특수성 그리고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우리에게 언제나 중요하였지만 전후에 이르러 그것은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전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수한 환경과 조건에서 진행되는 전인미답의 길이였다. 따라서 그 어떤 기성리론이나 남의 경험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주체를 철저히 세워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야 하였다.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종파분자들과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의 해독적작용과 관련하여 더욱 날카로운 문제로 나섰다. 남의것을 통채로 삼키고 본따는데만 버릇된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 반당종파분자들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의 관철을 계통적으로 방해하여나섰다.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는 더는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나타난 수정주의의 침습을 막으며 혁명적원칙을 주체적립장에서 철저히 옹호고수하기 위하여서도 매우 절실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모든것을 헤아리시고 주체를 세우는것을 우리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내세우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주체확립을 위한 투쟁에서 무엇보다도 전면에 나선것은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이였다.

사상의식이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것만큼 우선 사상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주체를 똑바로 세울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5년 12월 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명확히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9권, 468페지)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바로 조선혁명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정식화에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명백히 밝

혀져있다.

우리 당 사상사업의 목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발동하여 조선혁명을 잘하자는데 있다. 따라서 우리 당의 모든 사상사업은 마땅히 조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푸는데 집중되여야 하며 그 형식과 방법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민족적특성, 우리 인민의 구미에 맞아야 한다.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가 뚜렷이 밝혀짐으로써 당사상사업을 가장 옳은 립장에서 목적지향성있게 진행할수 있는 근본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체의것을 성실하게 연구하고 그것에 통달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9권, 474페지)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자체의것을 잘 알아야 한다. 자체의것을 잘 알아야 온갖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적경향을 없앨수 있다.

한때 우리 당 사상사업분야의 책임적인 자리에 앉아있던 박창옥을 비롯한 반당종파분자들은 우리의것에 대하여서는 외면하고 다른 나라의것을 선전하는데만 급급하였다. 이러한 주체성없는 선전사업은 사람들속에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를 퍼뜨리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후과를 철저히 가시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 풍속을 잘 알며 특히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력사와 혁명전통,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파악하도록 교양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매개 나라 혁명은 서로 다른 조건과 환경에서 진행된다. 우리 나라 혁명은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력사적조건과 환경, 그 전반적진행과정이 다른 나라들과 같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것,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우리 당의 로선, 정책을 잘

알아야 주인다운 립장에서 제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본따고 받아들이지 말며 다른 나라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대하고 혁명적진리, 혁명적원칙들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를 세우는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호상관계를 명확히 밝히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민족적인 동시에 국제적이며 매개 나라 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고리이다.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주체를 세워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잘하는것은 자기의 민족적임무를 다하는것으로 되는 동시에 국제적임무에도 충실한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자만이 참다운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자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는 우리 나라에서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형식주의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사상사업은 물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데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연설을 높이 받들고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1956년 2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는 당사상사업의 내용과 형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 당은 모든 교양망들과 각급 학교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당문헌, 당력사와 혁명전통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당조직들과 선전문화기관들이 우리 나라의것을 위주로 하여 선전사업을 진행하며 그 형식과 방법도 우리 인민의 감정과 구미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개선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및 반동적 사상경향을 반대하는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벌리도록 하였다.

당은 과학 및 교육 부문과 문학예술부문에서 모든 사업을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당은 사상분야에서 주체확립을 위한 투쟁을 앞세우면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갔다. 특히 정치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경제적자립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국방에서 자위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였다.

참으로 1955년은 주체를 세우기 위한 우리 당의 일관한 투쟁에서 하나의 력사적전환점으로 되였다.

제 4 절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

195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당앞에는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을 빨리 끝내고 사회주의기초건설사업을 결정적으로 다그쳐야 할 과업이 중요하게 나섰다.

전후 북반부혁명기지가 급속히 강화되고 남조선인민들의 조국통일지향이 날로 높아가는 실정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야 하였다.

다른 한편 이 시기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수정주의가 대두하게 된것과 관련하여 우리 당과 혁명 앞에는 매우 복잡한 내외환경이 조성되게 되였다.

모든 정세는 우리 당으로 하여금 주체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 당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립장에서 정확히 풀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력사적환경에서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가 1956년 4월 23일부터 29일까지의 사이에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116만 4,945명의 당원들을 대표하여 결의권을 가진 대표 914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사업총화, 당규약개정문제가 중요하게 토의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국제국내정세를 깊이 분석하시고 총결기간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업적과 고귀한 경험들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였으며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짧은 시일안에 끝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며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대회에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호상존중과 평등의 원칙에서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가들과의 정치적 및 실무적 련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며 특히 아세아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하며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인민들의 공동투쟁을 강화하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당의 대외정책을 계속 견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는 인민경제발전 5개년(1957—1961)계획기간의 투쟁목표를 규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음해부터 시작되는 제1차5개년계획기간에는 전후에 거둔 모든 성과들에 기초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와야 할것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적부문들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며 공업화의 기초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며 경공업과 농업생산을 새로운 수준에로 높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속 향상시켜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0권, 213페지)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끝내고 사회주의적공업화의 기초를 닦으며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푸는것, 다시말하여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완성하는것이 5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이였다.

사회주의공업화에서 현대적중공업의 튼튼한 골간을 꾸리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공업화의 기초축성단계를 설정한것은 심히 뒤떨어진 편파적인 경제를 물려받은 우리 나라에서 공업화를 가장 순조롭고 믿음직하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길이였다.

대회에서는 5개년계획기간의 인민경제 부문별 발전방향도 확정하였다.

대회에서는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이 련합하여 협상의 방법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대회는 북과 남의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민족적량심을 가진 개별적인사들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을 결성할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미제를 반대하고 조국통일을 진정으로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협상할것이며 이러한 련합에 참가하는 사람은 지난날에 어떠한 죄과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를 용서해줄것이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북과 남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와 래왕, 통신교환의 실현, 북과 남의 대표들을 망라하는 상설위원회의 구성 등 문제들에 대한 제안들을 내놓았다.

대회는 당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과업을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의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며 그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시기의 투쟁에서 전취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을 와해시키려는 원쑤들의 온갖 기도를 여지없이 분쇄하며 당안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불순한 요소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며 그들에게 무자비한 타격을 주어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0권, 274～275페지)

당안에서 박헌영도당은 폭로청산되였으나 그자들의 사상적 영향은 다 가셔지지 않았으며 엠엘파, 화요파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반종파투쟁을 계속 강화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것이 당건설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여있었다.

대회에서는 당조직지도사업분야의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당성을 단련하는 문제,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우고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간부사업과 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대회에서는 당사상사업분야에 나선 과업들을 규정하였다.

대회는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없애고 주체를 세우는것을 주되는 과업으로 내세우면서 당원들에게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 장래전망을 똑똑히 인식시키며 우리 나라 혁명투쟁의 력사와 경험으로 그들을 교양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리고 대중정치사업은 반드시 우리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하여 근로대중의 사회주의적의식을 높이고 그들로 하여금 당면한 혁명과업 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의 새 규약을 채택하였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정된 새 규약에는 당의 성격과 혁명전통 그리고 당의 당면목적과 최종목적이 뚜렷이 밝혀졌다. 규약은 당앞에 나선 새로운 과업의 요구와 당원들의 정치적준비정도를 고려하여 당원의 의무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규정하였다. 특히 당의 조직사상적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며 당원들의 사상, 정치, 실무적 수준을 높이며 혁명적군중관점을 확립할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의 자주적조국통일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안을 담고있는 선언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를 채택하였다.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반공》소동과 전쟁도발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었고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나타난 수정주의가 우리 혁명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하여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짧은 시일안에 완성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치며 자주적대외정책을 더욱더 견결히 고수할것을 단호하게 내세운 력사적인 대회였다.

대회는 또한 당안에서 종파분자들과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 수정주의를 끌어들이려고 음으로양으로 책동하고 있을 때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이며 반혁명적인 사상의 사소한 표현도 견결히 반대하면서 당의 통일과 단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나갈것을 엄숙히 선언한 대회였다.

당 제3차대회는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혁명과 건설, 당건설과 당사업을 힘있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회였다.

제 5 절
당중앙위원회 1956년 8월전원회의와 최창익 도당의 폭로분쇄.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반혁명에 대한 공세의 강화

당은 제3차대회가 제시한 과업들을 관철하는데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면서 무엇보다도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선차적주목을 돌리였다.

이 투쟁은 안팎의 정세가 몹시 복잡하고 긴장한 가운데서 진행되였다.

당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국제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있었으며 특히 《반공》소동에 미쳐날뛰고있었다. 수정주의자들의 책동도 더욱 심해지고 그 후과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매우 엄중하게 미치고있었다.

이러한 때에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북진》소동에 더욱 미쳐날뛰면서 북반부에 대한 파괴, 암해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우리 당안에 기여들어 정치적야욕을 실현해보려고 기회만 노리던 최창익을 비롯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국내국제적으로 어려운 정세가 조성된 틈을 타서 다시 머리를 쳐들었다. 이자들은 당

제3차대회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사회주의나라들을 친선방문하고계시는동안 저들의 흉악한 종파적목적을 이루어보려고 반당반혁명적음모를 더욱 서둘렀으며 1956년 8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에 정면으로 도전하여나섰다.

전원회의에서는 형제국가들을 방문한 공화국정부대표단의 사업총화와 함께 우리 당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과 인민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는데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토의된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허황한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당을 공격하여나섰다.

그러나 우리 당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도전에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다.

전원회의는 최창익도당의 발악적인 도전에 대하여 즉석에서 단호한 타격을 가하였다. 그리하여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음모책동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로 말미암아 생길수 있었던 엄중한 사태는 제때에 완전히 방지되였다.

8월전원회의에서 폭로분쇄된 종파는 엠엘파잔당을 비롯하여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여러 종파 잔여분자들이 서로 결탁한 련합적인 반당반혁명종파집단이였다.

이 종파도당의 두목 최창익은 이미 1920년대부터 서울파와 엠엘파에 가담하여 종파행위를 일삼았으며 해방후에는 양봉음위의 교활한 수법으로 반당반혁명적종파책동을 계속하였다. 이자와 결탁한 박창옥도 한때 당의 지도적지위에 있으면서 당활동에 많은 해독을 끼쳐온자였으며 이자들과 합류한자들모두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고질적인 종파분자들이였다.

이 종파도당은 또한 사대주의자, 수정주의분자들의 집단이였다.

원래 사대주의에 깊이 물젖어있던 최창익, 박창옥 도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 수정주의가 머리를 쳐들게 되자 그것을 이른바 《국제사조》로 떠받들면서 우리 나라에 끌어들이려고 책동하였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였으며 당의 민주주의적중앙집권제원칙을 반

대하고 종파활동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터무니없는 《종파유익설》까지 들고나왔다. 이자들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헐뜯는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으며 당의 투쟁업적과 사회주의건설성과를 비방하면서 당의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들을 반대하여나섰다.

이자들은 단순한 종파인것이 아니라 극악한 반혁명도당이였다.

이 반역도당은 미제와 결탁하여 우리 당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무장폭동음모를 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친미적인 부르죠아공화국으로 만들려는 흉계까지 꾸미였다.

그러므로 최창익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오물들을 전면적으로 쓸어버리기 위한 반종파투쟁인 동시에 반사대주의, 반수정주의 투쟁이였으며 반혁명과의 치렬한 투쟁이였다.

전원회의는 최창익도당에게 가차없이 섬멸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회의는 당안에서 종파활동은 무조건 금지되여야 하며 그것이 어떠한 구실밑에서 감행되든지간에 당의 통일을 좀먹는 엄중한 범죄적책동으로서 단호히 배격되여야 한다는것을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종파잔재를 철저히 쓸어버리기 위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할데 대한 과업을 내세웠다.

8월전원회의는 최창익도당의 반당반혁명적음모책동을 제때에 짓부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전당이 더욱 굳게 뭉치도록 하였다. 전원회의는 외세를 등에 업고 우리 당과 혁명에 반기를 들었던 사대주의적, 수정주의적 종파도당, 외부의 반동세력과 결탁하였던 반혁명적도당을 폭로분쇄함으로써 국제수정주의의 침습을 제때에 막아냈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수호할수 있었다.

당은 전원회의후 종파도당을 쓸어버리며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종파투쟁원칙에 따라 소수 악질분자들은 치고 그밖의 사람들은 교양개조하는 방향에서 이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주동분자와 피동분자, 종파에 의식적으로 가담한자와 무의식적으로 추종한자를 갈라서 그들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신중히 처리하였다.

당은 반종파투쟁을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수정주의를 철저히 막기 위한 투쟁과 결합하여 밀고나갔으며 특히 당면한 경제건설과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였다.

우리 당의 력사에서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이 제국주의침략세력과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는 가장 준엄한 투쟁이였다면 종파주의,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공산주의운동안의 적을 반대하는 가장 심각한 투쟁이였다.

이 투쟁을 통하여 당대렬은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인민대중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철석같이 뭉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안팎으로부터의 반혁명적공세를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당과 혁명을 보위할수 있었으며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주동적으로 뚫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을수 있었다.

반종파투쟁이 결속단계에 들어선 1958년 3월에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소집되였다.

당대표자회에서는 인민경제발전 제1차 5개년(1957—1961)계획에 관한 문제와 함께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표자회에서 종파의 오물들을 청산한 우리 당의 력사적인 승리를 전면적으로 총화하시였으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당대표자회에서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며 종파여독을 철저히 뿌리뽑을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는 공산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욱 견결히 반대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주의, 가족주의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역시 종파주의입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을따름이지 사실은 이것이 다 종파주의입

니다.》(《김일성저작집》 제12권, 126페지)

우리 당의 투쟁경험은 종파주의는 매우 집요하고 위험하며 나중에는 적의 정탐배로 굴러떨어지는데까지 이른다는것과 지방주의, 가족주의는 종파의 온상으로 되며 그것을 제때에 뿌리빼지 않으면 결국 종파로 자라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당대표자회는 당원들에게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의 본질과 사상적근원, 그 수법과 해독성을 똑똑히 알려주어 종파분자들이 발붙일곳이 없게 하며 누구든지 종파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당대표자회에서는 반수정주의투쟁을 강력히 벌릴데 대하여서도 강조되였다.

당대표자회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내세웠다.

당내투쟁과정은 누구를 막론하고 당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당성이 마비되여 종파에 리용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대표자회는 각급 당조직들이 당원들의 당생활지도와 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을 어떤 복잡한 환경에서도 계급적립장과 당적원칙을 지키고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나갈줄 아는 세련된 자각적혁명투사로 키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당대표자회는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안에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오물들을 전면적으로 쓸어버린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확고히 실현한 회의로서 우리 당 발전의 중요한 계기를 열어놓았다.

당대표자회후 그 결정 관철을 위한 전당적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당중앙위원회는 우수한 일군들을 파견하여 각급 지방당조직들에 대한 집중지도사업을 강화하였다.

집중지도는 해당 당조직들의 전반적사업을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로 빨리 끌어올리며 종파여독과 온갖 불순한 경향을 철저히 없애고 당적사상체계를 세우며 당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충분히 발

양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되였다. 집중지도를 통하여 지방당조직들은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지게 되고 당조직들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여갔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이 아래당조직들에까지 더 잘 침투되고 철저히 관철되게 되였다.

당은 반종파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적대분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우리의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자 계급적원쑤들의 책동이 보다 악랄하여졌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공화국북반부지역에 더 많은 간첩, 파괴, 암해분자들을 들이밀고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파탄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혁명과의 투쟁을 진행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도들을 밝히시였다. 1957년 5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원칙에 기초하여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당은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을 벌림에 있어서 계급적견지에서 적아를 옳게 식별하고 현행범을 반대하여 투쟁하되 소수 악질분자들은 엄격히 처벌하며 혁명의 편에 끌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포섭하고 교양하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또한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을 일시적인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투쟁으로, 몇몇 일군들에게 국한된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전군중적투쟁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간첩, 파괴, 암해분자들이 발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틈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당은 반혁명과의 투쟁을 벌림에 있어서 인민정권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8년 4월 전국 사법, 검찰일군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

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훼손시키려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수정주의적궤변의 부당성, 해독성을 폭로하시고 우리의 인민정권은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이며 사법, 검찰 및 내무 기관들은 모두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무기라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하시였다. 그리고 법의 본질과 그 계급적성격을 밝히시면서 법기관 일군들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당은 국가기관들, 특히 사법, 검찰, 내무 기관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면서 이 기관들이 반혁명과의 투쟁에서 자기 임무를 옳게 수행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반종파투쟁, 반혁명과의 투쟁,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혁명진지를 더욱 굳건히 다졌으며 혁명과 건설을 보다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는 조건들을 튼튼히 마련하여놓았다.

제 6 절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 천리마운동의 개시

당은 반종파투쟁, 반혁명과의 투쟁을 치렬하게 벌리는 한편 경제건설사업을 계속 힘차게 밀고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증산경쟁운동의 불길속에서 3개년인민경제계획은 2년 8개월에 완수되였다. 1956년에 이르러 공업총생산액은 1949년에 비하여 1.8배로 높아졌으며 알곡생산도 전쟁전 수준을 넘어서게 되였다.

3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산업의 식민지적편파성이 현저히 없어지고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가 닦아져갔으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적경제형태의 지배적지위가 강화되

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1957년부터 5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 들어섰다.

5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전반적경제를 일신시키며 우리 나라를 농업국가로부터 사회주의적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키는 보람찬 투쟁이였다.

이러한 5개년계획을 수행하자면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였다.

5개년계획은 방대한 투자를 요구하였으나 우리에게는 자재와 자금, 로력이 모자랐고 기술도 뒤떨어진 상태에 있었으며 인민들의 생활이 아직은 어려웠다. 거기에다가 내외정세가 의연히 복잡하였으며 반종파투쟁으로 당내형편도 긴장되여있었다.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방대한 전망계획과 부닥친 난관에 겁을 먹고 동요하면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부리고 혁명과 건설을 높은 속도로 밀고나가기를 주저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소집되였다. 회의에서는 5개년계획의 첫해계획인 1957년 인민경제계획이 토의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에서 모든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진공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혁명력량의 강철같은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고 반혁명세력과의 투쟁을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다음해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0권, 413폐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유일하게 옳은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전원회의는 경제발전속도를 늦추자는 보수주의자, 소극분자들의 주장을 단호히 물리치고 1957년에 공업생산을 1956년의 예정실적보다 21% 더 높일것을 결정하였으며 계획밖에 40억~50억원(구화폐)의 상품과 여러가지 강재 5천~1만톤, 알곡 5만톤을 더 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1957년도 계획과제수행을 위한 방도를 환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내부예비를 백방으로 동원하며 설비리용률을 높이는것을 계획수행의 결정적고리로 보시고 《증산하고 절약하여 5개년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완수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내놓으시였다. 그리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은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 때에만 가능하다는것을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자력갱생의 원칙과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여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 진공적으로 뚫고나아가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는것, 바로 이것이 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이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우리 당과 인민이 확고히 견지해야 할 혁명적립장이였다.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는 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 당의 대중지도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로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가 끝나자 곧 강선제강소에 나가시여 이곳 강철전사들에게 나라가 처한 어려운 형편과 혁명의 요구, 당의 의도를 알려주시고 강재를 1만톤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는것을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집단적혁신운동을 벌려 온 나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앞장서라고 뜨겁게 고무하시였다.

강선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결연히 일떠섰으며 혁명적대고조의 첫 봉화를 높이 들고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선제강소를 현지지도하신데 뒤이어 1957년 정초부터 전국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과 농어촌들을 끊임없이 현지지도하시면서 옹근 한해를 거의 현지에서 지내시였으며 근로대중을 혁명적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다른 한편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을 전국각지에 파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혁명적사업방법을 본받아 각급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이 생산현장에 내려가 군중을 발동하여 증산과 절약을 위한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도록 하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숨은 예비들을 찾아냈으며 대중적으로 기술을 혁신하여 낡은 공칭능력과 기준량을 마스고 지난날에는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새 기록, 새 기준을 창조하였다.

강선의 로동계급은 년간 6만톤밖에 생산할수 없다던 분괴압연기로 9만톤의 강편을 생산할것을 결의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12만톤을 뽑아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김책제철소에서는 년산 12만톤의 공칭능력을 가진 설비로 27만톤의 선철을 생산하였다.

농민들은 벼랭상모를 비롯한 선진영농방법들을 널리 도입하였으며 석달이상 계속된 왕가물을 군중적투쟁으로 이겨내고 대풍을 마련하였다.

당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 뒤떨어진 부문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였다.

당시 제일 뒤떨어진 부문은 수산부문과 건설부문이였다. 그것은 주로 이 부문들에 종파여독이 많이 남아있는것과 관련되여있었다.

수산부문과 건설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1957년 4월과 10월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들에서 보수주의, 소극성이 심하게 나타나고있던 수산부문과 건설부문에서 종파여독을 청산하고 근본

적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혁명적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후 청진수산사업소, 남포수산사업소 등 여러 수산사업소들과 평양시건설장을 비롯한 수많은 건설현장을 찾으시여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로동자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리하여 수산부문에서는 투기현상을 반대하고 사철 바다를 비우지 않고 다양한 어로방법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으며 잡은 물고기를 잘 가공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건설부문에서는 조립식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에 불을 걸게 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전변이 일어나고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새 기록, 새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이러한 혁명적앙양속에서 매우 어려운 과제였던 5개년계획의 첫해과업이 승리적으로 완수되였다. 공업생산은 한해동안에 44%라는 비약적인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알곡생산계획도 112%로 넘쳐 실행되였다.

참으로 1957년의 투쟁경험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를 확고히 세우며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한다면 그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을 빠른 속도로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바로 이러한 혁명적대고조속에서 적들의 《반공》공세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온갖 음모책동도 다 날아났으며 우리를 비방하던 사람들도 머리를 수그리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 천리마운동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천리마운동은 일정한 주객관적조건에 기초하여 발생할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닦아진것은 천리마운동을 낳게 한 객관적조건이였다.

그러나 이 객관적조건만 가지고 천리마운동이 발생할수는 없었

다. 천리마운동과 같은 혁명적대중운동이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럴만한 주체적력량이 준비되여있어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끊임없이 강화해오시였으며 인민대중을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켜 그들이 당의 부름따라 그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도록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시였다. 이리하여 천리마운동을 일으킬수 있는 주체적력량이 튼튼히 마련되였다.

천리마운동은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작용하면서 급속히 발전되였다.

그 과정에 이 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뒤떨어진것을 쓸어버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우리 나라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대 혁명운동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서의 천리마운동의 본질은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한다는데 있었다.

제 7 절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완성. 사회주의하에서의 계속혁명에 관한 주체의 리론

당은 천리마운동을 적극 밀고나가면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는 사업을 다그치였다.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농업협동화운동이 1957년에 이르러 완성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 단계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이미 이룩한 농업협동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협동화수준이 뒤떨

어진 지방들에 힘을 집중하여 모든 농민들을 다 협동경리에 망라시키는것이였다. 그때까지 농업협동조합에 들어오지 않고있는 계층은 주로 부유한 농민들, 농사를 지으면서 장사도 하는 도시주변의 농민들, 심히 널려있는 산간지대 농민들과 신해방지구 농민들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구체적실정을 고려하시여 자원성의 원칙을 계속 엄격히 지키면서 그들의 특성과 지대적조건에 맞게 협동조합에 받아들이도록 하시였다.

이에 따라 당은 신해방지구들에서는 아직 일부 농민들의 의식정도가 낮고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관념도 비교적 강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상교양과 실물교육을 통하여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인식시켜 여러가지 형태의 조합에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산간지대에서는 거주지단위로 종합작업반들을 조직하며 공동축산기지를 설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흩어져있는 농민들을 집결시켜 협동경리에 망라시키도록 하였다.

도시주변에서는 개인농민들의 생산이 적지 않게 개인상공업과 련결되여있는 조건에서 그들의 협동화를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와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게 하였으며 희망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나 생산판매협동조합에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부농들에 대하여서는 농업협동화운동을 반대하지 못하게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착취행위를 그만두고 성실하게 일하려는 사람들은 조합에 받아들이는 방침을 계속 관철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하여 1958년 8월에 농업협동화는 승리적으로 완성되였다.

당은 농업협동화가 완성된 다음 농업협동조합들을 리단위로 통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 농업협동조합들의 평균규모는 농호수에 있어서 80호로부터 300호로, 경지면적에 있어서는 130정보로부터 500정보로 늘어났다.

농업협동조합들이 통합되여 그 규모가 커짐으로써 토지와 그밖의 생산수단들을 더욱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현대적농기계와 선진적영농기술을 널리 받아들일수 있게 되였다. 또한 토지정리사업과 수리화, 치산치수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며 로력조직을 개선하고 협동경리를 보다 다각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되였다.

농업협동화와 함께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개인수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이미 끝나가고있던 조건에서 당시 전면에 나선것은 자본주의적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빨리 다그치는것이였다.

당은 기업가들이 희망에 따라 업종별로 조직된 생산협동조합에 들어오게 하였다. 그러되 먼저 수공업자들로 조직된 조합들을 튼튼히 하는 기초우에서 중소기업가들을 점차적으로 여기에 받아들이도록 하였으며 그들의 의식정도와 조합의 경제형편에 따라 반사회주의적형태를 널리 리용하게 하였다.

상인들을 개조함에 있어서는 그들이 로동에 숙련되지 않은것을 고려하여 먼저 판매협동조합을 뭇고 그것을 점차 생산판매협동조합으로 발전시켰다가 생산협동조합으로 개편하게 하거나 처음부터 생산판매협동조합을 뭇고 점차 생산의 비중을 높여 생산협동조합으로 전환시키도록 하였다.

당은 아무런 고려도 없이 완전한 사회주의적형태의 조합들을 서둘러 조직하려 하거나 반사회주의적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들여놓은 생산수단과 자금몫에 따라 분배를 하지 않는 일부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잡아주었다.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는 농업협동화의 완성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성과적으로 끝났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고 사회주의혁명의 전면적승리가 보장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생산력발전수준이 낮은 조건에서 기술적개조에 앞서 진행되였으며 전후 4~5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비교적 순조롭게 그리고 철저히 수행된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과 방침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는 우리 식의 사회주의제도,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서

게 되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생산력은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인민경제전반이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끊임없이 빨리 발전할수 있게 되였다.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와 억압은 영원히 없어지고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되였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였다.

사회성원들이 모두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되여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새로운 사회경제적지반우에서 강화되게 되였다.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은 북반부혁명기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였으며 남반부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과 고무적힘을 주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추동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독창적인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경험은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켰으며 온갖 기회주의를 물리치고 사회주의혁명을 가장 순조롭게 철저히 수행하는 곧바른 길을 보여주었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완성과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사회발전행정에서 력사적인 전환으로 되였지만 그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지 않았으며 사회주의제도가 섰다고 하여 혁명이 끝나는것은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계속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처음으로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대하여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10주년기념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농업협동화의 승리와 농촌경리의 앞으로의 발전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던 시기에 발표하신 일련의 로작들과 그후의 많은 로작들에서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에도 혁명이

계속되게 되는 력사적필연성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회주의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443페지)

사회주의혁명에 의하여 낡은 자본주의제도, 착취제도는 철폐되지만 낡은 사회의 유물이 다 없어지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며 이것으로 하여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차이가 남아있게 된다. 이와 같이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는 한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였다고 볼수 없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다 청산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사회주의사회에서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혁명이란 단순히 낡은 사회제도의 전복과 새로운 사회제도의 수립, 다시말하여 사회제도의 교체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 낡은 사회제도와 낡은 사회의 유물과 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구속하는 요인들을 없애기 위한 사회적, 대중적 투쟁이다.

혁명을 사회제도의 교체로만 보면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더는 혁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것은 혁명의 개념을 왜소화하는 비과학적인 견해이며 사회주의사회에서 혁명을 계속하는 것을 부인하는 수정주의적주장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혁명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으로 철저히 개조할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없다. 더우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파괴암해책동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혁명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없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의 혁명의 내용을 명확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며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537페지)

사상혁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이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이다.

기술혁명은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증진시키며 착취사회의 유물인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혁명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를 다그쳐 근로인민대중을 낡은 사회의 유물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새로운 혁명방식이다. 3대혁명은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들자신이 하는 사업이다. 그런것만큼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투쟁과는 달리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방법으로, 새것을 창조하여 낡은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이 진행되는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혁명방식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3대혁명의 방식으로 혁명을 하여야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능력을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

혁명을 동시에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3대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로동계급의 당이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근본방도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내놓으신 사회주의하에서의 계속혁명에 관한 리론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과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불멸의 기여를 한 탁월한 리론이다. 이 리론이 창시됨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인민들이 혁명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혁명의 전취물까지 말아먹게 만드는 수정주의자들에게 결정적타격을 주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고수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또한 이 리론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사회주의혁명뿐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완성된 혁명리론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다.

제 8 절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 혁명전통교양과 공산주의 교양의 강화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를 한층더 높이고 천리마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혁명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이끌어나갔다.

종파잔당을 청산하며 반혁명세력을 짓부시기 위한 전당적, 전인민적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천리마대진군속에서 근로자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또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더한층 높일수 있는 주객관적조건들이 이루어졌다.

1958년 9월에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 천리마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금속공업발전을 촉진시킬데 대한 문제와 밭관개 및 논관개 면적을 더욱 확장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철과 기계 생산을 대대적으로 높이고 농촌수리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공업화의 토대를 닦으며 인민경제의 기술개건과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치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였으며 이 문제들을 빨리 풀어야 나라의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전투적구호를 내놓으시고 금속공업과 기계제작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모든 힘을 100만정보의 관개면적 확장에로!**》라는 구호를 내놓으시고 전인민적운동으로 발관개체계를 세우고 논관개면적을 늘여 가까운 년간에 우리 나라 농촌의 수리화를 기본적으로 끝낼데 대한 전투적 목표를 제시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채택하였다. 편지는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짓부시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한층더 높일것을 전체 당원들에게 호소하였다.

당은 전원회의후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더욱 높이기 위한 전당적, 전인민적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당은 무엇보다도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적극 벌리였다.

소극성과 보수주의는 주로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믿지 않고 낡은 공칭능력, 남의 경험과 기준량에 매달리며 과학과 기술을 신비화하면서 대중의 혁신운동을 가로막는데서 나타났다.

당은 전당적으로 벌린 편지토의사업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는데 사상투쟁의 화력을 집중하게 하였다. 전당적, 전인민적 사상투쟁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더욱 높아졌으며 대담한 발기들과 창발적의견들이 수많이 제기되였다.

당은 앙양된 대중의 열의에 의거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보다 새로운 혁신과 기적이 일어나도록 이끌었다.

당은 금속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8년 10월 강선제강소 로동계급을 찾으시고 그들이 강재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이듬해 3월에는 성진제강소, 청진제강소, 김책제철소를, 9월에는 황해제철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금속공업의 발전방향과 생산의 정상화를 위한 방도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시였다.

그리하여 한해도 못되는 사이에 30만~40만톤 능력의 새로운 용광로가 일떠서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요구되는 철강재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게 되였다.

당은 금속공업부문을 계속 혁신에로 이끄는 한편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이였다.

1958년 10월,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만들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이듬해 3월에는 룡성기계공장을 찾으시여 혁명을 하자면 대담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형기계를 생산하도록 고무하시였다.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소극분자, 보수주의자, 기술신비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설계도면과 전문설비도 없고 기술자와 기능공도 부족한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뜨락또르는 30여일만에, 자동차는 40일동안에 만들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룡성의 로동계급은 8메터타닝반과 3천톤프레스를 만들고 락원과 북중의 로동계급은 대형양수기와 엑스까와또르, 불도젤을 생산하였다.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의 일대 비약을 가져오는데서 또한 중요한 계기를 열어놓은것은 이 시기에 전군중적으로 전개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9년 3월 경성군의 아마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과정에 그곳 로동자들이 공작기계를 자체로 만들어 쓰는것을 보시고 이 한점의 불꽃을 매우 귀중히 여기시여 이해 5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의 봉화를

지펴주시였다.

그리하여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으며 기계가 기계를 낳고 공장이 공장을 낳는 기적이 창조되여 불과 1년동안에 계획밖에 1만 3,000여대의 공작기계를 더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전력공업에서도 혁신이 일어났다. 전력공업을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수력발전소건설과 화력발전소건설을 합리적으로 배합하고 대규모발전소건설에 힘을 집중하면서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널리 벌린 결과 나라의 동력기지가 급속히 강화되였다.

건설부문에서는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불사르고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평양시 건설자들은 1958년에 살림집을 14분에 한세대씩 조립하는 기적적인 건설속도 《평양속도》를 창조하였다. 청년철길건설자들은 보통 3~4년은 걸려야 할 해주—하성사이 200여리의 광궤철도부설공사를 단 75일동안에 완공하였다. 뒤이어 새로운 《비날론속도》로 한해 남짓한 사이에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인 2.8비날론공장을 우리의 과학과 기술, 설계와 설비, 자재와 자금으로 건설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속에서 자체의 강력한 중공업토대와 함께 자립적인 경공업기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더 넉넉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1958년 6월전원회의에서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병행하여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고 전군중적운동으로 매개 시, 군에 한개이상의 지방산업공장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였다.

지방에서는 자체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불과 3개월동안에 1,00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을 일떠세웠으며 1년 남짓한 기간에 2,000여개의 지방산업공장을 건설하여 나라의 소비품생산의 거의 절반을 지방공업이 담당하게 되였다.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함께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발전시킨 결과 국가자금을 얼마 들이지 않고 경공업기지를 빨리 확대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당은 사회주의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기초하여 농촌수리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중앙위원회 1958년 9월전원회의후 1만여개의 저수지와 양수장, 그밖의 관개시설공사들이 착공되였으며 불과 6개월동안에 관개면적이 37만여정보나 늘어났다. 그후 기양관개, 어지돈관개를 비롯한 큰 규모의 관개공사들과 수많은 중소규모의 관개공사들이 련이어 완공되였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나라 농촌의 수리화에서 새로운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5개년인민경제계획이 공업총생산액적으로 2년반 앞당겨 수행되였다.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더욱 높이면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8년 2월에 하신 력사적연설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에서와 같은 해 5월에 하신 력사적연설 《량강도 당단체들의 과업》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혁명전통의 계승발전, 혁명전통교양에서 나서는 중요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심오한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을 계승해야만 선렬들이 지난날 혁명투쟁에서 승리한것처럼 우리가 앞으로도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을 굳게 할수 있으며 매개 사람들에게 열렬한 애국심과 혁명적루지를 북돋아줄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2권, 287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승완성되는 력사적위업이

다. 장기성을 띠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구현하며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수행된다. 혁명전통은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혁명위업의 완성을 담보하는 귀중한 혁명적 재보이다. 만일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지 못하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고수발전시켜나갈수 없으며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만 빛나게 완성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이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의 본질과 내용을 밝히시고 그 순결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우리 당이 혁명전통을 계승한다고 하는것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오가잡탕을 다 계승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당이 계승하여야 할 유일한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이다. 여기에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우리 혁명의 고귀한 업적과 투쟁경험이 풍부히 담겨져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 주체의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하면서 그것을 견결히 옹호하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참으로 큰 작용을 한다. 혁명전통교양은 특히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 착취와 압박을 모르고 자라난 새 세대들을 혁명가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전통교양에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된 우리 혁명의 지도사상, 주체사상과 숭고한 투쟁정신을 따라배우며 간고한 투쟁속에서 창조된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본받도록 하는것

이다. 그리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전통의 내용을 단순히 지식으로 소유할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생활,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생동하고 깊이있게 체득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당은 전당에 정연한 혁명전통교양체계를 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을 당사상사업의 중심문제의 하나로 틀어쥐고나갔다.

기관, 기업소, 학교, 농촌들에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인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들이 꾸려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기본으로 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혁명전통교양이 조직진행되였다.

당은 혁명전적지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의 귀중한 자료들과 사적물들을 전면적으로 발굴수집하고 정리하게 하였으며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을 대대적으로 출판하고 혁명전통을 주제로 하는 문예작품들을 널리 창작보급하도록 하였다.

당은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잘 꾸리고 이를 통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당은 혁명전통교양과 함께 근로자들속에서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8년 11월 전국 시, 군 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과 공산주의교양의 기본내용을 명확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오늘 근로자들속에서 자본주의사상잔재를 뿌리뽑고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기본적인 임무이며 절박한 과업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2권, 551∼552페지)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이를 가로막는 낡은 사상 잔재를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뿌리빼고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나가는것이 중요하였다. 특히 당시에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 천리마운동을 더한층 발전시킬수 없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북반부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와 파괴암해책동을 날로 강화하고있던 조건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급의식과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산주의교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잘 인식시키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으며 이와 함께 새것은 반드시 승리하고 낡은것은 멸망한다는 진리를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근로자들을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양하며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정신으로 무장시키며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 계속혁명의 사상,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는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이후시기 당사상사업의 기본방향을 밝힌 강령적문헌으로서 근로대중의 사상의식개조에서 강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되였다.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강령적지침으로 하여 공산주의교양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에서 기본을 계급교양에 두었다. 그리고 공산주의교양을 당정책교양 및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다.

당은 긍정적모범으로 감화하는 방법을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가장 위력한 대중교양방법으로 규정하고 이 방법을 널리 적용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었다.

당은 공산주의교양을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하도록 하

였다. 이것은 인간개조사업을 생산실천과 결부하고 대상의 특성에 맞게 진행하며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킬수 있게 하였다.

혁명전통교양과 공산주의교양이 강화되고 천리마운동이 심화발전되는 행정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9년 2월 강선의 로동계급들을 찾으시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봉화를 지펴주시였으며 그후 이 운동은 급속히 확대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천리마운동이 심화발전된것으로서 인민경제발전의 강한 추동력으로, 근로자들의 대중적경제관리의 훌륭한 방법으로 되였을뿐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 훌륭한 대중적교양의 방법으로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202~203페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데 있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1960년 8월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를 계기로 작업반의 범위를 벗어나 직장, 공장 범위로 확대되였으며 공업뿐아니라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벌어지게 되였다.

제 9 절
주체의 당사업리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완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면서 주체의 당사업리론을 독창적으로 발전시켜나가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앙양이 일어나고있던 새로운 환경은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적기능을

더욱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당사업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밝혀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고전적로작 《당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와 《당사업방법에 대하여》, 《함경북도 당단체들의 과업》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당사업에 관한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당사업의 기본에 대하여 새롭게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은 사람들과의 사업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3권, 100페지)

사람과의 사업은 사람의 사상과의 사업이다. 다시말하여 사람의 사상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의 사상을 발동하는 사업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는 그 주체인 사람의 사상을 어떻게 발동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교양자이며 조직자이다. 당사업의 대상은 사람이며 당의 임무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잘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사업은 당사업의 기본을 이루게 된다. 만일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들과의 사업에 두지 않고 행정실무화한다면 당내부사업도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도 제대로 보장할수 없다.

당사업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이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리가 새롭게 확립되게 되였다. 이 원리에 의하여 당사업을 행정화, 기술실무화하는 온갖 그릇된 편향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당사업전반을 옳바른 궤도우에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새로운 환경에 맞게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독창적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사회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는것을 새롭게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위원회들은 해당 단위에서 최고지도기관이며 모든 부문사업의 참모부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280페지)

당위원회들이 해당 부문, 해당 단위에서 최고지도기관, 참모부로 된다는것은 국가기관과 경제문화기관, 근로단체 등 모든 기관, 조직들이 례외없이 해당 당위원회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사업하며 해당 부문, 해당 단위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해당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조직집행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위원회들이 최고지도기관, 참모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여야만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최고형태의 조직으로서의 당의 전일적인 령도가 철저히 보장될수 있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들이 철저히 관철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 참모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옳게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각급 당위원회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활동에서 집체적지도를 보장하여야 하며 당위원회들이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하거나 행정의 뒤꼬리를 따라다니는 경향, 행정경제사업으로부터 물러서는 경향을 극복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사회의 모든 분야, 모든 단위에 대한 당의 정치적령도에 관한 리론은 당사업의 기본으로서의 사람과의 사업에 관한 리론과 함께 당건설, 당사업의 근본원리를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 방법과 작풍, 특히 사회주의하에서의 당사업 방법과 작풍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시

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사업방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군중의 힘에 의거하는 방법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3권, 497페지)

군중의 힘에 의거하는 사업방법은 혁명적당의 고유한 사업방법이며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군중의 힘에 의거하는 사업방법, 혁명적사업방법은 군중을 다스리는 방법 즉 행정식방법, 군중에게 호령하고 명령하는 관료주의적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사업방법이다. 혁명적사업방법의 기본요구는 군중을 교양하고 설복하여 그들이 자각적으로 혁명에 동원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일군들이 대중의 기수가 되는 동시에 참다운 어머니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들의 사상리론수준과 문화적소양, 도덕적품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당사업리론에 기초하여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는것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1959년 12월확대전원회의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생산력이 빨리 발전하여 생산의 규모가 커졌으며 대중의 정치적열성이 더욱 높아진 새 환경에 맞게 당과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뒤이어 그 관철대책을 토의하는 평안남도당전원회의를 지도하시였으며 1960년 2월에는 청산리와 강서군에 나가시여 보름동안이나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산리 농민들의 가정을 방문하시여 그들의 생활을 알아보시고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시였으며 리의 일군들과 당원들, 농민들과의 담화를 통하여 리당사업과 협동조합관리운영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결함과 결런 문제에 대하여 속속들이 파악하시였다. 그리고 리에 대한 군의 지도사업을 료해하시기 위하여 군당집행위원들과 부부장이상 일군들 및 핵심당원들을 만나 담화

하시고 군당위원회초급당총회, 군당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또한 군안의 다른 6개 리에 지도성원들을 파견하시여 그 형편도 청산리와 다름이 없다는것을 료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데 기초하여 청산리당총회와 강서군당위원회전원회의가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준비부터 진행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산리당총회에서 《사회주의적 농촌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 강서군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 환경에 맞게 군당단체의 사업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강서군당 사업지도에서 얻은 교훈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여 사회주의농촌경리의 운영과 당, 국가 및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산리와 강서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시면서 새 환경의 요구에 맞게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데 대하여 가르치시고 몸소 그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현하고 발전시킨 과학적이며 공산주의적인 대중 지도사상이며 지도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9권, 507페지)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우선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것이다.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는것은 우가

아래에 호령만 하는 관료주의적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상하가 굳게 단결하여 일하는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이며 집단주의가 사회생활의 기초로 되여있고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업방법이다.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다음으로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는것이다. 이것은 일군들이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의논하여 제기된 과업을 구체적조건에 맞게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게 함으로써 지도에서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과학성과 현실성을 보장하게 하는 사업방법이다.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또한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것이다. 이것은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이라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한 사업방법으로서 모든 근로자들이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일하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이다.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것은 행정식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대중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높여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대중의 혁명화를 다그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청산리방법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옳게 결합하며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는것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대중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적이며 일반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일반적지도와 해당 단위의 구체적조건과 대중의 준비정도에 맞게 사람들을 교양하고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는 개별적지도를 옳게 결합하는것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대한 통일적이며 산 지도를 보장할수 있게 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모든 사업에서 선후차를 가르고 중심고리를 찾아내여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것은 적은 력량으로 최상의 성과를 거두며 사업전반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은 대중에 대한 혁명적령도를 가장 훌륭히 보장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틀어쥐게 되였다.

당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전당, 전국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은 웃기관 일군들이 직접 아래에 내려가 아래일군들과 군중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였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중앙이 도를 도와주고 도가 군을 도와주며 특히 당과 국가의 말단지도기관인 군기관의 일군들이 농촌의 기본생산단위로 된 리에 일상적으로 내려가 리일군들과 함께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직접 조직집행하면서 리사업을 책임적으로 도와주게 한것이였다.

당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일반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군중과의 사업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오게 하였다. 특히 당사업을 대중의 생산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면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1년 1월 리현리당총회를 지도하시면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당사업에서 주되는것은 모든 사람을 교양하고 개조하며 단결시키는것이다**》에서 사람과의 사업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를 총화하시고 그것을 더욱 심화시킬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관철되는 행정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이 더욱 힘있게 추진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류례없이 빠른 발전이 이룩되게 되였다. 5개년계획이 공업총생산액적으로 2년반에 수행되고 중요공업제품의 현물지표별 생산계획도 4년동안에 완수 또는 초과완수되였다. 1960년 공업총생산액은 1956년에 비하여 3.5배로 늘어나 해방전 1944년 한해동안에 생산하던 공업제품총량을 단 40일동안에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이 가셔지고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가 창설되였으며 공업화의 기

초가 튼튼히 축성되였다.

5개년계획기간에 농촌의 수리화가 기본적으로 끝나고 전기화, 기계화에서도 큰 전진이 이루어졌다. 알곡생산량은 4년동안에 32% 늘어나고 공예작물생산과 축산업, 과수업이 훨씬 발전하였다.

인민경제가 빨리 발전함에 따라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풀리였다. 1960년에 국민소득은 1956년에 비하여 2.1배로 늘어났으며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임금은 2.1배로 높아지고 농민들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중농 또는 부유중농의 수준에 이르렀다.

문화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그들의 생활풍모가 훨씬 개변되였다. 1956년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된데 뒤이어 1958년부터는 아세아에서 처음으로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였으며 1959년에는 모든 학교들에서 수업료가 없어지고 완전한 무료교육이 실시되였다.

5개년계획이 수행됨으로써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가 확립되고 사회주의적공업화의 기초가 튼튼히 닦아졌으며 인민생활이 높아지고 식의주에 대한 근심걱정을 하지 않게 되였다. 우리 나라는 뒤떨어진 농업국가로부터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되였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이 새로운 사회주의적기초우에서 보다 강화되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더욱 굳게 결속되였으며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가일층 공고화되였다.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경제를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며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가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으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게 되였다.

제 10 절
조국통일을 위한 주동적공세의 강화. 남조선에서의 4월인민봉기. 주체사상에 기초한 해외교포운동의 획기적발전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들이 이룩된 반면에 남반부에서는 정치경제적위기가 날이 갈수록 격화되였다.

전후 미제는 남조선을 저들의 군사침략기지로, 군사적부속물로 더 잘 복무하도록 만들기에 미쳐날뛰였다. 놈들은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1957년 7월에는 일본에 있던 《유엔군사령부》까지 남조선에 옮겨놓고 원자포, 유도탄을 비롯한 신형무기를 대량적으로 끌어들였으며 괴뢰군을 대대적으로 늘이였다.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의 가혹한 폭압통치와 경제적략탈로 하여 남조선은 생지옥으로 전변되고 남조선인민들은 《4천년래의 민생고》에 허덕이게 되였다.

미제와 리승만역도는 인민대중으로부터 더욱더 고립되였으며 괴뢰지배층내부에서의 모순과 갈등도 날이 갈수록 격화되여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급속히 변화발전하는 안팎의 정세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위업을 다그치기 위한 진공적인 방침을 련이어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이하로 줄이고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데 대한 협정을 맺으며 북과 남사이의 자유로운 래왕과 통신거래, 경제 및 문화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혹심한 굶주림과 가난에 허덕이는 남조선인민들, 특히 실업자들과 절량농민, 리재민, 류랑고아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련의 동포애적제안들을 내놓았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이러한 주동적제의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더욱더 궁지에 몰아넣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크게 고무추동하였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1955년 12월에는 남조선혁명가들의 합법적정당으로서 진보당이 조직되게 되였다. 진보당은 반제, 반파쑈, 평화통일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투쟁강령을 내놓고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을 묶어세우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책동과 파쑈화정책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진보당의 영향력이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빨리 확대강화되는데 겁을 집어먹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류혈적인 탄압책동을 벌려 수많은 진보당 당원들을 체포, 투옥하고 그 당수 조봉암을 학살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진보당은 비록 1958년 1월에 적들에 의하여 해산당하고말았으나 남조선에서 조국통일기운을 더욱 높이고 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을 발전시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진보당이 해산된후 날로 더욱 강화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혹심한 탄압속에서도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계속 세차게 벌어져 1960년에 이르러서는 리승만괴뢰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1960년 3월 남조선에서 진행된 리승만괴뢰도당의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마산시민들의 투쟁으로부터 시작된 항쟁의 불길은 삽시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을 비롯한 남조선 전역에 퍼졌으며 마침내 수백만명에 이르는 광범한 군중이 참가한 대중적인 인민봉기로 발전하였다.

4월 19일 서울에서 봉기자들은 《썩은 정치 물러가라!》, 《리승만정권 타도하라!》 등의 구호를 들고 달려드는 괴뢰군경놈들을 물리치면서 《자유당본부》, 《반공회관》과 《특무대》, 괴뢰경찰서들을 파괴소각하였다. 그들은 미제의 남조선주재 《경제협조처》를 습격하고 《경무대》와 괴뢰중앙청으로 육박해들어갔다.

우리 당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4월 21일 당중앙위원회는 《남조선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미제침략군의 즉시 철거와 리승만괴뢰통치의 전복을 위하여 억세게 싸울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남조선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써 련합회의를 열것을 제의하였다.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은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었다.

남조선인민들은 원쑤들의 총칼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리승만괴뢰정부를 때려부시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에로 넘어갔다. 군중의 앙양된 기세에 따라 괴뢰군의 일부 병사들과 경찰들도 시위에 합류하여나섰다.

드디여 미제의 오랜 앞잡이 리승만을 우두머리로 하는 괴뢰정부는 무너지고말았다. 이것은 전후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이룩된 첫 승리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거개를 시위한 4월인민봉기는 어떠한 총칼의 위협이나 기만술책으로도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막을수 없으며 인민대중이 힘을 합쳐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선다면 원쑤들의 어떠한 아성도 능히 처부실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4월인민봉기는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나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다. 4월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인 미제침략자들과 그와 결탁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는 반제반봉건적투쟁으로, 주권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4월인민봉기는 미제를 몰아내며 그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기 위한 결정적인 혁명투쟁을 통하여서만 남조선인민들이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할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였다.

교활한 미제는 리승만괴뢰정권이 꺼꾸러지자 괴뢰정권에 다른 앞잡이를 들여앉혀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계속 유지하며 인민들의 혁명적진출과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을 말살하려고 책동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8.15해방 15주년 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4월인민봉기이후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남조선에서 혁명운동을 발전시키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다그치기 위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참된 자유와 해방,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한데 뭉쳐 철저한 반제국주의적, 반봉건적 투쟁을 진행하여야하며 미제침략세력을 몰아내는데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또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다시금 밝히시면서 남조선당국이 아직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받아들일수 없다면 먼저 민족적으로 긴급하게 나서는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하여 과도적대책으로서 남북조선의 련방제를 실시할것을 제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제의하고있는 련방제는 남북조선에 지금 있는 사회정치제도는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두 정부의 대표들로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민족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를 공동으로 처리하려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6권, 479페지)

련방제가 실시되면 북과 남사이의 접촉을 통하여 호상리해가 촉진될수 있으며 정치경제적련계가 강화되고 민족적화목의 분위기가 조성될수 있었다. 따라서 조국통일의 위업을 앞당겨나가는데서 매우 유리한 국면이 이루어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당국이 련방제조차 접수할수 없다면 북과 남의 실업계 대표들로 경제위원회를 조직하며 정치문제와는 관계없이 경제적 협조와 교류라도 실현할것을 제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현명한 방침에 크게 고무되여 남조선에서 조국통일기운은 전례없이 높아갔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이 날을 따라 빨리 강화되였다.

남조선의 애국자들과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이 강화되는 가운데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대두하게 되고 1960년 11월에는 사회대중당이

조직되여 인민들의 대중적진출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이끄는 조직정치활동을 벌리였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통일만이 살길이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를 들고 북과 남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영웅적투쟁을 벌리였다.

4월인민봉기이후 새롭게 앙양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질겁한 미제는 오래전부터 민족반역의 추악한 길을 걸어온 박정희역도를 비롯한 괴뢰군부안의 깡패들을 부추겨 1961년 5월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포악한 군사파쑈독재를 세우게 하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은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여지없이 짓밟아버리였다. 모든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언론, 출판 기관들을 강제페쇄하였으며 수십만의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원쑤들의 야수적폭압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혁명력량은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북반부혁명기지를 더욱 강화하고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투쟁에로 전체 조선인민을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조국의 북과 남에서 힘차게 전개되는 혁명투쟁에 발맞추어 해외교포운동, 특히 재일조선인운동이 빨리 강화발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이 운동을 힘차게 발전시키기 위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우리 나라 해외교포문제는 그 력사적근원으로 보아 일제의 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조선동포들이 해외에 류랑하게 되면서 생겨난 문제이다. 그러나 지난날 망국노의 처지에 있었을 때에는 그들의 문제가 조선의 해외공민으로서의 교포문제로 제기될수 없었다.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여 해외동포들이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게 되면서부터 그들의 문제가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문제로 제기될수 있었으며 그들의 활동이 자기의 뚜렷한 위치와 독자적내용을 가진 해외교포운동으로 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외교포운동의 성격과 사명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외교포운동은 어디까지나 조국의 통일발전과 자기 나라 혁명에 복무하는 민족적애국운동, 혁명운동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외교포운동의 기본과업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앞에는 첫째로 전체 재일동포들이 우리의 사회주의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적극 옹호하도록 하며, 둘째로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며, 셋째로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넷째로 일본의 민주세력과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혁명적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9권, 489～490페지)

해외교포들의 운명이 조국의 운명과 련결되여있고 해외교포운동이 자기 나라 혁명에 복무하는 운동인것만큼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옹호하며 조국에서의 혁명발전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는것은 해외교포운동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된다.

이와 함께 해외교포들은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의 한 부분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이기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존엄을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의 해외교포들의 민족적애국운동은 공화국북반부에서의 혁명발전과 함께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적극 지지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위업을 촉진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하여야 한다.

해외교포들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조선공민들인것만큼 이에 맞게 국제적활동을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외교포들의 모든 활동에서 일관하게 지

켜야 할 원칙적립장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해외교포운동에서도 반드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해외교포운동의 지도사상으로는 마땅히 조국혁명의 지도사상이 되여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자주적립장, 혁명적립장에서 그 운동이 진행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밖에도 해외교포조직들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해외교포들의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의 원칙과 방도 그리고 해외교포운동진행의 구체적방법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우리 나라 해외교포들의 운동, 특히 재일조선인운동은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되였다.

재일조선인운동은 한동안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한때 재일조선인운동대렬안에 기여들었던 사대주의에 물젖은 종파분자들은 재일조선인운동이 일본의 《민주화투쟁》에 복무하여야 한다고하면서 재일동포들을 극좌적인 모험주의의 길로 이끌어 재일조선인운동에 큰 손실을 입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이 처한 이러한 실태를 깊이 헤아려보시고 정전직후에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1955년 5월 25일 재일동포들의 리익과 의사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이며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가 결성되였다. 총련의 결성은 재일동포들의 투쟁과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총련의 결성에 의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은 비로소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참다운 해외교포운동으로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총련은 자기 조직과 산하조직들, 모든 재일동포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였으며 전체 재일동포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나갔다.

총련은 동포들속에서 주체조국의 존엄과 위신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면서 재일조선청소년들을 사회주의조국에 훌륭히 이바지할수 있는 인재로, 유능한 기술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과 과학자, 동포상공인들이 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과학, 기술, 경제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총련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심으로써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공민들의 법적지위를 보장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민족적권리를 옹호하는것을 공화국정부의 신성한 의무로 선포하시였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적인 배려에 한없이 고무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데서 민족교육사업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조선공민들의 생활에서 절박한 문제의 하나인 후대들의 교육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사업의 가장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시였으며 나라형편이 몹시 어려웠던 시기인 1957년부터 해마다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어버이사랑에 의하여 총련은 일본반동정부가 강요하는 《동화교육》을 물리치고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정연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체계를 갖추어놓았으며 후대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아들딸로, 지덕체를 갖춘 민족간부로 믿음직하게 키워나갔다.

총련은 또한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로의 귀국과 래왕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1959년 12월부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

동》이라고 불리우는 재일동포들의 공화국에로의 귀국사업이 진행되게 되였다. 총련은 이미 쟁취한 재일동포들의 귀국의 권리를 끝까지 고수하며 조국과 제3국에 자유롭게 오갈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일관하게 벌리였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방침을 각계각층 동포들속에 깊이 해설침투하고 그 관철에로 그들을 적극 불러일으키며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사상과 정견, 신앙과 단체소속의 차이를 가리지 않고 재일동포들의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괴뢰정권을 뒤집어엎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구국투쟁을 백방으로 지원함으로써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가는데 이바지하였다.

총련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에 철저히 립각하여 대외활동을 적극 벌림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널리 보급하며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재일조선인운동이 이룩한 이와 같은 커다란 성과와 발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독창적사상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현명한 령도가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였다.

제 11 절

수정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1950년대중엽에 이르러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는 수정주의가 대두하여 정세가 복잡하여졌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정세의 변화》와 공산주의리론의 《창조적발전》이라는 구실밑에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지켜오던 혁명적원칙들을 수정, 거부하는데로 나갔다. 그들은 혁명투쟁에 대한 당의 령도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부인하였고 제국주의의 본성이 변한듯이 환상을 퍼뜨리면서 반제투쟁을 포기하는데로 나갔으며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여러모로 방해하여나섰다.

현대수정주의의 해독적작용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매우 엄중하게 미치였다. 적지 않은 공산당, 로동당들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기회주의요소들이 머리를 쳐들게 되였으며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와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약화되여 반혁명적소요까지 일어났다.

한편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은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정책을 악랄하게 감행하는 동시에 《반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전복하기 위한 반동공세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1957년 12월 당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그리고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국가들의 친선과 단결》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제국주의와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명백히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시대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초하시여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견결한 립장을 지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으며 반제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반제력량이 굳게 단합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할데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부르죠아사상의 반영으로서의 수정주의는 현시기 국제로동운동에서 주되는 위험으로 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1권, 414페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것은 개별적나라들에서의 당과 혁명의 강

화발전을 위하여서나 전반적국제공산주의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서나 다같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되였다. 현대수정주의는 무엇보다 제국주의앞에 굴복한 우경투항주의인것만큼 수정주의를 반대하지 않고서는 반제반미투쟁을 힘차게 전개해나갈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수정주의투쟁에서 일관하게 지켜야 할 원칙적립장에 대하여 명확히 가르치시였다.

혁명의 근본원칙들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추호도 용납해서는 안되며 반대로 민족적특성과 구체적인 력사적조건을 무시하는 교조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수정주의투쟁에서 투쟁과 단결, 단결과 자주성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한다고 하면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파괴하여도 안되고 단결을 도모한다고 하면서 반수정주의투쟁을 포기하여도 안된다. 자기 당의 독자성을 구실로 단결을 저애하거나 단결을 구실로 자주성을 무시하는 경향을 다같이 반대하여야 하며 자기 나라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독자적으로 자기 당의 정책을 규정하는 동시에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서로 협의하여 통일적인 견해를 이루고 협의된 결과를 다같이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투쟁을 강력히 벌리면서도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전통적인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1956년부터 1958년사이에 구라파와 아세아의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하시였으며 이 시기 우리 나라를 찾아온 많은 사회주의나라 당과 정부의 지도자들과 상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나라 당 및 정부 지도자들과의 회담들에서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이미 맺어진 친선,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제기되고있는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시였으며 그

것을 통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을 일층 강화하시였다.

우리 당은 여러 국제회의들과 다른 나라 당대회들에 참가하는 기회를 리용하여 언제나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7년 11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사회주의나라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와 뒤이어 진행된 세계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에 몸소 참석하시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시대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이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견지하며 광범한 반제력량을 동원하여 반미투쟁을 결정적으로 강화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밝히시고 모든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이 운동에 온갖 지원을 주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의무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산당, 로동당들이 자주성에 기초한 호상관계의 규범을 엄격히 지키고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주되는 위험인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1960년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때에도 우리 당은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일체 분렬주의적경향들을 견결히 반대하고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원칙에서 모든 공산당, 로동당들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우리 당의 이 모든 원칙적이고도 견결한 립장과 적극적인 활동은 제국주의자들의 《반공》소동과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에 타격을 주고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옹호하는데서 커다란 기여로 되였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

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파괴책동을 견결히 반대하고 이 나라들의 민족적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반제반미투쟁을 지지성원하는데 큰 주목을 돌리였다.

당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침략행위를 반대하고 대만해방을 위한 중국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미제의 간섭과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싸우는 웰남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우리 당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국제반동들이 사회주의나라들을 안으로부터 와해시킬 목적으로 반혁명을 사촉하였을 때에도 원칙적립장을 견지하면서 이를 견결히 규탄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중근동, 아프리카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침략자들이 수에즈운하를 국유화할데 대한 애급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반대하여 무장간섭을 감행하였을 때 우리 당은 1956년 11월 제국주의자들의 로골적인 무장간섭을 견결히 반대하고 애급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는 정부성명을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제국주의침략을 규탄배격하는 전국적인 항의운동을 광범히 조직하였다.

당은 그후 계속 감행된 아랍나라들에 대한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로골적인 무력간섭도 견결히 반대하였으며 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던 알제리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고 그들의 투쟁을 각 방면으로 지지성원하였다.

우리 당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재생시키기 위하여 《일미안전보장조약》을 개악하고 일본의 군국화를 다그치는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이 반제자주의 길로 나가며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도록 그

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도와주었다.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적들의 도발적공세가 심하고 수정주의가 대두하여 난관을 조성하고있던 어려운 시기에 우리 당이 국제관계분야에서 벌린 적극적인 활동은 전반적세계혁명발전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후 1960년까지의 시기는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수행한 력사적시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이 전후 인민경제복구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천리마운동의 대고조가 일어났으며 이 운동의 불길속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나고 공업화의 토대가 축성되여 사회주의기초건설이 완성되였다.

이 시기는 또한 우리 당 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를 청산하고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한것으로 특징지어지는 시기였다.

당은 견결한 반종파투쟁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공고화되였을뿐아니라 계급교양과 공산주의교양, 혁명전통교양, 특히는 사상사업에서의 주체확립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사상적으로 매우 강화되였다. 그리고 주체의 당사업리론이 확립되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됨으로써 우리 당 사업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

이 시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정부의 주동적공세가 강화되였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해외교포운동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룩되였다.

우리 당은 이 시기에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조성되였던 엄중한 위기와 시련을 성과적으로 이겨냈으며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리였다.

제 9 장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에로의 이행.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기 위한 당의 투쟁. 당의 유일 사상체계의 확립
(1961—1970)

제 1 절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

1960년대초에 이르러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5개년계획이 앞당겨 수행되고 사회주의기초건설과업이 완수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해나가야 할 과업이 나서게 되였다.

다른 한편 남조선에서 군사파쑈독재수립후 조성된 험악한 정세와 미제의 반동공세와 현대수정주의의 대두로 말미암아 복잡하게 된 국제정세는 이에 상응하게 당의 대내외정책들을 세워나갈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력사적전환의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가 소집되였다.

대회는 1961년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116만 6,359명의 당원과 14만 5,204명의 후보당원을 대표하여 1,157명의 결의권을 가진 대표와 73명의 발언권을 가진 대표가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와 인민경제발전 7개년(1961—1967)계획에 대한 문제들이 중요하게 토의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총결기간 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시고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에서 당면하게 나서는 투쟁과업과 조국통일, 당건설, 국제관계분야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대회에서는 인민경제발전 제1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토의결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210폐지)

제1차 7개년계획은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한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계획이였다. 다시말하여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계획이였다.

대회는 제1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며 과학과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고 부문별 과업들을 뚜렷이 밝히였다.

공업부문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심적인 과업은 공업생산의 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그 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최신기술로 튼튼히 꾸려진 자립적공업체계를 세우는것이였다. 공업총생산액은 제1차 7개년계획기간에 약 3.2배로 높일것이 예견되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기술적개조를 밀고나가 농업의 기계화를

실현하며 농업생산을 더욱 높이는것을 중심과업으로 내세웠다. 제1차 7개년계획말에 알곡총생산량은 600만톤 수준에 올려세울것이 예견되였다.

대회는 과학문화분야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분야의 중심과업들도 제시하였다.

대회에서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과업이 토의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극악한 군사파쑈통치가 지배하는 남조선의 정세를 깊이 통찰하시여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기본요구를 다시금 밝히시면서 남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광범한 대중속에 뿌리박은 로동자, 농민의 독자적인 당을 창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남조선에서 로동자, 농민의 혁명적당을 창건하는것은 지난날 남조선인민들이 반미구국투쟁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 그리고 남조선혁명이 지역혁명으로서의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있는데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인 요구였다.

대회는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대회에서는 당건설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총화하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그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업을 중요하게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의 운명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는 전적으로 우리 당의 령도에 달려있으며 당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입니다.

우리는 당을 계속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275페지)

대회에서는 먼저 간부대렬을 계속 튼튼히 꾸리며 그들의 지도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을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그리고 당과 혁명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의 세포인

초급당단체들을 생기발랄한 전투적인 조직으로 만들며 당원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모든 당원들이 온갖 부정적현상들을 반대하며 언제 어디서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하도록 교양훈련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는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각급 당위원회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의 집체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모든 국가기관들과 근로단체, 경제, 문화 기관들이 당의 유일한 령도밑에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지적하였다.

대회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다시금 지적하면서 특히 각급 당단체들이 사회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계층의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근로대중속에서 공산주의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문제와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과업도 중요하게 내세웠다.

대회에서는 국제관계를 분석하고 반제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계속 견지하고 대외관계를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향에 따라 인민경제발전 7개년(1961—1967)계획에 대한 결정서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할데 대한 선언서가 채택되였다.

대회에서는 당규약을 일부 수정보충하였다. 당과 혁명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새 규약에 당원의 의무와 각급 당조직들의 임무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규정하였으며 당원들의 당생활과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당사업에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였다.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는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완성을 총화한 승리자의 대회,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온갖 종파오물들을 쓸어버리고 전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불패의 위력을 시위한 단결의 대회였으며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의

리정표를 제시한 력사적인 대회였다.

대회는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위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킬데 대한 웅대한 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로 이행하는 력사적전환의 길을 열어놓았다.

대회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심화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당사업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규정함으로써 당건설과 당사업발전에서도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대회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내놓아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을 혁명기지강화를 위한 투쟁에로 더욱 세차게 불러일으켰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대회는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형제당들의 원칙적단결을 강화하며 세계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정확한 방도를 제시함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쳐나가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제 2 절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확립. 당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

당은 제1차 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가는데서 이 시기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경제관리와 당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것이였다.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것은 조성된 새로운 환

경으로부터 제기되는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였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시급히 풀어야 할 중요문제의 하나였다.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경리형태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였으며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이 추진되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기술장비수준이 높아졌으며 경제부문들사이의 련계도 매우 밀접하고 복잡하여졌다. 이와 함께 공산주의교양과 천리마운동이 심화되여 근로자들의 사상문화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그러나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체계와 지도방법은 이에 맞게 고쳐지지 못하고있었으며 일군들의 지도 능력과 수준도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있었다.

새 환경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선진적인 대규모사회주의경리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빨리 밀고나갈수 없었다.

이 긴절한 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구현한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1년 11월말—12월초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2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나타나고있는 결함과 부족점들을 분석하시고 성, 관리국들의 지도사업과 공장, 기업소들의 관리운영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전면에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어 12월초순부터 중순까지 대안전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성, 관리국들의 공장지도와 공장내부관리운영실태를 세부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료해분석하시였으며 대안전기공장 당위원회 확대회의를 여시고 그전의 공업관리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공업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내오는 조치를 취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낡은 기업관리방법인 지배인유일관리제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공장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체계이며 기술적지도를 강화하고 생산을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생산지도체계, 자재를 우에서 아래에 날라다주는 자재공급체계와 정연한 후방공급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기업관리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우리식의 기업관리체계이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훌륭한 경제관리체계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5권, 259～260페지)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 기업소들의 모든 경영활동을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진행하는 우월한 사업체계이다.

새 사업체계에서는 당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모든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관리에서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집체적지혜를 동원하여 현대적인 대규모사회주의경리를 훌륭히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며 광범한 대중으로 하여금 주인다운 립장에서 생산에 적극 참가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다 발휘할수 있게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면서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우월한 사업체계이다.

경제기술적인 사업에 치우치던 종전의 사업체계와는 달리 새 사업체계에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의 높은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제기된 모든 경제과업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한다. 그리하여 생산과 경제관리의 주인

인 근로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지혜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 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고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우가 아래를 책임지고 도와주는 우월한 사업체계이다.

새 사업체계에서는 성, 관리국을 비롯한 웃기관 지도일군들과 공장, 기업소 관리일군들이 생산현장에 내려가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며 설비, 자재를 비롯하여 생산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우가 책임지고 보장하여준다. 이 사업체계는 경제지도에서 명령과 호령의 방법, 관료주의적방법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지도일군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가르쳐주고 대중에게서 배우며 우와 아래가 합심하여 제기되는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생산을 통일적으로, 집중적으로 지도함으로써 경제를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하는 우월한 사업체계이다.

새 사업체계에서는 계획화사업, 기술지도, 생산지도를 밀접히 결합시켜 생산을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며 특히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더욱 강화한다. 이것은 현대적기술에 기초한 대규모적사회주의생산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창조됨으로써 낡은 자본주의적경제관리방법의 잔재가 청산되고 모든 근로자들이 주인이 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원칙에서 일하며 생산과 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웃사람과 아래사람, 생산자들 사이의 동지적협조와 생산자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체계와 지도방법을 새 환경에 맞게 개편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1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올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였으며 뒤이어 평안남도 숙천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군인민위원회를

통하여 농촌경리를 행정적방법으로 지도하던 종전의 체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인민위원회로부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기능을 떼내여 전문적인 농업지도기관인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새로 내오고 그것이 협동농장들을 지도하는 기능과 농촌경리에 대한 물질기술적방조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농촌경리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농촌경리위원회를 내오고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개편하시였다. 이리하여 중앙으로부터 군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가 서게 되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농촌의 변화된 현실에 맞게 빛나게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 가장 우월한 농업지도체계이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우선 농촌경리를 행정적방법으로가 아니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우월한 체계이다.

이 지도체계에서는 전문적인 농업지도기관인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과 기술력량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정연한 기술지도체계를 세운데 기초하여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강화하며 계획작성으로부터 생산조직, 기술발전, 자재보장, 로력 배치와 조직, 재정관리에 이르는 모든 기업활동을 직접 틀어쥐고 조직하며 구체적으로 지도한다. 그리하여 농촌경리의 관리운영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에 빨리 접근시킬수 있게 한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또한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적 지도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체계이다.

이 지도체계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가적소유의 현대적기술수단과 기술력량이 협동경리의 농업생산과정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가 밀접해

지고 전인민적소유가 협동적소유에 더 넓게, 더 깊이 침투하게 되며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적 지도와 방조가 더욱 강화되게 된다. 그리하여 공업이 농업을 더 잘 도와주고 기술, 문화, 사상의 모든 면에서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영향이 전면적으로 강화되며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접근시키는 과정을 촉진시킬수 있게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창조는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되였다.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우리 당은 경제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높일수 있는 힘있는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구현하고 정치사업과 경제사업,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 중앙집권화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하여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근로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게 되였다.

당은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철저히 세워 경제관리운영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공장, 기업소와 농촌들로부터 성, 관리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지게 되였다.

당은 경제지도관리에서뿐아니라 당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2년초에 황해남도 당조직들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집중지도를 통하여 당사업의 전반적형편을 깊이 료해하시였으며 이어 3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3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그 개선대책을 제시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청산리와 강서군당을 지도하시면서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관철을 위한 황해남도 당조직들의 사업정형을 총화하면서 전반적당사업개선문제를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에서 당사업의 본질과 내용을 다시금 뚜렷이 밝히시고 당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우선 당조직들이 당내부사업에 힘을 넣으며 특히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잘하도록 지도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이 당의 조직적원칙에 따라 다 잘 움직이게 될 때 당은 강유력한 불패의 당으로 되며 자기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사업의 기본고리는 먼저 당원들이 당조직생활을 잘하도록 지도하는데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6권, 138～139페지)

당사업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적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사업이다. 당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을 구성하고있는 매 당원들이 건전하여야 하며 그들이 모두 당의 조직원칙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사업의 기본고리는 바로 당원들이 당의 조직원칙에 따라 잘 움직이도록 그들의 당조직생활을 옳게 지도하는데 있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세포와 당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당의 조직부와 선전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두 부서의 배합작전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당의 경제부서들도 해당 부문에서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간부들과 군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각급 당조직들이 당내부사업에 힘을 집중하면서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를 잘할데 대한 문제도 중요하게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이 경제사업을 지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것을 가로탈것이 아니라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히시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농촌에서 계급투쟁을 옳게 진행하는 문제와 반수정주의투쟁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도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들을 세웠다.

당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3차전원회의 확대회의후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며 당사업에서 행정화를 반대하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당은 당원들속에서 당규약학습을 강화하게 하였으며 당원들의 당생활총화를 정상화하도록 하였다.

당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일군들이 지도작풍과 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이끌었다.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청산리교시와 대안교시에 대한 집행총화사업을 심각한 사상투쟁의 분위기속에서 해마다 진행하게 함으로써 당,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마스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도일군들로 하여금 현지에 내려가 방식상학, 시범상학을 널리 조직하여 생동한 모범으로 아래일군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이동강습을 비롯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현지에서 초급일군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적극 벌리도록 하였다. 당은 또한 각급 당조직들에 지도소조를 파견하여 아래일군들을 도와주고 배워주도록 하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사업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모든 당조직들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가 서게 되고 당사업이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되여갔다. 또한 전당에 당생활지도체계가 서게 되였으며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도 개선되여갔다.

제 3 절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 나라의 방위력의 강화. 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

당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그 어떠한 사태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해나갔다.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이 시기 나라의 안팎에 조성된 정세에 비추어 더욱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1962년 10월 꾸바공화국을 반대하여 까리브해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그후 웰남을 반대하는 바크보만사건을 도발함으로써 국제정세를 극도로 긴장하게 만들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남조선을 저들의 원자 및 로케트 기지로 만들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재무장시키고 남조선군사파쑈도당과 결탁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조성된 정세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며 원쑤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출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가 소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이미 1962년에 소집되였던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고 경제건설을 개편하는 한편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대책을 세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0권, 418페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킨다는것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어느 하나도 약화시키지 않고 거의 같은 비중으로 다같이 튼튼

히 틀어쥐고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원래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침략과 전쟁의 위험은 사라질수 없다. 따라서 경제건설에만 치우치고 국방건설을 소홀히 한다면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없으며 조국과 인민을 보위할수 없다. 다른 한편 전쟁이 일어나면 다 파괴될것이라고 하여 필요한 경제건설을 하지 않는다면 나라를 부강하게 할수 없고 인민생활도 높일수 없으며 도대체 제국주의가 멸망하기전에는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매 시기 정세발전의 추이에 맞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옳게 배합하여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 새 사회를 건설하게 된 조건에서 처음부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옳게 배합하도록 하시였으며 정세가 더욱 첨예화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전체 인민이 당의 이 방침 관철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였다.

당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로선에 따라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실현하는데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였다.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당은 무엇보다먼저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당은 군인들과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무장시키며 확고한 계급의식과 렬렬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하기에 힘썼다. 그리고 군인들과 인민들이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며 원쑤들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에 대처하여 언제나 경각성을 높이고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도록 하였다.

당은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군 간부화와 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군사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당의 군사로선 관철을 위하여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전사로부터 장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등급이상의 높은 직무를 담당수행할수 있는 간부군대로 키워나갔다. 또한 위력한 자립적국방공업기지에 의거하여 인민군대를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모든 군인들이 다 최신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현대적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충분히 소유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돌리였다.

당은 인민군대를 간부화, 현대화하는 동시에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켜나갔다. 로농적위대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군사를 배우고 군사훈련에 적극 참가하게 함으로써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하였다. 이와 함께 전연과 해안은 물론 나라의 종심깊이에 이르기까지 철옹성같이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전변시켜나갔다.

당은 후방을 튼튼히 꾸리는데 큰 힘을 넣었다.

나라를 방위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자체로 충분히 생산보장할수 있게 군수공업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일단 유사시에는 모든 경제를 급속히 전시체제로 개편하여 전시에도 생산을 계속할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준비시켰다. 또한 군사전략상 중요한 지대를 튼튼히 꾸리고 물자의 예비를 조성하며 공장들을 더욱 분산시키고 모든 공장들이 전쟁환경에서도 생산을 계속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당은 국방력강화에 큰 힘을 돌리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

그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당은 7개년계획 전반기과업에 따라 기간적중공업에서 부분적으로 완비되지 못한 부문들과 생산공정들을 새로 보충하며 있는 설비와 생산면적의 리용률을 높이는데 힘을 집중함으로써 중공업을 더욱 정비보강하고 그 생산능력을 더 잘 발휘할수 있게 하였다. 당은 이미 있는 기계공장들을 더 잘 정비하고 그 설비와 생산면적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경공업과 농업, 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공급할 대책도 세워나갔다.

당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도 적극 추진시켰다.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63년 3월 과학자, 기술자대회에서 제시하신 과학기술발전방향에 따라 과학교육기관 일군들이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 문화혁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기술간부들을 더 많이 길러내며 기계공학, 무선공학, 전자공학을 비롯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과학기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당은 국방력의 강화와 함께 경제건설에 큰 힘을 넣으면서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깊은 주의를 돌렸다.

당은 중앙경공업공장들을 더욱 확장하고 그 기술장비를 강화하며 도처에 지방산업공장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 일용품생산을 빨리 늘이고 그 값을 대폭 낮추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공업공장들의 기술장비를 강화하여 생산을 높이는것과 함께 중공업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생활필수품직장을 꾸려 큰 투자없이 일용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당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수업과 축산업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1년 4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제1차 7개년계획기간에 20만정보의 과수원을 새로 만들어 과수면적을 30만정보로 늘일 과업을 내놓으시였다. 북청확대회의가 있은 다음 온 나라의 곳곳에 과수원을 꾸리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이 벌어졌다.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63년 6월 전국국영농목장일군협의회에서 제시하신 축산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그해 9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축산업과 가금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당은 인민생활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을 고르롭게 높이며 산간지대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벌방지대 농민들의 수준에 끌어올리기에 힘썼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간벽지인 창성을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본보기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하기 위하여 1962년 8월 력사적인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를 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지역적거점으로서의 군의 위치와 역할을 새롭게 해명하시였으며 산간지대에서도 벌방지대에 부럽지 않게 인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군의 구체적특성에 맞게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발전시킬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후 당은 창성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당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업을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2년 4월 도인민위원회 위원장협의회에서 사회주의상업의 본질과 상업기관들과 상업일군들의 임무, 상업부문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을 밝히시였다.

당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상품류통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벌린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국방력강화에 큰 힘을 넣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은 성과적으로 추진되여갔으며 인민들의 생활은 날을 따라 향상되여갔다.

제 4 절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위대한 강령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적극적추진

우리 당은 나라의 공업화를 다그치면서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에 큰 주목을 돌리였다.

사회주의농촌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하에서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옳게 풀어야 농촌의 락후성을 빨리 없애고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생활의 체계적인 향상을 보장할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당시 일부 일군들은 농업협동화가 실현되면 농촌문제가 다 해결되는것처럼 잘못 생각하고있었으며 농업지도기관 일군들도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어떻게 건설할것인가에 대하여 잘 모르고있었다.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옳게 푸는것은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제국주의자들은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 농사가 잘 안되고 농촌문제해결에서 우여곡절을 겪고있는것을 기화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에 대하여 악랄하게 비방중상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려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지향을 막아보려고 미쳐날뛰였다.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옳게 푸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고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옳바른 길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들을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

한 테제》에 집대성하시여 196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발표하시였다.

테제는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 나서는 농촌문제의 본질적내용을 새롭게 해명하였다.

민주주의혁명단계와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의 농촌문제는 토지에 대한 봉건적소유와 온갖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를 없애고 농민들을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며 농업생산력을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는데 있었다.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이후시기의 농촌문제는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화하는 기초우에서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며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데 있다. 다시말하여 농민을 로동계급화하고 농업을 공업화하는데 있다.

농업을 공업의 수준에 끌어올리고 농민을 모든 면에 걸쳐 로동계급과 같이 만들어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앰으로써만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수 있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농민들을 공산주의에로 확고히 이끌어나갈수 있다.

테제에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의 성과적해결을 위한 기본원칙들이 명확히 제시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사업에서 반드시 세개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첫째로,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둘째로,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셋째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수준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련

계를 강화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 부단히 접근시켜야 한다.》(《김일성저작집》 제18권,198페지)

농촌문제해결의 첫째 원칙에서는 사회주의적협동화가 완성된 다음 농촌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과업들이 규정되였다.

농촌은 기술, 문화, 사상 령역에서의 락후성으로 하여 소유관계와 경제관리에서도 뒤떨어져있게 되며 따라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농촌을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하며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한 집약농법을 발전시켜나가는 기술혁명과 농촌을 문명화하기 위한 문화혁명, 농민을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야 한다.

농촌문제해결의 둘째 원칙에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이 제시되였다.

농민은 오직 로동계급의 령도와 방조밑에서만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설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공산주의에로 갈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만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농촌문제해결의 셋째 원칙에서는 소유관계와 경제관리수준에서의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고 농민을 완전히 로동계급으로 만들어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 길을 밝혔다.

소유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의 차이는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규정하는 본질적차이이며 경제관리수준에서의 차이도 역시 중요한 차이이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려면 기술, 문화, 사상 분야에서의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는 기초우에서 소유관계와 경제관리수준에서의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야 한다.

경제관리수준에서 농업의 락후성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농업협동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관리함으로써 그 관리운영방법을 공

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에 끊임없이 접근시켜야 한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소유관계에서의 차이를 없애려면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점차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전환시켜나가야 한다.

테제에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지역적거점에 관한 사상을 더욱 발전시키였다.

농촌과 같이 온 나라에 분산되여있고 지역적으로 각각 특성들을 가지고있는 대상을 지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지방마다 일정한 지역을 통일적지도의 단위로 설정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해당 지역안의 모든 대상들을 직접 지도하는것이다.

테제에서는 이러한 단위와 거점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분석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군이 농촌사업과 지방의 전반적사업을 직접적으로,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지역적단위로, 거점으로 된다는것이 지적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은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의 수행을 촉진하는 거점으로 되며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원을 실현하는 거점으로 된다.》(《김일성저작집》 제18권, 229～230페지)

군은 농촌과 로동자구를 직접 지도하는 당과 행정의 말단지도단위이다. 당과 정부의 모든 정책이 다 군을 통하여 농촌과 로동자구에 들어가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 지방의 공급사업, 교육, 문화, 보건 사업이 다 군을 단위로 하여 발전한다. 군은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수행을 촉진하는 거점으로, 농촌에 대한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원을 실현하는 거점으로 된다. 그러므로 군이 농촌의 전반적사업을 틀어쥐고 직접적으로,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여야만 사회주의농촌건설이 성과적으로 보장될수 있다.

테제는 군의 기능과 역할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향과 방

도들을 뚜렷이 밝히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 길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준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이다.

테제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여 무계급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근본지침을 제시해주었으며 농촌을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에로 이끌어가는 휘황한 설계도와 뚜렷한 리정표를 명시해주었다. 테제는 농촌문제에 관한 리론을 가장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으며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기회주의적견해를 철저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사상공세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였다.

1964년 3월에 소집된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3차회의에서는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을 집행하기 위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당은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갔으며 이미 마련된 사회주의공업의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여 농촌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단련육성된 핵심로동자들과 제대군인들이 새로 농촌에 수많이 파견되였다.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농기계들과 화학비료, 농약들을 더 많이 만들어 보내주기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으며 농업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이 더욱 강화되였다.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에 따라 1964년부터 1966년까지 년차별로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페지하며 농촌의 기본건설과 문화주택건설을 국가부담으로 진행하며 농촌의 중요생산설비와 농기계들을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할데 대한 대책들이 세워졌다. 농민들은 로동자, 사무원들과 같이 국가로부터 문화주택을 무상으로 보장받게 되였으며 1966년에는 전반적으로 농업현물세제가 페지됨으로써 우리 농민들

온 세계 력사상 처음으로 온갖 세금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였다.

당은 테제에서 제시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전반적과업을 성과적으로 푸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업지도기관들의 기능을 높이는데 큰 주의를 돌렸다.

특히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을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들이 낡은 행정적방법으로가 아니라 기업적방법으로 협동농장들을 지도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5년 5월 강원도 회양군 포천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독창적인 분조관리제를 발기하시고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분조관리제는 농민들을 집단경리의 관리운영에 적극 참가시키는 훌륭한 생산조직형태이다. 분조는 농민들이 공동경리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며 공산주의사상을 키우게 하는 집단생활의 가장 합리적인 세포로 된다. 분조관리제가 실시됨으로써 협동농장 내부관리운영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생산에서의 혁신과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보다 밀접히 결합되게 되였으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기업적지도의 우월성을 생산 및 로력 조직의 기층단위에서까지 더 잘 나타낼수 있게 되였다.

당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군의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나라의 전반적사업에서 군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거점이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농촌테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의 면모는 날로 새롭게 변모되여갔다.

제 5 절
사회주의하에서의 근로단체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주체의 리론. 근로단체사업의 새로운 발전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새로운 환경에 맞게 당사업과 국가, 경제기관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과 함께 근로단체들의 사업도 개선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4년 6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 《**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1968년 10월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심오한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단체들의 지위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커진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원래 근로단체는 당의 외곽단체이며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과 근로단체의 관계를 비유해 말하면 복숭아의 씨와 살과의 관계와 같다. 복숭아의 씨를 당이라고 하면 당의 외곽단체인 근로단체는 그 살과 같다. 복숭아가 잘 크고 맛있게 익어야 안에 있는 씨가 잘 보호되고 실속있게 여무는것처럼 근로단체들이 일을 잘하여야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고 당을 힘있는 당으로 만들수 있다.

당의 외곽단체, 인전대로서의 근로단체들의 지위와 역할은 혁명이 전진할수록 더욱 커지며 특히 사회주의사회에 와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더 중요해지고 커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단체들의 지위와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커지는것은 사회주의사회가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로서 모든 성원들이 조직생활을 하게 되며 여기에서 근로단체들이 중요한 자리

를 차지하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단체들의 지위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커지는것은 또한 사회주의하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요구와도 관련된다.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심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의 령도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성과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당, 국가 기관들과 함께 근로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적으로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단체들이 수행하여야 할 중요임무를 뚜렷이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들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입니다.》(《김일성저작집》 第23권, 45페지)

●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단체의 성격과 임무는 일정하게 달라진다.

근로단체들은 언제나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할 때까지는 근로단체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과 함께 착취계급을 반대하고 근로대중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투쟁을 진행한다.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도 일정한 기간 근로단체들은 일부 행정실무적인 사업도 맡아한다. 그러므로 이때의 근로단체들은 사상교양단체와 행정실무적단체의 두 측면을 다 가진 대중조직으로서 활동한다.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여 착취계급이 없어지고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된 새로운 조건에서는 모든 근로단체들이 온갖 행정실무적사업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 그 중요임무로 나선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단체들은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동맹원들의 조직생활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며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향

상시켜 그들모두를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근로단체들의 임무와 역할에 맞게 그 조직형식과 사업체계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직업동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사업체계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공장측과 로동자들의 리해관계가 대립되는 자본주의기업에서는 직업동맹이 공장측과 단체계약을 맺는것이 필요하였다. 인민정권이 선 다음에도 개인기업이 한동안 남아있었기때문에 기업주들과 단체계약을 맺고 로동법령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감독통제하는 문제가 중요하였다. 그리고 국영기업소들에서도 관리운영사업에서 낡은 잔재가 많이 남아있고 그 수준이 낮았던 조건에서는 로동자들의 대중적조직인 직업동맹의 감독통제가 일정하게 필요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고 특히 대안의 사업체계가 나옴으로써 공장당위원회가 기업활동의 모든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그 집행을 장악지도하게 된 조건에서 기업관리에 대한 직업동맹의 감독통제의 기능은 전혀 필요없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헤아리시여 직업동맹이 공장측과 단체계약을 맺는 제도와 감독통제하는 기능을 없애고 완전한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업체계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직업동맹은 로동계급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는데 첫째가는 주목을 돌리면서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사업, 로동보호사업, 기술교양사업과 문화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사업, 국가재산을 애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근로자들의 새로운 대중적정치조직인 농업근로자동맹을 내오도록 하시였다.

농촌에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됨으로써 농민들에게는 새로운 대중적정치조직이 요구되였다.

해방직후에 조직된 농민동맹은 빈농이 중심이 되여 지주, 부농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농민들의 조직으로서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를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에 의하여 지주, 부농이 없어지고 농민들은 다 협동경리에서 일하는 사회주의근로자로 된 조건에서 농민동맹은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게 되였다. 그렇다고 하여 농민들을 다 로동자들과 같이 직업동맹에 받아들일수는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에는 소유형태와 분배형태, 사상, 기술, 문화 수준, 로동조건에서 차이가 남아있기때문이였다. 그러므로 농민들은 완전히 로동계급화될 때까지 자체의 조직을 따로 가져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헤아리시여 1965년 3월 농민동맹을 발전적으로 해산시키고 농촌의 새로운 대중조직인 농업근로자동맹을 내오도록 하시였다.

새로 나온 농업근로자동맹은 협동농장원뿐아니라 국영농목장과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관, 기업소의 로동자, 사무원들을 망라하는 완전히 새로운 농업근로자들의 사회주의적대중정치조직이였다.

농업근로자동맹의 기본임무는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 농민대중속에서 교양사업을 적극 진행함으로써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조직동원하는것이다. 농업근로자동맹의 중요한 과업은 농민을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강령인 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민주청년동맹을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고치도록 하시였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모든 청년들이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되고 그들의 정치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더욱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주청년동맹을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고치고 사업도 새롭게 발전시켜나가는것이 필요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4년 5월 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대회

에서 민청을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개편하게 하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더욱 위력한 전투적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은 청년들을 우리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과 당정책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청년들의 조직정치생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 모든 청년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조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앞장서도록 하는 문제, 청년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용감히 나서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청년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는 문제를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성동맹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며 그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사회의 혁명화의 요구에 맞게 녀성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공산주의어머니로, 후대들에 대한 훌륭한 공산주의교양자로 만들며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시키도록 하는것을 녀성동맹의 중요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은 근로단체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은 특히 근로단체들의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근로단체들의 자립성을 높이게 하는데 힘을 넣었다. 그 결과 근로단체사업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게 되고 당이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 대중지도체계가 더욱 튼튼히 서게 되였으며 대중지도사업에서는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게 되였다.

제 6 절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 인민경제관리 운영사업의 새로운 개선

당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면서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사업작풍을 고치며 인민경제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는데 계속 큰 주의를 돌리였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1964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전원회의가 소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결론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에서 인민경제관리운영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 특히 사상적결함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지도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세우며 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방도를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관리운영사업에서 결함을 나타낸 가장 주요한 원인은 성, 관리국 간부들, 도급기관간부들에게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적은데 있습니다.

일군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그들의 당성과 계급성, 인민성에 달려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8권, 497페지)

지도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할수 있고 로동계급의 립장을 고수하면서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싸워나갈수 있으며 대중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

행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한 실지사업성과에서 나타나야 하며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알뜰하고 깐지게 하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철저히 수행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그런데 당시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부족한데로부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지 않고 인민들이 아파하는것을 보고도 해결해주려고 하지 않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있었다.

전원회의는 일부 지도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부족한 현상들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당조직생활, 특히 세포생활에 성실히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 기초우에서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국가, 경제 기관 지도일군들이 행정식사업방법, 관료주의적사업방법을 버리고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군중을 발동시켜 혁명과업을 수행하며 현지에 나가 아래일군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사업방법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인민경제의 계획화수준을 높이며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고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릴데 대하여서도 중요하게 토의하였다.

당은 전원회의후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금속화학공업성 당총회를 비롯한 성, 국당회의들을 몸소 지도하시면서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각급 당조직들은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부족한 현상들을 심각히 분석비판하면서 그 사상적근

원을 밝히고 시정대책들을 토의하였다. 간부들이 당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지 않는 현상을 비판하고 그들로 하여금 당세포회의와 당학습에 모범적으로 참가하게 하였으며 당회의들에서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더욱 강화하고 직위가 높은 당원일수록 스스로 당의 통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다.

당은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그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5년 1월에 황해제철소, 은률광산, 강선제강소를, 2월에는 흥남비료공장을 비롯한 함흥지구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실천적모범으로 아래에 대한 지도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도, 지도방법들을 가르쳐주시였다.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가르치심과 그 과정에서 친히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일군들속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는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튼튼히 세우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이 과정에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속에서는 기술실무적사업에만 매여달리던 지난날의 결함이 시정되고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을 발동시키는 사업방법과 작풍이 튼튼히 서가게 되였다.

당은 지도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인민경제관리운영사업을 더욱 개선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사업을 완성해나가는데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계획화사업을 개선하는것이였다.

계획화사업을 잘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이며 그것은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인민경제 부문들사이의 련계가 복잡해질수록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그런데 당시 계획부문 일군들에게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부족한것과 함께 계획화체계자체에도 불합리성이 있는데로부터 계획화사업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뒤떨어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계획화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964년 2월 오래동안 구상하여오신 계획의 일원화체계를 세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 전원회의와 1965년 9월 국가계획위원회 당총회에서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였다.

계획의 일원화란 온 나라에 뻗쳐있는 국가계획기관과 계획세포들이 하나의 계획화체계를 이루고 국가계획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계획화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을 의미한다.

계획의 일원화체계는 당의 의도를 잘 아는 계획기관 일군들이 지방과 기업소에 내려가 직접 계획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당정책이 계획화의 모든 단위들에 제때에 들어가 정확히 관철될수 있게 하는 체계이다.

이 체계는 계획화사업에서 지방본위주의와 기관본위주의를 없애고 성, 관리국, 도급기관들의 계획과 공장, 기업소들의 계획을 모두 전국적인 전략계획에 철저히 복종시키며 동원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게 한다. 또한 이 체계는 계획일군들이 생산자들의 의견과 생산현장의 현실을 똑똑히 알고 계획화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계획화사업에서 주관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애고 계획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계획의 세부화란 경제활동의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엄격히 서로 맞물리도록 계획화하는것을 말한다.

계획을 세부화함으로써 국가계획기관들은 전반적경제발전과 매개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밀접히 련결시킬수 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지방 및 기업소들의 특성에 맞게 계획을 구체화하여 모든 지표들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똑바로 맞물리게 할수 있다.

계획의 세부화가 실시됨으로써 인민경제발전에서 불균형성과 자연발생성의 요소를 완전히 없애고 사회주의적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의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여 나라의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게 되였다.

당은 인민경제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을 다

그리고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당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 제12차 전원회의들에서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예비를 적극 찾아내고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으며 공동경리를 잘 관리운영하고 공동재산을 애호절약하며 생활을 문화적으로 꾸려나가도록 하였다.

제 7 절
1966년 10월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당은 당 제4차대회결정을 관철해나가면서 혁명과 건설 앞에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풀어야 하였다. 혁명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끊임없이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여야 하였으며 내외정세의 변화에 따라 조성되는 복잡한 사태들을 주동적으로 타개해나가야 하였다.

1960년대중엽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은 매우 복잡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더욱 강화되여 국제정세가 극도로 긴장하게 되였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는 좌우경기회주의가 나타나 복잡성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세계혁명발전을 저애하였을뿐아니라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였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당의 대내외활동방침을 세우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혁명의 승리를 향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는것이 절실히 요구되였다.

이러한 때에 조선로동당 대표자회가 1966년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였다. 대표자회에는 결의권을 가진 대표 1,275명과 발언권을 가진 대표 48명이 참가하였다.

대표자회에서는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한 문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당면과업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토의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이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조성된 안팎의 정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문제들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그 해결대책들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대표자회에서는 먼저 국제정세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대표자회는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을 명백히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은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리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0권, 401페지)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는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등장하였으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 국제헌병,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으로, 전세계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 첫째가는 투쟁대상으로 되였다.

오직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려 반미투쟁을 견결히 벌려야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있으며 혁명투쟁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세계혁명의 이 기본전략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이 미제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원칙적립장을 지켜야 하며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전선에서 미제에게 타격을 주며 놈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손발을 얽어매야 한다. 이와 함께 미제의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이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직접 싸우고있는 나라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주어야 한다.

대표자회에서는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토의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는데서 기회주의를 극복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대표자회에서는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 두 전선에서 투쟁할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반기회주의투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립장을 명백히 하였다.

기회주의를 반대한다고 하여 단결을 부인하는 좌경적오유를 범하여도 안되며 단결을 수호한다고 하여 기회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하는 우경적오유를 범하여도 안된다.

공산당, 로동당들 사이의 의견상이는 제국주의와의 적대적관계와는 달리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내부문제인것만큼 그것을 조직적결렬에로 끌고가지 말아야 하며 어디까지나 단결의 념원에서 출발하여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당대표자회에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을 이룩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을 이룩하는데서 하나라도 더 많은 동맹자들을 전취하여 반제전선을 확대하며 미제를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공동으로 타격을 가하는것을 전략전술상 하나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대표자회에서는 공산당, 로동당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이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을 존중하는것은 형제당들간의 단결과 협조의 전제로 되며 기초로 됩니다. 모든 당들이 서로 자주성을 존중하여야만 형제당들간의 단결과 협조가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하고 동지적인것으로 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0권, 406페지)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매개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한 근본요구인 동시에 당과 국가의 대외적관계를 옳바로 가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자주성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매개 나라 당의 신성한 권리이며 매개 당은 또한 다른 나라 당들의 자주성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매개 당들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서로 자주성을 존중하여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참된 통일단결을 보장할수 있다.

당대표자회는 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공산당 및 로동당들,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의 호상관계의 규범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다른 당들에 자기 사상을 강요하거나 또는 남에게 맹종맹동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당대표자회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혁명기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먼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중요과업들을 명백히 하였다.

대표자회는 국방건설에 큰 힘을 돌리게 되는 조건에서 제1차 7개년계획수행을 3년간 연장할것을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는 문제가 토의되였다.

대표자회는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 사업과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착취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며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그들의 공통된 지향과 열의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이며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계급투쟁은 계속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과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계급투쟁이 진행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자면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과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 그래야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진압하는 한편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울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는 문제와 관련하여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본다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여나아가는 과정 즉 로동계급화하여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 사명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데 있을뿐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을 개조하여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데 있습니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우리 사회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임무는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며 전사회를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0권, 432폐지)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이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결국 로동계급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며 사회의 모든 분야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해나가는 과정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와 공산주의사회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로동계급화되는것을 통하여 실현된다.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농민과 인테리들을 개조해나가야 한다.

대표자회에서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문제도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킴으로써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그 실현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으며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자주적인 조국통일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는 국제정세가 긴장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복잡한 사태가 조성되였던 시기에 가장 정확한 주체적혁명

로선들을 내놓음으로써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국제공산주의운동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대표자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세계혁명의 기본전략과 세계혁명,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이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립장에 대한 리론 그리고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리론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리론들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참으로 커다란 기여를 한 탁월한 리론들이다.

제 8 절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

당은 당대표자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였다.

당대표자회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특히 당의 통일과 단결을 한층더 강화하여 어떤 어려운 정세에서도 복잡한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그 전투력을 높여야 하였다.

이 시기 우리 당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원래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요구이지만 이것은 당시 당내 형편에 비추어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원칙적인 당내 투쟁을 통하여 당안에 기여들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폭로분쇄하고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여왔다. 그러나 혁명이 더욱 심화되는 행정에서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격화되고 외부로부터 수정주의적 사상조류가 침습해들어오게 되자 당안에 숨어있던 부르죠아분자, 수정주의분자들이 준동하게 되였다. 부르죠아분자, 수정주의분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지 않고서는 당의 통일단결과 전투력을 더욱 강화할수 없었다.

1967년 5월에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가 열리였으며 여기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강한 사상투쟁이 벌어졌으며 그 행정에서 당안에 숨어있던 부르죠아분자, 수정주의분자들의 반당반혁명적정체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부르죠아분자, 수정주의분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외곡하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헐뜯으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당안에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교조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와 같은 온갖 반당반혁명적사상을 퍼뜨려 당과 인민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이자들은 당의 계급진지를 허물려고 하였으며 지어는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을 은근히 내세우면서 적대분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을 감싸주고 조장시키는데까지 이르렀다. 또한 이자들은 천리마운동의 발전을 방해하였으며 수정주의적경제《리론》을 퍼뜨려 우리의 사회주의경제발전을 가로막아보려고 책동하였다.

이자들의 죄행의 본질은 결국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방해하며 우리 당을 수정주의의 길로 나가게 하려는데 있었다.

부르죠아분자, 수정주의분자들의 죄행이 이처럼 엄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원들은 당의 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한데로부터 옳고그른것을 가려보지 못하고 부르죠아분자, 수정주의분자들에게 맹종맹동하였다.

모든 사실은 당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와 어긋나는 온갖 현상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당원들속에서 개별적일군들에 대

한 환상과 아부아첨을 철저히 없애고 모두가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만 당대렬의 진정한 통일과 단결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전원회의는 부르죠아분자, 수정주의분자들의 반당반혁명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여독을 철저히 청산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벌릴것을 결정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전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과 그후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들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당안에 하나의 혁명사상, 오직 수령의 사상만이 지배하게 하고 수령의 두리에 전당과 전체 인민을 묶어세우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투쟁을 벌려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전당에 수령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 하나의 단결의 중심, 하나의 령도만이 있을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일 당안에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조금이라도 허용되거나 행동상통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5권, 335페지)

유일한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지 못한 당에는 언제나 분파가 생기는 법이며 따라서 이러한 당은 대중을 자기 두리에 묶어세울수 없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통일적인 령도를 보장할수 없을뿐아니라 자기의 존재자체도 제대로 유지할수 없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수령

의 지위와 역할로부터 나서는 합법칙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개인이 아니라 계급의 최고대표자이며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 최고뇌수이다. 사람의 생명유기체에 모든 생명활동을 지휘조절하는 뇌수가 있듯이 사회정치적생명체에는 그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하는 뇌수가 있어야 하며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뇌수의 역할은 수령이 하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기초하여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유일사상체계를 세워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주체의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제시된 로동계급의 당 건설의 근본원칙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자기 수령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민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당건설리론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독창적인 사상리론으로서 당의 조직, 사상, 리론적 기초를 공고발전시키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게 하는 가장 위력한 무기로 된다.

우리 당은 각급 당조직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은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데 큰 해독을 끼친 부르죠아분자, 수정주의분자들이 뿌려놓은 사상여독을 뿌리빼는데 투쟁의 불을 걸었다.

당은 이 투쟁을 전당적으로 조직진행함에 있어서 행정적방법을 경계하고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의 방법을 견지하며 비록 과오를 범한 당원이라도 반당분자들과 조직적으로 결탁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교양개조하여 건져내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였다.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당사상교양사업의 첫자리에 놓고 진행하였다. 그리고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할수 있도록 당학습강령을 개편하고 당 및 근로단체 교양망을 다시 정비하였으며 당간부양성기관들의 사업을 개선하고 재직간부들을 위한 한달강습체계를 내왔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투쟁사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인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과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을 정중히 꾸리고 여러가지 혁명적출판물들을 더 많이 발간하였다.

당은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원들의 당조직생활,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당은 이미부터 진행하여오던 당생활총화제도를 더욱 철저히 세웠으며 특히 당원들이 자기의 당생활을 실무적으로가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총화하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렸다. 그리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도록 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전당적으로 힘있게 벌어진 결과 반당반혁명적사상여독은 빨리 가셔지고 당안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꽉 들어차게 되였으며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확립되여갔다.

전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산 조직으로 되였으며 어떠한 사나운 풍파와 시련도 능히 뚫고나갈수 있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조직으로 되였다.

당은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면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였다.

당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농민과 인테

리를 교양개조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당은 로동계급의 사상성, 조직성, 문화성을 높이고 그 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면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그의 령도적역할과 혁명적작용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당은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면서 특히 사상혁명을 강화하였다. 당은 농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적공동로동을 통하여 그들을 끊임없이 단련시키며 리기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정신과 혁명적조직성을 키워나가도록 하였다.

당은 인테리를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7년 6월 함흥시 대학교원들앞에서와 1968년 6월 함경북도 인테리들앞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인테리혁명화의 방도들을 상세히 가르치시였다.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테리혁명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꾸준한 사상교양과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인테리를 혁명화해나갔으며 그들속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 경향을 없애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에 있어서 간부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에 특별한 주목을 돌리였다.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인 간부들이 혁명화되여야 모든 근로자들을 더 잘 혁명화할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간부들의 혁명화를 위한 투쟁은 1970년 6월말부터 7월초에 걸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21차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계기로 더욱 심화되였다.

당은 간부들속에서 조직생활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면서 그들이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앞장서도록 이끌어나갔다.

당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에 있어서 학교교육사업

에 깊은 주의를 돌렸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교육은 새 세대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첫 공정이다.

당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지덕체가 겸비된 능력있는 인재로 키우도록 학교교육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게 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할데 대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였다.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구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교수교양사업에서 주체가 튼튼히 서고 로동계급적선이 뚜렷해졌다. 그리하여 학교교육기관들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자기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당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문학예술의 역할을 높이는데 큰 의의를 부여하였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이바지할 혁명적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원칙적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문학예술분야에 대한 당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찍부터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데서 혁명적문학예술이 노는 거대한 역할에 대하여 중요시하여오시였으며 1964년 12월에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를 찾으시고 현지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를 여시여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영화를 만드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또한 그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영화, 소설을 비롯한 혁명적인 문예작품들을 더 잘 창작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참말로 당적이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급속히 발전하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 더 잘 복무하게 되였다.

제 9 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로정에 관한 주체의 리론. 제1차 7개년계획의 완수, 사회주의공업화의 빛나는 실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전진함에 따라 과학리론적으로 옳게 풀어야 할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였다. 특히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관한 문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종국적승리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해명하는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과도기문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종국적승리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적로정과 관련되는 기본문제들로서 이 문제들을 옳게 풀어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목적지향성있게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또한 이 문제들을 옳게 해명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서도 필요하였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사로잡혀 이 문제들을 그릇되게 리해하고있었다. 이 문제들과 관련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 기회주의적견해들이 나타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지장을 주고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과도기문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관한 문제를 똑바로 푸는것은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나섰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7년 5월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와 1968년 9월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심오한 과학리론적해

명을 주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수립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행정은 크게 두개 시기로 구분된다. 그 첫 시기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며 둘째 시기는 공산주의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그리고 이 두 시기는 각각 몇개 단계들로 나누어진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종래에 여러가지 견해들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과도기에 대한 론의가 많았다.

과도기문제에 관한 론쟁의 중점은 과도기의 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는가 하는데 귀착되였다. 이 문제를 옳게 풀어야 혁명발전단계를 바로 설정하고 그에 맞게 전략전술을 세워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과도기계선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독창적으로 정확히 해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사회주의건설을 전진시켜 중산층을 우리편에 완전히 쟁취하게 될 때, 로동계급과 농민의 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건설하게 될 때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임무가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1권, 27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과도기에 관한 선행리론을 그것이 나오게 된 력사적조건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고찰하시면서 그때와는 다른 우리 시대의 력사적조건과 우리 나라의 실천적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과도기계선문제를 새롭게 밝히시였다.

우리 시대의 특징적현상의 하나는 자본주의발전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였거나 자본주의가 일정하게 발전하였다 하더라도 농촌까지는 자본주의화가 되지 못한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수행되고 사회주의건설이 진행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과도기가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로써 끝나는것이 아니라 보다 긴 기간 계속된다. 그것은 사회주의혁명에 의하여 사회주의제도는 세워져도 사회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아직 사회주의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며 또 모든 착취계급이 없어진 다음에도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

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에도 혁명과 건설을 계속 추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으며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며 중산층까지 사회주의를 적극 지지하게 될 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될수 있으며 따라서 과도기의 임무가 완수되게 된다.

만일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다고 하여 과도기가 끝난것으로 보면 우경적오유를 범하게 되며 그것은 자본주의잔재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과의 계급투쟁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게 할뿐아니라 나아가서는 혁명의 전취물을 위험에 빠뜨리는데까지 이르게 한다. 반대로 과도기를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까지로 보는 좌경적편향을 범하게 되면 그것은 사실상 과도기의 계선을 긋지 않는것이나 다름없는것으로 되며 결국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 맞게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세울수 없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적추진을 저애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계선을 확정하신데 기초하여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넘어가는 합법칙적과정을 뚜렷이 밝히시였다.

과도기가 끝나고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가 실현된 다음에도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로 들어가자면 혁명과 건설을 계속 전진시켜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하며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사이의 차이, 물질생활수준에서의 차이도 없애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공산주의사회에 이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존속기간문제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가 과도기의 전기간에 있어야 할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과도기가 끝난 다음에도 그것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까지 반드시 계속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1권, 271페지)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없이는 과도기임무를 수행할수 없으며 과도

기가 끝난 다음에도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야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를 심화시켜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실현할수 있다. 한 나라 또는 일부 지역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되여도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로정과 관련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히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완전히 타승함으로써 나라안에서는 자본주의의 복구의 위험이 없어졌을 때에 이루어지며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는 외부로부터의 자본주의복구의 위험까지도 완전히 없어졌을 때에 실현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기본징표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들을 명확히 밝히시였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란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되여 적대계급의 준동과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없어지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없는 무계급사회이며 모든 사회성원들의 완전한 사회정치적평등과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이 보장되는 발전된 사회,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의 사회이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서는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에도 인민정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적대계급잔여분자들의 준동과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없애고 모든 사회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가 실현될수 있는 국제적조건에 대하여서도 명확히 밝히시였다.

세계의 대다수 나라, 적어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이 련속적으로 일어나 제국주의적포위가 사회주의적포위로 바뀌여지는 것, 사회주의나라를 포위하고있는 제국주의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세계적체계에로의 전환의 길을 열어놓는것, 포

위당한 일국의 사회주의요새의 고립성을 없애고 국제로동계급과 세계피압박인민들의 전투적련대성의 강력한 뉴대를 이루어놓는것, 바로 이러한것들이 제국주의자들의 무력간섭과 자본주의복구의 시도를 막는 국제적담보로,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의 국제적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자기 나라 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동시에 세계사회주의력량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면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으로 밝히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로정에 대한 체계정연한 리론은 종래에 해명되지 못하였던 문제들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해명한 독창적인 리론으로서 과학적공산주의리론발전에서 참으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로정에 대하여 뚜렷이 밝히시는 동시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중요리론적문제들 특히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과 그것을 옳게 발양시키는데서 제기되는 주요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9년 3월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 농민시장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 등 중요문제들에 대하여 새로운 과학리론적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의 온갖 로력자원과 자연부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고 생산을 계획적으로 늘일수 있으며 기술을 계획적으로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이 계속 높은 속도로 장성할수 있으며 이러한 생산장성의 가능성은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더욱더 커진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인것만큼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다 내여 더 잘 일

하게 함으로써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는것을 깊이 론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가 있고 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도 있으며 또한 대외무역이 있는데로부터 상품생산이 있게 된다는것을 명확히 하시였다. 그리고 생산수단은 국가적소유와 협동적소유사이 또 협동적소유 호상간에 교환되는 경우와 다른 나라에 수출되는 경우에는 상품으로 되지만 국가기업소들사이에 류통되는 경우는 상품이 아니라 다만 상품적형태를 띠며 따라서 가치법칙도 형태적으로 작용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국가기업소들사이에 주고받는 생산수단이 상품이 아니면서도 상품적형태를 띠게 되는것은 국영기업소들이 경영상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있고 서로 등가보상의 원칙에서 생산수단을 주고받기때문이며 이것은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관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산수단의 생산과 류통 분야에서 상품적형태와 상업적형태, 가치형태를 옳게 리용하는것은 사회적로동의 랑비를 없애고 절약제도를 강화하여 기업소의 수익성과 국가축적을 계통적으로 늘이며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고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늘이며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협동경리가 있고 개인부업생산이 있는 이상 농민시장이 남아있게 된다고 하시면서 농민시장을 리용할 필요성과 그 리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뚜렷이 밝히시고 농민시장을 없애려면 나라를 공업화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소비품을 넉넉하게 만들어내야 하며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새로운 경제리론은 사회주의경제리론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리론이며 그것은 경제건설실천에서 불패의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밝히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로정에 관한 주체의 리론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들에 대한 독창적리론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끝없이 높여주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 드놀지 않는 확고한 신심을 깊이 간직하였기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그 어려운 과업들을 수행해나가면서도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앙양시켜나갈수 있었으며 원쑤들의 극악한 도발책동앞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그와 맞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었다.

이 시기에 있은 세인을 경탄시킨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간첩비행기 《이씨—121》격추사건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신념과 투지가 얼마나 굳세고 당당한가 하는것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1968년 1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우리 나라 령해깊이 침입시켜 정탐행위를 감행케 하다가 그것이 영웅적 조선인민군 해군에 의하여 나포되자 전쟁소동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미제는 이른바 《보복》을 운운하면서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많은 군함들과 비행기들을 우리 나라 동해안가까이에 끌어들이고 우리 인민을 위협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당장 전쟁이 터질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우리 당과 인민은 극도로 긴장된 이러한 정황속에서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조성된 사태와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는 단호하고 견결한 립장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억센 투지와 불패의 힘에 겁을 먹은 미제침략자들은 부득이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저들의 침략행위에 대하여 사죄하지 않을수 없었다.

미제는 그후에도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의 침입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파괴행위를 계속하였으나 우리 당과 인민군대와 인민은 그때마다 놈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가하였다.

우리 당은 정세가 긴장한 조건에서 국방력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며 제1차 7개년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8년 4월에 있은 전국청년총동원대회에서 청년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선봉대가 될것을 호소하시였으며 그에 뒤이어 5월에 열린 제2차 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1969년 12월에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20차전원회의 확대회의는 7개년계획수행의 마지막단계의 과업을 토의하고 계획을 빨리 완수할것을 전체 인민에게 호소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혁명적대고조의 세찬 불길이 전국을 휩쓸게 되였으며 7개년계획완수를 위한 마지막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제1차 7개년인민경제계획은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으며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제1차 7개년계획기간에 공업은 매우 빨리 발전하여 그 면모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국방건설에 추가적인 큰 힘을 돌리면서도 제1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동안에 공업생산은 매해 평균 12.8%씩이나 장성하였다. 1970년 공업총생산액은 1956년에 비하여 11.6배로 높아졌으며 공업과 농업 총생산액에서 공업의 몫은 1956년에 34%이던것이 1969년에는 74%로 높아졌다.

위력한 자체의 중공업기지에 의거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기술개건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기계제작공업을 비롯한 중공업이 발전하는데 따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장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였으며 인민경제의 전기화와 자동화가 널리 실현되여갔다.

농촌경리에서도 수리화체계가 마련되고 전기화가 실현되였으며 기계화, 화학화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농촌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진척됨에 따라 식량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였으며 현대적인 축산업을 비롯하여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들이 빨리 발전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본주의나라들이 옹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를 거쳐서 한 공업화의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을 중첩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도 14년밖에 안되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하였다.

계획기간에 교육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1967년 4월부터 공화국북반부의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7살부터 16살에 이르는 모든 청소년들이 정규학교에서 무료로 기술의무교육을 받을수 있게 되였다.

계획기간에 기술자, 전문가들의 수도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들과 고등기술학교들이 새로 많이 나왔으며 큰 공장, 광산, 기업소들에 공장대학, 공장고등기술학교들이 설치되고 통신 및 야간 교육망이 확장되였다. 결과 1970년 현재 129개의 대학과 근 500개의 고등기술학교들에서 20여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였으며 1960년에 비하여 4.3배나 더 많은 49만 7,000여명의 기술자, 전문가들이 자라나 그들에 의하여 국가경제기관들과 과학문화기관들,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이 훌륭히 관리운영되였다.

당의 올바른 교육정책에 의하여 지방마다에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가 꾸려졌다. 그리하여 모든 지방들에서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과 당 및 국가, 행정 기관 일군들을 훌륭히 키워낼수 있게 되였다.

성인교육사업이 강화되고 방송선전사업과 출판물보급사업이 개선되여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계획기간 과학연구사업에서도 큰 전진을 가져왔다.

당은 기계공업을 발전시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계화를 다그치고 전망적으로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계공학부문의 연구사업과 우리 나라의 원료에 의거한 자립적공업체계를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었다. 농업부문

에서는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다수확작물재배법과 1대잡종생산법에 의한 육종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연구사업이 진행되였다.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실현된 결과 지난날 현대적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였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졌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그리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공업제품과 농업생산물의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 또한 우리의 혁명기지는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져졌으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원하고 조국의 통일과 장래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됨으로써 나라의 국제적 위신과 지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되였다.

제 10 절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의 창건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적, 파쑈적 폭압과 전쟁정책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악랄해졌으며 그것은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웠다.

미제와 괴뢰도당은 남조선을 인권이 여지없이 짓밟힌 암흑천지로, 대중적 테로와 학살이 살판치는 인간도살장으로 전변시켰다. 놈들은 여러가지 악법들을 조작하고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폭압기구들을 대대적으로 늘이면서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탄압

을 강화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 수만명에 달하는 침략무력을 항시적으로 주둔시키고 수많은 군사기지들을 새로 건설하였으며 남조선괴뢰군을 70만이상으로 늘이고 그 군사장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나갔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늘어나는 군사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민들에 대한 략탈을 강화하면서 남조선경제를 군사화하고 미제국주의에 더욱 예속시켰다. 식민지적, 파쑈적 폭압과 전쟁정책에 따르는 무거운 군사비부담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인민들의 무권리와 빈궁은 극도에 이르렀다.

남조선인민들은 포악한 군사파쑈적탄압밑에서도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렸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조직화되지 못하고 분산적으로 진행되였으며 대중의 각성정도가 낮고 혁명대오도 크게 자라나지 못하고있었다.

남조선혁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강력한 혁명력량을 빨리 꾸리는것이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세가지 혁명력량 즉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 남반부의 혁명력량, 국제적혁명력량을 잘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하여서는 먼저 남조선인민들이 주동이 되여 일떠서야 하며 남조선혁명은 남조선인민들자신이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인 압박과 착취를 받는것은 남조선인민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하여서는 먼저 남조선인민들이 주동이 되여 일떠서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제도에 직접 타격을 줄수 있으며 남조선혁명이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더 빨리 추진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8권, 250페지)

전원회의에서는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준비하기 위하여 무엇

보다먼저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는것 특히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조직하고 당력량을 로동계급과 농민대중 속에 확대하며 당의 지도핵심을 잘 꾸리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꾸리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각계각층 군중을 통일전선에 묶어세우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또한 반혁명력량을 약화시키는것이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과 같은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하면서 반혁명력량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원회의에서 밝혀주신 남조선에서의 혁명력량편성에 관한 방침은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투쟁에서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들은 지하에서 통일혁명당의 창건을 발기하고 1964년 3월 서울에서 그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준비된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로 당력량을 확대강화하였으며 당의 외곽단체로서 《민족해방전선》, 《조국해방전선》과 같은 비합법적조직들과 《청맥회》, 《청우회》 등 합법적단체들을 무어 광범한 군중을 결속하였다. 그리고 실지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혁명가들을 중심으로 지방당조직들을 꾸려나갔다.

통일혁명당 조직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을 출판하였으며 당의 기관지로서 비합법적신문 《혁명전선》을 발간하고 주체사상을 보급하는 한편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반동적본질을 폭로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통일혁명당 조직들은 각종 형태의 대중투쟁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 혁명적영향을 주었으며 자기의 조직을 확대하고 끊임없이 단련시켜나갔다.

통일혁명당 조직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남조선에 기여드는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1964년에 들어서면서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회담을 벌려놓고 그자들을 다시 남조선에 끌어들이려는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였다.

우리 당은 사태의 엄중성을 간파하고 남조선괴뢰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사이에 벌어지고있는 매국회담의 반동적본질을 날카롭게 폭로하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이 회담을 반대하는 결정적인 투쟁을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1964년 3월 24일 남조선의 광범한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의 매국배족행위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에 떨쳐나섰다.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에 질겁한 미제와 괴뢰도당은 야수적인 탄압과 회유기만책동으로 대중의 투쟁을 말살하려고 발악하였다.

1964년 3월에 열렸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3차회의는 미제의 사촉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이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벌리고있는 매국적인 회담놀음을 분쇄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애국적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지체없이 전민족적인 반미반일구국통일전선을 실현할것을 호소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투쟁방침과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에 끝없이 고무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원쑤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줄기찬 투쟁을 계속하였다. 투쟁은 점차 반《정부》적성격을 띠고 발전하여 1964년 6월 3일에는 절정에 이르렀다. 항쟁군중은 《매국적〈한일회담〉반대》, 《박정희괴뢰정권타도》를 행동강령으로 내걸고 시위투쟁으로부터 폭동에로 넘어갔다. 한때 괴뢰중앙청과 괴뢰국회의사당 일대에서는 봉기자들이 괴뢰경찰을 제압함으로써 4.19봉기때를 방불케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70여일동안이나 계속된 이 투쟁은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군사파쑈도당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매국적인 회담놀음을 일시 중지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그후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은 미제의 직접적인 부추김밑에 1965년에 다시 일본군국주의자들과 흥정판을 벌리고 매국적인 《〈한〉일협정》을 서둘러 체결하였다.

이에 격분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1965년 8월에 다시금 일떠서 범죄적인 이 《협정》을 배격하는 투쟁을 과감히 벌리였다.

1964년의 3. 24투쟁과 6. 3봉기, 1965년 8월투쟁은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반대하며 남조선괴뢰도당을 때려부시기 위한 반제반파쑈애국투쟁이였다.

통일혁명당 조직들은 이 투쟁들에 적극 참가하여 대중을 지도하면서 혁명적실천속에서 단련되여갔으며 자기 대렬을 확대해나갔다.

통일혁명당 조직들의 지도밑에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에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방침을 받들고 더욱 목적지향성있게, 보다 조직적으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투쟁을 벌렸으며 특히 당면하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통일혁명당 조직들은 남조선에서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을 계속 출판보급하는 한편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담은 전기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을 비밀리에 출판하여 널리 보급하였다.

김종태, 최영도를 비롯한 많은 혁명가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삼고 파쑈가 란무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투쟁을 과감히 벌렸으며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굴함없이 싸웠다.

통일혁명당 조직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투쟁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투쟁의 불길속에서 사상리론적으로 준비되고 실천적으로 단련된 지도핵심들과 혁명가들을 수많이 키워냈으며 당대렬을 급속히 확대해나갔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이러한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마침내 1969년 8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지도핵심들로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를 결성하고 당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통일혁명당은 선언과 강령에서 당의 지도리념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의 최고목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것이며 당면목적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와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 부패한 식민지반봉건적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그 무덤우에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며 나아가서 민족최대의 희망과 념원인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통일혁명당의 창건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장기간에 걸치는 피어린 투쟁의 고귀한 전취물이였다. 통일혁명당이 창건됨으로써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남조선의 피착취, 피압박 인민대중은 계급적 및 민족적 리익의 참다운 옹호자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자기의 믿음직한 전위부대, 정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다. 통일혁명당의 창건은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통일혁명당은 선언과 강령에서 밝힌 투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조직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혁명력량을 튼튼히 준비하면서 대중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제 11 절
국제혁명력량의 단결과 반제반미공동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당의 활동

우리 당은 당 제4차대회와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방침에 따라 국제혁명력량의 단결과 반제반미공동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이 활동은 매우 복잡한 환경에서 진행되였다.

미제는 교활한 량면전술로 세계인민들을 기만하면서 도처에서 침략과 전쟁 책동을 감행하였으며 특히 동남아세아에서 웰남침략전

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라오스, 캄보쟈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강화하였다. 한편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대두한 기회주의는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과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었다.

정세는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며 세계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면서 반제반미투쟁을 적극 벌려나갈것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썼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1년 6월말부터 7월중순까지 사이에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하시여 쏘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고 이 나라들과 우리 나라 사이에 각각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들을 체결하시였으며 당면한 중요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시였다.

우리 나라와 쏘련 및 중국 사이에 체결된 이 조약들은 극동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제압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평화적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며 체약국쌍방인민들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고 극동과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데 커다란 기여로 되였다.

당은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각급 대표단들을 교류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려 이 나라들과의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나갔다.

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대두한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인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고수하기에 힘썼다.

우리 당은 반기회주의투쟁에서 언제나 투쟁하면서 단결하고 단결하면서 투쟁하는 원칙을 견지하였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를 좁히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 당은 새로 독립한 신흥세력나라들과의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과 우호적관계를 맺으며 발전시키는것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한 고리로 삼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307페지)

조선전쟁이후 특히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급속히 무너지고 수많은 신생독립국가들이 새로 태여나게 되였다. 신생독립국가들의 출현은 세계력량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조성된 정세와 우리 나라 대외관계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새로 독립한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신흥세력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반제반미투쟁대오를 강화하고 미제를 고립시키며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우세하게 전변시키고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수행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우리 당은 1961년에 정부대표단, 무역 및 친선대표단들을 동남아세아, 아프리카, 중근동 나라들에 파견하여 그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두터이 하고 총령사관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관계를 맺으며 많은 협정들을 체결하게 하였다.

우리 당은 특히 이 나라 지도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였다. 1960년대 후반기에만 하여도 애급, 모리따니, 탄자니아,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칠레, 수리아를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들의 국가 및 당 고위지도자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5년 4월 몸소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는 기간 이 나라 지도자들과 새 사회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놓고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시는 한편 력사적인 강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를 통하여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문기간 반둥회의 10돐기념행사에 참석하시여 수많은 신흥세력나라 지도자들을 만나시고 새 사회 건설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고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도네시아방문은 신흥세력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새로운 계기로 되였다.

우리 당은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고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세계혁명 특히 식민지민족해방운동, 반제반미투쟁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혁명에서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은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 인민들의 성스러운 해방투쟁인 동시에 세계제국주의의 이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2대혁명력량을 이루고있으며 그것들은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하나의 흐름에 결합되고있다.》(《김일성저작집》 제21권, 39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이 종전과 같이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의 후비군으로가 아니라 독자적인 혁명력량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2대혁명력량으로 되였다는 과학적평가를 내리심으로써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한 새로운 력량편성의 리론적기초를 명백히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필연성과 이 투쟁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면서 피압박인민들은 오직 견결한 투쟁에 의해서만 자기자신을 해방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정치적독립을 이룩한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 밀고나가 외래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들의 파괴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력량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였으며 반제반미투쟁과 관련한 혁명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에 따라 모든 반제력량이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리고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반미투쟁전략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은 미제국주의자들이 허장성세하지만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달라붙어 각을 뜨면 미제국주의는 맥을 추지 못할것이며 결국은 녹아나고말것이다.》(《김일성저작집》 제23권, 30페지)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반미투쟁전략은 모든 혁명적인민들이 각기 자기 위치에서 반미투쟁을 강화하며 특히 작은 나라 인민들로 하여금 숭미공미사상, 외세의존사상을 버리고 반제반미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게 함으로써 미제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길을 새롭게 밝혀준 탁월한 전략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국제적인 반미공동행동과 반제반미통일전선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들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반제반미투쟁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방침들에 기초하여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렸다.

우리 당은 이 시기 반제반미투쟁의 초점을 이루고있던 웰남인민들과 꾸바인민들의 투쟁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에 주력하였으며 그들의 투쟁을 지원하는데서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이 일치한 행동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활동하였다.

우리 당은 1967년 6월 미제의 사촉밑에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이 제3차 중근동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을 규탄하고 아랍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와 함께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앙골라, 모잠비끄, 뽀르뚜갈령기네, 팔레스티나, 짐바브웨 인민들의 투쟁, 남아프

리카인종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과 미제와 친미반동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영용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우리 당은 반제반미투쟁에서 자본주의나라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의 공동행동을 이룩하기 위한 활동도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능동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렇듯 국제혁명력량의 단결과 반제반미공동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대외활동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주의나라들의 단결과 반제반미공동투쟁을 촉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비상히 강화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에로 이행하였다.

1960년대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사회주의농촌테제에 기초한 농촌건설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다. 이 시기에 당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세우고 공업건설과 농업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켰으며 정세의 변화를 고려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갔다.

1960년대는 당건설, 당사업의 발전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이 시기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결정적투쟁이 전개되였으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그리하여 당내부사업에서나 행정경제사업,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또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혁명투쟁을 촉진시키는데서 그리고 국제적인 반제반미공동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활동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제 10 장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기치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당의 투쟁. 주체위업 계승문제의 빛나는 해결. 당사업의 획기적발전
(1970—1980)

제 1 절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우리 당은 겹쌓인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면서 당 제4차대회와 당대표자회 결정을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전당과 온 사회에 주체의 사상체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실현되고 나라의 방위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이 성과에 고무되여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이 강화되였다.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에 의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더욱 높아졌다.

당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남조선혁명

과 조국통일을 촉진하고 세계혁명발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할 과업이 나섰다.

이러한 력사적시기에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소집되였다.

당 제5차대회는 1970년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결의권을 가진 대표 1,734명과 발언권을 가진 대표 137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사업을 총화하였으며 인민경제발전 6개년(1971—1976)계획을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총결기간 우리 나라를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킨 력사적승리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을 총화하시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전투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대회는 6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토의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의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이였다.

대회는 인민경제부문별 과업들을 확정하였다.

6개년계획기간 공업부문의 중심과업은 부문내부구조를 완비하고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는것이였으며 농촌경리부문의 중심과업은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것이였다.

대회에서는 3대기술혁명과업이 중요하게 토의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가까운 몇해동안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3대기술혁명과업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5권, 273페지)

3대기술혁명은 사회주의하에서의 기술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서 공업화가 실현된 다음 수행하여야 할 새로운 높은 단계의 기술혁명과업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과업이다.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여야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로동생활에서 그들에게 보다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며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문제도, 녀성해방을 완전히 실현하는 문제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그리고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여야 기술발전, 생산력의 발전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사상은 사회주의하에서의 기술혁명문제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는 문제 그리고 녀성들의 완전한 해방에 관한 문제를 다같이 옳바로 풀어나갈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밝힌 탁월한 사상이다.

대회에서는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면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복고주의적경향을 철저히 반대하는것을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의 중요과업으로 내세웠다.

대회는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부문별 과업들을 밝혔다.

교육부문에서는 기술자, 전문가 대오를 100만명이상으로 늘이고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며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르는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들이 규정되였다. 그리고 주체적인 과학과 혁명적문학예술, 민족어와 체육을 개화발전시킬데 대한 구체적과업들도 제시되였다.

대회에서는 사상혁명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혁명적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며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지도일군들이 자신과 가정을 혁명화하는데로부터 시작하여 분조와 작업반, 인민반을 혁명화하고 나아가서 직장과 리를 혁명화

하며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점차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투적과업들을 제기하였다.

대회는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애나가는것을 인민생활분야의 중요과업으로 규정하였다.

대회에서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문제를 토의하였다. 특히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과업들을 밝히였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폭압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는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그리고 남조선혁명을 추진시키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들을 내놓았다.

대회에서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라는것을 천명하였다.

대회에서는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총화하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계속 공고발전시키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과업들을 토의하였다.

대회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것을 당사업의 총적과업으로 규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5권, 336페지)

대회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총적과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의 기본인 사람과의 사업 즉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과업들을 밝히였다.

대회에서는 발전하는 현실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면서 특히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강화하며 국가, 경제 기관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리고 각급 인민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며 인민군대와 사회안전기관, 사법검찰기관들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의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작성된 인민경제발전 6개년(1971—1976)계획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총결기간에 우리 당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 당앞에 나선 새로운 혁명임무에 맞게 당규약을 일부 수정보충하였다. 당규약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당의 지도사상이라는것을 명백히 하고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더욱 높일수 있도록 개정되였다.

당 제5차대회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 유일한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을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둔 성과와 사회주의공업화의 빛나는 승리를 총화한 자랑찬 승리자의 대회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을 힘있게 과시한 단결의 대회였다.

대회는 전당과 전체 인민 앞에 사회주의건설을 전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투적강령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휘황한 전망을 펼쳐준 력사적인 대회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

을 실현하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제시한 뜻깊은 대회였다.

제 2 절
3대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의 전면적 강화. 사회주의헌법의 채택

당은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과업들, 특히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였다.

당은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의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공작기계생산에 화력을 집중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6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인 기술혁명과업을 잘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기계공업부문에 달려있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여러가지 공작기계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각 공장 건설에 필요한 대상설비들을 더 많이, 더 잘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6권, 6페지)

공작기계생산을 늘이는것은 3대기술혁명을 수행해나가는데서 기본열쇠였다.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려면 여러가지 종류의 현대적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하였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공작기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1년 2월 희천공작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작기계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가져올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온 나라 공장, 기업소들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이르는곳마다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1년 남짓한 기간에 3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3대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현존경제토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나라

의 경제발전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더 빨리, 더 잘 밀고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당은 이러한 성과에 의거하여 기계공업전반을 빨리 발전시켜나갔다.

1971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과업이 토의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공작기계대수와 그 품종을 더욱 늘이며 자동차와 뜨락또르, 련결농기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생산을 다그칠데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중소규모의 자동화계기기구분공장을 이르는곳마다에 꾸릴데 대한 과업을 내놓았다.

당의 현명한 조치에 따라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현존설비들을 더 잘 리용하며 공장, 기업소들을 더욱 정비확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공업발전과 농촌기술혁명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여러가지 현대적기계설비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였다.

우리 당은 이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3대기술혁명을 적극 다그쳐나갔다.

당은 공업부문에서 종합적기계화와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으며 농촌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에 뜨락또르,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능률적인 현대적농기계들과 화학비료, 농약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식료혁명, 가구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갔으며 농촌수도화를 다그치고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더 많이, 더 좋게 건설하도록 하였다.

당의 지도밑에 3대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에 따라 인민경제의 기술장비가 개선되고 어렵고 힘든 로동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근로자들의 로동은 더욱 홍겹게 되여갔다.

당은 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닦는 한편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공고발전시켜나가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1년 8월과 9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들에서와 평안북도당과 황해남도당 전원회의 확대회의들에서 변화된 현실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조직사업과 대중지도사업을 개선강화하여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공고히 할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대렬을 확대강화하며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한 과업을 중요하게 내놓으시였다.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는 행정에서 광범한 근로자들이 혁명적으로 단련되였으며 우리 당의 혁명적교양을 체계적으로 받은 새 세대들이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자라났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은 이들을 자기 대오에 받아들여 당대렬을 빨리 확대강화하는것이 절실히 요구되였다.

이와 함께 당은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계층에 대한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나가야 하였다. 혁명이 발전함에 따라 그들의 사회적처지가 개변되고 정치사상적립장도 달라졌다. 더우기 우리 제도밑에서 자라난 그들의 자녀들이 당과 혁명을 적극 지지하여나선 조건에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는것이 더는 지체할수 없는 문제로 나섰다.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문제를 옳게 풀어야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할수 있었으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계층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계급적원칙을 견지하면서 사람들의 성분에 대한 평가를 옳바로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성분을 평가하는데서 어디까지나 본인의 사상을 위주로 보아야 하며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성분은 그에 대한 사상적 영향관계를 알기 위한 참고자료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본인

이 오늘 혁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가 안하는가, 우리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6권, 400~401페지)

사람의 성분이란 사상상 구성성분을 말하며 그것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생활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는데 따라 그리고 본인의 실지투쟁과 사상단련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변화된다.

우리의 혁명과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는 과정에 광범한 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교양개조되였으며 출신성분이나 사회성분이 복잡한 사람들가운데서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헌신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로부터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서 과거의 성분이나 경력에만 매여달리는것은 현실에 맞지 않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당을 따라나섰고 현재도 당과 혁명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고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성분을 다시 평가해주며 특히 우리 제도에서 나서 자라고 당을 따라 사업과 생활을 충실히 하는 젊은 세대들에 대하여서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성분을 가지고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본인이 진실로 당을 받들고 당에 충실하면 그의 과거생활에서 일정한 결함이 있거나 가정환경에서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당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들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당과 수령께 충직한 수많은 근로자들과 젊은 세대들로 당대렬이 빨리 늘어나게 되였으며 실천투쟁속에서 개조된 복잡한 계층 사람들의 성분이 다시 평가되게 되고 그 자녀들의 장래문제가 원만히 풀리게 되였다. 이에 따라 온 나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이 한층더 강화되였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는 더욱 반석같이 다져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굳게 뭉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나고있던 장엄한 환경속에서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맞이하게 되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이 되는 가장 경사스러운 날에 즈음하여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는 어버이수령님께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으며 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는 충성의 대축전으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한 당과 인민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온 누리에 시위하는 대정치축전으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것을 굳게 다짐하는 영광의 축전으로 뜻깊게 기념하였다.

우리 인민과 더불어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시대가 낳은 가장 위대한 수령》으로, 《탁월한 사상리론가》로 높이 우러러 모시면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아 여러가지 경축모임들을 가졌으며 수많은 축전, 축하편지, 지성어린 선물들을 보내여 수령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공화국의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우리 나라에서 1948년에 채택된 헌법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고 과도기의 과업을 점차적으로 수행해나가던 시기에 채택된 헌법이였다. 따라서 이 헌법은 이미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있는 시기에는 맞지 않게 되였다. 현실은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는것을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였다.

1972년 12월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에서 새 헌법의 기본 내용과 특징, 새 헌법제정의 의의에 대하여 뚜렷이 밝히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독창적인 헌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헌법에서 규제하여야 할 대상에 대한 새로운 해명에 기초하시여 헌법의 체계와 구조를 새롭게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 작성된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들을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 원칙들과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있으며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임무, 활동원칙을 규제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7권, 60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헌법이 주로 이미 이룩된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며 국가기구체계와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것으로 인정하던 종래의 견해의 제한성을 극복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 원칙을 사회주의헌법의 가장 중요한 규제대상의 하나로 새롭게 밝히시였다.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제도 그자체를 법적으로 확인하는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제 원칙을 규정하고 그 관철을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헌법에는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제 원칙들이 제정되고 다른 모든 부문들도 새롭게 체계화됨으로써 헌법의 전반적면모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였다.

새 헌법에서는 혁명발전의 현실에 맞게 국가기관체계도 새롭게 제정되였다.

새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국가수반으로 하는 새 국가기관체계를 규정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된 우리 나라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더

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국가기관체계이다.

공화국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집행기관인 정무원을 비롯하여 사회주의헌법에 의하여 제정된 새로운 국가기관체계는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이 국가사업과 국가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국가기관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할수 있도록 규정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으로 제정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헌법이다.

새 헌법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그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참다운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있으며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온갖 조건들을 법적으로 담보하고있다.

사회주의헌법은 또한 철두철미 혁명의 리익, 혁명발전의 견지에서 모든 조항들을 규정하고있다. 그러므로 헌법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강화하여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수행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제정은 우리 국가의 기능과 역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활동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해줄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며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우리 나라 새 헌법은 사회주의헌법의 참다운 본보기로서 사회주의법리론의 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위업수행에 불멸의 기여를 하고있다.

제 3 절
정치적수령의 후계자문제의 빛나는 해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 선포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면서 주체의 혁명위업 계승문제를 해결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혁명위업계승문제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로서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한 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수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며 간고하고 복잡한 사업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이 장기성과 복잡성, 간고성을 띠는 조건에서 그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대를 이어 계승하는 문제를 옳게 해결해나가야 한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옳게 해결할 때에는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전진하며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혁명이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게 되고 지어는 혁명위업이 중도반단되게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혁명위업계승문제를 옳바로 해결하는것은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우리 당의 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은 그 시원이 열린 때로부터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거쳐 멀리 전진하였으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일정에 내세우고있는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였다. 이 과정에 세대가 바뀌여 새 세대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게 되였으며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책임적인 임무가 그들에게 지워지게 되였다.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이러한 새로운 력사적조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한 령도의 계승문제, 정치적수령의 후계자문제를 바로 해결할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위업을 계승해나가는데서 기본은 정치적수령의 후계자문제를 바로 해결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16폐지)

당의 령도의 계승문제, 후계자문제는 정치적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후계자를 내세우고 그의 지도체제를 세우는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갖춘 인민의 지도자를 정치적수령의 후계자로 내세우고 그의 지도체제를 철저히 세워야 혁명의 전진도상에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여도 동요와 우여곡절이 없이 수령의 위업, 당의 위업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모심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 계승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장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의 혈통을 이어받으시여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고있던 1942년 2월 16일 백두산밀영에서 탄생하시였다.

어리신 시절부터 남달리 뛰여난 품격을 지니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의 세심한 교양과 자신의 정력적인 학습과 탐구 그리고 생활체험과 혁명실천을 통하여 고결한 공산주의혁명가의 풍모를 갖추시며 성장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리신 때부터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충성과 효성의 한마음을 가슴깊이 간직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를 덜어드리는것을 자신의 숭고한 의무로 여기시고 모든 힘을 다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학창시절부터 학습과 과학

탐구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한편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내이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낮에 밤을 이어 경애하는 수령님의 로작들은 물론 맑스-레닌주의 고전들과 인류의 과학적유산들을 연구하시면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심오히 체득하시고 그 위대성과 독창성을 명철하게 밝히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시대와 혁명실천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에 과학리론적해답을 주시고 독창적인 명제와 리론들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가일층 풍부화시키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과학리론활동의 범위는 당건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학, 정치경제학, 력사학, 문예학 등 참으로 여러 과학분야에 미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새로운 전략적구상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실현해나가시는 령도활동과정을 직접 체험하시고 충성으로 보좌해드리시면서 혁명의 탁월한 전략가의 풍모를 키워나가시였으며 수령님의 령도방법, 령도작풍을 그대로 체현해나가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조직정치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으며 그 과정에 탁월한 지도자의 품격과 자질을 완성해나가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세련된 조직정치사업과 능숙한 령도적수완으로 청년학생들을 훌륭히 교양하고 조직적으로 단련시키시였으며 사회적실천속에서 훈련되도록 이끄시면서 그들을 우리 혁명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나가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하기 위한 혁명활동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적수완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지도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당안에 잠입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폭로분쇄하는데 큰 주의를 돌리시고 예리한 정치적안목과 비범한 통찰력으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정체를 적발해나가시였으며 그자들이 뿌려놓은 사상여독을 철저히 청산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키도록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도록 하시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공고히 하고 당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여나가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한 독창적인 문예혁명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문학예술분야에서 혁명적전환을 이룩하게 하시였으며 세계적명작들을 수많이 창조하도록 지도하시여 인류문화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과 그리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현명하게 지도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이 모든 리론실천적지도를 받으면서 그이야말로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탁월한 사상리론가, 걸출한 령도자로서의 비범한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지니고계신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 때만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있고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민족의 영원한 행복을 담보할수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지니게 되였으며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영명하신 김정일동지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 부르며 끝없이 존경하고 받들어 모시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려는것이 전당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였으며 확고부동한 의지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전국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우리 당과 인민의 령도자로 높이 모실데 대한 청원서와 편지들을 당중앙위원회에 보내여왔다.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추대한데 이어 1974년 2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추대하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한 후계자,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당과 혁명의 영명한 지도자로 높이 추대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수령님의 후계자로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당은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수뇌부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대한 수령님의 후계자로 추대함과 함께 지도자동지의 령도를 실현할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고 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는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정치적수령의 후계자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주체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면서 그 위업완성을 위한 당의 최고강령인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

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김일성 저작집》 제29권, 376~377페지)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로 제기되였다.

원래 당이 새로운 구호나 새로운 전략을 제기하려고 하면 주객관적 조건과 요구가 성숙되여야 한다.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구호를 제기하고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위대한 사상, 혁명과 건설의 올바른 지도사상이 있어야 하고 사상의 일색화가 사회와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로 제기되여야 하며 또 그것을 받아들일수 있는 대중의 높은 각오와 준비된 정치적력량이 있어야 한다.

우리 당이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같은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이 우리 혁명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는 사실은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할수 있는 결정적조건으로 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섰을뿐아니라 공업화가 실현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진것은 사상적일색화의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되였다. 또한 우리 당이 그 어느때보다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되여 그 위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굳게 통일단결된 현실은 능히 하나의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문제를 당의 강령으로 제기하고 실현해나갈수 있는 정치적력량이 꾸려졌다는것을 실증하여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통찰하시고 1974년 2월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에서 당사상사업의 기본임무와 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히시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이 구호에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당의 최종목적이 뚜렷이 밝혀져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당이 건설하려고 하는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해명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풍모를 담고있으며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나가는 근본방향과 요구뿐아니라 공산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을 밝혀주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최종목적인 공산주의사회는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완전히 구현된 사회라고 말할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되는것은 또한 이 전투적구호에 우리 당의 최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가 명시되여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공산주의건설의 혁명적로정과 그 과정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전략과 투쟁방침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바로 우리 시대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편향없이 곧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며 전략전술이다.

따라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투쟁하며 이 위대한 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공산주의건설을 곧바른 길을 따라 성과있게 추진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이 내세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고 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공산주의 건설강령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이 제시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은 그 어떤 편향도 없이 공산주의에로의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주체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당은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성격과 사명을 더욱 명백히 하였으며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의 선포는 당의 최고강령, 공산주의건설강령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전반적 당건설과 당활동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제 4 절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 당사업에서의 새로운 전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장엄한 력사적진군이 벌어지게 됨에 따라 그에 맞게 당을 강화하고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것이 긴절하게 요구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해나가는데서 그 선결조건으로서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에 내세우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당과 혁명 발전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고 그 선결조건으로서 전

당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ㄹ.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16페지)

전당을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모든 당원들을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한 정수분자로 만들며 당건설, 당활동을 철저히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여야 당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영양소를 온 사회에 힘있게 뿜어줄수 있으며 사회와 사람들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더 잘, 더 빨리 개조해나갈수 있다.

전당 주체사상화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당을 명실공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영원히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길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당은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나갔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본질에 있어서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 이후에 진행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을 총화하시고 이 사업을 전당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1974년 4월 고전적로작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를 발표하시였다.

로작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제반 원칙들이 명시되였다. 로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으로 규정하고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며, 수령님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수령님의 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며, 수령님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요구, 기본척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는데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행동 규범과 준칙들을 밝히였으며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 모든 원칙들은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지침으로 되였다.

당은 이 새 원칙 재접수, 재토의 사업을 전당적으로 벌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1974년말부터 1976년사이에는 전반적인 당조직들에서 새 원칙들을 재접수, 재토의하는 사업이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진행되였다.

이 과정에 간부들과 당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으며 사상투쟁의 용광로속에서 사상의지적으로 단련되여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더 잘 준비되여나가게 되였다.

또한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을 당중앙의 사상과 의도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직진행하며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 규률과 기풍을 철저히 세울수 있게 되였다.

당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일대 진공전을 벌리기 위하여 1974년 7월말—8월초에 전국당조직일군강습회를 소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강습회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1974년 7월 강습참가자들에게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시여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한에서 당대렬과 당조직들의 강화, 군중로선 관철,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강화, 당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의 개선 등 당건설, 당사업과 관련한 전반적문제들에 대하여 밝히시였으며 특히 당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당의 간부화와 당의 정예화 방침을 전면에 내세우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전국당조직일군강습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당건설사상, 당사업리론을 더욱 구체화하시면서 전당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들을 관철하여 당사업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당은 전당의 간부화를 실현하기에 힘썼다.

전당을 간부화한다는것은 당안에서 모든 간부들을 한급 높은 간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모든 당원들을 간부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것을 의미한다. 전당의 간부화는 본질에 있어서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사업이다.

당은 전당의 간부화를 위하여 학습과 당조직생활, 혁명실천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집체교양과 개별교양을 옳게 배합하여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사상수준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그들의 기술문화수준과 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강화하였다.

당은 이와 함께 간부대렬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한 정수분자로 튼튼히 꾸리며 모든 간부들의 정치사상리론수준과 실무수준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높이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당은 간부대렬을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높은 실무능력, 고상한 인민적품성을 지닌 우수한 일군들로 그리고 로, 중, 청을 배합하는 원칙에서 튼튼히 꾸리며 특히 젊은 사람들을 대담하게 간부로 많이 등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간부들에 대한 교양체계를 옳게 세우는 한편 후비간부양성사업과 간부양성기관들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간부대렬을 더욱 전망성있게 꾸려나갔다.

당은 특히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도록 하는데 큰 주의를 돌리고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의 우월성이 높이 발휘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 대렬은 생기발랄하고 혁명적기백이 약동하는 공산주의정수분자들의 충성의 대오로,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수 있는 깊은 지식과 조직능력을 소유한 능숙한 정치활동가들의 대오로 빨리 강화되여갔으며 당의 간부대렬은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간부들의 자질이 한층 높아져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에서 그들의 역할이 비상히 제고되게 되였다.

당은 당사상사업의 내용과 형식, 체계와 방법을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여 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도록 하였다.

당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에 기본을 두었으며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교양사업을 깊이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과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교양을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여 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게 하였다. 또한 당사상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합시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인민경제의 주요 부문과 단위들에 중앙의 우수한 일군들과 경제선동대를 파견하여 경제선동을 들이대도록 하였다.

당은 모든 선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 체계를 세우고 항일유격대원들처럼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항일유격대식으로 선전선동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자!》라는 혁명적구호밑에 선전일군들뿐아니라 모든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이 강연도 하고 당정책도 해설하며 해설담화도 널리 진행하도록 하였다. 당은 《전당이 학습하자!》라는 구호를 받들고 온 사회에 혁명적학풍이 지배하도록 하는 한편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고 학습을 혁명실천과 더 잘

결합하여 진행하게 하였다.

당은 혁명적출판물과 문학예술작품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였다. 당은 신문혁명, 보도혁명, 출판혁명을 일으켜 출판보도물의 교양자적역할을 높이게 하였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문예작품들을 통하여 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깊이 체득하고 작품의 주인공들을 따라배워 자신을 더 잘 혁명화, 로동계급화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당은 각계각층 군중을 다 교양개조하여 열렬한 혁명가로 만들며 그들이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는데 큰 주의를 돌리였다.

당은 기본군중, 특히 핵심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 동시에 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그들모두가 진심으로 당을 믿고 따르도록 하였으며 여기에서 각급 당조직들과 함께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였다.

당은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도록 하였다.

당은 당사업에서 아래를 장악통제하며 실속있게 도와주는 체계를 세우도록 하였으며 부서들사이의 배합 및 협동 작전을 강화하여 제기된 과업들을 제때에 풀어나가게 하였다.

당은 특히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을 없애고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업방법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주체의 사업방법이다.

당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전당에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일군들이 주체의 령도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수령님의 현지지도방법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사업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일군들속에서 행정대행, 행정식방법 등 낡은 재래식방법을 뿌리뽑기 위한 사상투쟁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갔다.

그리하여 당사업에서 낡은 틀과 재래식사업방법이 결정적으로

극복되여갔으며 전당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체계가 바로서게 되고 당안에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게 되였다.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당사업전반에서 새로운 위대한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이 힘있게 추진되여갔다.

제 5 절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 학습기풍, 생활기풍의 전면적확립

우리 당은 주체위업을 계승하며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해나가는데서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단행본, 23페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주체위업의 대를 이어주는 피줄기이다. 혁명전통을 철저히 고수하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야 주체의 혁명위업을 확고히 계승해나갈수 있으며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는데서 그 순결성을 고수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전통의 순결성은 그 생명입니다.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고수하여야 우리 당과 혁명이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갈수 있

습니다.》(《당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단행본, 12페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그 순결성을 옹호고수하는것은 일관한 근본원칙이며 그것은 특히 혁명의 대가 바뀌고 새 세대가 등장하는 때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새 세대들이 자기들이 계승하는 혁명전통의 내용과 성격을 똑바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당의 혁명위업을 곧바른 길로 발전시켜나갈수 없고 좌왕우왕하여 혁명을 말아먹을수 있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이 보여주고있는 심각한 교훈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주체의 혈통을 고수하고 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요구로 된다. 우리 당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은 곧 주체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다.

당은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해나가기 위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우리 혁명전통이 창시되고 계승발전되여온 력사적과정과 혁명전통의 기본내용을 똑바로 파악시키는 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였다.

당은 주체의 혁명전통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되고 해방후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 과정에 일관하게 계승되고 발전풍부화되여왔다는것을 인식시키며 혁명전통의 모든 내용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혁명령도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여있다는것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왔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 세대들이 주체의 혁명전통의 형성, 발전 과정과 그 내용을 순수하게 파악하도록 하였다.

당은 또한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오가잡탕을 뒤섞으려고 한 반당분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의 본질과 그 해독성을 구체적사실을 통하여 잘 알려줌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의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기 위한 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였다.

당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전통교양의 체계와 방법을 개선해나갔다.

당은 우선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을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새로 꾸리도록 하였으며 그 관리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74년 5월 함경북도 선봉군안의 연구실들의 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연구실운영 체계와 방법, 연구실을 통한 혁명전통교양의 구체적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당은 혁명전통과 관련되는 도서들과 교양자료들을 대대적으로 출판하게 하였다. 항일혁명투쟁에 대한 회상기들과 각종 경험자료, 항일혁명투쟁을 과학리론적으로, 력사적으로 체계화한 도서들이 수많이 출판되고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혁명소설, 혁명영화, 혁명가극, 혁명연극들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신문, 방송 등 모든 선전수단들을 리용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을 폭넓고 깊이있게 해설선전하는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당은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대를 이어 영원히 옹호고수하며 후대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혁명사적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며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만년대계로 잘 꾸리는 사업을 중요시하고 여기에 큰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귀중한 혁명력사자료들을 수많이 발굴수집정리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왕재산혁명사적지와 삼지연혁명전적지를 비롯한 온 나라의 모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들이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잘 꾸려지게 되였다.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전통을 실지 사업과 생활에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도록 지도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단행본, 24페지)

혁명전통교양의 목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혁

명의 과거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혁명실천, 일상생활에 그 혁명정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도록 하자는데 있다. 혁명전통에서 혁명적인 사상정신적량식을 섭취할뿐아니라 그 혁명정신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실지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에만 참으로 혁명전통을 계승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전통을 혁명실천, 실지 사업과 생활에 구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1974년 3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당은 이 혁명적구호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혁명전통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으며 항일유격대식으로 사업하고 생활하는데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혁명전통을 실천에 구현한 산 모범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하였다.

혁명전통을 실지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항일유격대식사업기풍이 일반화되여 갔다.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들마다에는 사령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한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그 어떤 어려운 혁명과업도 제때에 해제끼는 전투적사업기풍이 서게 되였다. 그리고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투쟁기풍인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이러한 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게 되였다.

전당과 온 사회에 항일유격대식학습기풍도 서게 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투와 행군이 계속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학습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학습기풍을 본받아 그 어떤 복잡하고 바쁜 조건에서도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해나갔다. 특히 항일유격대원들의 학습태도, 학습방법을 본받아 학습에서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없애고 하나를 배워도 그것을 혁명적

랑식으로 깊이 체득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였다.

전당과 온 사회에 항일유격대식생활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모든 자재를 극력 아껴쓰는 주인다운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갔다. 그들은 언제나 생활을 검박하게 조직하였으며 일체 안일과 사치를 반대하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일하며 생활하였다.

우리 당이 이처럼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제기하고 혁명전통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실지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에서 일대 전변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은 더욱 힘있게 추진되게 되였다.

제 6 절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한 투쟁.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당은 사회주의건설이 전진할수록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나갔다.

3대혁명을 통하여 사상, 기술, 문화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었다.

당은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제5차대회이후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조직정치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각급 당조직들과 국가, 경제 기관들, 근로단체조직들이 언제나 3대혁명로선

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였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3대혁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294페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정치위원회들에서 3대혁명수행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들이 토의되였으며 각급 당조직들이 3대혁명을 심화시킬수 있도록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을 세워나갔다.

당은 3대혁명수행에서 인민정권기관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였다.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기관의 과업을 명백히 하고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전면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1971년 12월 직총 제5차대회와 1972년 2월 농근맹 제2차대회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는 근로단체조직들이 3대혁명을 기본혁명과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제기되는 과업들이 토의되였다.

당은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도방법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3대혁명에 대한 지도방법을 개선하는것은 일군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정치실무수준이 빨리 발전하는 현실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던 사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우리의 간부들은 지난 시기 많은 일을 하였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해방후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 나이도 많아지고 그들의 수준도 발전하는 현실에 뒤떨어지게 되였다. 특히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이 현대과학기술을 요구하는 조건에서 그들이 가지고있는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없었다. 현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지도를 아래에 보다 접근시키고 아래일군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적극 도와주어 그들이 일을 잘해나가도록 할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2년 가을 우수한 일군들과 지식있는 대학생들을 망라시켜 지도소조를 뭇고 그들을 평양과 사리원 방직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에 파견하시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 대한 지도능력을 시험해보신 다음 1973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3대혁명소조들을 중요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파견하는 조치를 취하시였다.

3대혁명소조들은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당핵심들과 청년인테리들로 무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전선에 파견되는 3대혁명소조성원들을 위한 강습에서 주신 가르치심과 1973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강서확대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를 비롯한 일련의 로작들에서 3대혁명소조원들앞에 나서는 과업과 그들의 사업방향 및 활동원칙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게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보수주의,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 기관본위주의, 관료주의를 대담하게 짓부시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리며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빨리 높이고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철저히 확립하는것이라고 밝히시였다. 그리고 3대혁명소조원들은 일군들이 가지고있는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되 어디까지나 그들을 잘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과학기술을 잘 배워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또한 소조원들이 해당 단위의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며 특히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이신작칙하는 혁명적지도작풍을 세우며 언제나 겸손하고 검박하게 생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현지로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의 친위대, 근위대로서의 영예와 긍지를 간직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실태료해사업을 한 다음 료해된 자료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활동 방향과 방도를 세우고 현지일군들을 적극 도와

주었다. 소조원들은 일군들을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기술적으로 도와주어 그들이 언제나 당이 요구하는대로 일을 잘하게 하며 주인된 자각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중속에 깊이 뚫어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벌리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광범한 군중을 3대혁명과업수행에로 적극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혁명소조들의 사업전반을 세심히 료해하시고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와 1975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전원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3대혁명소조대렬을 정비강화하고 그들의 정치실무적 자질과 능력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시였으며 3대혁명소조사업을 당중앙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전일적인 체계를 세워주시였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 당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혁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는 새로운 지도방법을 확립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청산리방법을 구현한 현대적인 혁명지도방법입니다. 다시말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은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결합하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대중을 발동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33권, 416~417페지)

3대혁명소조운동은 아래단위에 대한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동시에 보장할수 있게 하며 아래실정을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 기초우에서 아래일군들을 실속있게 도와줄수 있게 하는 동시에 근로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3대혁명과업수행에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할수 있게 하는, 청산리방법을 구현한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 현대적인 혁명지도방법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소조원들이 활동하는 모든곳에서 3대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으며 인간개조사업과 기술개조사업, 문화건설사업에서 련이어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였다.

당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심화시키는 한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기 위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조직지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1973년에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시면서 앞으로 조건들이 조성되는데 따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릴것을 구상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과정에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이 강화되고 3대혁명에 참가하는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3대혁명을 새로운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려나갈수 있는 제반 조건들이 지어지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75년 11월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내놓으시고 이 구호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첫 봉화를 검덕의 로동계급과 청산리의 협동농장원들이 들도록 하시였다.

검덕광산과 청산협동농장에서 추켜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봉화는 곧 대중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았으며 짧은 시일안에 전사회적운동으로 급속히 확대되여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76년 1월에 발표하신 력사적로작 《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과업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본질과 중심과업, 이 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히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속도전, 사상전의 원칙을 구현하여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과 경제, 문화, 국방 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

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혁명적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튼튼히 갖추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는 새로운 대중적운동입니다.》(《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과업에 대하여》, 단행본, 6페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킨것으로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높은 형태의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며 사회주의공업화가 완성되고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된 새로운 현실의 요구를 반영한 높은 형태의 대중적기술개조운동이며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건설이 일정에 오른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벌어지는 높은 형태의 대중적문화개조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심화발전시키는것을 중심과업으로 하면서 당이 직접 틀어쥐고 지도하는 대중적운동으로 벌어졌다. 그리하여 이 운동은 매 부문, 매 단위들에서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조직전개되게 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은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은 물론 교육, 문화, 보건 기관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단위들에서 세차게 타번지게 되였다.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벌어지는 과정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튼튼히 서고 전당과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이 일층 공고화되였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가 적극 추진되여 온 사회에 혁명적생활기풍이 차넘치게 되였다.

또한 기술혁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 수준이 높아지고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도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힘든 로동이 많이 줄어들고 생산과 건설에서 큰 전변이 이룩되였다.

문화혁명도 힘있게 추진되여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데서 전진을 가져왔으며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세우는데서 큰 전진을 가져왔다.

이처럼 3대혁명로선관철을 위한 당의 조직정치사업과 지도방법이 개선강화되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제 7 절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 농업생산의 새로운 앙양. 6개년계획의 완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쳐야 경제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앞당겨 점령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보다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것은 당시 우리 나라에 조성된 복잡한 정세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이 시기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군사분계선일대에 병력과 군사장비를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군사적도발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으며 《긴급조치》를 련발하고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조성된 정세는 모든 분야에서 혁명과 건설을 더한층 다그쳐 우리의 혁명기지를 그 어느때보다도 반석같이 다지며 원쑤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준비태세를 갖출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2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새로운 일대 앙양에로 이끌기 위한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총동원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

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다음해까지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고 그다음부터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향하여 총진군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9권, 14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모든 힘을 다하여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계속하여 가까운 앞날에 점령하여야 할 경제건설의 목표를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천리마의 속도로 총진군하며 당면하게는 기본건설전선, 공업전선, 농업전선, 수송전선, 수산전선의 5개 전선에 힘을 집중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세금을 완전히 폐지하며 공업상품가격을 대폭 낮출데 대한 획기적인 조치도 취해졌다.

전원회의에서는 모든 힘을 사회주의대건설투쟁에 총동원할것을 호소하여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채택하였다.

당은 전원회의후 사회주의대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혁명적조치들을 취하였다.

당은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당, 행정경제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게 하였으며 중앙으로부터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대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기업관리조직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그에 맞는 가장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전투형식이 요구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며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다. 속도전의 기본요구는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나가면서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이다.

당은 속도전의 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74년 10월초 《70일전투》를 몸소

발기하시고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다.

《70일전투》는 전당이 총돌격전을 벌려 만난을 극복하고 1974년의 긴장한 계획과제를 넘쳐 수행함으로써 6개년계획수행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기 위한 보람찬 전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70일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강한 사상전과 힘있는 경제선동을 벌리게 하시는 한편 정연한 전투지휘체계를 세우고 중요단위들에 능력있는 지휘성원들을 수많이 파견하여 면밀한 조직지도사업을 안받침하도록 하시였다.

《70일전투》에서는 참으로 기적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전투를 통하여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새로운 천리마속도인 《70일전투속도》가 창조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비약과 혁신이 일어났다.

당은 《70일전투》를 통하여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기세를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계속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당은 5개 전선에 계속 화력을 집중하면서 특히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구상을 높이 받드시고 고도로 자동화되고 원격조종화된 은률광산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과 모든 기술공정들이 자동화된 무산광산—김책제철소사이의 대형장거리정광수송관을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완공하도록 이끄시였다. 또한 황해제철소를 전면적자동화와 종합적원격화의 본보기단위로 꾸려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75년 7월에 검덕광산을 찾으시여 광산의 기술장비들을 대형화, 현대화하며 생산지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당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높은 충성의 속도를 창조하면서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쳐나갔다.

당은 거창한 사회주의대건설을 조직령도하면서 농업생산을 빨리 높이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리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위대한 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

을 통하여 농업생산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공업의 전반적부문들이 빨리 발전하고 인구가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겨야 할 과업이 중요하게 나선 현실은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특히 이 시기 한랭전선의 영향이 전세계를 휩쓸고있던 조건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혁명적대책들을 세우는것이 매우 절박하고도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세계농업실태를 깊이 료해하신데 기초하여 1973년 1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농업생산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농사제일주의로 나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였다.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을 높이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농사실태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선진영농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 과학적농사원리에 대한 깊은 탐구와 끊임없는 농작물재배시험, 쉬임없는 농촌현지지도과정에 쌓으신 풍부한 경험 그리고 우리 시대 농업발전의 근본요구와 한랭전선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 실정에 가장 알맞는 과학적인 농법인 주체농법을 창조하시였다.

주체농법은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와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과학농법이며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 집약농법이다.

주체농법은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지키며 땅을 끊임없이 개량하여 지력을 높이고 포기농사를 하여 농업생산의 집약화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게 한다.

당은 주체농법대로 농사를 짓는것을 우리 당의 확고한 영농방침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농업생산에서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록색혁명》이 추진되고 농작물의 육종기지와 채종기지가 튼튼히 꾸려졌으며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포기농사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과학적시비체계가 확립되였다.

주체농법이 창조되고 철저히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생산을 과학기술적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울수 있게 되였다.

당은 농업생산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자연을 개조하는것은 농업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더우기 한랭전선의 영향이 우심해지고있던 실정에서 자연을 개조하지 않고서는 이상기후현상을 극복할수 없고 농업생산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담보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6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자연개조 5대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것은 첫째로 밭관개를 마저 완성하며, 둘째로 다락밭을 건설하며, 셋째로 토지정리와 토지개량 사업을 하며, 넷째로 치산치수사업을 하며, 다섯째로 간석지를 개간하는것이였다.

자연개조 5대방침은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조건에서 자연지리적조건을 잘 리용하여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며 자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은 전인민적투쟁속에서 성과적으로 실현되여갔으며 이에 따라 농업전선에서는 거대한 변혁이 일어나게 되였다.

사회주의대건설의 힘찬 진군속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6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되게 되였다.

6개년계획기간 우리 나라의 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1976년에 우리 나라 공업생산은 1970년에 비하여 2.5배로 높

어났다.

농촌경리분야에서는 련이어 대풍작이 이룩되였다.

인민생활분야에서도 6개년계획의 강령적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6개년계획기간에 세대당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소득은 1.7배,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1.8배로 늘어났다.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여 우리 나라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로 되였으며 물건값이 대폭 떨어지고 농촌들에서 뻐스화와 수도화, 리진료소의 병원화가 실현되였다.

6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경제력은 더한층 강화되고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계속 힘찬 진군을 다그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제 8 절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 제2차 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

우리 당은 6개년계획수행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1978년부터 제2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7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5차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제2차 7개년계획의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2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32권, 542페지)

제2차 7개년계획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와 인민생활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이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것이며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는것이며 인민경제의 과학화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모든 부문의 생산과 경영 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이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여야 사회의 늘어나는 물질적수요를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경제의 자립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또한 자연을 성과적으로 개조하고 로동생산능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포함한 온갖 로동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방침으로 된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옳게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기본으로 하면서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같이 밀고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의 성격과 목표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를 가장 옳바로 밝혀주고있다. 이 방침은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정당한 방침인 동시에 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빨리 점령할수 있게 하는 현명적인 전략적방침이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고 로동계급의 경제리론은 더욱 발전풍부화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2차 7개년계획기간에 수행해야 할 인민경제 부문별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제2차 7개년계획기간 공업부문의 중심과업은 이미 있는 공업의 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면서 그것을 더욱 확대하여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며 모든 공업부문들을 더욱 현대화, 과학화하는것이였다.

농촌경리부문의 중심과업은 자연개조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업생산을 과학화, 집약화하는것이였다.

당은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것을 당사업의 총적방침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밝히였다.

1978년 1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6차전원회의에서는 거창한 새 전망계획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전당, 전민이 한결같이 떨쳐나서 총진군운동을 벌릴것을 호소하는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채택하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제2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높은 정치적열의로 들끓게 되였다.

당은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각급 당위원회들이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켜나가도록 하는데 큰 주의를 돌리였다.

이 시기 일부 당조직과 당일군들은 행정을 대행하거나 행정경제일군들의 뒤꼬리를 따라다니면서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바로 결합시키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편향들을 없애지 않고서는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없었다.

당은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기 위하여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는 립장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였으며 경제정책관철을 당적으로 잘 안받침해주며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도록 하였다.

당은 1978년 5월부터 100일전투를 조직하여 새 전망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이어 제2차 7개년계획의 중요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당은 석탄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1978년 11월 중요탄광들에 당중앙위원회 석탄공업부문 지도소조를 파견하는 한편 탄광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탄부들의 생활조건과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결과 석탄생산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였으며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였다.

당은 채취공업과 함께 철도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당은 철도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1978년초부터 《수송혁명 200일전투》를 또다시 벌리도록 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가 있은 직후에는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의 불길을 지피였다. 이리하여 철도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혁명적인 제도와 규률이 확립되게 되였으며 수송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다.

당은 새 전망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경제관리를 개선하는것은 방대한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였다.

당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데 모를 박고 경제관리를 개선해나가도록 하였으며 이 사업에서 모범으로 되는 표준공장들을 꾸리고 그 기업관리경험을 일반화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대안의 사업체계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고 그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휘되게 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생산과 건설에서는 혁명적앙양이 일어났으며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며 제2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이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현실과

날로 복잡해지는 주변정세와 관련하여 1978년말에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중요하게 내세우고있는 전략적구호입니다.》(《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단행본, 2페지)

우리 식대로 살아나간다는것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 정신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하며 모든것을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혁명적구호에는 지난 기간 남의 본을 따고 남의 뒤를 따르거나 남의 덕에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을 따라 전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우리 혁명의 고귀한 경험이 집대성되여있으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위업을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이 구현되여있다.

당은 우리 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기 위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당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생산하고 건설해나가도록 하였다.

당은 제2차 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새로운 형태의 대중운동인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과정에 그 어떤 명예와 보수도 바라지 않고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묵묵히 일하는 숨은 영웅들을 몸소 찾아내시고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드시여 1979년 10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는 대중운동으로 규정하시고 이 운동을 당의 중요한 방침으로 내세우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현시기 당의 중요한 방침으로 틀어쥐고 전당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당 제6차대회를 맞으며 당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자》, 단행본, 14페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우리 당의 공정감화교양방침을 구현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공산주의적사상개조운동이며 과학혁명, 기술혁명의 시대에 맞게 우리의 주체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대중적혁신운동이며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대중적운동이다.

당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벌리도록 이끌었다.

1980년 1월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킬데 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하여 이 운동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전당적, 전사회적인 관심속에 힘있게 추진되였으며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이 운동의 거세찬 흐름속에서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이 수많이 배출되고 과학기술이 높이 발전하였으며 일군들의 지도작풍도 크게 개선되였다.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한편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1976년부터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날뛰였다. 해마다 년례행사

처럼 벌리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단순한 군사연습이 아니라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면적인 《예비전쟁》, 《핵시험전쟁》이였다.

당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전쟁관점을 가지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며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당의 군사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적 군사사상과 군사리론을 빛나게 구현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시면서 1979년 2월 전군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전군을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인민군대를 강화발전시킨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모든 군인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고 군건설과 군사활동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진행하여 인민군대를 영원히 혁명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전군 주체사상화방침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혁명무력을 불패의 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독창적인 방침이며 당이 군건설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당은 전군 주체사상화를 적극 추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인민군군인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모두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한 혁명전사가 되도록 사상사업을 강화하며 군대안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하였던 김혁, 오중흡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군인들이 백전백승의 주체전법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식의 전술, 사격, 체육 훈련을 강화하여 일당백의 용사로 준비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의 군사조직체계와 작전지휘체계를 개편하며 군수공업을 발전시켜 전투기술기재의 현대화를 다그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민군대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붉은기중대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더욱 높여 전군이 당의 명령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우도록 하였다.

전군 주체사상화방침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인민군대안에 당의 령도체계가 더욱 튼튼히 서게 되였으며 인민군대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군사적으로 담보하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제 9 절
사회주의적민족문화의 찬란한 개화발전. 사회주의교육강령의 제시. 문학예술 발전에서의 혁명적전환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당은 우선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었다.

당은 새 세대들을 높은 수준의 일반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의 기초지식을 가진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기 위하여 1975년에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였으며 다음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제정하여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제도를 법적으로 공고화하였다.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전반적으로 중학교졸업정도에 이르게 하였다.

당은 특히 고등교육망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6개년계획기간에 기술자, 전문가의 대오를 100만명으로 늘임으로써 나라의 민족간부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중엽에 이르러 우리 나라 교육은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섰으며 민족경제와 과학, 문화를 보다 급속히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게 되였다.

혁명과 건설의 급속한 전진은 교육사업을 더욱 높이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7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위대한 사회주의교육강령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였다.

교육테제에서는 우리 당이 사회주의교육을 발전시키는데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이 총화되였으며 사회주의교육사업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육테제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정식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김일성저작집》 제32권, 374페지)

교육테제에서 밝혀진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교육사업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총적방향을 명확히 해주고있다.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은 바로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데 있다. 사회주의교육이 이 목적을 정확히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것, 다시말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것을 모든 교육사업의 총적방향으로 틀어쥐고 진행하여야 한다.

테제에서는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 밝혀졌다.

사회주의교육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철저히 구현하며, 교육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교육과 혁명실천을 밀접히 결합하며, 당과 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진행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교육테제에서는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이 명백히 규정되였다.

테제는 정치사상교양을 사회주의교육의 기본구성부분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정치사상교양은 사회주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정치사상교양에서 중요한것은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지니게 하고 혁명교양과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의식과 공산주의도덕을 소유하게 하는것이다.

테제는 과학기술교육을 사회주의교육의 기본구성부분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과학기술교육에서는 일반지식교육과 전문지식교육을 잘하여야 하며 그것을 철저히 당정책화하여야 한다.

테제는 체육교육을 사회주의교육의 기본구성부분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학교체육교육의 중심은 학생들의 체력을 튼튼히 하고 몸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교육테제에서는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사명에 맞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이 제시되였다.

테제에서 밝혀진 사회주의교육방법에서 중요한것은 교수교양을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며, 리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하며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을 강화하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하고 학교전교육과 학교교육, 성인교육을 병진시키는 것이다.

교육테제에서는 선진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을 밝히고 그 공고발전을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11년제의무교육을 더욱 공고히 하며 전망적으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요구에 맞게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과업과 국가부담으로 학생들의 학습조건, 생활조건을 개선할데 대한 과업 그리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와 국가적어린이보육교양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테제는 교육기관들의 기능과 교육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며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와 국가적보장, 사회적지원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도 밝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교육리론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강령적문

헌이다.

교육테제가 발표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후대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교육테제는 로동계급의 교육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풍부화시키고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에게 교육사업을 올바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교육테제를 관철하는 과정에 우리 나라 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당은 교육사업과 함께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었으며 이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에서 문학예술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문학예술을 개화발전시켜 그것이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의 문예전통을 이룩하시였고 해방후 혁명발전의 매 시기에 맞게 문학예술을 옳게 발전시키도록 이끄시였으며 이 과정에 주체적문예사상과 그것을 구현한 문예정책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1960년 11월과 1970년 2월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와 《교육과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우리의 문학예술을 주체적으로 개화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뚜렷이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에서 사대주의의 여독을 철저히 뿌리뽑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문학예술이 우리의 혁명위업에 더욱 훌륭히 복무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44～45페지)

우리의 문학예술은 조선혁명에 복무하는 사상적무기인것만큼 마땅히 우리 인민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고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 혁명적문학예술로 되여야 하며 우리 인민의 비위에 맞고 우리 인민이 즐기는 문학예술로 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발전의 기본방향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며 사회주의적내용과 민족적형식을 옳게 결합하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에 의거하여 사상성과 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문예활동에서 전문일군본위로 나가려는 경향을 없애고 문학예술을 군중적으로 널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함께 주제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문제, 혁명전통주제의 작품과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작품, 혁명투쟁에 관한 작품의 창작을 다같이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공들의 전형을 창조하고 사람들의 세계관 형성과 혁명화과정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혁명적문예작품창작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명확히 밝히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철저히 구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찍부터 영화를 비롯한 문예부문지도에 많은 힘을 기울이시였으며 특히 1960년대중엽부터는 사회주의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때 당안에 숨어있던 부르죠아분

자, 수정주의분자들이 문예분야에 끼친 엄중한 해독적후과를 완전히 가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로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결정적인 변혁이 요구된다고 인정하시고 문학예술에서의 일대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의 요구에 맞는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문학예술혁명을 일으켜야 한다.》(《영화예술론》, 1페지)

문학예술혁명방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시고 해방후 계승발전시켜오신 주체의 혁명적문예전통을 옳게 이어받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형의 혁명적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독창적인 방침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73년 4월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문학예술혁명을 수행하고 주체의 문학예술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마땅히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되여야 한다는 새로운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 주체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형상하여야 할 인간의 전형은 바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투쟁하며 생활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자주적인 인간이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사람들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과 그의 사상도덕적풍모를 보여줌으로써 사람일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주는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 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투쟁과 생활의 참다운 교과서로 될수 있다. 공산주의적인간학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에 의하여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에 관한 리론이 가장 높이 발전되고 완성되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예술창작에서 종자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제시하시였다. 종자론에 의하여 작가들이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사색과 탐구를 통하여 작품의 종자를 옳바로 골라쥐고 형

상의 꽃을 아름답게 피울수 있게 되였으며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창작할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 창조에 관한 리론과 창작과정에서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방침, 새로운 창조체계와 창작지도체계, 주체적인 창조방법과 창작지도방법을 세울데 대한 방침들을 내놓으심으로써 문학예술창조에서 나서는 중요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심오한 해답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예술혁명을 이끄시면서 문학예술사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 제일차적의의를 부여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빛나게 형상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시였으며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도록 지도하시였다. 이와 함께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우리 시대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깊이있게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예술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작가, 예술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문예작품창작에서 혁명적전환을 이룩하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매 작품들의 창작과정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문학과 영화, 가극, 연극, 음악, 무용, 미술, 교예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였다.

우리의 주체의 문학예술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와 가극, 연극, 장편소설에 옮기는 거창한 사업을 빛나게 실현한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성황당》 등이 영화와 가극, 연극, 소설들에 훌륭하게 옮겨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이바지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였다.

문학예술분야에서는 또한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다. 당의 지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과 《조선의 별》, 《백두산》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영화들이 창작되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수령님의 동상을 중심으로 한 대기념비적작품들과 삼지연, 왕재산의 대기념비를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했던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하여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전형적인 주인공들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으며 특히는 혁명적대작들을 창작하는데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무대예술에서도 획기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절가를 기본형상수단으로 하고 방창과 무용을 도입한 독특한 형식의 《피바다》식 혁명가극과 주체시대에 맞는 새형의 《성황당》식혁명연극을 창작하여 가극발전과 연극발전에서 새 시원을 열어놓았다.

혁명가극을 창조하는 사업에서 온 세상에 자랑할만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한편의 가극이 나오는데 5년, 10년이 걸렸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1년 남짓한 기간에 종래의 가극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가극을 5편이나 창조하였다.

이밖에도 음악, 무용, 미술, 교예 등 모든 예술부문들에서 혁명적변혁이 일어나고 새로운 발전이 이룩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문학예술분야에서 일대 혁명이 실현되여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민족문화발전에서 과학교육사업, 문학예술부문의 발전과 함께 인민보건사업과 인민대중의 생활문화, 생산문화 발전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당은 1971년 4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2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평양산원을 비롯한 현대적의료기관들을 새로 많이 건설하였으며 도시와 군소재지, 농촌리의 병원들과 진료소들을 더 잘 꾸리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위생선전사업과 위생문화사업,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하고 인민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과 의료봉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한 결과 근로자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의 건강이 믿음직하게 보호증진되게 되였다.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보건제도와 보건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1980년 4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이 채택되였다.

우리 나라 보건사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인민들의 평균수명은 급속히 늘어났으며 1981년에는 해방전에 비하여 36년이나 늘어나 74살에 이르게 되고 그후 그들의 평균수명은 해마다 더 늘어나게 되였다.

사회주의적 생활문화와 생산문화를 확립하는것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당은 온 나라의 텔레비죤화를 실현하고 각종 현대적문화시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의 늘어나는 문화적수요를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농촌뻐스화와 농촌수도화를 다그쳐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줄이고 농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더 잘 도모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문화를 철저히 세우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맞게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민족문화의 모든 분야가 전면적으로 찬란히 개화발전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정치, 경제적으로뿐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매우 발전된 나라로 전변되였다.

제 10 절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방침.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의 강화, 광주인민봉기

당은 제5차대회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계속 강력히 벌려나갔다.

1970년대초 안팎의 정세는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유리하게 전변되여갔다.

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면서 북반부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반석같이 다지며 민족적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력히 벌려나갔다.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들에 고무되여 남반부인민들은 반미반파쑈투쟁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국제적범위에서 우리 혁명과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빨리 늘어났다. 반면에 이 시기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더욱더 헤여날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변화되는 나라의 안팎의 정세에 맞게 조국통일의 앞길을 주동적으로 개척하시기 위하여 1971년 8월 력사적인 연설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에서 새로운 폭넓은 협상방침을 내놓으시면서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이 폭넓은 북남협상방침은 당시의 조성된 정세와 조국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통일위업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하여 북과 남사이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북남적십자단체들사이의 예비회담이 진행되였으며 이와는 별

도로 북과 남의 고위급회담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2년 5월 북남고위급 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측 대표들과 하신 담화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7권, 165페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의 근본성격에 맞으며 조선인민의 자주적요구와 근본리익 또한 세계정세의 흐름과 세계인민들의 지향에도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이다. 이것은 북과 남의 쌍방이 그 리행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맹세한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1972년 7월 4일에는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공동성명의 발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북과 남의 협상방침의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해방후 4분의 1세기이상이나 아무런 접촉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실현되고 공동성명이 발표된것은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였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국내외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전체 조선인민들은 남북공동성명을 열광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세계 여러곳에 있는 해외동포들도 이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를 진심으로 기뻐하였다.

우리 당은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모처럼 마련된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성공에로 이끌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며 여러차례의 조절위원회회의들을 통하여 조국통일 3대원칙을 리행하기 위한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안들을 계속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화에 림하는 남조선괴뢰도당의 태도와 대화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그들의 목적은 우리와 정반대였다.

그들은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첫날부터 그것을 《믿을수 없는 종이장》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공동성명에 기대를 걸지 말라.》고 뇌까렸으며 회담에서는 지연전술을 쓰고 회담장밖에서는 외세의존과 남북대결, 민족분렬을 추구하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민족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해결할데 대한 조국통일 3대원칙에 합의하고서도 돌아앉아서는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였고 이른바 《승공통일》을 위한 《실력배양》과 《총력안보》를 운운하면서 전쟁정책에 매달렸다. 그들은 온갖 허위와 기만, 비방과 중상으로 사람들속에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집요하게 고취하면서 《10월유신체제》를 꾸며내고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1973년 6월 남조선괴뢰도당은 드디여 본래의 속심을 드러내놓고 남북의 《유엔동시가입》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특별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두개 조선》 정책을 공식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책동은 남북공동성명을 공공연히 짓밟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사실상 파탄시키는 행위이며 대화의 전진을 기대하고있던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에 대한 로골적인 배신행위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조선괴뢰도당이 《두개 조선》 정책을 선포한 바로 그날 오후에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여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 5대방침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그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8권, 398페지)

조국통일 5대방침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전체 조선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위업을 다그치기 위한 위대한 투쟁강령이다. 이 5대방침은 조국통일 3대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되고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념원을 정확히 반영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침이다.

조국통일 5대방침은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찬동을 받았다.

조국통일 5대방침이 발표되자 이에 질겁한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의 사촉밑에 《남북유엔동시가입안》을 유엔총회에 황급히 끌고가는 엄중한 배족행위를 감행하였다.

우리 당은 《두개 조선》을 조작하고 민족분렬을 고정화하려는 놈들의 범죄적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 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당은 조국통일 5대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민족회의소집을 다그치도록 하였다.

1973년 7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59차확대회의는 조국통일 5대방침을 지지하며 대민족회의를 시급히 열것을 제의하는 호소문을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정당, 사회단체들, 해외교포단체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냈다. 그리고 1973년 11월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당, 천도교청우당은 민족앞에 닥쳐온 영구분렬의 위기를 막고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대민족회의를 열것을 제의하는 편지를 남조선의 통일혁명당, 민주공화당, 신민당, 민주통일당에 보냈다. 이 조치들은 민족영구분렬의 위기를 타개하고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당은 또한 조국통일 5대방침의 실현에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을것을 제의하는 편지를 미국국회에 보냈다. 이 제의는 우리 나라에서 전쟁위험과 긴장상태의 상시적인 근원으로 되고있는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내정간

섭을 종식시키고 민족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였다.

당은 북과 남의 대화를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적극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해나섰다.

1973년 9월 세계 80여개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정부수반들이 인솔한 대표단들을 비롯한 100여개 대표단들의 참가밑에 알제리에서 진행된 제4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미일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규탄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를 요구하고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는 환경속에서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지역들에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 《조선통일지지위원회》들이 조직되고 1977년 6월에는 국제적조직으로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가 창설되였다.

1975년부터 해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과의 국제적련대성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1977년에는 벨지끄의 수도 브류쎌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제1차 세계대회가 열리였으며 1978년에는 일본 도꾜에서 세계의 60개 나라의 정부급 대표단, 정당, 사회단체, 련대성조직들과 12개의 국제기구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조선의 통일을 위한 제2차 세계대회가 열리였다.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의 파렴치한 파괴책동을 짓부시고 소집된 이 대회들은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마치였다.

우리 당 대외정책의 정당성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하여 1973년에 있은 유엔총회 제28차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는것을 지적하고 미제의 침략과 내정

간섭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시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남조선을 강점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요구하는 조선문제에 관한 우리측 결의안이 압도적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였다.

우리 인민이 쟁취한 이러한 승리는 분렬로선에 대한 통일로선의 승리이며 반동세력에 대한 국제혁명력량의 승리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최대의 위기를 겪게 되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이러한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 정책에서 찾고 정세를 더욱더 긴장시키면서 남조선혁명력량에 대한 반동적공세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은 원쑤들의 횡포한 탄압책동에도 굴하지 않고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통치를 뒤집어엎고 민주정권을 세우며 나라를 통일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용감히 투쟁하였다. 그들은 《박정권을 타도하라》, 《미군은 즉각 물러가라》, 《외세를 물리치고 자주통일 이룩하자》라는 구호를 들고 과감히 투쟁에 떨쳐나섰다.

1973년 10월 남조선청년학생들이 지펴올린 투쟁의 불길은 각계각층 인민들속에 파급되고 《유신》독재타도와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중적인 반파쑈민주화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청년학생들과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1979년 10월에는 부산에서 파쑈적《유신》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마침내 대중적반《정부》폭동으로 발전하였다. 이 투쟁은 마산, 서울, 광주를 비롯한 남조선 각지에로 파급되였다.

남조선에서의 사태발전은 리승만괴뢰정권의 붕괴를 가져온 4.19인민봉기전야의 정세를 방불케 하였다. 사태를 수습할수 없게 된 미제는 박정희를 제껴버리는 방법으로 저들의 식민지통치위기를 수습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그리하여 18년간이나 남조선인민들우에 군림하여온 《유신》독재의 원흉, 포악한 파쑈독재자 박정희역적은 과멸되고말았다.

박정희역도가 사살된 《10월사건》이후 미제의 조종밑에 음모적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한 전두환도당은 《유신》독재보다 더 악독한 군사파쑈독재를 수립하였다.

이에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은 반파쑈민주화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였다. 1980년 3월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남반부전지역에서 미제와 괴뢰도당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투쟁을 벌렸다. 특히 5월에는 전두환괴뢰도당이 《전국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쑈적탄압을 감행하는데 항거하여 광주인민들이 대중적봉기를 일으켰다.

투쟁에 일떠선 광주시민들은 자치조직인 《시민위원회》, 《민주투쟁위원회》와 자위적무장조직인 《시민군》, 《특별경계부대》, 《결사대》를 뭇고 괴뢰계엄군의 포위와 군사적위협공갈, 경제적봉쇄, 회유기만책동을 짓부시면서 항쟁의 도시 광주시를 열흘동안이나 사수하였다.

봉기에 떨쳐나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유신체제 철페하라》, 《전두환은 퇴진하라》,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라》등 구호를 들고 힘차게 싸웠다. 이 투쟁에는 광주와 그 주변지역의 청년학생, 로동자, 농민, 주민들과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온 애국적인민들을 포함하여 연 100여만명이 참가하였다.

식민지통치위기에 극도의 불안을 느낀 미제는 남조선의 군사파쑈분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봉기자들에 대한 야수적살륙만행을 직접 조작하고 지휘하였다. 미제의 부추김을 받은 군사파쑈도당은 비행기와 땅크, 장갑차 등으로 중무장한 7만여명의 괴뢰군을 동원하여 력사에 류례없는 동족살륙작전을 벌리고 광주시를 피바다에 잠그었다.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영웅적항쟁참가자들에 대한 미제와 군사깡패들의 천인공노할 죄행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하고 각계각층 인민들을 새로운 투쟁에로 부르는 격문을 발표하였다.

우리 당은 공화국북반부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련합성명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애국적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고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미제와 군사파쑈도당

의 천추에 용서 못할 죄행을 규탄하였다.

세계의 진보적인민들도 영웅적광주인민봉기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 살인만행을 직접 조종한 미제를 견결히 규탄하였다.

영웅적광주인민봉기는 미제와 군사파쑈도당의 야수적만행에 의하여 비록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남조선의 파쑈통치의 지반을 밑뿌리로부터 뒤흔들어놓았고 남조선인민들의 강의한 자주정신과 불굴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보여주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광주인민봉기는 그의 심도와 범위, 규모에서나 투쟁형태와 완강성, 조직성에 있어서 근대동방력사에서 처음있은 가장 크고 격렬한 전인민적인 반파쑈무장봉기로서 남조선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제 11 절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당의 활동. 세계적범위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급속한 보급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무대에서는 신흥세력의 진출이 결정적으로 강화되였다. 반면에 신흥세력의 장성에 겁을 먹은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가로막아보려고 침략과 간섭, 전복과 파괴 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으며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전략적요충지대들을 틀어쥐기 위한 싸움을 벌리면서 약소국가들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짓밟고있었다.

이러한 정세는 자주성을 유린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세계인민들의 자주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옳바른 투쟁방침을 밝힐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세의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조선로동당창건 30돐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에 즈음하

여 하신 력사적인 보고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을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투쟁목표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의 행복이 있고 영예가 있으며 자주성을 가진 민족이라야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9권, 11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자주성을 옹호하자면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지배주의의 본질은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유린하며 다른 민족과 인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것이다. 그것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투쟁에 역행하는 반혁명적조류이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투쟁대상이다.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만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보장할수 있으며 온갖 지배와 예속이 없는 새 세계를 건설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적인 새 사회,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자》는 구호밑에 세계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자》라는 전략적구호는 우리 시대 국제혁명력량편성의 기본원칙으로 된다. 이 구호가 제시됨으로써 세계적판도에서 혁명력량을 최대한으로 확대강화하고 반혁명력량에 대한 혁명력량의 확고한 우세를 보장하여 세계혁명의 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길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우리 당은 자주성의 기치밑에 세계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렸다.

당은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세력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들과 광범한 통

일전선을 형성하는데 힘을 넣었다.

당은 자주성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들, 세계혁명력량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에 모든 힘을 다하였으며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과의 우호협조관계를 강화하고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원하였다.

당은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네가지 원칙을 내놓고 그 관철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첫째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둘째로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국제로동운동을 지지하며, 셋째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계속 나가며, 넷째로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 기초우에서 단결할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7권, 40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이 네가지 원칙은 사회주의나라들의 단결을 강화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촉진하는 가장 정확하고 혁명적인 원칙이다.

당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단결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에 힘썼다.

우리 당은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발전시키는것을 당의 중요한 대외활동방침으로 규정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흥세력나라 지도자들과 진행하신 대외활동을 통하여 우리 나라와 신흥세력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한층 더 공고히 하시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을 더욱 유리하게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생독립국가 지도자들과 당, 정권 기관, 군대 건설의 제 원칙들과 방도 그리고 경제건설로선과 제반 경제시책 등 민족해방위업의 완성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경험들을 나누시였으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하시였다.

우리 당은 한손에는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칼

을 쥐고 휘두르는 미제의 《량면전술》을 제때에 간파하고 그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평화》의 간판밑에 침략과 전쟁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는 미제의 《평화전략》의 본질과 기만성 그리고 큰 나라와는 관계를 개선하고 혁명하는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침략과 전쟁 책동을 강화하는 교활한 정책을 신랄하게 폭로규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1년 8월 6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당시 닉슨의 중국방문이 중국에 대한 장기간의 봉쇄와 고립화정책이 완전히 파산됨에 따라 하는수없이 흰기를 들고 들어오는 패배자의 행각이라고 평가하시면서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량면전술》에 언제나 경각성을 높이며 그들을 완전히 매장하여버리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닉슨의 중국방문과 관련하여 내리신 정확한 평가는 전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일시 혼란에 빠졌던 세계여론을 바로잡아주었으며 세계정세를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시킴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하였다.

우리 당은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5년 4월부터 6월사이에 아세아, 아프리카,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방문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진행하신 이 외국방문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일층 강화하고 자주적인 새 사회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자주력량인 쁠럭불가담운동을 발전시키는데 귀중한 기여를 하였다.

당은 1974년 5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쁠럭불가담운동에 정식가입할데 대한 립장을 밝히였으며 1975년 8월에는 그 정식성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우리 나라가 쁠럭불가담운동의 정식성원국으로 된것은 공화국의 국제적활동무대를 더욱 넓히는 동시에 이 운동의 강화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의 기

치를 높이 들고 온갖 지배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서로 단결하고 협조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주시였으며 쁠럭불가담운동발전에서 지도적지침으로 되는 기본방침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5년 12월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는 전반적 세계혁명력량을 급속히 확대하고 제국주의의 몰락을 더욱 촉진하며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전투적기치로 되였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당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국제적 권위와 지위는 더욱 높아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국제적권위가 높아지고 우리 혁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전례없이 늘어남에 따라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세계적범위에서 더욱더 급속히 보급되였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국제적사조로 공인되게 되였다. 혁명하는 인민들은 주체사상을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로 우러러 보게 되였다.

수많은 외국의 혁명가들과 사회활동가들, 학자들이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에서 이룩한 실천적경험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끊임없이 찾아올뿐아니라 자기 나라들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주체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적극 보급선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이 50여개의 민족어로 100여개 나라에서 출판보급되였다. 세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을 실은 출판물들은 수천종에 이르게 되였으며 그 부수는 급속히 늘어났다.

1969년 4월 말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연구소조가 처음으로 조직된데 이어 아세아와 아프리카, 구라파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등 여러가지 명칭을 가진 연구소조들이 조직되였으며 《김일성도서관》까지 설치되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 무어진 연구소조의 수는 수백개나 되며 여기에는 정계와 언론계의 이름있는 인사들, 박사, 교수들과 대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사들과 인민들이 망라되였다. 그리고 연구소조들에 대한 전국적인 정연한 지도체계를 세워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많은 나라들에서 중앙조직들을 내오는데까지 이르렀다.

이 조직들은 그후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국제적인 조직으로 급속히 확대발전하였다. 1978년 4월 일본 도꾜에서 창립된 주체사상국제연구소는 그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에 지역조직을 가진 정연한 조직체계로 발전하였으며 기관지 《주체사상연구》를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발간하게 되였다.

주체사상에 대한 소조들의 전국토론회, 지역토론회, 국제토론회가 세계적판도에서 활발히 진행되게 되였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보급사업이 심화됨에 따라 점차 학술적인식단계를 벗어나 주체사상을 혁명실천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 단계에로 넘어갔다. 여러 나라의 당과 정부의 고위급인사들이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사업에 적극 망라될뿐아니라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지침으로 삼고 활동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이처럼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규모로 급속히 보급되여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확고한 혁명적 신념으로, 투쟁의 무기로 되였다.

1970년대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위대한 전환을 이룩한 시기였다.

이 시기는 특히 우리 당이 주체위업 계승문제, 정치적수령의 후계자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기치를 전면에 제기한 시기로서 우리 당 력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더욱 심화되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가 결정적으로 강화되였으며 당사업전반에서 획기적발전

이 이룩되였다.

이 시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조직전개되여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해나가는데서 빛나는 력사적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사회주의적민족문화의 찬란한 개화발전이 이룩되였다. 특히 교육사업의 획기적발전을 가져온 사회주의교육강령이 제시되였으며 문학예술발전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 대전성기가 마련되였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방침이 제시되고 북과 남의 전체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활동에서 큰 전진이 이룩되고 우리 당과 공화국의 국제적위신이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위대한 주체사상이 세계적범위에서 급속히 보급되였다.

이 시기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이룩한 성과는 우리 당이 보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투쟁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되였다.

제 11 장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당의 투쟁. 전당과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의 확고한 실현

(1980—)

제 1 절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우리 당은 당 제5차대회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제기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반파쑈투쟁이 더욱 강화되였다.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고 세계혁명발전에서 우리 나라의 지위와 역할이 더욱 높아졌다.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인 전진속에서 우리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특히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우리 당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당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

업을 수행하는데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섰다.

이러한 력사적시기에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1980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였다.

대회에는 결의권대표 3,062명과 발언권대표 158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세계 118개 나라에서 온 177개의 당 및 정부 대표단들과 친선의 사절들이 참가하여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와 당규약개정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당 제5차대회이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경험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과업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대회에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규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함으로써만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35권, 312～313페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학설인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온 사회를 개조하여야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대회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서 당면한 투쟁과업으로 내세웠다.

대회에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과업들을 밝히였다.

대회에서는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을 확정하였다.

대회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을 1980년대 경제건설의 기본과업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10대전망목표를 내세웠다.

대회에서는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것이라고 인정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346페지)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할데 대한 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형식의 통일국가를 형성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련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련방국가가 실시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여기에는 련방국가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인민생활, 대외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실시하여야 할 방침들이 전면적으로 집약되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통일국가의 정강인 10대시정방침은 전체 조선민족의 공통된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의 대헌장이다.

대회에서는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고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자주, 친선, 평화, 이것이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365페지)

대회는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에 기초하여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계속 실시해나가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을 적극 지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내놓았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이 당사업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틀어쥐고 이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375페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는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서 당과 혁명이 강화발전하는데 따라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할 사업이다.

대회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모든 당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하며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 체계와 규률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당대렬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과업, 당사상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과업과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과업,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며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할데 대한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는 주체의 혁명위업 수행과 관련되는 중요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깊이 해명함으로써 공산주의혁명리론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당규약을 새로 채택하였다. 당규약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당의 최종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문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총로선으로 틀어쥐고 나갈데 대한 문제,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견지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이 새로 보충되였다.

당 제6차대회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빛나게 장식한 또하나의 커다란 사변으로 되였다. 당 제6차대회는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와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을 시위한 승리의 대회,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영광의 대회였다.

당 제6차대회를 계기로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으며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다그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환을 이룩하게 되였다.

제 2 절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 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 《80년대 속도》창조운동

당 제6차대회가 있은 이후 당은 제2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 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하여 총진군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우리 당과 인민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뚜렷한 목표와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력사적진군의 첫 출발을 잘할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당은 대담한 작전과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사업을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의 중요한 열쇠로 틀어쥐고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인민이 총진군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도록 지도하였다.

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 전망목표 점령을 위한 장엄한 력사적진군이 벌어지고있던 벅찬 환경속에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70돐을 맞이하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우리 당과 우리 조국의 력사에 길이 빛날 대정치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민족적대경사의 날을 가장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70평생을 오로지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널리 선전하며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더

욱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건립하며 김일성경기장,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울데 대한 발기를 하시고 이 사업을 몸소 진두에서 이끄시였다.

전당과 전체 인민은 끝없는 감격과 기쁨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전례없는 규모의 대정치축전으로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70돐을 경축하여 여러 나라의 국가수반들을 비롯하여 세계 5대륙의 118개 나라에서 220여개의 대표단과 대표, 개별인사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인류공동의 대경사로 뜻깊게 기념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였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이와 함께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확고한 의지와 결의를 굳게 다지고 새 전망목표 점령을 다그치기 위한 총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 전망목표 점령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와 같은 혁명적분위기를 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올해 경제과업수행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려면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근로자들의 비상히 높은 혁명적 각오와 열의에 기초한 위대한 대중적진군운동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운동의 첫 봉화를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과 청산리 농장원들이 들도록 하시였다.

당의 부름을 심장으로 받든 김철의 로동계급과 청산리 농장원들은 1982년 7월과 8월에 각각 궐기모임을 가지고 온 나라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농장원들에게 《80년대속도》창조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호응하여 온 나라의 근로자들이 이 운동에 적극 떨쳐나섰다.

당은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1982년 10월과 11월에 전국청년열성자회의와 《80년대속도》창조에 떨쳐나선 천리마운동선구자대회를 소집하였으며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당은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기세에 맞게 제2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 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 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알곡고지를 점령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었다.

당은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을 4대자연개조를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81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고 20만정보의 새 땅을 찾아내며 서해갑문과 태천발전소를 건설할데 대한 4대자연개조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당은 4대자연개조사업에서 당면하게는 주되는 힘을 서해갑문 건설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서해갑문 건설은 20리 날바다를 막고 그 우에 여러개의 갑문과 수십개의 수문을 가진 대언제를 쌓는 세계적인 대규모의 갑문건설공사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와 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서해갑문 건설은 5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우리의 설계, 자재와 기술로 빛나게 수행되였다.

서해갑문이 건설됨으로써 대동강이 대규모의 인공저수지로 전변되고 서해안의 넓은 지역의 간석지물문제와 이 지구의 공업용수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수 있게 되였으며 농업생산에서뿐아니라 공업발전과 수상운수를 비롯한 교통운수의 발전에 새로운 넓은 전망이 열리고 대동강연안과 서해안일대의 풍치가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였다.

당은 서해갑문 건설과 함께 4대자연개조사업전반을 힘있게 수행해나갔다. 그리고 농촌기술혁명수행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고 논밭의 지력을 높이며 농촌진지를 튼튼히 꾸리고 농촌당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되였으며 농촌당조직들의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 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강철고지, 유색금속고지를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81년 6월 청진시 및 함경북도당위원회 전원회의 련합확대회의와 1982년 8월 함흥에서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강철고지와 유색금속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구체적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기초하여 당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장들을 개건확장하고 새로운 금속공장들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주체적인 야금법을 더욱 발전시키고 쇠돌생산기지들을 튼튼히 꾸리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유색금속생산에서 큰몫을 담당하고있는 검덕과 량강도 지구의 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고 현대적인 채취설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검덕광업종합기업소에 1,000만톤 능력의 제3선광장을 불과 한해동안에 훌륭히 건설한것을 비롯하여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당은 화학고지와 천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83년 6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화학고지와 천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이에 기초하여 당은 순천지구에 새로 10만톤 능력의 대규모비날론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으며 이미 있는 화학공장들을 개건확장하고 스프, 인견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섬유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우리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는 새로운 화학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을 더 많이 건설하게 하였다.

당은 전력고지, 석탄고지, 세멘트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려 전력, 석탄, 세멘트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나갔다.

《80년대속도》창조운동이 날로 확대발전되는 가운데 방대한 제2차 7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되였다.

제2차 7개년계획기간에 공업총생산액은 2.2배로 늘어났으며 그가운데서 생산수단생산은 2.2배, 소비재생산은 2.1배로 늘어났다. 이 기간에 공업생산이 매해 평균 12.2%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20돐이 되는 1984년에 1,0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하는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였다.

제2차 7개년계획기간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소득은 1.6배,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1.4배로 늘어나고 근로자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이 개선되였으며 수십만세대의 살림집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인민생활이 훨씬 더 높아졌다.

당은 1985년과 1986년을 조절기로 정하였으며 이 기간에 인민경제발전을 일부 조절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튼튼히 갖추기로 하였다. 이것은 제2차 7개년계획기간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히하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현명한 조치였다.

당은 조절기에 연료, 동력 공업과 철도운수를 확고히 앞세우고

흑색금속공업을 발전시키며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대형공작기계, 특수공작기계 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1985년 6월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과 1만톤프레스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이에 기초하여 대형기계생산기지들을 더욱 확대강화함으로써 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당은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을 줄기차게 벌리도록 하였다.

당은 3대혁명소조운동에 대한 지도체계를 더욱 정연하게 세워 이 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혁명적조치를 취하는 한편 1984년 9월에는 3대혁명소조원대회를 소집하고 3대혁명소조운동을 새롭게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토의하게 하였다. 그리고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회의와 전국3대혁명기술혁신전시회를 조직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널리 보급일반화하도록 하였다.

당은 1986년 10월 숨은공로자대회를 소집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확대발전시켜나가도록 하였으며 이어 11월에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를 소집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를 보내시여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그 실현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당의 정력적지도밑에 3대혁명소조운동이 새롭게 심화되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이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 벌어짐으로써 온 나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이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더욱 앞당기도록 적극 추동하였다.

제 3 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 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의 심화발전

조선혁명의 확고한 지도사상이며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적기치인 주체사상은 혁명실천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혁명투쟁경험의 일반화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심화발전되는 창조적인 혁명학설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창조적인 사상리론적탐구와 여러 단계의 혁명을 령도해오신 풍부한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시여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발전완성시켜오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으며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킨 고전적로작들을 수많이 발표하시였다.

우리 나라 혁명이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행정에 주체사상을 더욱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여야 할 절실한 요구가 제기되였다.

우리 혁명은 이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실현해나가는 매우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섰으며 이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내용을 더욱 전면적으로 깊이 파악할것을 요구하였다.

주체사상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도 널리 보급되여 그들의 의식화과정을 촉진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국제적으로 광범히 전파되여 그 견인력과 영향력이 전례없이 커졌으며 주체의 기치따라 반제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이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는것이 인민들에게 주체사상을 더욱 깊이 인식시키고 우리 나라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과 조국의 자주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촉진시켜나가는데서 매우 절실한 요구로 나섰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시대와 혁명이 제기한 이러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여 1982년 3월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였다.

이 력사적로작에서는 주체사상의 창시로부터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 그리고 주체사상의 력사적의의가 체계정연하게 서술되였으며 주체사상의 모든 원리와 내용이 새롭게 심화발전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주체사상의 구성체계를 명백히 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그리고 그 구현을 위한 지도적원칙을 기본구성부분으로 하는 전일적인 사상리론체계이다.

지난 시기에는 철학적세계관과 사회력사관뿐아니라 그 구현을 위한 지도적원칙까지 밝혀주는 혁명사상이란 없었다.

로작에서 주체사상의 구성부분들이 밝혀짐으로써 구성체계에서의 그 근본특징이 명백히 되였다. 그리고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구성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담고있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라는것이 뚜렷이 증시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주체사상의 매개 구성부분들의 사상리론적내용을 심오히 밝히시고 정연하게 체계화하시였다.

로작에서는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의 근본특징이 밝혀지고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의 진리성과 독창성이 전면적으

로 론증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혔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9페지)

종래에는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삼아왔다. 물질의 일차성, 존재의 일차성에 관한 변증법적유물론의 원리는 이 문제에 과학적해답을 주었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시원문제가 이미 해명된 조건에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였다. 이 문제는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과 세계의 관계문제를 사람을 위주로 하여 제기한것으로서 사람의 운명 개척의 근본방도를 밝히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철학적세계관이 선차적으로 해답을 주어야 할 근본문제이다. 이 근본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준것이 바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사람위주의 철학적원리이다.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의 모든 내용은 이 원리에 기초하여 전개되고있다.

로작에서는 이 주체의 철학적원리가 기초하고있는 사람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견해가 천명되였다.

사람에 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철학의 연구대상으로서 수많이 론의되여왔지만 대부분 그것은 사회적관계를 떠나서 순수 인간에 대한 추상적인 견해에 머물렀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사람의 비본질적인 개별적속성, 특히는 생명물질일반에 고유한 자연적속성을 사람의 본질적속성으로 그릇되게 규정하였다. 사람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변증법적유물론에 와서야 사회적관계속에서 고찰되게 되였다. 그러나 지난 시기에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적속성이 밝혀지지 못하고있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사회적관계속에서 보면서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속성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라는것을 독창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견해를 확립하였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는

사회적속성으로서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만 고유한것이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고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며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사람은 바로 이러한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임으로 하여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 유일한 개조자로 된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특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확립하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 것이 해명됨으로써 세계에 대한 견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밝혀지게 되였다.

또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세계를 대하는 새로운 관점 즉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밝혀지게 되였다.

이 관점과 립장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며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세계를 대하는 이 주체의 관점과 립장은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맞는 가장 옳바른 관점, 립장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참으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관점과 립장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주체의 사회력사관의 고유한 내용을 체계화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의 합법칙성을 밝힌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력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근로인민대중

의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의 근본원리가 새롭게 천명되였습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력사원리는 새로운 사회력사관, 주체사관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15페지)

주체사상은 자연의 운동과 사회적운동의 본질적차이를 해명하고 근로인민대중을 주체로 하는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혀준다.

주체사관의 기초를 이루는것은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라는 원리이다.

이 원리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사회력사에 적용한것이다. 이 원리는 자연의 운동과는 달리 주체의 주동적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는 운동으로서의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리해하는데서 출발적기초로 된다.

주체의 사회력사관은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의 주체라는 원리와 함께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이라는 원리,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는 원리,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 원리들로 이루어진다.

이 주체의 사회력사원리들에 의하여 인민대중을 주체로 하는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성격, 추동력이 새롭게 해명되게 되였다.

로작에서는 주체사상의 매개 사회력사원리들의 내용과 요구들이 구체적으로 해명되였으며 그 진리성과 독창성이 심오히 론증되였다.

이리하여 인민대중이 주동적으로 력사를 창조하고 사회를 발전시켜나가는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주체의 사회력사관이 전일적인 체계로 확립되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들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당 및 국가 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지침입니다. 여기에는 자주적립

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며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원칙들이 밝혀져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자면 반드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37페지)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자주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원칙, 창조적방법을 구현할데 대한 원칙,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주체사상의 이 지도적원칙은 주체의 철학적원리와 사람의 본질적특성 그리고 주체의 사회력사원리로부터 흘러나온것으로서 주체사상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지침이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원칙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그리고 창조적방법을 구현할데 대한 원칙은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과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원칙은 사상개조의 선행과 정치사업의 선행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시고 그 내용을 깊이 밝히심으로써 주체사상을 혁명실천에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리론실천적 문제들과 요구들이 더욱 완벽하게 해명되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발전시켜오신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더욱 심화발전시킨 불멸의 총서이며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숭고한 모범을 보여준 력사적문헌이다.

로작은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주체사상의 원리들에 기초하여 우리 시대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훌륭히 해명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는 위대한 문헌이다.

로작은 전체 당원들과 우리 인민이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당의 로선과 정책의 독창성과 정당성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신념화하는데서 끝없이 귀중한 교과서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을 주체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로작은 또한 세계의 더욱더 많은 혁명적인민들이 주체사상의 심오한 진리를 체득하고 온갖 반동사상과 기회주의사상조류를 반대하며 자주, 독립,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시대의 전진운동에 적극 합류해나서게 하는 불멸의 전투적기치로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후 1986년 7월에 내놓으신 고전적로작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87년 10월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주체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이 물질세계의 일반적특징을 밝혀주는 원리와 인간의 본질적특성을 밝혀주는 원리 그리고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원리를 다같이 포괄하고있다는것과 따라서 그것이 지난 시기의 철학적세계관이 가지고있던 일면성을 극복하고 세계의 본질과 인간의 운명문제에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해명을 준 철학적세계관이라는것을 밝히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발전하는데 상응하게 사회적재부가 창조되고 사회적관계가 개선되여나간다는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특히 력사의 주체에 관한 리론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여야 합니다.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

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습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입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8페지)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언제나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게 될 때 그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있으며 혁명의 주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있다.

인민대중이 이러한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 이루어진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개별적인 사람들의 육체적생명은 끝이 있지만 자주적인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속된 인민대중의 생명은 영원하다. 이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집단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수령은 그의 최고뇌수이고 생명활동의 중심이며 당은 그의 중추를 이룬다. 개별적인 사람들은 당조직을 통하여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됨으로써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닐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의 주체에 대한 새로운 리해에 기초하여 주체의 혁명관에 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으로 결합되여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것처럼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 도덕관은 서로 뗄수 없이 련관되여 하나의 전일적인 혁명관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체의 혁명관을 확고히 세우려면 혁명적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 도덕관을 다같이 체득하여야 합니다.》(《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단행본, 4~5페지)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므로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자면 혁명적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 그리고 혁명의 주체는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인것만큼 주체의 혁명관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갈것을 요구하는 혁명적도덕관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주체의 혁명관을 확고히 세우자면 혁명적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 도덕관을 옳게 지녀야 한다.

이러한 주체의 혁명관에서 가장 기본을 이루는것은 혁명적수령관이다. 그것은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사회정치적집단의 중심이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이기때문이다. 오직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워야만 혁명적 조직관, 군중관, 도덕관도 옳게 세울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면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것이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서도 깊이 해명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날로 우심해지는 반사회주의적책동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위업을 더욱 철저히 옹호해나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주체사상의 독창성과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튼튼히 가지고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철학연구분야에서 사대주의적, 교조주의적 관점에 빠지거나 생물학적인 진화론적관점, 속류유물론적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설명하려는 경향, 혁명실천을 떠나서 공리공담에 떨어지는 편향들을 엄격히 비판하시고 주체사상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정확한 리해를 가지도록 하시였으며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와 해설을 철저히 혁명의 리익과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심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 위대한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업적과 절대적인 사상리론적권위를 더욱 철저히 옹호하고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사상리론적업적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되였으며 세계적범위에서 주체사상의 견인력과 변혁적역할을 비상히 높이여 온 세계의 자주화를 촉진할수 있게 되였다.

제 4 절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의 제고.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철저히 옹호관철하기 위한 투쟁

당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철저히 옹호관철하는데 큰 주의를 돌리였다.

인민정권의 혁명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철저히 옹호관철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적인 요구이며 사회주의사회를 발전완성시켜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원칙적문제였다.

이것은 특히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로동계급의 정권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거세하며 경제관리에서 자본주의적경영방법을 도입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82년 4월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합동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과 198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창건 40돐기념 경축보고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공산주의혁명리론의 중요문제들, 특히 인민정권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업을 뚜렷이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입니다.》(《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단행본, 11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하면 공산주의가 된다는 공식을 내놓으시였다.

인민정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방도이다. 그러므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당의 총로선으로 된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이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조직사업과 물질기술적보장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당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당은 인민정권기관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면서 인민정권기관들이 자기의 모든 활동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데로 지향시키도록 하였으며 자기 활동에서 군중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민정권기관

들이 사회주의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이며 기본방식인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며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나라살림살이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운영하는 사업을 더 잘해나가도록 하였다.

당은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나가는데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 큰 의의를 부여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82년 12월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에서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당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고 근로자들속에서 준법교양과 함께 위법현상과의 투쟁을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국가의 법질서가 더욱 튼튼히 서게 되였다.

당은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철저히 옹호관철하는데 큰 주의를 돌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창조한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입니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대안의 사업체계를 비롯한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를 확고히 고수하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합니다.》(《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단행본, 17페지)

우리 당이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원칙은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민주주의와 유일적지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이 기본원칙들은 사회주의경제를 그 본질적특성과 본성적요구에 맞게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경제지도관리원칙이다.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이 기본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가장 우월하고 생활력있는 우리 식의 공산주의적경제관리체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81년 4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공장관리운영을 개선하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확고히 옹호고수하고 그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며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강화하기 위한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당은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핵을 이루는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며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바로해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3대혁명소조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였다.

당은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철저히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강화하는데 큰 주목을 돌리였다.

인민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부문들사이의 생산적련계가 다양해진 현실은 그에 맞게 경제지도를 아래에 더욱 접근시키고 경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도록 경제지도체계와 기업소조직형태를 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81년 8월과 1985년 5월에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중앙과 지방의 경제지도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의 행정경제지도사업을 통일적으로 더 잘 보장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련합기업소들을 조직운영하게 하시여 쌓은 경험에 기초하시여 1985년 7월과 10월 당중앙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협의회와 그해 11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련합기업소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조치들을 취하시였다.

련합기업소는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우리 식의 새로운 기업소조직형태

이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기간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기업소조직의 기본형태이며 국가의 계획적관리운영의 기본단위이다.

련합기업소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여 기업관리에서 집체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유일적계획에 기초하여 생산을 책임지고 조직진행하며 련합체에 망라된 모든 기업소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련합기업소들사이에도 긴밀하게 협동하며 창발적으로 경영활동을 해나가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우월성을 가진다.

당은 련합기업소체계가 그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련합기업소책임일군들을 정치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준비된 일군들로 꾸리고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기능과 책임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를 옳게 결합시키며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이 3위일체가 되여 정치사업과 행정경제조직사업을 잘 배합해나가도록 하였다.

당은 주체의 농업지도체계를 더 잘 운영하도록 하는데도 큰 주의를 돌리였다.

당은 농업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농업지도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협동농장들의 관리운영수준을 높이고 협동농장들에서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를 정확히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농업생산에 대한 기업적지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을 발전완성시키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이 인민대중을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보고 전개한 사람중심의 독창적인 경제관리리론이라는것을 밝히시고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리와 이 원리를 구현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특징, 경제관리의 기본원칙

을 새롭게 해명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리는 인민대중을 경제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되게 하는것이다. 이 원리를 구현한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는 정치적지도, 당의 령도를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며 경제를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계획적으로 빨리 발전시키며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한다는데 자본주의경제관리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그 근본특징이 있다.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경제관리의 기본원칙도 바로 이 기본원리를 구현하고있는데 그 과학성과 합리성, 혁명성이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본질과 특징, 그 우월성,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에 관한 리론을 더욱 완성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집단주의적방법으로서의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의 본질을 밝히시고 그 적용원칙으로서 정치적방법을 위주로 하고 여기에 경제기술적방법과 행정조직적방법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과 그 구체적방법들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으로 깊이 해명하시였다.

우리 당은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일관하게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공세가 강화되고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버리고 자본주의적방법에 의거하려는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이 우심해진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사회주의기치를 굳건히 지키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전진해나갈수 있었다.

제 5 절
주체위업계승의 요구에 맞게 당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투쟁. 전당과 전체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의 강화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확고히 계승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도록 당을 강화하며 특히 당의 기초를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다져나가는데 큰 힘을 넣었다.

당의 기초를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 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기초를 쌓는것은 로동계급의 당 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이며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관건적문제입니다.》(《당조직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단행본, 3폐지)

로동계급의 당은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고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그 혁명적성격을 고수하면서 자기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당의 기초를 강화하는 문제는 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혁명위업의 계승자, 수령의 후계자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도록 당의 기초를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다져야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위업계승완성의 근본요구에 맞게 당의 기초를 쌓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왔으며 끊임없이 강화해나갔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80년 12월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당의 기초축성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과업들을 명확히 밝히시였다.

당의 기초를 쌓는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

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배양하는 사업이다.

당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키우기 위하여 당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수령과 수령의 후계자의 결정적 역할, 우리 당의 위대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시키도록 하였으며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고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그러했던것처럼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가지고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도록 하였다.

당은 청소년들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강화하여 새 세대들이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주체위업의 참다운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되도록 하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린 결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의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우고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였다.

당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간부대렬을 혁명위업계승의 요구에 맞게 잘 꾸리는것이였다.

당은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간부사업에서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사업능력을 기본표징으로 하고 로, 중, 청을 배합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였으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간부양성기관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조치들을 취하고 후비간부양성사업과 현직간부들에 대한 재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간부대렬의 질적구성이 개선강화되고 당의 핵심력량이 더욱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도록 당의 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져가게 되였다.

당은 당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전당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강화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고 모든 당조직들과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사업과 당활동,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을 당의 방침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직진행하는 혁명적사업 질서와 규률을 엄격

히 지키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을 당의 기초를 튼튼히 쌓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내세우고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조직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당조직들이 그들의 당생활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이처럼 당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킴으로써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당의 기초를 강화해나가는 사업을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해나갔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82년 10월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에서 우리 당의 창건과 그 강화발전의 전과정을 분석개괄하시고 로동계급의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성격과 특징을 전면적으로 밝히시면서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그 역할에 비추어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을 통하여서만 실현될수 있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32페지)

당은 혁명과 건설의 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이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옳게 움직여나갈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다.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이 계속되며 이 투쟁을 통하여 사회

가 끊임없이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지구우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한 나라 혹은 일부 지역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되여도 외부의 원쑤들의 침략행위와 그와 결탁한 내부의 원쑤들의 반항을 면할수 없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사회를 옳게 움직여나가자면 당과 같이 강한 조직력을 가진 향도적력량의 정치적령도가 보장되여야 한다.

이렇듯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의 전기간 그리고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된 다음에도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따라서 당이 이러한 력사적역할을 끝까지 수행할수 있도록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해나가야 한다.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전당을 주체사상화해나가야 한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해나가야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을 옳게 수행해나갈수 있으며 공산주의사회, 온 사회가 주체사상화된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령도해나갈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당건설의 근본문제로 내세우시고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당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해나가는데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강화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주목을 돌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당의 위대한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36폐지)

당은 당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간부들과 당원들을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사상적기초를 이루는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갔다.

당은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과 당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사업, 충실

성교양을 비롯하여 계급교양,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등 모든 사상교양사업들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진행하며 그것들이 당과 혁명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당은 또한 항일혁명투쟁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 항일투사들에 의하여 이룩된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 일심단결의 빛나는 전통을 대를 이어 확고히 계승해나가기에 모든 힘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전체 근로자들이 항일혁명투사들처럼 투철한 수령관에 기초하여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하며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효성을 지니도록 하였다.

당은 당의 통일단결에 지장을 주는 온갖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하였다.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반당적인 사상요소와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혁명이 심화발전되는데 맞게 끊임없이 진행되여야 한다.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통일단결을 저애하는 그 어떠한 사소한 현상도 제때에 식별하고 극복해나갈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의 반종파투쟁경험과 당의 통일문제와 관련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심중한 교훈으로 교양하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진행하였다.

당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일심단결로 더욱 강화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

우리 당은 당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가는 사업과 함께 광범한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은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로 올려세울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85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일군들과 관계부문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우리 당 활동의 근본원칙이라는것을 다시금 강조하시고 군중과의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당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군중사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전당적인 토의사업을 진행하고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당은 당일군을 비롯한 지도일군들이 늘 군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당은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고 모든 일군들이 번잡한 사무와 행정식사업방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제도화, 습성화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지도일군들은 공장, 기업소의 기대옆과 농촌의 포전, 광산과 탄광의 지하막장을 비롯한 생산현장에 찾아가 걸린 문제들을 풀며 군중이 곤난해하는 문제, 아파하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주게 되였다. 이것은 생산자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업수행에서 자각적열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게 하였으며 당과 대중의 혈연적련계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전당의 일심단결,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이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우리 당의 위력은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제 6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의 강화

우리 당은 주체형의 혁명적당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풍부한 경험과 업적을 과학적으로 집대성하고 그것으로 간부들과 당원들을 무장시키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다.

우리 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으로 간부들과 당원들을 무장시키는 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우리 당의 혈통을 순결하게 계승하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였다.

우리 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을 깊이 연구하는것은 조성된 정세와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의 절실한 요구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는 당건설에서 혁명적원칙을 포기하고 당의 령도를 약화시키는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이 우심해지고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엄중한 후과들이 조성되고있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원칙과 당의 령도적역할에 대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과 리론을 철저히 옹호하며 심화발전시키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나섰다.

다른 한편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는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경험을 연구하고 따라배우려는 지향이 전례없이 높아가고있었으며 많은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주체의 혁명적당을 건설한 경험과 리론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끊임없이 찾아오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86년 5월 김일성고급당학교 창립 40돐에 즈음하여 집필하신 강의록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

험》을 발표하시였다.

이 고전적로작에서는 우리 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이 전면적으로 총화되고 주체의 당건설리론이 집대성되였다.

로작에는 먼저 혁명적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닦고 그에 토대하여 주체형의 당창건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력사적경험이 서술되였다.

로작에서는 다음으로 로동계급의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본질적특성과 기본사명이 뚜렷이 밝혀졌으며 특히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당건설의 근본원리와 기본원칙이 깊이 분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실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 건설의 근본원리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345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당건설의 근본원리는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는 원리이며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정치를 실현하는 기본방식과 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과학적인 원리이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실현하는 당건설의 근본원리를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참답게 옹호할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당건설에서 견지하고있는 기본원칙은 첫째로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며, 둘째로 당이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는것이며, 셋째로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34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당건설의 기본원칙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본성과 그로부터 출발하는 당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는 혁명적원칙이다.

우리 당은 당건설의 이 기본원칙들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전

당에 유일적인 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당으로, 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 그리고 혁명전통을 변함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우리 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위력이 실증된 당건설의 이 근본원리와 기본원칙들에 대한 리론은 로동계급의 당건설리론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운 독창적인 사상리론으로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건설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로작에서는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경험이 종합되였다. 특히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문제를 비롯하여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대렬을 정예화하며 당안에 민주주의를 발양시키고 혁명적규률을 세우는 문제,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며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문제들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위한 우리 당의 투쟁 성과와 경험을 종합일반화하심으로써 당내부건설에 관한 주체의 리론을 집대성하시였으며 당을 그 어떤 풍파와 시련에도 끄떡하지 않는 필승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나가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지침을 안겨주시였다.

로작에서는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경험이 분석되였다. 여기에서는 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건설하며 당의 외곽단체인 근로단체들을 조직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문제들과 통일전선사업을 잘하고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며 당활동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는 문제들이 깊이 분석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행정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성과와 경험들을 종합일반화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언제나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필승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게 하는 리론실천적무기를 마련해주시

였다.

로작에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경험이 종합일반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당이 혁명과 건설을 옳게 령도하기 위하여서는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능숙하게 조직지도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주권문제를 옳게 해결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밀고나가야 하며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 혁명무력에 대한 당의 령도를 옳게 보장하며 나라의 전반적인 대외사업을 통일적으로 령도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심오히 분석론증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 경험과 리론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구현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로작에서는 당의 령도예술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경험이 서술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령도예술을 확립하는것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특히 대중령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02페지)

당의 령도예술은 조직과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당의 활동방식이며 령도적수완이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군중로선을 구현한 주체의 령도예술이며 그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혁명적인 당사업체계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 사업작풍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당의 투쟁경험을 과학적으로 일반화하시면서 주체의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 사업작풍의 원칙적요구와 기본내용들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시였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리론에서 전혀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위대한 리론이다.

로작에서는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자로 전망성있게 건설해나갈데 대한 문제가 전면적으로 밝혀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특히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야 하며 당의 위업은 공산주의가 건설된 다음에도 계속되며 따라서 공산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당을 강화발전시켜야 한다는것, 이 요구에 맞게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기 위하여 전당을 주체사상화하여야 한다는것 등을 깊이 해명하시였다.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자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리론이 독창적으로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건설리론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게 되였으며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가장 옳바른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은 새로운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건설한 빛나는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이며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혁명적당건설의 대강이다.

로작은 로동계급의 당건설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완성시킨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며 로동계급의 당 건설에서 혁명적원칙을 견결히 옹호관철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로작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당을 건설하고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길을 환히 밝혀주는 당건설의 참다운 교과서로, 그들을 자주위업수행에로 힘차게 고무추동하는 혁명적기치로 되였다.

당은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실천에 구현하면서 당을 더욱 강화하며 당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당은 당일군들과 모든 당원들이 우리 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정확히 구현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였으며 각급 당조직들이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의 당건설 원리와 기본원칙들을 철저히 구현

함으로써 그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였다.

당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의 령도를 혁명적군중로선과 옳게 결합시켜 구현하기 위하여 내놓으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이라는 관점에 확고히 서서 사업하며 그들속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 세도를 비롯한 온갖 그릇된 사업 방법과 작풍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 당은 인민을 위하여 충실하게 복무하고 인민대중은 당을 끝없이 신뢰하며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혁명정신이 전당과 온 사회에 차넘치게 되였으며 우리 근로자들속에서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혁명적구호밑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90년 10월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에서 우리 혁명과 세계 혁명 앞에 지닌 우리 당의 임무가 보다 무거워지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라는것을 심오히 분석론증하시고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4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로작에 접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우리 당을 창건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60여성상 변함없이 당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커다란 궁지와 자부심을 더욱 가슴깊이 새기면서 당과 수령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의 한마음으로 들끓었다.

이러한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중앙통신사의 한 세포 당원들은

세포총회를 가지고 우리 당과 인민을 주체위업의 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영원히 당을 따라 충성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며 그 어떤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의리를 지니고 당중앙을 목숨으로 옹위할것을 엄숙히 맹세하는 편지를 삼가 올리였으며 뒤이어 조선문학창작사의 시인들도 충성의 편지를 올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편지들을 받아보시고 1990년 11월과 12월 그들에게 주체의 혁명위업 완성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끌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 사랑이 담긴 회답서한을 각각 보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회답서한은 전체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을 한없이 격동시켰으며 그들로 하여금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위하여 대를 이어 충성과 효성을 다할 철석같은 신념을 더욱 굳게 하고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게 하였다.

이것은 실로 영광스러운 우리 당 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는 락원의 10명 당원들과 강선의 로동계급, 《태성할머니》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와 더불어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동지적사랑으로 굳게 맺어진 수령과 전사,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관계를 보여주는 숭고한 화폭이였으며 당과 수령은 인민을 굳게 믿고 인민은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일심단결의 공고성과 계승성을 힘있게 과시하는것이였다.

우리 당은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킴으로써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며 주체의 혁명적기치, 사회주의의 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더욱더 앞당길수 있게 되였다.

제 7 절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강령적과업 제시. 제3차 7개년계획의 성과적추진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이 급속히 추진되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이 당면한 문제로 일정에 오르게 되였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강령을 전면에 내세우고 투쟁하는것이 절실히 요구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86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적로정을 심오히 분석개괄하시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과 강령적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와 그 실현방도들에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기본문제는 사람과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76페지)

사회주의는 본래의 의미에서 로동계급의 사회이다. 완성된 사회주의사회는 사회의 모든 분야가 로동계급화된 사회, 다시말하여 사람들이 모두 로동계급화되고 사회관계가 다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된 무계급사회이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에는 로동계급과 농민만이 계급으로 남아있게 되며 따라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이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시기 사회개조의 중심과업이며 사

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실현방도를 뚜렷이 밝힌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제건설을 잘하여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자주적인 정치사상생활과 함께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되여야 사회주의제도가 참으로 위력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빨리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경제건설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경제건설목표와 그 실현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경제건설분야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고도로 현대화되고 부문구조가 완비된 주체적인 경제를 건설하는것이며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당면하게 수행하여야 할 제3차 7개년(1987—1993)계획의 기본과업과 그 성과적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에 대하여서도 환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

전한 승리를 위하여》는 사회주의완전승리에 관한 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불후의 고전적로작이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으며 특히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제3차 7개년계획수행에 힘을 집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82페지)

제3차 7개년계획에서는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한층더 강화하고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며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 총체적으로 공업생산은 1.9배, 농업생산은 1.4배이상 장성시킬것이 규정되였다.

제3차 7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목표이다.

당은 제3차 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대진군에로 불러일으키였다.

당은 1987년 7월 제3차 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총동원대회를 열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 전망계획을 1년반이상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호소하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소동이 발광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제3차 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에 총동원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

야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켜나갔다.

당은 제3차 7개년계획수행에서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기술적개조를 다그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82페지)

제3차 7개년계획기간의 과학기술발전의 중요목표는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조를 실현하는것이였으며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기계공업과 극소형전자공업, 로보트공업 발전에 큰 힘을 넣고 이 부문의 생산토대를 튼튼히 꾸리며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과 전자, 자동화요소 장치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하였다.

당은 이 요구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과학자, 기술자들과 광범한 근로자들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였다.

당은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건설에 힘을 집중하고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추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전망계획 수행에 들어서면서 기간공업부문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을 경제건설의 전략적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이를 위한 기본건설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시였다.

당은 제3차 7개년계획수행의 첫해부터 사회주의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벌리면서 태천발전소 건설과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제2계단 확장공사를 비롯하여 전력, 석탄, 강철, 유색금속 부문의 생산능력을 늘이기 위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도록 하였으며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와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방대한 규모의 대상건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

당은 사회주의대건설행군에 떨쳐나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200일전투에로 조직동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88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

국회의에서 공화국창건 40돐을 앞두고 전당, 전민이 총동원되여 200일전투를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다시한번 일대 혁명적고조를 일으킬것을 호소하시였으며 전체 당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보내며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발표하도록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00일전투의 승리를 위하여 중요 공장, 기업소들에 당일군방조소조를 파견하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우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200일전투의 불길속에서 혁명의 수도 평양시와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련이어 솟아올랐으며 제3차 7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동력기지, 금속기지, 화학공업기지 건설을 비롯한 방대한 규모의 중요대상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전투기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계획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공업생산은 1987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122% 장성하였다.

당은 200일전투에서 승리한 혁명적기세로 다시한번 200일전투를 벌리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40돐기념 경축보고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와 이무렵에 있은 다른 회의에서 하신 교시에서 우리 당과 인민을 새로운 혁명적고조에로 불러일으키시였으며 다시한번 200일전투를 벌려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결정적돌파구를 열어놓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이 200일전투의 계주봉을 튼튼히 틀어쥐고 200일전투가 2000일전투, 2만일전투로 이어지게 할데 대한 구상을 펼치시면서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1988년 9월에는 전국영웅대회가 소집되였다.

대회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웅적투쟁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주체의 혁명위업 완성을 힘있게 다그칠 충성의 결의밑에 새로

운 200일전투에서 영웅적위훈을 발휘할것을 호소하였다.

전국영웅대회의 호소에 호응하여 우리 인민은 새로운 200일전투에서 대중적영웅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200일전투기간에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보다 조화롭게 하고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500여개 대상건설을 완공한것을 비롯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높이 세운 전투과제들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두차례에 걸친 200일전투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의 정력적지도에 의하여 이룩된 고귀한 결실로서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과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실증하였다.

당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다그치기 위하여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갔다.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할뿐아니라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87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2차회의를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가까운 년간에 사회주의농촌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을 완성할 작전적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혁명적조치를 취하시였다.

당은 농촌에서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적극 다그쳐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빨리 높이는데 선차적관심을 돌리면서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과업을 철저히 실현하여 농업생산을 현대적인 기술공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고 모든 농장들에서 다수확군쟁취운동이 더욱 힘있게 벌어졌으며 당이 제시한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

라는 구호밑에 농사를 자체의 힘으로 잘 지어나가기 위한 운동이 널리 벌어졌다. 농촌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도 2,000리의 물길을 새로 건설하여 대동강과 례성강, 압록강과 대령강을 하나의 대관개망으로 련결시키고 서부지구 곡창지대의 모든 논밭들에 관개수가 흘러넘치게 하는 천지개벽을 이룩한것을 비롯하여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더욱 완성하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 전기화의 성과를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 수준을 훨씬 높일수 있게 되였다.

당은 농촌경리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주체적인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더욱 개선하며 특히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그 결과 협동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가 강화되고 협동적소유와 전인민적소유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가 더욱 밀접해졌으며 이 과정에 주체농법의 요구가 철저히 관철되여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기 위한 모든 조건들이 성숙되여갔다.

당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제3차 7개년계획수행의 첫 3년간에 이룩된 성과를 공고화하면서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자신만만한 투지와 신심을 가지고 격동하는 력사의 흐름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하며 희망찬 1990년대에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려야 합니다.》(《신년사》, 1990년, 단행본, 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을 1990년대에 우리 당과 인민이 수행하여야 할 총적과업으로 제시하시였으며 1990년 1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7차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전군중적운동을 벌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가 은을 내게 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다시

한번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전당, 전국, 전민이 전원회의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당은 1990년대의 새로운 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1990년 2월에 진행된 《9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전국생산혁신자대회를 비롯하여 인민경제부문별 대회와 열성자회의들을 진행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혁명적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새로운 대상 건설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을 일으켜 제3차 7개년계획수행을 앞당겨나갔다.

제 8 절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큰 주의를 돌리였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절실한 요구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추진하며 제3차 7개년계획의 거창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였다.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생산의 높은 장성을 이룩하는것은 세계경제발전의 기본추세로 되였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우리 나라를 세계 선진국가들의 대렬에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도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하였다.

현시기 국제적으로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나라들의 과학기술발전을 방

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 문제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적인 문제로 나섰다.

우리 당은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이 모든 요구들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내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9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82년 2월 과학기술부문 일군협의회에서와 1983년 3월 과학원 과학자들앞에서 하신 력사적연설 **《과학기술연구사업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할데 대하여》**와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히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85년 8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방향을 구체화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혁명적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원료와 연료, 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기계설비들을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1986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절박한 과업들을 토의하였으며 1988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높은 목표

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제6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는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세우고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을 비롯한 중요과학부문들을 급속히 발전시켜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선진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1988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는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 공업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이 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당은 각급 당조직들에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고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전체 당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발전에서 당의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이끌었다.

당은 우선 일군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게 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을 정확히 작성집행하도록 하였으며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일군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도와주게 하였다.

당은 과학기술연구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데 큰 주의를 돌리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고 최신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도록 하였다.

당의 지도밑에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이 과정에 나라의 원료와 연료, 동력 자원을 널리 개발리용하며 우리 나라에 없는것은 다른것으로 대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생산의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를 실현하고 농업과 수산업을 현대생물학의 성과에

토대하여 발전시키는데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기초과학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고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전반적으로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는데서 큰 걸음을 내디디게 되였다.

당은 과학기술연구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것과 함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나가며 누구나 다 새 기술의 창조자, 혁신자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힘과 지혜를 적극 조직동원하는 동시에 광범한 대중을 이 사업에 널리 참가시킬때에만 성과적으로 보장될수 있다.

당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전망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광범한 군중을 불러일으켰으며 직맹, 사로청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을 높여 대중속에서 제기되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지지하여주고 떠밀어주도록 하였다.

당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 사이의 창조적협조와 련계를 강화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그리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이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힘을 합쳐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특히 실천에서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휘된 《4.15기술혁신돌격대》,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를 비롯한 돌격대운동을 계속 강화하고 《모범기술혁신공장》(직장, 작업반)창조운동을 벌려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과정에 사회적으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광범한 군중이 기술혁신과 발명사업에 참가하게 되였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되여갔다.

당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현대 과학과 기술의 빠른 발전은 그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84년 7월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력사적인 서한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고등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이고 대학들에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술교육체계를 정비하고 완성해나갈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당은 고등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교육수단들을 더욱더 현대화하며 과학자후비양성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대학들에 대한 지도사업을 강화하였다.

당은 과학기술발전의 현대적추세에 맞게 고등교육의 규모를 늘이고 질을 높이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당은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수 있도록 그 양성규모를 늘이고 새 대학과 학과지표들을 더 내오도록 하였다. 당이 취한 조치에 의하여 여러 부문의 단과대학들과 고등전문학교 그리고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과 같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기관들이 많이 나오게 되였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기술공학을 전공하는 기술자, 전문가 양성기지가 더욱 강화되였다.

당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들에서 기초기술교육을 강화하는 토대우에서 전문기술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이며 기초과학부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들에 현대적인 실험설비들과 자재들을 원만히 보장하고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게 하였다.

대학들에서 과학연구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능력있는 기술자, 전문가들과 급수높은 기능공들이 수많이 양성되게 되였으며 20대, 30대의 박사, 준박사들이 많이 자라나 과학기술핵심으로 활동하게 되였다.

당은 과학기술발전의 현대적추세에 맞게 사회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데도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당은 이를 위하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중요한 기지의 하나이며 통신종합대학인 인민대학습당과 전국도처에 꾸려진 도서관들을 실속있게 운영하여 사회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룡양광산 금산갱과 안주군 상서협동농장 청년분조에서 타오른 모범을 따라 모든 근로자들의 지식수준을 대학졸업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당은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라는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고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게 하였다.

당의 령도밑에 능력있는 기술자, 전문가들이 더 많이 자라나고 사회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이 빨리 높아짐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게 되였다.

제 9 절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인민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이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는데 계속 커다란 관심을 돌려 가까운 앞날에 모든 근로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336페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6차대회에서 인민들의 물

질문화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1982년 4월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합동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먹는 문제를 잘 풀어야 하며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84년 2월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농촌경리와 수산업을 빨리 발전시키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였다.

당은 1,500만톤의 알곡고지 점령을 위하여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의 완성을 다그치고 이미 실현된 수리화와 전기화의 성과를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간석지개간과 새땅찾기운동을 적극 벌려 부침땅면적을 훨씬 늘이고 농작물재배방법을 더욱 과학화해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축산업, 과수업을 발전시키고 남새농사를 잘 지어 고기, 알, 과일, 남새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게 하였다.

당은 수산부문에 힘을 넣어 고기배들을 현대화, 만능화하고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며 수산물가공기지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바다가양식사업을 적극 발전시키게 하였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경공업혁명을 일으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큰 전환을 가져오는것이 중요하였다.

당은 이미 있는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며 새로운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을 많이 건설하는 동시에 중앙공업기업소들에 생활필수품 직장, 작업반을 많이 내오고 도시와 로동자구, 협동농장들에 가내작업반과 부업반들을 널리 조직하여 여러가지 일용잡화를 비롯한 생활필수품과 식료품 생산을 부쩍 늘이도록 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생산을 정상화하여 경공업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데서 원료, 자재 보장문제의 해결

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경공업공장들에 원료와 자재를 넉넉히 대주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시였다. 이와 함께 인민소비품생산을 전군중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84년 8월 3일 평양시경공업제품전시장을 돌아보시면서 인민소비품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하여 전군중적인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 벌어지게 되였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은 군중적으로 내부예비를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고 그들의 창발성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게 하는 폭넓은 대중운동이다.

이 운동을 통하여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가내작업반, 부업반과 가내편의봉사원대렬이 늘어나고 그들의 생산활동이 활발히 벌어진 결과 4년동안에만 하여도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은 3.4배로, 그 품종수는 1만여종으로 늘어났다.

당은 제3차 7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선후 경공업혁명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 계속 큰 힘을 넣었다.

1989년 6월에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6차전원회의가 소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경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획기적전변을 일으키기 위한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을 세우고 집행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빨리 발전하는 경공업에 원료, 자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화학공업발전에 더욱 큰 힘을 넣어 가까운 몇해사이에 화학섬유, 염화비닐, 폴리에틸렌, 물감, 화학세척제와 여러가지 보조자재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과업을 중요하게 내세웠다.

전원회의후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당은 경공업부문에 투자를 늘여 방직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을 더욱 현대화하고 원료, 자재 보장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였다. 특히 경공업원료보장의 믿음직한 종합적대화학기지인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1989년 10월에 1단계 조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제2단계 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가게 되였으며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와 여러가지 합성수지생산기지, 가소제생산기지 건설을 비롯한 수많은 대상건설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였다.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1990년 6월에 전국경공업대회는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에게 《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시였다.

서한은 경공업혁명의 본질과 그 의의를 과학적으로 깊이 밝히고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 그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는 문제, 경공업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소비품생산을 군중적운동으로 벌리는 문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경공업을 적극 지원하는 문제 등 경공업혁명수행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과학적인 방도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제시하였다.

당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봉사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근로자들의 날로 늘어나는 다양한 생활적요구는 대부분 봉사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봉사혁명을 일으켜 봉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생산된 소비품을 인민들에게 더 잘 공급하고 사회급양과 편의봉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봉사혁명이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당은 봉사혁명방침에 따라 인민들에게 상품이 골고루 차례지도록 상품공급체계를 바로세우고 상업시설을 현대화하며 특히 농촌과 중요공장지구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잘하도록 하는데 주의를 돌리였다. 이와 함께 사회급양, 편의봉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데 힘을 넣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생활에서 문화성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봉사기지들을 훌륭히 꾸림으로써 편의봉사사업의 전반적수준을 높이도록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시에 창광원이 현대적인 위생문화시설을 다 갖춘 종합적인 편의봉사기지로 꾸려지고 이것을 본보기로 하여 각 도소재지와 군소재지에도 창광원식편의봉사기지가 꾸려지게 되였다.

이처럼 상품공급사업과 사회급양사업, 편의봉사사업을 비롯한 모든 봉사사업이 결정적으로 개선강화됨으로써 인민들의 끊임없이 늘어나는 생활상 수요는 보다 원만히 충족되여갔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살림집문제를 높은 수준에서 해결하는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평양시와 도소재지를 비롯한 도시들에 현대적인 주택거리들을 일떠세우고 농촌에도 문화주택들을 널리 건설하여 온 나라의 살림집면모를 짧은 기간안에 일신시키도록 하시였다.

씨리카트벽돌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대규모의 부재공장들이 짧은 기간에 새로 일떠서고 건설공법에서 혁신이 일어났으며 도시와 농촌의 특성에 맞는 시범살림집을 본보기로 하여 우리 인민의 기호에 맞는 현대적인 살림집건설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평양시에 창광거리, 문수거리, 안상택거리, 광복거리 등 새로운 현대적인 주택거리들이 련이어 형성되고 제3차 7개년계획의 첫 2~3년에만 하여도 수만세대의 살림집들이 건설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살림집건설이 대대적으로 계속되였다. 1990년—1991년 2년동안 평양시에 5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 새로운 웅장한 주택거리인 통일거리가 일떠서게 되였다.

도소재지들을 비롯한 지방도시들, 군소재지들, 농촌리들에도 문화적이고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수많이 건설되였으며 도시는 물론 농촌까지도 중앙난방화, 가스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당은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도시와 농촌에서 해마다 15만~20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새로 일떠세워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갔다.

국가가 책임지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을뿐아니라 국가로부터 안정한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을 보장받고 거저나 다름없는 식량공급제 그리고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의 혜택을 누리고있으며 이러한 국가적혜택은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적재부가 늘어남에 따라 계통적으로 확대강화되여갔다.

제 10 절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며 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

우리 당은 198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조성된 복잡다단한 세계정세에 대처하여 혁명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취하였다.

이 시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계속 추구하면서 이른바 《평화적이행》전략을 들고나와 사회주의나라들을 와해시키려는 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에 사상, 문화적으로 침투하여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원조》를 미끼로 하여 경제적으로 매수하며 반사회주의분자들을 부추겨 사회정치적혼란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나라들을 자본주의에로 되돌려세우려고 미쳐날뛰였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에 의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심상치 않은 사태들이 련이어 일어나고 사회주의위업은 심각한 좌절과 시련을 겪게 되였으며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제도자체가 와해되는 엄중한 현상까지 빚어지게 되였다. 이러한 정세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고수완성해나가기 위한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는것을 초미의 과제로 제기하였다.

우리 당은 세계정세발전의 추이를 예리하게 분석판단한데 기초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기 위한 혁명적조치들을 진공적으로 취해나갔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에게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켜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는데 힘썼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와해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실태는 참으로 심각한 교훈을 남기고있었다. 이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와해상태에 빠지게 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사회주의제도를 모든 면에 걸쳐 확고히 세우지 못하고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시키지 못하였으며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드팀없는 신념을 가지게 하지 못한데 있었다. 경험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제대로 발양시키지 못하고 인민들속에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깊이 심어주지 못할 때에는 사회주의제도자체를 튼튼히 고수해나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여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를 비롯한 여러 고전적로작들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히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여러 기회에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과 그에 추종하여 자본주의로 되돌아가려는

반동들의 책동의 반혁명적본질을 날카롭게 폭로비판하시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그것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특히 1991년 5월에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관한 주체의 리론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시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입니다.》(《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단행본, 2페지)

우리의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라는것으로서 특징지어진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시대의 새로운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확고히 기초하여 혁명을 추진시켜왔기때문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할수 있었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회주의의 기본특징, 그 우월성과 공고성의 근원이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정확히 구현함으로써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를 철저히 옹호하는 사회주의로,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로 되고 그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 되였으며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인 집단주의를 옳게 구현하여 집단의 리익을 우위에 놓고 집단의 리익속에서 개인의 리익을 실현해나가는 사회주의로 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요구뿐아니라 모든 민족의 자주적권리와 세계인민들의 자주적지향을 다같이 철저히 옹호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 되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근본적우월성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확고히 마련해주고있는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단행본, 17페지)

원래 사회제도는 사람을 위한것이며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것만큼 그 우월성은 단순히 생산력의 발전을 보장하는 정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도에 따라 규정되여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우리 인민에게 보장해주고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와 사회주의적리념에 맞는 가장 값있고 보람찬 생활이다.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우선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치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정권을 자기 손에 장악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의 평등한 성원으로서 동등한 정치적권리를 가지고 모든 주권행사와 국가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으며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리고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참다운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구현되여 인민대중에게 자유로운 사회정치활동의 권리와 함께 로동에 대한 권리로부터 먹고 입고 쓰고 살 권리, 배우며 치료받을 권리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모든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인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여있을뿐만아니라 그것들이 원만히 실현될수 있는 제반 사회적조건들도 갖추어져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로동계급의 당조직과 당이 령도하는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정치조직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함으로써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고 값높은 생활을 누리고있다.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그들이 자유롭고 풍요한 경제생활을 보장받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을 경제생활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고있으며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관리가 인민대중자신에 의하여 실현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로동에 대한 권리와 창조적로동생활을 보장하고있을뿐아니라 기술혁명을 다그쳐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다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마련해줌으로써 창조적로동생활을 더욱 보람있는 생활로 되게 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인민들에게 평등하고 유족한 물질생활을 보장해주고있으며 생산력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줌으로써 인민들의 경제생활을 물질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그들이 정신문화적재부의 창조자일뿐아니라 그 향유자로 되며 고상한 사상문화생활을 누리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고있으며 인민대중이 로동계급의 완성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생활을 누리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문화생활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인간의 본성적요구를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문화생활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창조적능력과 자질을 소유한 힘있는 존재로 자라나고있으며 사회주의적민족문화가 찬란히 개화발전하여 인민들이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또한 공산주의도덕기풍이 확립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 혁명적량심을 지니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고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불패의 위력을 나타내고있으며 그 위력은 무엇보다도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에 확고히 기초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입니다.》(《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단행본, 39페지)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영원한 생명력으로 되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에 원천을 두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과 현명한 령도로 인민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시켜주시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자애로운 어버이로 끝없이 존경하고 높이 우러러 모시며 수령님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확고히 실현되고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은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으로서의 자기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전투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왔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에게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수령이 제시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있다.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끝없이 사랑하며 인민은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받들어나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이다.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다. 이 위력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보장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관한 주체의 리론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를 자기의 결심에 따라 자기의 힘에 의하여 자기 식으로 훌륭히 건설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 사회주의위업승리에 대한 신념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였으며 그 어떤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게 되였다. 또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관한 주체의 리론이 제시됨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결정적타격을 받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에 관한 로동계급의 리론이 더욱 발전풍부화되였다.

참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관한 주체의 리론은 우리 나라에서 주체위업의 승리적발전을 확고히 담보하는 혁명의 지침이며 국제적으로 사회주의를 심각한 좌절과 시련에서 구원하고 그 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놓은 불멸의 전투적기치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식 사회주의에 관한 주체의 리론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였다.

당은 우선 당원들과 인민대중 속에서 주체사상교양, 특히 우리 식 사회주의의 기본특징과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견결히 반대하며 현대수정주의의 그 어떤 사소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당은 우리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기에 힘썼으며 모든 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관철하며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화하고 그 우월성이 최대한으로 발양되도록 이끌어나갔다.

당은 특히 사회주의위업의 향도력인 당을 강화하기에 주력하였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며 혁명위업의 승패를 결정하는 사활적문제이다.

일부 나라들에서 이미 수립된 사회주의제도가 훼손되고 와해상태에 이르게 된 주되는 원인은 다름아닌 로동계급의 당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데 있었다. 그 나라들에서는 당이 혁명적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무력해져서 령도기능을 상실한데로부터 반사회주의세력, 반동분자들이 대두하여 사회를 혼란시키고 사회주의제도를 허물기에 이르렀던것이다.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을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한 조직사상적대책들을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우리 당은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계속 힘있게 추진하여 당대렬을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당의 통일단결을 철석같이 다지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였다. 또한 당은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에 힘을 넣고 당과 대중의 혈연적련계를 더욱 강화해나갔으며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모든 분야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군들을 주체의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내부사업체계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정치적 지도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갔다.

우리 당은 특히 당의 말단기층조직인 세포를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었다.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당세포를 강화하여야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할수 있으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높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일관하게 당세포를 강화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림으로써 강력한 혁명적령도조직으로 발전할수 있었다.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특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악랄하게 지속되고있는 엄혹한 정세와 관련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철저히 옹호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91년 5월 전국당세포비서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력사적인 서한 《당세포를 강화하자》에서 우리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에 맞게 당세포들을 강화하며 모든 세포를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세포로 만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와 당이 의거하고있는 대중적지반을 공고화하는데서 그리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높이는데서 당세포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자!》라는 혁명적구호

를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모든 당원들을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로 키우고 당원들의 당생활에 대한 조직과 지도를 잘하며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과 그 수행방도, 당세포비서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도록 하게 하는 사업에 특별한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충성은 수령을 단결의 중심, 사상과 령도의 중심으로 모시고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드는 혁명전사의 정치사상적품성이다. 효성은 수령을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으로 모시고 어버이로 받들며 따르는 혁명전사의 도덕의리적품성이다.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것은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고 있는 혁명전사의 가장 중요한 품성이다. 충성과 효성은 혁명전사가 가지고있는 모든 정치사상적 및 도덕의리적 품성의 바탕이며 그것을 높이 발양시키는 기본요인이다.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수령의 은덕을 깊이 체득하여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우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림으로써 그들을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로 키워나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의 당건설리론의 근본특징이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고있으며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핵으로 하여 전개되고있는데 있다는것을 밝히시였다. 그리고 전당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적단결을 이룩하고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세우는 당조직건설원칙, 전당에 수령의 사상이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하는 당사상건설원칙,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군중로선을 관철하는 당령도예술건설원칙과 그 구현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 세포강화의 방향과 당조직건

설, 당사상건설, 당령도예술건설의 원칙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우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또한 그것은 로동계급의 당을 변질시키고 파괴하는 현대수정주의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위업을 고수발전시키기 위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였다.

당세포를 강화하는 문제와 당건설원칙들에 대한 새로운 해명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로동계급의 당건설리론발전에 이바지한 또하나의 위대한 력사적공적으로 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천명하신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높여 사회주의의 혁명적기치를 확고히 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어나갈수 있었다.

제 11 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당의 활동.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강화

우리 당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의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더욱 굳게 단결하여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7권, 8페지)

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

문제를 민족공동의 요구와 의사에 맞게 전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빨리 해결할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준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다.

1980년 11월 공화국북반부의 제 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북과 남, 해외의 각 정당, 각파, 각계각층 대표들을 망라하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준비위원회를 내오기 위한 예비회의를 가질것을 제의하는 편지를 남조선과 해외에 있는 각계 인사들과 동포들에게 보내였다.

1981년 8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한 방도를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민족통일촉진대회를 소집할것을 제의하는 제 정당, 사회단체들의 련합성명을 발표하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았다.

이로부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수 있는 제반 조건들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였다.

무엇보다도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평화통일의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1984년 1월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련합회의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에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기 위하여 우리와 미국과의 회담에 남조선당국도 참가시키는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3자회담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밀고나가면서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접촉과 대화를 마련하기 위한 온갖 계기를 만들기에 힘썼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84년 8월말과 9월초에 남조선에서 수십만의 수재민이 생기자 지체없이 그들에게 동포애적구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40년의 분단력사에서 처음으로 5만석의 쌀과 10만톤의 세멘트, 50만메터의 천과 많은 의약품들을 남조선수재민들에게 전달하게 되였다.

이를 계기로 북과 남사이에는 접촉과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였고 오랜 기간 격페되였던 장벽의 문이 열리고 북남 경제회담과 적십자단체들사이의 회담이 여러차례 진행되였으며 북남국회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접촉도 진행되였다.

그리고 조국해방 40돐을 계기로 민족분단력사에서 처음으로 북과 남사이에 적십자 예술단과 고향방문단의 호상방문이 실현되였다. 북과 남사이에 여러 분야의 회담이 진행되고 작은 범위에서나마 사람들이 평양과 서울을 오고간것은 온 겨레들에게 기쁨을 주었으며 이것을 계기로 전민족적범위에서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이 한층 더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반공소동과 전쟁연습을 대대적으로 벌리면서 북과 남사이의 정치적대결과 군사적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길로 나갔다.

정치적대결상태와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 군사당국자회담제안과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 대규모적인 단계적무력축감제안을 내놓았으며 15만여명의 조선인민군 병력을 떼내여 사회주의대건설장에 돌린데 뒤이어 10만여명의 병력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실제적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쌍방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이 참가하는 북남련석회의 소집제안을 비롯하여 북남국회련석회의제안, 조미국회회담제안 등 여러가지 평화와 통일 제안들을 거듭 내놓고 여러 갈래의 북남대화도 적극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도당은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1988년 7월에는 《7.7특별선언》이라는것을 발표하여 북과 남이 《교류》와 《교역》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며 그 막

뒤에서 《교차접촉》과 《교차승인》놀음을 벌려 분렬을 고정화하려는 저들의 범죄적기도를 정책화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89년 《신년사》에서 련방제통일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대표할수 있는 지도급인사들로 북남정치협상회의를 가질데 대한 방안을 내놓으시였다. 북남지도급인사들의 정치협상회의를 가질데 대한 방안은 가장 쉽게 민족의 의사를 모으며 통일방안에 대한 민족적합의를 이룩하게 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애국애족적이며 현실적인 방안들에 고무된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북과의 광범한 대화를 요구하여 나섰다.

이렇게 되자 남조선괴뢰도당은 통일대화의 《창구일원화》를 떠벌이면서 저들의 승인이 없이 북과 접촉하고 대화하려는 사람들을 마구 탄압하는 배족행위를 감행하였다.

조국통일은 어느 한 당파나 세력의 힘으로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온 민족의 힘을 모아야 이룩될수 있는 거족적인 사업이다. 이로부터 1989년 3월 공화국북반부의 정당, 단체들의 련합회의는 북과 남사이의 민간급대화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련합성명을 발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90년 《신년사》에서 온 민족의 념원을 반영하여 북과 남사이의 장벽을 마스고 자유래왕을 실현하며 북과 남이 서로 전면개방할것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상태의 완화와 평화보장, 북남사이의 자유로운 래왕과 전면개방의 실현, 북과 남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 원칙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의 발전과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의 형성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 5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이 제안들은 우리 나라 통일문제를 공명정대하게 해결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안들이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개 방침을 비롯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온 민족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과정에 통일열의는 전민족적범위에서 날로 더욱 앙양되였다.

우리 당과 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1990년 9월부터 북남고위급회담이 열리여 북남대화에서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였다. 한편 1990년 8월 판문점에서는 남조선 《전민련》의 창립과 더불어 제안되고 추진되여온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1차 범민족대회, 1991년 8월에는 판문점과 서울, 도꾜에서 제2차 범민족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그리고 평양과 서울, 해외에서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체육인, 예술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동포들이 서로 만나 여러가지 대화와 통일축제들을 벌렸다.

특히 1990년 11월 북과 남, 해외 동포들의 전민족적인 통일애국세력의 련합조직으로서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이 결성됨으로써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조국통일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계기가 마련되였다.

조국통일기운이 앙양되는 속에서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습니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주체사상의 진리를 깨닫고 북반부인민들과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려는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있습니다.》(《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단행본, 2페지)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에서 민족해방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1980년 5월 광주인민봉기를 계기로 하여 민족적으로, 계급적으로 더욱 각성된 남조선청년학생들은 강한 반미구호를 전면에 제기하

고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들은 1980년 12월에는 광주에서, 1982년 3월에는 부산에서 숭미사대주의사상문화적침투의 거점인 《미국문화원》에 불을 질렀으며 1982년 4월에는 강원대학교에서 저주로운 미국《성조기》를 불태우고 대중적반미자주화투쟁을 호소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1983년 9월에는 대구에 있는 《미국문화원》에 대한 폭파투쟁을 전개하였으며 1985년 5월에는 서울에 있는 《미국문화공보원》에 대한 점거투쟁을 벌렸다.

청년학생들이 지펴올린 반미자주화투쟁의 불길은 각계각층 군중속에 급속히 파급되였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은 미국에 광주학살만행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만행과 인권유린행위, 수입개방압력 등을 반대하여 싸웠으며 미제침략군과 핵무기철거를 주장하고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였다.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투쟁은 보다 광범한 대중운동으로 전환되고 대중조직에 의하여 목적지향성있게 조직진행되였으며 민족해방의 길을 따라 힘있게 전진하게 되였다.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투쟁과 결부되여 반파쑈민주화투쟁도 급속히 확대강화되였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사회의 민주화를 지향하여 《군사독재 타도》, 《민주주의기발을 세울 때까지 끝까지 싸우자》라는 구호를 제기하고 용감히 투쟁하였다.

청년학생들은 수많은 민주화투쟁단체들과 전남조선적인 투쟁조직을 내오고 반파쑈민주화투쟁을 더욱 적극화하여나갔다. 청년학생들은 로동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과의 공동투쟁, 련대투쟁도 힘있게 벌리였다. 특히 1985년에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온갖 탄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통일》, 《민중해방》, 《민주쟁취》의 구호를 들고 민족의 자주권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더욱 힘있게 벌어졌다.

1987년 6월 남조선인민들은 군부독재의 타도와 《직선제개헌》을

위한 전인민적항쟁에 떨쳐나섰다. 각계각층 인민들은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주헌법쟁취》 등의 구호밑에 집회, 시위, 롱성, 항의성명 발표, 단식투쟁 등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련일 벌리였다. 항쟁은 6월 10일 살인마 로태우역도를 《민정당대통령》후보로 지명하는 날을 계기로 남조선전역에서 대중적으로 폭발하였다. 인민항쟁에는 청년학생, 로동자, 농민, 지식인, 종교인, 재야정계 인사들이 참가하였으며 중소기업가와 상인, 일부 《공무원》들과 지어 전투경찰대원들까지 여기에 합세하였다. 6월 10일부터 29일까지의 20일간에만도 300여만명의 각계각층 군중이 항쟁에 참가하였다.

괴뢰도당은 10여만의 괴뢰경찰들과 수많은 특무들을 탄압에 내몰았으나 대중적항쟁을 억누를수 없어 결국 민주세력의 《직선제개헌》요구를 받아들이고 부분적인 《민주화조치》를 공약한 《6.29특별선언》이라는것을 내지 않을수 없었다.

6월인민항쟁은 조선민족의 강의한 자주정신과 기개를 보여준 영웅적투쟁이였으며 그 규모에 있어서나 조직성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 반미반파쑈인민항쟁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력사에 빛나는 장을 장식하였다.

로동자들의 투쟁도 치렬하게 벌어졌다. 1987년 7월—9월에 남조선전역의 광범한 로동자들이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적들은 로동자들의 대중적진출을 더는 억누를수 없게 되자 로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민주로조결성 등의 요구를 초보적으로나마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었다.

미제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으로 하여 전두환《정권》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로태우역도를 《대통령》립후보로 내세우고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놀음을 벌려 군사파쑈통치를 연장하는데로 나갔다.

1987년 12월에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는 투표자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1천 200만명의 인민들이 로태우역도를 반대함으로써 군정의 연장을 거부하고 민정을 요구하는 자기들의 의사를 뚜렷이 표시하였다. 이 투쟁은 그후 광주학살과 《5공비리》의 주범인 전두환, 로태우를 심판하기 위한 투쟁으로, 로태우《정권》불신임퇴진투쟁으

로 이어졌다.

1980년대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반미자주화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 목적지향성있게, 완강하게 진행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되였다.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어졌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시기 생활체험과 투쟁경험에 기초하여 미제를 민족분단의 원흉으로, 조국통일의 기본장애물로 락인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구호를 전면에 들고반미자주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남조선인민들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민족의 소망과 조성된 내외여론을 정확히 구현한 통일강령, 민족의 진로를 명시한 빛나는 홰불이라고 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결연히 일떠섰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속에서는 통일을 위한 여러가지 대중단체들이 조직되고 통일론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였으며 북과 남의 접촉과 대화를 주장하는 통일운동이 일층 강화되였다.

남조선의 대학총학생회의 련합조직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는 1988년에 6.10, 8.15남북학생회담, 《국토종단대행진》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남조선청년학생들을 불러일으켰다. 용감한 청년학생들은 괴뢰도당의 가혹한 파쑈적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양키는 제 집으로, 남북은 통일로》, 《가자 한나에서, 오라 백두에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판문점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피어린 싸움을 벌리였다.

《전대협》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온갖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공동참가를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렸으며 끝끝내 자기의 대표를 평양축전장에 파견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을 세계만방에 시위하였다.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는 청년학생들이 핵심적,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여기에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지식인, 종교인 등 각계각층 인민들이 대중적으로 합세하였다.

남조선민주세력의 련합전선조직인 《전국민족민주운동련합》(《전

민련》)은 《로동자, 농민, 진보적지식인이 중심이 되여 민주화, 자주화, 민주통일을 지향하여 투쟁하는것》이 이 단체의 총적목표라고 밝히고 범민족대회를 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였다.

남조선의 재야인사들은 7.4남북공동성명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오늘도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련방제통일》을 들고나왔다.

남조선의 민주단체들의 지도급인사들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올 의사를 표명해나섰으며 정치인, 종교인, 문화인, 청년학생을 비롯한 여러 계층 출신의 인사들은 로태우괴뢰도당이 북과 남의 각계각층의 민간급대화를 《창구일원화》의 구실밑에 악랄하게 가로막고있는 조건에서도 평양방문을 실현하여 자기들의 애국적인 통일의지를 과시하였다.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소수의 운동이 아니라 다수의 운동으로 전환되고 일부 계층에 국한된 운동이 아니라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대중적운동으로 확대되였으며 단순한 통일론의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련방국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통일혁명당은 자기의 지도적역할을 더욱 강화하였다.

통일혁명당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앙양되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요구에 맞게 당을 확대강화하고 강력한 혁명력량을 꾸리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통일혁명당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인민들속에 주체사상이 광범히 보급되고 주체사상은 그들의 투쟁의 확고한 지도리념으로 되였다.

1983년 2월 통일혁명당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반미투쟁의 요구에 맞게 반미자주화투쟁구호를 발표하여 그들을 반미자주화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1985년 7월 통일혁명당은 남조선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각당, 각파,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을 묶어세워 거족적인 반미민족해방운동에로 불러일으킬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정세와 통일혁명

당자체발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당의 명칭을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으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본래의 당 강령과 규약도 《한민전》의 성격과 정세변화에 맞게 《한국민족자주선언》으로 고치고 민족자주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당면강령을 제시하였다.

《한민전》은 공화국북반부에뿐아니라 꾸바, 일본, 수리아 등 나라에 자기의 대표부를 설치하고 그를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고무추동하고 세계 여러 나라 진보적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였다.

《한민전》은 《구국의 소리》방송과 신문 《구국전선》 등 여러가지 선전수단에 의한 정치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과 함께 해외동포들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도 더욱 확대강화되였다.

재일조선인총련합회에 결속된 70만재일동포들과 북미주, 서독을 비롯한 해외에서 살고있는 조국동포들은 숭고한 민족적사명감을 가지고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반대하며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해외동포들은 민족련합의 협의기구와 련락기구를 내오고 이를 통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서 공동보조를 취해나갔다.

1981년 11월에 오지리의 윈에서 진행된 북과 해외동포 기독자간의 대화는 북과 해외동포 기독자간의 리해와 화목을 두터이하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첫 통일대화에 이어 1982년 12월 핀란드의 헬싱키에서의 제2차 대화, 1984년 12월 오지리의 윈에서의 제3차 대화가 거듭되는 과정에 북과 해외 동포들사이의 대화는 그 내용과 규모가 급속히 발전하였다. 3차대화에 이르러서는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 반대, 남조선에서 핵무기철수와 핵전쟁위험 제거, 북과 미국, 남조선의 3자회담의 조속한 개최, 남조선에서 파쑈탄압중지와 민주화실현,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조, 교류의 실현, 해내외의 모든 애국력량의 단합의 성취 등 당면하게 나서는 초미의 문제들을 제의하였다.

해외동포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온갖 모략책동을 짓부시면서 《범민련》 해외본부와 지역본부들을 묶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더 확대발전시켜나갔다.

한편 북과 해외동포 학자들은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을 주제로 하여 여러차례 대화를 가졌으며 조국통일운동에 서로 힘을 합쳐나아갔다.

이렇듯 우리 당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이 급속히 확대강화됨으로써 전민족적범위에서 조국통일의 주체가 날로 더욱 강화되였으며 민족분렬을 끝장내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마련되게 되였다.

제 12 절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당의 활동.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의 빛나는 구현

1980년대에 이르러 자주성의 거세찬 조류가 세계의 모든 대륙을 휩쓸게 되였다.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자주의 길을 따라 전진하였으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이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여 싸웠다.

반면에 력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졌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제패를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와 와해책동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였으며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 전쟁 책동을 발광적으로 감행하였다.

조성된 정세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을 수호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요구에 맞게 세계혁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자주성의 시대적조류를 더욱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5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82년 4월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합동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과 그후의 여러 로작들에서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83년 5월과 1987년 9월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와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치는것을 현시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국적기업체가 늘어나고 자본의 국제화가 급속히 추진됨에 따라 제국주의자들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서로 결탁하게 되였으며 그들의 통치수법과 략탈수법이 더욱 교활해진것이 현대제국주의의 중요한 특징으로 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그리고 물질생활에서의 기형화, 정신문화생활에서의 빈궁화, 정치생활에서의 반동화가 현대제국주의의 반인민성과 부패성을 보여주는 자본주의사회의 기본특징을 이룬다는것을 새롭게 해명하시였다. 또한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이 더욱더 격화되고있는 자본주의세계의 내막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현대제국주의, 자본주의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사회주의의 승리의 필연성을 심오히 론증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온 세계의 자

주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자주화된 세계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된 세계이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는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외세의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나갈 때 실현된다. 온 세계가 자주화되면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유지할수 있으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된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쳐나가기 위하여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의 원칙과 반제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이 투쟁의 주체인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 식민지민족해방운동, 쁠럭불가담운동, 세계평화옹호운동을 비롯한 모든 반제자주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로써 제국주의련합세력에 집단적인 타격을 가하여 그 파멸을 촉진시켜야 한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 정책, 자주세력에 대한 온갖 분렬, 리간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세차게 벌리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자주성에 기초한 평등한 국제질서를 세우며 세계인민들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시대, 자주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 세계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게 하는 혁명적방침이다.

우리 당은 자주, 친선, 평화를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천명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여 온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나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며 인민들의 자주위업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가장 위력한 력량입니다.》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

자》, 단행본, 35페지)

우리 당은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와해시키기 위한 《평화적이행》전략에 매달리면서 사상문화적으로 침투하여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원조》를 미끼로 하여 경제적으로 매수하며 반사회주의분자들을 부추겨 사회정치적혼란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나라들을 자본주의에로 되돌려세우려고 교활하게 책동할수록 사회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투쟁하였으며 사회주의적원칙과 동지적협조의 정신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방문은 이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82년 9월과 그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신것은 조중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 사이에 피로써 맺어진 불패의 친선단결과 협조관계를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력사적사변으로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83년 6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조중 두 나라 당과 인민의 전투적인 친선단결을 대를 이어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84년 5월중순부터 7월초까지의 사이에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하시여 이 나라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면서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방문한 사회주의나라 당 및 국가 지도자들과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원칙을 견결히 고수해나갈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호상관심사로 되고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동지적인 의견을 나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제국주의자들과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적책동에 의하여 사회주의위업이 심각한 시련을 겪게 된 복잡한 정세에 대처하여 이무렵에 여러 력사적로작들에서 사회주의기치를 견결히 고수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사회주의원칙과 동지적협조의 정신에서 사회주의력량의 단결과 련대

성을 강화하기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우리 당은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견결한 나라들이 자주성과 동지적협조의 원칙에서 굳게 단결하고 반제평화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해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자들이 들고나온 이른바 《평화전략》의 반동적본질과 그 파산의 불가피성을 밝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의 승리의 필연성에 대하여 내외에 널리 선전하도록 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더욱 높이 발양시키며 그것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기회에 직접 체험하고 깊이 인식하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우리 당의 이러한 정력적인 활동은 세계 혁명적인민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반제자주의 길로 계속 힘차게 전진하도록 고무추동하였다.

우리 당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58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86년 6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중앙인민위원회 련합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에서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이 운동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이 운동의 리념과 근본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반제자주는 쁠럭불가담운동의 근본리념이며 그 어떤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나가는것이 이 운동의 근본원칙이다.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완전한 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음모책동에 속아넘어가 서로 반목질시하거나 싸우지 말며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에 단

결의 전략으로 맞서나가야 한다.

그리고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진심으로 도와주며 불평등한 낡은 경제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발전을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시는 한편 몸소 수많은 쁠럭불가담나라 당 및 국가 지도자들을 만나시여 쁠럭불가담운동안에 조성된 위기를 타개하고 이 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시였다.

우리 당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주요계기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중앙인민위원회 련합회의를 소집하고 쁠럭불가담운동발전과 관련한 원칙적립장을 밝히였다.

우리 당과 정부는 1981년 뉴델리에서 진행된 쁠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와 1983년과 1986년에 진행된 제7차, 제8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를 비롯한 중요회의들에서 쁠럭불가담운동의 리념과 원칙을 견결히 수호하고 이 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 당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이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이 나라들의 경제적자립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우리 당은 쁠럭불가담나라, 신흥세력나라들이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경제분야에서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집단적자력갱생의 기치밑에 남남협조를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인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우리 당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남남협조를 실현하며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고 이 나라들의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여러 국제회의들이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였다.

1981년 8월에 식량 및 농업 증산에 관한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토론회가 열린데 이어 1983년 9월에는 제1차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교육 및 문화부장회의가,

1987년 6월에는 남남협조에 관한 쁠럭불가담나라 상급특별회의가 세계의 커다란 관심속에 소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식량 및 농업 증산에 관한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토론회에 참가한 동서아프리카나라 농업부장협의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아프리카나라들의 농업발전을 위하여》와 제1차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교육 및 문화부장회의에 참가한 부장들앞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신흥세력나라들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남협조에 관한 쁠럭불가담나라 상급특별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자》는 회의참가자들의 일치한 지지찬동에 의하여 회의공식문건으로 채택되였다.

우리 당과 정부는 아프리카지역에 여러개의 농업과학연구소들과 시험농장들을 창설하는데 사심없는 원조를 주었으며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의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여러 분야에서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

우리 당은 자주성을 지향하며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선린관계를 맺고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경제문화적교류를 발전시켜나갔다.

당은 특히 자주적이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아세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었다.

우리 당은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반제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으며 사회주의동방초소를 믿음직하게 지키고있습니다.》(《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단행본, 27페지)

당은 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군비확장과 전쟁준비 책동을 저

지파탄시키며 다른 나라에 있는 군사기지들을 철페하고 침략군대와 핵무기들을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을 철수시키며 군사블럭을 해체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며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철페의 실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당은 특히 조선반도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면서 동북아세아와 남태평양, 구라파, 인도양, 중근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당은 《군축》과 《긴장완화》의 간판밑에 사회주의나라들을 무장해제시키고 힘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일것을 일관하게 강조하였다.

당은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는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회의들과 축전,정치행사들의 성과를 위하여 적극 활동하였다.

1983년 7월에 평양에서는 반제, 친선, 평화를 위한 세계기자대회가 진행되고 1986년 9월에는 조선반도에서의 비핵,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회의가 열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이 회의참가자들을 위하여 지침으로 되는 력사적인 연설들을 하심으로써 회의들의 성과를 크게 고무하시였다.

당은 《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라는 리념밑에 1989년 7월초에 평양에서 진행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그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많은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온 세계의 청년학생들과 혁명적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아세아에서 처음으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대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세계 5대륙의 180개 나라에서 온 청년학생대표들과 60여개의 국제 및 지역기구 축전대표들, 국가수반들을 비롯한 수많은 명예손님들이 참가한 평양축전은 축전력사를 새롭게 장식한 대축전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축전개막식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청년학생들은 시대의 선구자가 되자》에서 우리 시대 청년들의 사명과 그들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연설은 우리 시대 청년운동의 앞길을 휘황히 밝힌 불멸의 홰불로, 세계 진보적청년학생들에게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투지, 뜨거운 열정을 안겨준 고무적기치로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성대하게 진행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은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과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당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1982년부터 해마다 경사스러운 4. 15명절을 계기로 하여 전통적으로 진행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권위있는 국제예술축전으로서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예술인들의 커다란 관심을 집중시키고있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며 자주, 친선,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당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는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우리 나라는 세계의 백수십개 나라와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발전시키게 되였으며 많은 나라들과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비롯한 여러 조약들과 협정들을 맺게 되였다. 그리고 수많은 국제기구들과 단체들에도 가입하여 적극 활동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의 더 많은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인류공동위업에 더 큰 기여를 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국제적지위와 대외적권위가 날로 급속히 높아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정세가 매우 복잡한 가운데서도 1988년 9월에 진행된 공화국창건 40돐기념 경축행사에 세계 5대륙의 130여개 나라에서 수많은 대표단과 대표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1990년 10월 조선로동당창건 45돐경축행사에는 세계 5대륙의 126개 나라에서 276개의 대표단과 대표들, 당과 국가, 정부 수반들과 저명한 사회정치활동가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다시금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온 세계의 자주화방침과 자주, 친선, 평화를 기본리념으로 하는 대외정책을 일관하게 관철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게 되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길을 걸어왔다.

우리 당은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당건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으며 이 과정에 불멸의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을 쌓아올렸다. 이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 당은 인간과 사회, 자연을 개조하는 복잡한 투쟁, 제국주의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 안팎의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날카로운 투쟁속에서 강철의 대오로 단련되였으며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를 받는 강유력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자라났다.

우리 당은 자기의 혁명적원칙성과 견결한 반제혁명적립장, 로동계급의 국제적위업과 세계혁명에 이바지한 커다란 공적으로 하여 국제로동계급의 믿음직한 전위부대로 되였다.

우리 당의 주체위업 완성의 앞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당은 필승불패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새로운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조선로동당력사

낸 곳　조선로동당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91년 11월 13일　발행 1991년 12월 15일

ㄱ—05494